

CONTENTS

PART 1 청년마을 사업 및 청년마을 소개

I. 발간사 인사말

II. 청년마을 사업이란

III. 청년마을 사업, 걸어온 길

IV. 27개의 청년마을 소개

PART 2 청년마을 임팩트 스토리

I. Human Impact Sto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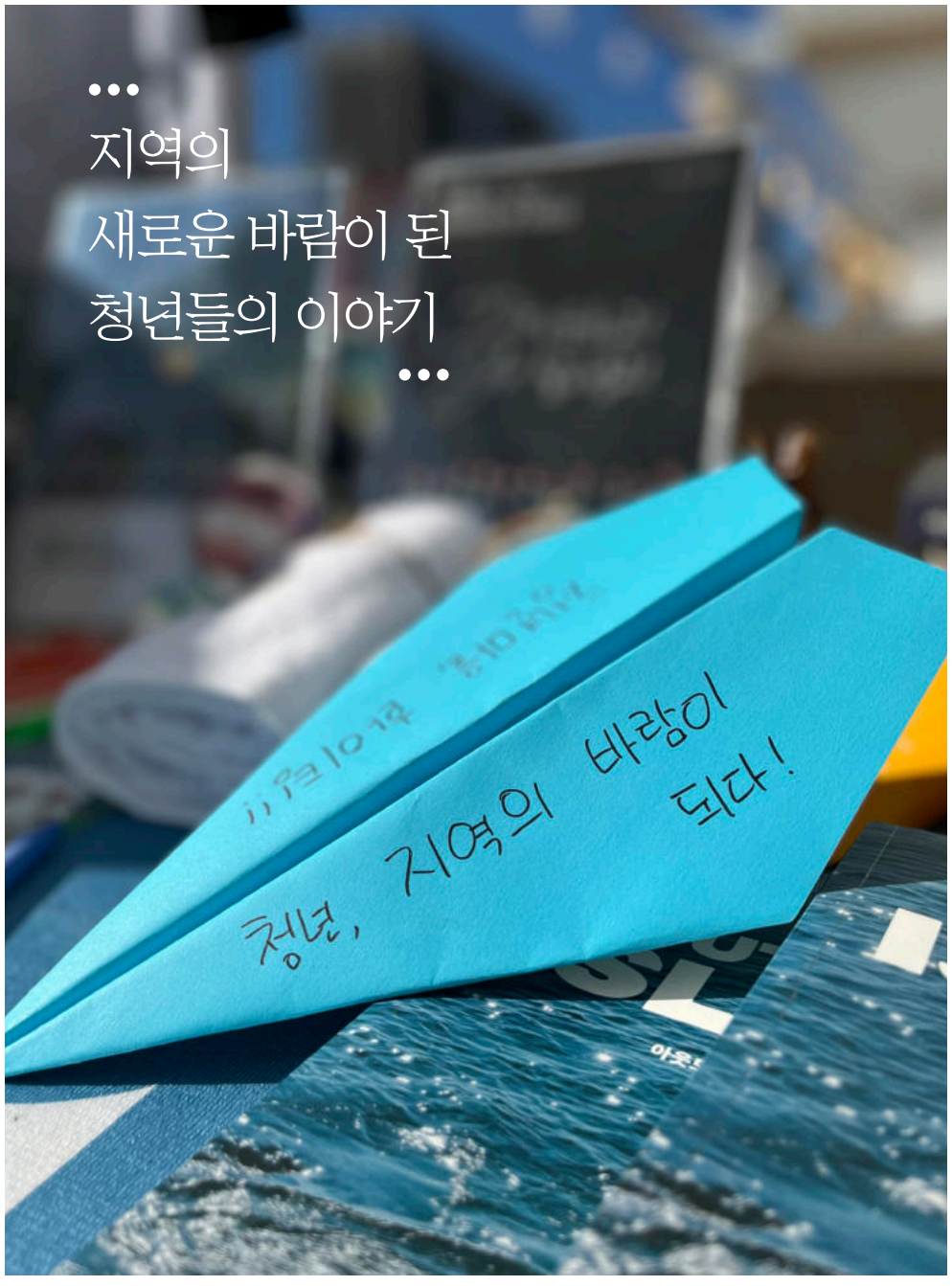
II. Business Impact Story

III. Space Impact Story

PART.1

청년마을

청년마을 사업 및
청년마을 소개



청년마을 지원 사업은 올해로 5년을 맞이 했습니다.

2018년 전남 목포시 '괜찮아마을'부터 2019년 충남 서천군 '삶기술학교', 2020년 경북 문경시 '달빛탐사대'를 거쳐 2021년 부산 동구 '이바구마을' 외 11개 청년마을이 조성되었습니다.

2022년 올해에도 12개 청년마을이 각자의 개성을 살린 콘텐츠로 지역에 새로운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경남 함양에서는 할머니와 청년들이 함께 할매 손맛 음식을 만들며 웃음이 끊이지 않는 일상을 보냅니다. 청년들이 할머니 말씀 한마디에 박장대소를 하기도 하고 때론 감동의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이는 세대를 뛰어넘는 공감대를 형성해가는 '고마워,할매' 청년마을입니다.

아름다운 마을로 소문난 병영면에는 과거의 하멜과 현재 조선 청년들의 만남을 꿈꾸는 청년이 정착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다양한 청년들이 강진의 숨은 이야기를 가지고 자신의 색을 입히는 '창작자'가 될 수 있는 공동체 '병영창작상단'이 탄생합니다.

술에 관심을 갖게 된 한 청년은 양조장으로 유명했던 군산을 술과 연결 지어 콘텐츠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오픈한 전통주바 '수복'은 지역에 청년의 활기를 불어넣었고 지역주민과의 교류를 이어가며 지역의 산업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적산가옥 거리 30년동안 문 닫혀 있던 낡은 목욕탕을 재생하는 활동을 시작으로 어두웠던 경주 감포 골목에 불을 켜는 일을 하고 있는 청년도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과 함께 지역 자원을 연결해 스토리를 만들어가고 축제 같은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 마을에 생동감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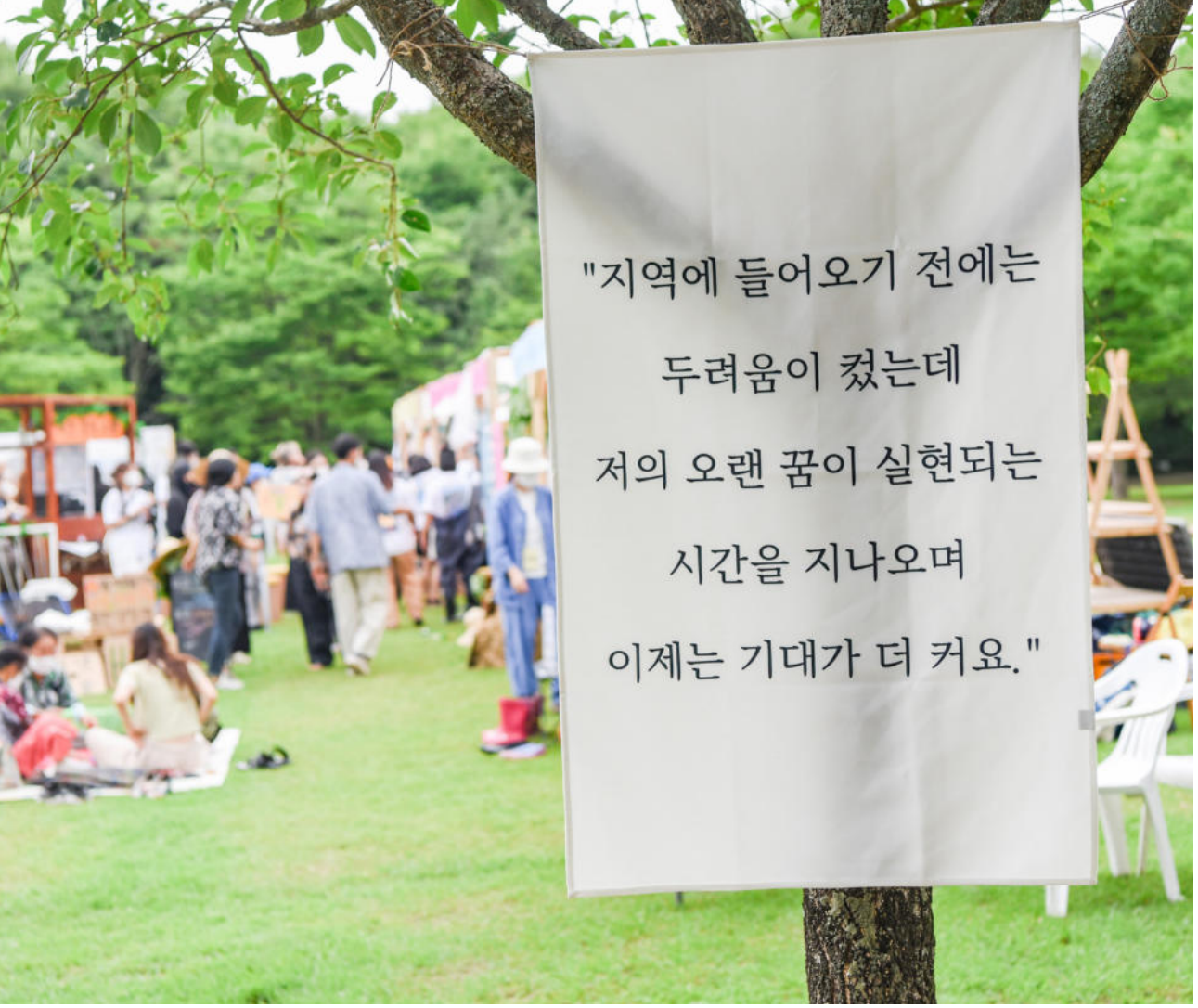
하동에서는 지역의 소멸을 소멸하고자 하는 포부를 가진 청년들이 모였습니다. 이들은 하동의 알려지지 않은 사업 아이템, 산업을 발굴해 IT와 결합했고 하동의 지역가치와 스토리를 담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시킵니다.

이렇게 각자의 이유로 수도권이 아닌 지역 12곳에 정착한 청년들은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불가능'을 뒤로하고 자신의 재능과 지역자원을 연결하여 지역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2022년 대한민국 로컬에 불어온 새로운 바람, 청년마을의 이야기를 책에 담았습니다. 가면 후회하지 않는, 가보지 않으면 경험할 수 없는 그들만의 이야기를 통해 전국 곳곳의 대한민국 청년들이 지역에서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길 희망합니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함께 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 **최 훈**



청년마을
사업 소개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은 지난 2018년도부터 지방 청년들의 유출 방지와 도시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여, 청년들에게는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에는 활력을 제고하는 사업이다.

01 청년마을 선정과 지원사항

- 청년마을은 청년단체 및 기업의 대표가 청년이고 사업참여인력 중 청년비율을 50% 이상 구성한 단체를 대상으로 공모한다.
- 공모한 단체를 대상으로 사업계획서 검토 및 서류심사, 현지실사, 발표심사를 거쳐 운영단체를 선정한다. 선정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지자체의 협력과 지원, 그리고 차별화된 청년마을의 사업방향성이다.
- 2022년, 전국 133개 청년단체가 응모하였으며, 1차 서면심사를 통해 34개 팀이 선발된 후 현장실사와 발표심사를 거쳐 12개 팀이 최종 선정되었다.
- 선정된 단체에는 사업비 2억 원이 지원되고, 이후 사업성과 등을 평가해 최대 2년 동안, 연 2억 원씩 추가 지원이 된다. 또한 3년간 청년마을을 조성하는 과정에 필요한 교육과 네트워킹, 컨설팅, 마을간 협업 지원이 동시에 진행된다.

02 청년마을의 특성

- 청년이 주체가 된다. 청년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자신의 능력과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마을별 고유성에 집중한다. 지역의 차별점, 청년의 개성을 존중하며 각 마을의 고유한 특성에 맞추어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마을 간의 창발이 이루어진다. 전국으로 구성된 27개 마을이 상호작용을 통해 연합의 힘, 새로운 창조를 일으키며 지역정착의 새로운 물결을 만들어간다.

청년마을 사업,
걸어온 길

2018년 전남 목포시 '괜찮아마을', 2019년 충남 서천군 '삶기술학교', 2020년 경북 문경시 '달빛탐사대' 청년마을이 시범사업으로 조성됐다. 시범사업을 토대로 본 사업을 시작한 2021년에는 부산 동구, 인천 강화군, 울산 울주군 등 12곳이 선정되었고 2022년 추가로 12곳이 선정되어 총 27개 청년마을이 조성되었다.





2018년
전남 목포 '괜찮아마을'



2019년
충남 서천 '삶기술학교'



2020년
경북 문경 '달빛탐사대'



2021년, 2022년
매년 12개 추가 조성

청년의 꿈과 도전이 현실이 되는 세상,

여기는, 청년마을 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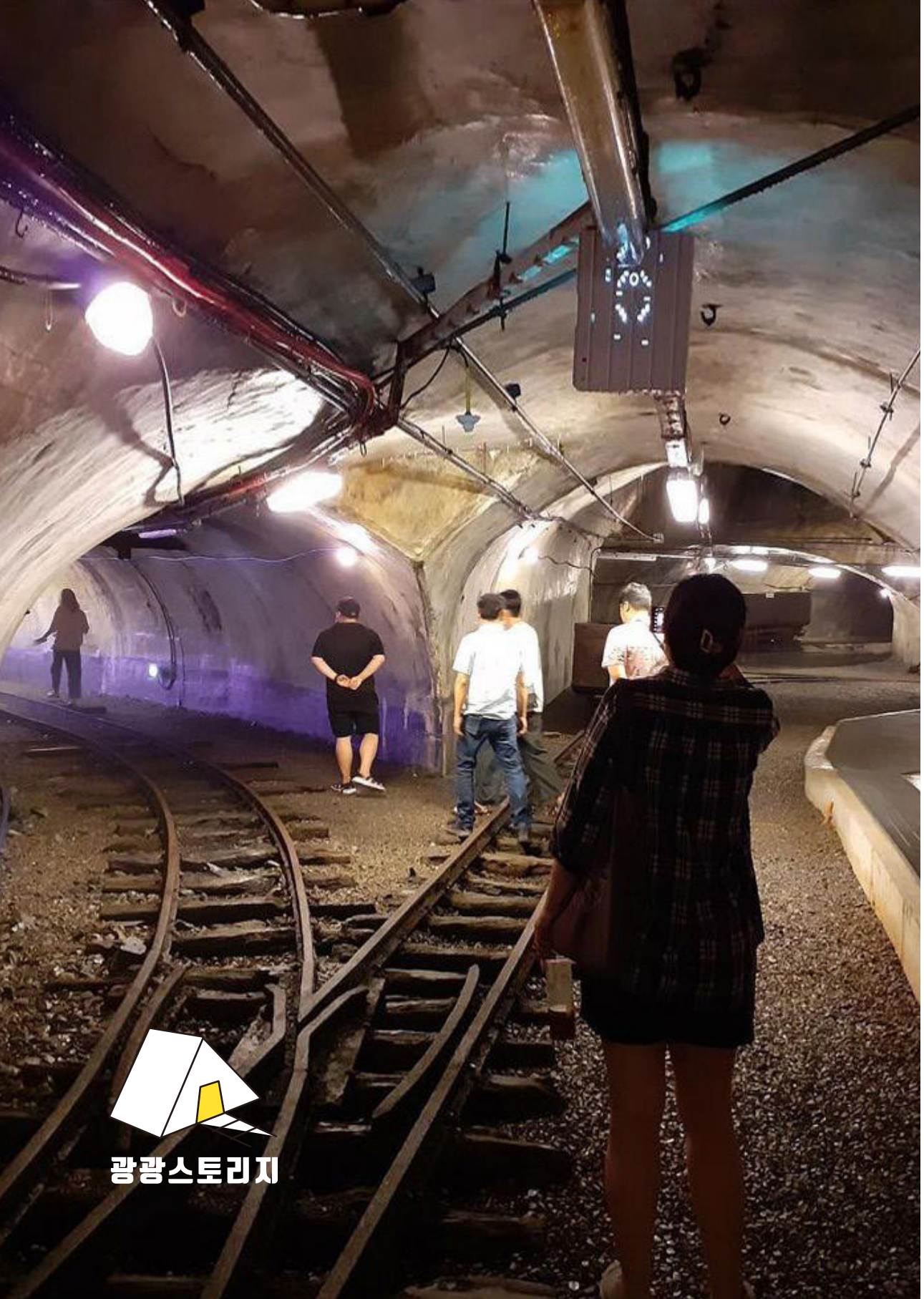


구분	지역	청년마을	운영
2022년 (12개)	강원 태백	광광스토리지	㈜널티
	강원 속초	라이프밸리	㈜트리밸
	강원 영월	밭멍	농업회사법인 ㈜이었던
	충남 아산	DOGO온천	사회적협동조합 온어스
	충남 태안	오락발전소	㈜5락발전소
	전북 군산	술익는마을	㈜지방
	전남 강진	병영창작상단	아트 랩소디
	경북 경주	가자미마을	주식회사 마카모디
	경북 의성	나만의-성	사회적협동조합menTory
	경북 예천	생텀마을	용두리 호두
	경남 하동	오히려하동	㈜다른파도
	경남 함양	고마워, 할매	㈜숲속언니들 농업회사법인
2021년 (12개)	부산 동구	이바구마을	㈜공공플랜
	인천 강화	강화유니버스	협동조합 청풍
	울산 울주	365발효마을	(사)공동체창의지원네트워크
	강원 강릉	강릉살자	주식회사 더웨이브컴퍼니
	충북 괴산	뭐하농스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뭐하농
	충남 공주	자유도	주식회사 퍼즐랩
	충남 청양	로컬몬스터	로컬몬스터
	전북 완주	다음타운	씨앗문화예술협동조합
	전남 신안	주섬주섬마을	스픽스
	경북 상주	054마을	이인삼각 협동조합
	경북 영덕	뚜벅이마을	㈜메이드인피플
	경남 거제	아웃도어아일랜드	㈜아웃도어아일랜드
2020년	경북 문경	달빛탐사대	가치살자 협동조합
2019년	충남 서천	삶기술학교	㈜자이엔트
2018년	전남 목포	괜찮아마을	㈜괜찮아마을목포, ㈜공장공장

청년마을 소개



2022



강원도 태백

광광스토리지 2022

광광스토리지

청년기관	㈜널티
대 표	김신애
위 치	강원도 태백시 하장성 1길 4
S N S	인스타그램(@gwangstorage)

지역의 특징

태백은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을 기점으로 인구 급감 및 대체 산업의 부재라는 어려움에 놓여 있다. 광광스토리지의 배경이 되는 장성도와 구문소동은 낙후도 및 학교 밀집도가 높아 청소년과 중장년층 비율에 비해 청년 세대의 비율이 확연히 낮다.

2024년 폐광 예정인 마지막 광산이 위치하는 마을로, 지역성과 역사성이 짙어 관광지화에 적합하나, 폐광지역개발정책에 따른 관광지화는 실효성이 없어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태백이 가진 광산의 역사, 이야기, 기록들은 젊은 관점에 의해 새롭게 소구될 수 있는 매력적인 자산이고, 탄탄마을 도시재생 사업, 2,153억 규모의 에코잡시티 도시재생 사업이 장성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사업을 통해 발굴한 도시재생 청년 활동가들이 등장하면서 태백은 젊은 빛으로 새로워지고 있다.

마을의 시작

“역사성을 가진 낙후된 지역이 살고 싶은 지역이 되기 위해”

광광스토리지의 김신애 대표는 고향이 태백이지만, 창의적인 일을 하고 전문 능력을 키우기 위해 서울로 상경해 사회생활을 했다. 게임회사, 웹디자이너, 문화기획자 등 다양한 일을 하던 중에 위기 청소년을 만났다. 살아가는 환경이 좋지 않아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할 수 없는 친구였고, 그 친구를 보니 어릴 적 자신의 모습이 떠올라 서로를 지켜줄 수 있는 공동체에 대한 갈증이 생겼다. 서울보다 내가 잘 아는 지역에서 공동체를 형성해야겠다는 생각으로 10년간 떠났던 고향 태백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

2018년도부터 태백, 장성을 중심으로 지역의 문제점들을 발굴하고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을 통해 작은 단위들이 연결되기 시작하였다.

그 후 4년의 경험적 시간은 청년과 청년, 청년과 지역의 연대의식에 대한 필요를 깨달았으며, 태백의 광산을 활용해 살고 싶은 태백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발굴하기 위해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에 지원했다. 그렇게 김 대표는 지역의 빛이 되길 원하는 마음에 광광스토리지를 시작하게 되었다.

광광 스토리지는?

"광산문화콘텐츠를 켜켜이 쌓아 이야기를 저장하는 곳"

광광스토리지는 빛 광(光), 광산의 광(鑛)을 조합하여 만든 합성어로 캐내어 비워진 광산의 빛을 밝히는 청년 마을을 의미한다.

우리 도시가 가진 특이성, 석탄산업을 완전한 우리의 광산문화로 만들며 청년들이 태백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터전을 만들어 간다.

마을 프로그램

"청년이 재생산한 광산문화가 하나의 힙한 골목문화로!"

올해 광산프로듀서 1, 2, 3기가 각각 7, 9, 10월에 모집되었고, 1기는 협업편으로 외지청년과 현지청년, 그리고 주민이 협업으로 광부 작업복 리폼, 광산의 이야기들을 비주얼라이징한 글라스아트워크 등 광산문화 콘텐츠 개발하여 여름 광산문화 축제를 열었다.

2기 공간편에서는 청년들과 마을에서 공간을 발굴하고 공간을 활용한 광산문화 콘텐츠를 기획, 실행하여 커뮤니티 공간 및 숙소, 마을 일대를 변화시켰다.

로컬 식자재를 이용한 카페 메뉴개발 프로그램에서는 총 6개의 메뉴가 개발되었고 이를 계기로 한 청년이 원주 카페창업을 결심했다.

마지막 3기 여행편에서는 태백의 매력적인 관광지 투어를 통해 광산을 새롭게 재해석하고, 예술로 담아내는 인사이트를 얻어 향후 2023년 마을 자원을 활용하는 유료 여행프로그램을 구상하게 되었다.

소감 및 앞으로의 계획

"청년이 재생산한 광산문화가 하나의 힙한 골목문화로!"

더 많은 청년들이 태백 광산을 통해 자신의 삶과 방향은 물론 장성동의 방향을 잡아가면 좋겠다.

태백의 장성동은 구도심으로 현재 광산 관련 종사자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기에 청년들의 부재가 큰 마을로 청년이 들어와서 광산문화를 수집하고 골목 곳곳에 광산과 관련된 영화관, 방송국, 가게, 광장, 축제가 만들어져 회색빛 장성동이 빛을 품는 광산문화골목으로 활성화되는 것이 목표이다.





강원도 속초

라이프밸리 2022

청년기관	㈜트리밸
대 표	이승아
위 치	강원도 속초시 수복로259번길 11-3, 2호
S N S	인스타그램(@lifevalley_official)

지역의 특징

청년 인구의 지속적인 유출과 고령화 및 인구감소가 심각한 지역 문제로 자리 잡고 있다. 관광산업 의존성이 높아 지역 경기의 미래가 불투명한 실정으로, 시도단체 및 시민들은 지역 부흥의 전환점을 위해서는 청년 창업과 문화 예술 커뮤니티가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속초시는 '속초에서 한 달 살기' 등 심신의 회복을 위해 청년들이 찾는 지역으로 자주 언급되고, 매력적인 자연경관 속에서 일상을 여행처럼 살 수 있다는 점에서 워라밸 및 워케이션에 적합한 지역이다.

마을의 시작

"커뮤니티 호스텔의 꿈이 마을을 이루기까지"

남매가 함께 떠났던 유럽 배낭여행을 계기로 여행의 낭만을 몸소 느낀 이승아, 이상혁 대표는 낭만을 나누기 위해 2015년, 서울을 떠나 속초에서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게 되었다.

산과 바다, 호수의 지역자원이 풍부하고 교통이 발달된 속초, 특히 유휴공간이 가득해 옛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는 동명동은 매력적이었다. 두 대표는 아웃테리어에 집중해 지역색을 간직한 채 그들만의 색깔을 표현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여행과 삶의 균형을 통해 다채로운 삶을 완성할 수 있도록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고 싶다는 비전과 함께 ㈜트리밸이 시작되었다.

서울에서 속초로 이주한지 8년이 된 지금, 유휴공간이 가득하던 속초 시외버스터미널 뒷골목을 커뮤니티 호스텔 '소호259'와 '소호 카페&스튜디오' 그리고 속초 컨시어지 센터 '고구마쌀롱'이 운영되고 있는 속초 소호거리로 탈바꿈시켰다.

라이프밸리는?

"SKETCH YOUR LIFE!"

속초에서 새로운 일상을 그리고 싶은 청년들이 모여 꿈을 자유롭게 펼치며 여행하듯 살 수 있는 마을이다.

마을 프로그램

"여행(Trip)과 삶(Life)의 균형(Balance)"

라이프밸리는 속초에서 새로운 일상을 그리고 싶은 청년들을 모집하여 속초의 산, 바다, 호수에서의 인사이트 투어를 통해 지역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라이프스타일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도록 스케치업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올해 총 6개 기수를 운영한 라이프밸리는 풀묶음 낭독회, 매거진 발간, 메타버스 여행 기획 등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참여청년들이 속초에 스며들 수 있었고, 속초의 다채로운 매력을 알릴 수 있었다. 마지막 6기에는 온·오프라인 할로윈 액티비티를 기획하고 지역을 체험할 수 있는 라이프 페스티벌을 진행했다. 액티비티 축제는 마을 곳곳에 미션을 숨겨놓음으로써 속초를 구석구석 구경하고 지역민의 좀비 퍼포먼스로 여행자들의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었고, 라이프 페스티벌을 통해 속초 어르신들의 삶을 알아보고 참여청년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소감 및 앞으로의 계획

"여행하듯 사는 삶을 실현하는 청년들, 라이프밸리"

이대표는 청년들이 속초에서 새로운 기회를 많이 찾고, 매력적인 자연경관으로 365일 여행하듯 사는 삶을 즐길 수 있는 속초의 매력을 알려주고 싶다고 말한다. 무엇보다 서로 의지하고, 소통하며 속초와 청년 간의 시너지가 형성되길 바란다.

(주)트리밸의 슬로건처럼, 여행(Trip)과 삶(Life)의 균형(Balance)을 맞출 수 있는 온·오프라인 공간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 많은 청년들이 속초에서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펼치며 여행하듯 행복하게 사는 삶을 느낄 수 있게 도와주고 싶다.

라이프밸리는 속초 여행객들 대상의 다양한 프로그램, 다양한 속초 라이프스타일을 담은 로컬 콘텐츠 그리고 속초와 속초시민의 이야기를 담은 프로젝트(Balance)를 기획하고 운영할 청년을 기다린다.



강원도 영월

밭멍 2022

청년기관	농업회사법인 (주)이었던
대 표	김지현
위 치	강원도 영월군 상동읍 태백산로 2495-13
S N S	인스타그램(@battmung.log)

지역의 특징

한때 영월 상동읍은 북적'이었던' 마을이었다. 대한중석이 상동광산에서 텅스텐을 채굴해 한국 전체 수출의 70%를 차지할 정도로 한국 경제의 중요한 축이었고, 상동읍에만 3만 명 이상 살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의 석탄산업합리화 정책에 따라 광산은 폐광됐고 주민들은 다시 살길을 찾아 떠났다. 2021년 주민 통계에 따르면 상동읍 전체 인구는 1025명으로 가장 적은 인구를 가진 읍이다. 폐광 후 아직 개발되지 않은 상동지역의 천혜의 환경은 지속가능한 삶을 이루어나가기에 큰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었다.

마을의 시작

"퍼머컬처를 경험한 밭멍과 함께이기에"

시골, 농사가 지겹도록 싫었던 밭멍의 김지현 대표는 고교를 졸업하자마자 고향 영월 상동을 떠나 도시에서만 살았고 4년을 거쳐 전국을 한바퀴 돌아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

고된 농사가 아버지를 앗아갔고, 홀로 남은 어머님의 농사를 성공시켜드리고 싶었으나 여자 둘의 힘으로는 터무니없이 부족했다. 그때 한줄기 빛처럼 퍼머컬처(Permaculture)를 알게 되었고, 2020년 어머니의 허락으로 배추밭을 퍼머컬처 농장으로 변화할 수 있게 되었다. 2021년, 그만의 퍼머컬처를 실현하고 소멸도시로의 길을 걷는 영월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자 밭멍을 창업해 청년들과 함께 꾸려 나가고 있다.

밭은 엄청난 가치가 있는 공간이며 밭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로 영월 상동을 다시 들썩이게 만든다고 한다.

밭멍은?

"무궁무진한 콘텐츠 생산소, 밭 [ ]"

밭멍의 운영진들은 스스로를 밭메이커, 밭을 만드는 사람들이라고 칭한다. 단순히 밭에서 농사만 짓는 농부가 아니라는 것이다. 밭메이커들은 농작물을 생산만 하는 농지의 개념을 확장해 사람을 불러 모으는 매력적인 문화공간으로 해석한다.

밭멍에서는 나와 자연,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행동들을 실천하는 노력이라면 모든 것이 허락된다.

그 속에서 각자가 다른 밭멍에 빠진다. 멍이란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양상이다. 흙을 만지고 식물을 키우고 시골에 머물며 스스로 회복하는 경험을 느낀다. 본인마다 다른 시선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자급자족에 초점을 둔 새로운 삶의 방법이 문화로 퍼져 나가도록 함께 만들어가는 곳이다.

마을 프로그램

"잘먹고 잘살기 위한 자급자족 라이프 실험소, 잘자라소!"

영월 상동에서 머물며 다양한 시골의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한다. 모든 것이 정해져 있고 일회용체험에 그치는 프로그램이 아니다. 하나의 목표를 지향하며 참여하는 친구들과 운영진이 함께 만들어나가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매달 모집하며 운영기간은 1주, 2주로 나뉘고, 3주도 한꺼번에 신청 가능하다. 잘자라소 친구들이 경험한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밭을 관찰하며 친해지는 '밭문안', 지역을 알아가는 '로컬투어링', 밭에서 놀아보는 '밭캠핑', 지구를 위한 식사 '고기없는 금요일', 내가 직접 용돈을 벌어보는 '시고레바트로'가 있다.

특히 7월부터 진행된 '자급자족라이프실험'에서 참여청년들이 직접 어스오븐, 곤충호텔 등을 만들어보며 퍼머컬쳐 원리에 충실할 수 있는 시골생활을 경험해볼 수 있었고, 지역 주민분들과 '자화상 그리기' 등 활동을 통해 친밀감을 높일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참여 청년들이 나만의 재능을 탐색해 찾아가고 커뮤니티펍 등 네트워킹 활동을 통해 밭멍의 지향점을 함께 논의하며 향후 방향성을 잡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소감 및 앞으로의 계획

"드디어 진짜가 나타났다! 밭멍"

현재 마을의 기능은 단순하게 거주공동체적인 기능만 담고 있다. 우리가 만들고 싶은 마을은 거주공동체를 넘어선 경제공동체로 성장하는 마을, 더 나아가 이런 선한 영향력으로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마을을 만들려 한다.

퍼머컬처로 새로운 소비문화를 불러일으켜 마을 안에서 생산하고 소비하는 선순환경제, 사회적인 지속가능성이 탄탄한 마을이 되는 것이 목표이다.

그 중심에서 청년들이 연결고리가 되길 바란다. 밭멍에서 자급자족하며, 자연에 감사할 줄 알며, 서로를 존중하고 경제공동체로써 함께 나아가기를 바란다. 각자 보면 똑같은 것 하나 없지만, 모이면 하나의 유기체가 되는 자연과 같은 마을이 밭멍의 꿈이다.





충청남도 아산

DOGO온천 2022

청년기관	사회적협동조합 온어스
대 표	최낙원
위 치	충청남도 아산시 도고면 아산만로 214, 도고상사
S N S	인스타그램(@dog0on1000)

지역의 특징

아산은 충청남도 내 도시 양극화 현상이 가장 뚜렷한 지역으로, 동부와 서부의 인프라 격차가 극심하며, 관광객 격차 및 유휴부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도고온천이 마을의 주요 사업으로 자리했던 도고면은 코로나 19의 여파로 활기를 잃었고 유휴부지 증가세가 가속화되고 있다.

노후한 시설을 개선하고 도고 내 관광자원을 연계한 콘텐츠를 개발할 때 온천, 식물원 등 풍부한 지역자원은 도고만의 매력을 극대화할 수 있으며 빈 공간들은 청년 기업 활성화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을의 시작

"연대와 협력의 청년기업 생태계, 마을 부흥을 그리다"

10년째 인구가 줄고 있는 도고는 매우 높은 노인인구 비율과 매우 낮은 청년인구 비율로 소멸 위기 지역이라고 불린다. 하지만 온천, 코미디 홀, 레일바이크, 식물원 등 다양한 관광자원, 옛 것의 멋스러움을 간직한 빈 상가들, 청년의 유입과 다양한 시도와 도전을 바라는 주민들을 바탕으로 더 많은 청년이 모이고 도전하고 시도할 수 있는 기회와 지역 활성화를 이끌 다양한 콘텐츠가 만들어질 도고의 가능성을 보았다.

청년기업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DOGO온천의 최낙원대표를 포함한 청년들이 지역에서 살아남기 위해 나아갈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지역 청년창업가로 활동하며 겪는 어려움을 나누고 함께 해결하고자 정기적인 모임을 만들었다.

개별 지역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연대 기반 네트워크를 형성하였고 지금의 '온어스'라는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발전하여 지역과 청년의 문제를 사회적 경제의 방식으로 해결하고 있다.

청년 부족이라는 지역 문제의 본질이 지역청년유출에 있기에 도고면을 '꿈과 도전이 응원 받는 백지 같은 곳'으로 탈바꿈하고 청년들이 일하고, 쉬고, 살고 싶은 마을로의 발전을 꿈꾸고 있다.

DOGO 온천은?

"소다연강미. 작더라도 그 수가 많고 또 연결된다면 강하고 아름다울 수 있다."

'DOGO온천'은 따뜻한 사람들과 함께 머물고 싶은 마을로, 작지만 지역에서 자생한 청년기업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지역과 상생하며 나아갈 것이다.

마을 프로그램

"원하는 일을 찾고, 살고 싶은 마을을 만드는 청년들" '

'DOGO온천'은 도고에 살고 싶지만 일을 찾아 떠나야 하는 현지 청년과 도전이 자유로운 지역으로의 정착을 원하는 외지 청년을 모집했다.

1기, 2기는 각각 6-7월 / 9-10월에 한달살이로 진행되었으며 도고의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자원을 활용한 콘텐츠를 개발하는 시간을 보냈다.

1기는 로컬자원을 발굴하여 함께 시도하고 도전하는 4주 DIT(Do It Together) 코워킹 실험 프로그램으로 '도고몬스터'라는 이름의 스토리텔링을 기반으로 한 굿즈 개발 및 직접 촬영한 도고 아카이빙 굿즈를 제작해 '도고온천장 플프마켓'에 참여하여 비즈니스모델에 대한 가능성을 보았다.

2기는 '식물'을 주제로 자유롭게 확장하여 문화기획, 창업, 농업 등의 '도농' 라이프를 실험하는 프로그램으로 화분 업사이클링과 풋팟만의 브랜딩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제시하였다.

또한 도고의 대표 명소들을 방문하여 도고의 향을 디자인하고, DIY 키트를 통해 MD 제작을 진행하였다.

해당 살이를 통해 관광 자원 개발부터 지역 문제 해결까지 다양하며 지역 주민 네트워킹과 코워킹 스페이스를 제공하여 프로그램 종료 후 도고 정착과 실질적인 창업을 돕고있다.

소감 및 앞으로의 계획

"일하고 싶은, 쉬고 싶은, 살고 싶은 도고"

아산의 양극화 문제는 '함께할 때' 해결될 수 있다.

마을의 간극을 좁히고 서로의 세대를 이해하며 함께 한다. 일생의 절반 이상을 일하며 보내는 모두에게 공동체와 함께, 원하는 공간에서,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경험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려주고 싶다. 도고가 일로 만나 삶으로 남는 청년 세대의 고향이 되기를 바란다.

또한 지역의 콘텐츠기획 청년기업들이 쇠퇴하는 도고에 유입되어 지역을 활성화시키고 청년이 정착할 수 있는 인프라를 조성한다. 주민과 청년이 마을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 문화를 확산시키고, 방문이 정착으로 이어지는 특색있는 관광 브랜드를 만들어가고자 한다.





충청남도 태안

오락발전소 2022

오락발전소

청년기관	㈜5락발전소
대 표	홍세환
위 치	충청남도 태안군 이원면 태포길 266
S N S	인스타그램(@ohrock_official)

지역의 특징

태안은 유명 갯벌과 산수경관을 갖추어 환경 가치평가 1위, 국내 최대 해양생물 보호구역에 오르는 등 자연환경 보호 정도가 우수한 지역이다.

오락발전소가 위치한 이원면은 가로림만의 풍부한 생태계, 리아스식 해안, 유류피해를 극복하게 한 123만명의 자원봉사자를 기리기 위한 솔향기길 등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다.

이원면은 태안군 중 가장 노령인구 비율이 높고 어업과 농업이 대부분이나, 바꾸어 말하면 유휴부지가 충분하여 관광 및 축제 콘텐츠 개발에 적합하다는 이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마을의 시작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 칼자루를 손에 쥔 청년예술가”

서울에서 다양한 문화예술사업을 진행하면서 만난 젊은 예술가들은 “예술하면 배곯는다더니 정말이네요. 하지만 서울을 떠날 수는 없어요. 여기 다 있거든요.”라고 말했다. 청년들은 소망 대신 성적이 자리한 본질 잃은 예술에 고개숙일 수 밖에 없었다.

오락발전소는 일상이 축제가 되는 마을이 되고자 한다.

예술이 업인 청년 예술가들에게도 축제와 같은 하루가 계속되기를 바란다. '블러섬랜드'는 20년 가까이 홍대 일대에서 청년들과 문화예술사업을 진행하며 수도권에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는 문화예술, 생계문제와 성과지상주의에 치여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는 청년 예술가들을 인지했다. 그래서 수도권에

편중된 문화예술의 분산과 청년 예술가들이 작업에 집중할 수 있는 안정적인 정주환경이 꾸려 지기를 바랐고, 청년마을이 그 돌파구였다. 청년 예술가들이 태안에 잔류하는 것만으로도 세상을 변화시키는 물꼬가 될 것이라는 비전을 갖고 오락발전소가 시작되었다.

오락 발전소는?

"청년예술의 업사이클링 허브"

예술 공동체 및 관련 창업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컨셉의 축제를 기획함으로써 예술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주하고 관광객들이 자발적으로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한다.

마을 프로그램

"청년과 예술이 만나 페스티벌의 고장을 만들다"

올해 6월~11월까지 여러차례 청년예술인 마을공동체에 함께할 인재를 발굴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험했다. '무제한예술' 1,2기를 통해 청년예술가 자체 축제를 기획, 운영했고, 월드 뮤직 페스티벌 '쿵'을 통해 다양한 장르 아티스트들의 융복합을 꾀했으며, 이레살이 '웰비'를 통해 태안의 아름다운 관광자원을 체험 해볼 수 있는 관광형 프로그램도 기획했다.

또한 '모래조각체험교실 예술공연', '서해랑 페스티벌 개막식 예술공연', '신두리 국제 모래조각 페스티벌' 예술공연을 기획 진행하며 청년 음악가들에게 일거리를 제공하며 지역과의 화합을 도모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다양한 분야의 청년 예술가들이 태안을 중심으로 연결고리를 형성해 언제든 다시 돌아올수 있도록 '오락발전 투나잇'이라는 네트워킹 프로그램도 3회에 걸쳐 진행하여 다양한 분야의 청년들이 새로운 관계를 오락발전소를 통해 형성하였으며 향후 이들과 함께 세분화된 컨셉을 바탕으로 축제를 상설화함으로써 태안을 축제 단지화하는 것을 목표로 나아가고 있다.

소감 및 앞으로의 계획

"예술인이 주체가 되는 예술인 축제마을"

예술인들이 원하는 대로 자신만의 축제를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마을이 되고자 한다. 또한 예술가로서의 정체성을 지켜 나가며 예술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주는 마을이 되고자 한다.

더불어 계절별 컨셉에 따라 다채로운 축제를 즐길 수 있는, 1년 내내 살아있는 축제의 장이 되어 국내 최대 페스티벌 메카로 만들고자 한다. 태안을 찾은 모든 청년들이 눈, 입, 귀, 몸, 마음의 5락을 온전히 즐기고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찾기를 소망한다.

환경의 제약 없이 자유롭게 예술활동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사회적 인식을 전환하며 축제도시로서의 태안을 랜드마크화 하는 것이 목표이다.





전라북도 군산

술익는마을 2022

술익는마을

청년기관	㈜지방
대 표	조권능
위 치	전라북도 군산시 구영6길 101-4
S N S	인스타그램(@soolma_gunsan)

지역의 특징

대기업 이탈에 따른 고용 불안정과 지역 경제의 견인책이었던 군산 로컬 기업들의 해체는 노동인구의 대거이탈로 이어졌다.

경관 조성에 국한된 관광정책은 지속적인 관광객 유인의 실효성 있는 대안으로 역할하지 못하고 있어 지역 자산을 응용한 복합 로컬 콘텐츠의 생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향토기업이었던 백화 양조가 롯데주류로 인수되었으나 백화수복, 청하 등 청주 라인 주류는 여전히 군산공장에서 유일하게 생산하고 있어 사업에 필수적인 소프트웨어와 휴먼웨어가 상당수 확보되어 있다.

창의적인 청년 그룹 '영화타운' 민간 지역활성화 프로젝트 '로컬라이즈 군산' 등 다양한 창조인프라가 형성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로컬의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마을의 시작

"군산의 양조기술과 이야기를 새로이 풀어 전달하기까지"

술익는마을 조권능 대표는 군산 토박이다. 학창시절 미술을 전공한 그는 예술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을 고민하였고 주변, 동네를 바꿔보는 일부터 하자고 결심했다. 차례주로 유명한 청주 '백화수복'의 원산지가 군산임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보고, 지역민들의 우수한 양조기술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마을을 구상하였다.

군산에 있던 양조장은 사라졌지만 지역민들은 우수한 양조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지역의 이야기를 새로이 풀어 전달하고자 술익는마을을 만들고 마을 청년들이 '수복'이라는 가게를 오픈하였다.

지금은 '술'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강력한 로컬브랜드로 성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라 생각한다.

술익는 마을은?

'군산술'

'군산'하면 무엇이 떠오르는가? '술'이라고 대답할 사람은 아직 많지 않을 것이다. 우리 마을은 한마디로 '군산술'로 정의되길 바란다.

마을 프로그램

"청년들이 함께 써 나가는 술 이야기"

술익는마을은 올해 '청주바 스타상점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해 쿠킹, 술큐레이션 및 브랜딩 팀으로 구성하여 양조교육을 듣고 청년들이 원하는 청주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실험을 진행했다.

프로젝트를 통해 군산의 식재료를 활용한 청주 페어링 레시피 개발, 청주를 활용하여 전북지역 전통주 위주의 주류 라인업 및 칵테일 메뉴를 개발하였다.

조성된 전통주바 '수복'을 직접 운영해볼 수 있는 팝업 프로그램 '한 달만 청주바 사장'을 진행하며 본격적인 창업의 문을 열었다.

이후 군산에서의 청주 라이프를 경험할 수 있도록 청주교육과 시음 등을 포함한 '술빚는 주말'을 통해 청주로 시작해 청주로 끝나는 투어코스를 개발하여 양조교육 및 담금 과정 체험, 청주와 페어링 메뉴 시음 및 네트워킹을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청주 키트 프로토타입 제작을 할 수 있었다.

더불어 주민과의 협업을 진행했는데, '술빚는 주말'을 지역주민맞춤형의 체험 프로그램으로 기획·시범운영하며 말랭이마을에 '술빚는 양조공방'을 오픈했다. 이후 주민들이 자립적인 운영을 이어가고 있다.

이후 '군산술'의 브랜딩과 아카이빙을 위해 동네에서 글쓰기 프로젝트 '글로 술쓰다'를 진행하여 콘텐츠를 다루는 청년들과 '군산술'을 주제로 한 출판, 전시 등의 결과물을 낼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술과 라이프스타일과 군산의 술문화를 해석한 스토리들을 접할 수 있었다.

소감 및 앞으로의 계획

"경험하고 즐기는 군산다움의 지역 공동체!"

향토산업의 혁신적인 환생과 열정적인 청년 그룹의 발굴을 통해 양조 기술을 경험하고 술 문화를 즐기는 마을로 군산을 브랜드화한다.

청주를 맛볼 수 있는 희소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앵커스토어 '군산 로컬 식문화 편집숍' 개념과 결합하여, '지역 생산 청주' 를 넘어 식문화 전반에 연결점을 만드는 앵커스토어의 런칭 및 타 도시 진출을 목표하고 있다.

양조산업 기반 군산 특산물 활용 및 마을 수익을 위한 특화 상품을 개발하여 청년과 주민이 하나의 지역 공동체로 상생한다.

'술'로 시작하였지만 '창의적인 마을'을 만드는 것이 최종 목표이다.

군산에서 발견하는 청년들의 재능과 지역의 필요가 만나 다양한 로컬브랜드를 만들어 가고 싶다. 누구나 와서 머물며 자신의 일을 만들어갈 수 있는 마을을 꿈꾼다. 그래서 수제청주 양조와 함께 양조문화를 기반으로 상상력을 펼칠 술에 진심인 청년들을 기대한다.





전라남도 강진

병영창작상단 2022

청년기관	아트 랩소디
대 표	전지윤
위 치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고성길 162, 보은산힐링센터
S N S	인스타그램(@brander_society)

지역의 특징

강진의 유소년 및 생산가능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병영창작상단의 대상 지역인 강진읍은 강진군 내 청년인구의 비율이 가장 높다.

다산 정약용, 영랑 등의 인문학적 유산이 풍부하고 청자, 농특산물, 전통주 등 머천다이징 역량도 충분하다. 또한, 하멜 표류기의 배경이자 조선 병영상권의 중심이라는 점에서 지역 서사가 확실하다.

지역을 대표하는 특산물이 뚜렷한 것은 아니지만, 재가공될 수 있는 지역적 자원이 광범위하여 그 발전을 기대하게 된다.

마을의 시작

"삶과 역사에 창작과 연대가 녹아있는 마을이기에"

새로운 창작과 실험의 장을 찾던 병영창작상단 전지윤 대표는 병영면을 만났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아프리카 속담이 딱 들어맞을 만큼 강진은 지역주민의 대다수가 다양성에 열린 태도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년 개개인이 자신만의 삶을 잘 꾸려나갈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지역이다.

예술을 통해 창조적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거점 구현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기에 최적의 장소였다.

전 대표는 서울시 지역연계 청년창업 지원사업을 통해 대안적 로컬의 가능성을 확인한 뒤, 강진 지역 주민들과 관계를 쌓아 나갔다. 다양한 이주의 역사를 바탕으로 다양한 통합예술 치유 콘텐츠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긍정적인 반응을 확인하였고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청년마을 사업에 뛰어들었다.

병영창작 상단은?

"청년들이 다시 쓰는 신병영상단"

15세기 병영 상인의 역사를 21세기 청년의 시각으로 재해석하여 마을의 서사가 창작의 영감이 되고 청년이 무엇이든 시도할 수 있는 실험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

마을 프로그램

"비커밍 창작상인"

올해 2개의 기수로 2주 단위 몰입형 프로젝트 캠프를 진행했고, 외지청년과 현지청년을 모집하여 빈 점포를 페어링 공간으로 재구조화하고 지역자원을 비즈니스적으로 재해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매개 프로그램과 로컬 투어링 프로그램이 운영되었다. 그리고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브랜드화하는 사후 피봇팅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참여자들이 비즈니스 가능성을 실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본격 창작상단 데뷔는 4주 2회를 진행해 실제 청년들에게 커리어와 비즈니스 연계를 도왔다. 지역 청소년 대상층 아트테라피 기획 및 진행, 전시 및 원데이 클래스 진행, 강진과 회외부 지역 사이의 매개 행사 기획, 독립출판물 제작, 강진 지역의 특성을 담은 사업아이템 개발, 인근지역 플리마켓 참여 등으로 로컬과의 접점을 시도해보는 지역 창업, 창직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소감 및 앞으로의 계획

"매력적인 창작자들의 비즈니스가 모이는 곳"

요즘 청년들은 날 것과 비어있는 공간의 재탄생에 환호한다. 견고한 사회의 틀 안에서 나만의 시선과 방식이 끼어들 여지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강진은 이유 있는 공백 속에서 청년들의 창작 비즈니스가 끊임없이 샘솟는 마을이 될 것이다. 병영 상인 정신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청년 창작자들을 발굴하여 지역 유무형 자원을 콘텐츠화하여 강진을 창작 비즈니스 특화 지역으로 탈바꿈한다.

결국은 병영상인의 역사가 대중에게 재조명받고 이를 계기로 많은 청년들이 강진을 찾아와 영감과 회복을 받고, 새로운 삶터로서 함께 꿈꿀 수 있기를 소망한다.

병영창작상단은 병영상인의 정신을 체득하고 지역자원을 비즈니스화해보는 경험이 필요하며 '창작'을 매력적인 삶의 도구로 실험해보고 싶은 청년을 기다린다.

무엇보다 새로운 삶터에 대한 고민이 있거나, 실질적으로 탐색해보고 싶은 청년들이 지역의 유무형 자원을 연계한 비즈니스를 실험하고 꿈꾸고 있는 '나만의 라이프-워크 밸런스'를 구현해보기를 소망한다.





경상북도 경주

가자미마을 2022

가자미마을

청년기관	주식회사 마카모디
대 표	김미나, 이미나
위 치	경상북도 경주시 감포읍 감포리 32-4, 2층 가자미오피스
S N S	인스타그램(@gajame_village)

지역의 특징

가자미마을의 주 무대인 경주시 감포읍은 경주라는 이미지에서 다소 낯선 바닷마을에 있다. 과거 제물포와 함께 읍으로 승격될 만큼 번성했던 마을이었지만, 현재는 인구 5천 중 절반 가까운 40%가 노령인구로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인구소멸 지역이다. 지역 생산물 및 역사문화 콘텐츠 등 지역자원이 풍부하여 스토리텔링 관광상품 개발이 가능하다. 지역주민들이 청년 집단을 중심으로 한 지역 재생을 적극 지지하고 있고, 청년협력 시범사업 경험이 있어 지역 혁신의 성공 가능성이 높다.

마을의 시작

"단조로운 지역에 청년들의 이야기들로 가득 채우기 위해"

가자미마을의 김미나 대표는 인도의 다른 삶을 경험한 후 경주 토박이로써 여행하는 삶을 꿈꿨다. 보수적인 지역인 경주에서 매일 여행 이야기를 하였던 청년은 여행을 좋아하는 친구들과 모여 시간을 보내던 중 2016년 '마카모디'라는 경주 최초의 프리마켓을 펼치게 되었고 경주 지역에서의 미래를 꿈꾸기 시작했다.

이후 경주사람, 외지사람을 연결하며, 커뮤니티를 형성해왔고,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는 마카모디의 비전에 공감한 청년들이 모여 30여년 동안 닫혀있던 감포해국길의 신천탕을 '1925감포'카페로 리뉴얼했다. 감포 주민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유휴공간을 재생시키는 과정에서 각자의 재능과 꿈이 쓰임 받는 것을 확인했고, 이는 가자미마을 브랜딩의 시작점이 되었다.

가자미 마을은?

<가자味 감포의 맛>

- 지역 생산물을 연구하고, 청년들과 소통할 수 있는 맛으로 재탄생

<가자美 감포의 멋>

- 감포의 아름다움을, 다양한 도구들로 기록하고 콘텐츠로 생산

<가자未 마을의 미래>

- 우리가 함께 만드는 지역 생태계, 지속가능한 미래에 대해 고민

<가자me 나를 찾아 가자>

- 내 삶의 주인은 나, 타인과의 비교가 아닌, 내 삶의 정착부터

마을 프로그램

"가자미요리에서 라이프스타일로의 확장, 청년들의 자유로운 미래의 장!"

가자미마을은 5월에 분야별 공유공간을 조성했고 6월-7월, 9월-10월 '가자미 식탁'과 '가자미식당'을 운영하여 청년들이 직접 가자미로 메뉴제조, 소개, 홍보 및 가판대를 제작하는 등 디자인할 수 있는 과정을 제공했다. 가자미마을에 8-11월은 숙소와 공유오피스에 머무르며 일하는 4기수의 워케이션과 지역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이를 위해 일자리 소개, 지역 콜라보, 감포투어 등의 프로그램과 자유로운 토론의 장을 제공했다.

'가자미축제', '농업박람회' 등에 참여하여 가자미마을을 지역분들께 알리고자 하였으며 '홈커밍데이'를 맞아 관계인구를 초청해 가자미마을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각 청년들의 재능을 활용해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유튜브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였고 팀별 자신의 관심 분야에 전념하여 일한 결과 실제로 창업/취업을 실현하였다.

소감 및 앞으로의 계획

"놀아도 재미있고, 살면 더 재미있는 〈가자미마을〉"

청년들의 지역정착과 청년유출을 막는다는 무거운 목적을, 쉽고, 재미있고, 유쾌하게 풀어 내기 위해 가자미마을을 예능 컨셉으로 잡았다. 신라시대에 교류가 이어지던 장인 감포는 가장 먼저 신문물을 접했기에 개방적이고, 유연하며, 문화를 선도했던 기질을 보였고 이는 현재까지 이어진다. 청년들의 새로운 시도와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그와 같이 지역에 받아들여지길 기대해본다.

'청년들이 진정 자신이 원하는 삶에 대해 생각하고 그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 해답은 지역의 가치에 있을 것이다'라는 비전을 현실화하고자 한다. 탈도시화와 지역 불균형 해소에 앞장서 지역 자원을 활용한 로컬 콘텐츠를 제작하여 경주가 청년들이 정주하는 마을, 살아보고 싶은 마을로 변화하도록 만들 것이다.

가자미마을은 청년들과 감포의 자원을 연구 및 개발하고, 콘텐츠화하여 경주에서 새로운 삶의 기회를 만들고자 하는 청년을 기다리고 있다.





경상북도 의성

나만의-성 2022

청년기관	사회적협동조합menTory
대 표	권예원, 권기효
위 치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중앙길 24
S N S	인스타그램(@my_us_lll)

지역의 특징

의성은 2018년 지방소멸위기 전국 1위에 올랐으나 2년 만에 귀농귀촌 전국 1위, 합계출산율 경북 1위에 등극하며 지방소멸 극복 사례로 조명받은 바 있다. 청년인구 감소는 여전히 지역 문제로 자리하고 있어 맞춤형 일자리 제공, 지역 홍보 등 정책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 중에 있다. 의성은 청년 창업이 많은 편이고 관련 지원이 풍부하나, 지역주민과 청년의 교류 프로그램이 부재한 상황으로, 지역 내 새로운 인력과 성장의 기회를 만들고 도시의 청년들이 자아탐색과 창직을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돌파구로 작용할 것이다.



마을의 시작

"행복의 기준은 하나일 수 없기에"

나만의-성 권예원 대표는 늘 나만의 것을 만들기 위해 애썼다. 취업 준비보다는 음악 공연을 비롯하여 자신이 하고 싶은 활동을 주체적으로 해나가는 대학시절을 보냈지만, 막상 주위의 모두가 취업준비에 돌입하는 4학년이 되자 자신도 취업을 준비해야할 것 같은 압박을 느꼈다. 세상과 다른 길을 걸어가고 싶지만 그 방법을 몰라 고민하던 시점, 우연히 만난 로컬 크리에이터의 삶은 그간의 질문에 대한 해답인 것 같았고, 의성에서 프로그램 운영자로 활동한 것을 바탕으로 자신과 같은 고민을 하는 또래 청년들에게 새로운 돌파구를 제시하고, 함께하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꿈을 이루어가는 공동체를 만들겠다는 선명한 목표가 생겨 나만의-성을 시작하였다.

지역 문제를 청년들의 아이디어로 발굴, 해결하면서 청년과 지역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자 노력했다. 도시 대학생들이 의성에 살며 주민의 불편함을 해결하는 21세기형 농활 '로컬 임팩트 캠퍼스'를 운영하여 Z세대가 실질적으로 의성을 경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 청년마을 사업을 통해 Z세대가 자신만의 삶을 꾸려나갈 수 있는 체계적인 환경을 제공하고 지역에서 유능한 청년을 키워낼 수 있는 대체 불가능한 조직으로의 성장을 거듭하고자 한다.

나만의-성은?

"내-일을 만드는 나만의-성"

나만의 삶을 살아가고 싶은 Z세대 청년들이 도시가 아닌 지역에서 몰입된 경험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여 자신만의 '일'을 만들어나가는 가장 젊은 청년마을.

청년들이 하고 싶은 일과 지속가능한 로컬 비즈니스를 접목시킬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주민 협업, 기업 협업, 기술 협업이라는 3가지 주제를 바탕으로 소도시에서 할 수 있는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든다.

마을 프로그램

"실전 경험을 통해 로컬을 알아가는 배움 실험실, 로컬 러닝랩"

청년이 하고 싶은 일과 로컬이 필요로 하는 일의 접점을 찾아 자아실현과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 모두를 이루어 가고 대학과의 연계를 통해 Z세대와 의성의 접촉점을 확대했다. 로컬러닝랩 1기, 2기를 각각 7월, 8월, 9월, 10월에 진행하여 주차별로 체험, 경험, 확산으로 단계를 세분화해 지역에 대한 이해부터 비즈니스 컨셉의 확산까지 로컬 비즈니스의 전 과정을 경험토록 했다.

의성에서 발생하는 노인 낙상 문제와 돌봄 문제를 해결하고자 프로젝트를 진행했으며 또한 의성 지역 농산물을 활용해 그래놀라, 샹그리아 등을 개발하여 오프라인 판매와 온라인 펀딩 사업을 진행하였다.

청소년을 위한 공간과 진로 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젝트도 진행하여 인구유출지역인 의성에서 청년과 청소년의 만남을 통해 의성에서도 청년들이 일을 하고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청소년들이 의성에 정착할 수 있도록 좋은 본보기를 보여주었다.

소감 및 앞으로의 계획

"유능한 청년을 데려오는 것이 아닌,
유능한 청년을 키워낼 수 있는 지역이 되도록"

로컬만의 방식으로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여 자신만의 삶을 만들어가기 위해 치열하게 도전하는 Z세대 공동체를 만들고 그 청년들이 지역의 주민, 청년, 청소년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치며 지역과 청년이 함께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리고 의성을 계기로 Z세대 청년들이 로컬이라는 새로운 선택지를 고민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





경상북도 예천

생텀마을 2022

경북예천 생텀마을

청년기관	용두리 호두
대 표	김민성
위 치	경상북도 예천군 효자면 도효자로 1906-13
S N S	인스타그램(@sanctum_village)

지역의 특징

효자면은 예천군 전체 중 인구 감소율이 가장 높고 노인 비율 40% 이상을 보이는 초고령화 사회이다. 개발되지 않은 순수자연과 국립산림치유원을 보유한 예천의 경우 힐링 콘텐츠가 지역적 특색으로서 실효성이 있다.

마을의 시작

"트라우마 극복으로 청년세대의 힐링마을을 이루기까지"

생텀마을의 김민성 대표는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전쟁 트라우마로 인해 받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경북 예천의 자연 속에서 치유하게 되어 정착을 결심하게 되었다. 그리고 예천의 순수자연을 활용해 힐링을 전할 방법을 고민하며 2019년 힐링을 주제로 사람들과 소통을 시작했다. 특산물인 호두 무농약 농사를 시작으로 효자면의 자연환경과 호두를 활용한 건강한 식문화, 난로와 구들방을 활용한 주거문화, 명상과 건강운동이 청년세대 스트레스 해소와 힐링의 도구로 소비될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김 대표는 작게는 내 몸과 마음의 건강에, 넓게는 사람 간의 관계와 삶의 가치에 대해서 사람과 자연의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리고자 다른 청년들과 함께 예천의 힐링 자원들을 활용하여 힐링산업을 펼쳐나가고자 한다. 앞으로 이를 발전시켜 예천을 세계 속의 K-힐링 메카로 만들고 싶다고 말한다.

생텀마을은?

"힐링이 삶이 되는 마을"

생텀은 가장 성스러운 장소라는 뜻으로 마블 영화 속에서 닥터 스트레인지가 수행하고 거주하는 공간으로 묘사되고 있다. 생텀마을은 소백산 자락 경북 예천 효자면의 순수한 자연환경 속에서 청년들이 개발한 힐링 콘텐츠를 통해 건강한 삶을 널리 알린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마을 프로그램

"힐링 콘텐츠 개발로 효자면을 세계적인 휴식마을로!"

생텀마을은 6월-11월 '생텀마을 톺아보기', '힐링 휴게소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힐링-명상 콘텐츠를 개발해 청년들과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프로그램 과정을 통해 건강한 주거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구들방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공간을 활용한 창업 아이템으로 확장시켰고, 생텀마을의 무농약 무제초제 호두를 활용한 힐링 키워드도 만들었다. 그리고 생텀마을의 순수한 자연과 힐링 요소를 예술 및 콘텐츠로 구현하고 다양한 예술의 영역을 힐링과 연계했다. 10월에는 힐링 마켓과 페스티벌을 열어 참여 청년들이 만든 힐링 제품, 예술 작품 및 굿즈, 먹거리 등을 전시 및 판매해 지역 주민들에게 존재감을 알리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소감 및 앞으로의 계획

"독자적 노하우로 힐링하는 K-힐링 메카!"

지역 주민과 건강 및 힐링 요소로 소통하여 주민의 건강과 사회문제 해결을 도와주고 서로 신뢰를 쌓아 따뜻한 마을 분위기가 만들어지길 희망한다. 그리고 생텀마을만의 차별화된 힐링 아이템을 바탕으로 청년들과 함께 힐링 노하우를 활용, 발전시켜 신인류를 위한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확산시키고 예천이 글로벌 힐링 메카로 발돋움하기를 원한다.

생텀마을은 힐링 노하우를 통해 예천을 글로벌 힐링 메카로 자리매김하는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갈 청년과 예천에 정주하여 힐링 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직업으로 건강한 삶을 이끌어갈 청년을 환영한다.



경상남도 하동

오히려하동 2022

오히려하동
WHY NOT HERE

청년기관	㈜다른파도
대 표	이강희
위 치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경서대로 112
S N S	인스타그램(@whynot_hadong)

지역의 특징

하동은 화개장터로 대표되는 영호남 문화교류의 거점지역이자, 섬진강과 지리산등의 관광자원과 녹차와 재첩등의 특산물이 풍부하여 청년들이 다양한 비즈니스를 도전하기에 좋은 환경이다. 동시에 산과 계곡이 많은 하동은 인근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생활권이 분리되며, 그 탓에 지역 내 산업이 파편화되어 있다. 청년들은 세대 갈등, 일자리 등을 문제로 하동을 떠나고, 본보기 청년과 문화 시설의 부족을 이유로 청소년기에 지역을 이탈하는 사례가 흔하게 발견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이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다양한 비즈니스에 도전할 수 있고, 지역 청소년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마을의 시작

"기술과 디자인이 필요한 곳은 오히려 하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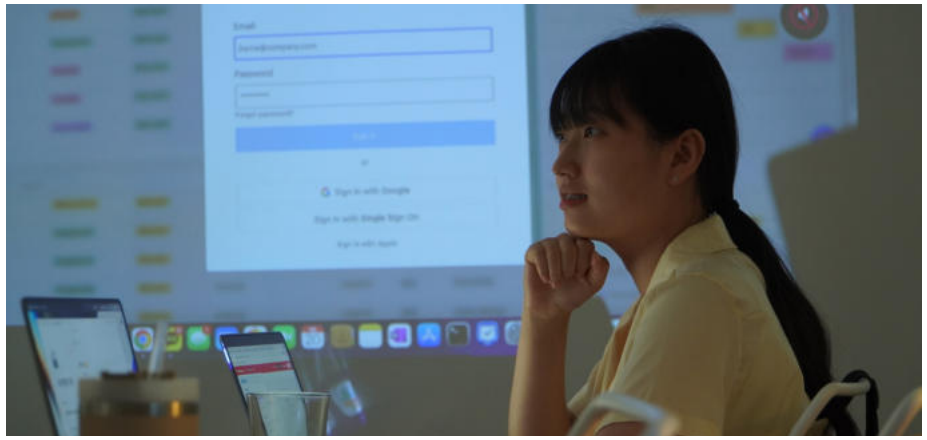
이강희 대표는 수도권에서 사용하는 여러 IT기반의 서비스들이 하동 같은 지방에서는 동작하지 않는다는 것에 큰 충격을 받았다. 권경민 이사는 농업과 농가공업 산업이 발달한 하동에서 오히려 디자인의 중요성이 무시되고 인근 도시와 수도권으로 일거리가 빠져나가는 것이 답답했다. 둘은 지방에 필요한 IT기술과 디자인을 통해 지방에서도 동작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구현하기 위해 ㈜다른파도를 설립했다.

창업을 하고 지역에서 여러 가게와 제품들을 브랜딩하고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IT서비스를 실험하면서 오히려 지방에서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것 자체가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청년들은 그로 인해 '자기 효용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더 많은 청년들과 이러한 모델을 실험하고 실현하기 위해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에 도전했다.

오히려 하동은?

"시골에서 하지 않을 법한 일들을, 오히려 하동에서"

하동의 다양한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청년들이 노트북 한대로 구현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실험할 수 있도록 지역 살이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다른파도가 지역에서 IT와 디자인 기반으로 비즈니스를 진행하고 있는 경험을 공유하고, 지역주민과 협업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고민하고 찾는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지역 내 청소년들이 청년들의 활동에 관심을 가지게 하는 것도 중요한 목표로 설정했다.



마을 프로그램

"오히려 하동에서 Start-up"

지역에서 기회를 찾아보기 위해 관광 자원 및 기업 탐방과 지역에서 필요한 디자인과 IT기술을 찾아보는 워크샵을 제공한다. '오히려하동 Start-Up' 프로그램은 1회차, 2회차가 각각 7월,8월과 9월,10월에 진행되었으며, 해당 프로그램은 사후 프로그램 "Why not 하동?"을 통해 팀별 프로젝트가 지역 내에서 실질적인 비즈니스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했으며, "Hyper Link 하동"을 통해 지역에 필요한 문화행사와 네트워킹행사를 청년들이 직접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저녁이있는삶', '밤빵어택'을 통해 하동만의 특수성을 활용해 청년과 지역, 지역주민들이 하나로 모이게끔 하였으며 '녹차티드립백', '하동방방곳곳 하-투' 등을 만들어 하동의 아름다운 풍경과 자원을 알리고자 시제품을 제작하였으며, 또한 입주민들의 친필 상호명을 활용해 하동 시장약도 200부를 제작해 배포하여 하동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발걸음을 내딛었다.

소감 및 앞으로의 계획

"실험을 넘어, 지역의 일을 하는 문화의 확산"

올해는 '하동에 정말로 IT기술과 디자인이 필요한가?'를 실험해봤다. 실험 결과 실제로 청년들이 IT기술과 디자인이라는 키워드로 상생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 있겠다는 가능성을 발견했다. 동시에 이러한 것들을 함께 할 수 있는 청년을 정의해 나가고, 그들에게 필요한 환경이 무엇인지를 뼈저리게 느꼈다.

보통 하동에 청년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하지만 사실 농산/농가, 관청 등은 지역에 인력이 없어 많은 업무를 서울로 맡기고 있다. 서울에서 지역으로 지원 사업을 보내도 지역에 역량이 있는 청년이 없어 자본이 다시 서울로 올라가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의 일을 발굴하고 매력적으로 디자인하여 프리랜서 청년들의 유입을 먼저 늘리려고 한다.

그 결과 지역의 강소농, 예술가, 자영업자를 포함한 지역 청년 창업자들이 서울로 맡겨야 하는 일들을 지역 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지역 내 자본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청년이 머물면서 일을 하고, 다양한 직업군의 청년들이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환경을 준비할 것이다.





경상남도 함양

고마워, 할매 2022

청년기관	㈜숲속언니들 농업회사법인
대 표	박세원
위 치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용평4길 17
SNS	인스타그램(@thanks_halmae)

지역의 특징

함양군은 청년 인구수 급감과 동시에 노인인구, 특히 65세 이상 여성 노인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함양군민들은 인구증가 시책의 추진이 급선무이며 지역성을 내포한 문화·관광·레저산업 육성이 유의미한 돌파구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함양읍은 인구가 가장 많이 거주하고 공공업무시설이 밀집해 있어 함양군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함양 할머니와 청년들이 공존하며 세대공감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할머니 감성과 2030세대와의 거리감을 좁혀가고 있다.



마을의 시작

"6명의 귀농 스토리가 마을을 이루기까지"

서울이 좋아 함양을 떠났던 함양 토박이 고마워,할매의 박세원 대표는 삭막한 서울의 느낌에 오히려 답답함을 느껴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다. 귀농·귀촌하여 함양군 정보화 농업인 연합회, 강소농 자율모임체 '강산골', 지리산둘레길 마을문화예술활동 등 지역의 다양한 모임과 활동에 참여하며 인연을 맺어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였다. 함양에서도 꼭 농사가 아닌 다양한 일거리를 가지며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SNS로 '함양군'을 알렸고 귀농·귀촌 생활의 정보들을 관내 청년 및 도시의 청년들에게 제공하였다. 함양이 가진 자원들(지역 농산물, 전통요리 등)을 현대적 요소와 접목해 개인주의와 경쟁사회에 익숙한 청년들에게 내적 친밀감을 형성하고 농촌 생활에 자연스럽게 녹아들게 하여 공감을 일으키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 '고마워, 할매'를 시작하게 되었다.

고마워, 할매는?

"사랑이 넘치는 따뜻한 마을"

고마워, 할매 청년마을은 6월-11월 동안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면서 서로를 공감하며 이해해 보고, 지역민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면서 지역을 좀 더 알아가고, 나의 재능을 바탕으로 지역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알아보는 2주 지역 체류 프로그램 '안녕, 할매'와 '한 번 더 2주'를 4기수에 걸쳐 8회 동안 진행했다.

각자 다른 지역에서 온 청년들의 유대감을 형성하기 위해 '치유밥상'을 진행하고, '할매의 레시피', '할매랑 놀자' 등 할머니와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세대 간의 연결과 공감을 형성하며 '도와줘, 청년', '지역 청년과의 대화' 등을 통해 참여 청년들이 지역과 지역청년을 이해하며 살아갈 방법을 모색할 수 있도록 운영했다.

10월에는 지역 청년들과 함께 하는 청년문화놀장과 청년 간담회를 가지고, 11월에는 1년 활동 기록을 담은 전시회와 1기부터 4기까지 참여 청년과 할머니가 함께 모여 서로의 안녕을 묻는 시간을 가졌다.

소감 및 앞으로의 계획

"할매 레시피로 함양을 청년과 할매들의 세대통합의 장으로"

고마워, 할매 청년마을은 6월-11월 2주 지역 체류 프로그램 '안녕, 할매'를 4기수에 걸쳐 8회동안 진행했다. 각자 다른 지역에서 온 청년들의 유대감을 형성하기 위해 '치유밥상'을 진행했고, '할매마을 탐방', '할매의 레시피' 등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이 지역을 이해하며 살아갈 방법을 모색할 수 있도록 운영했다. 8월-9월에는 특산물 상품 제작 및 판매를 경험했고, 11월-12월은 성과공유회 및 전시회 활동으로 1년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할머니들께 배운 레시피를 활용해 스티커 500부를 제작해 배부했으며, 함양에서 찍은 사진을 활용한 엽서북을 제작해 판매하고, 제철 식재료로 운영되는 '함무랑' 팝업 레스토랑을 오픈하여 1달간 운영 예정에 있다. 함양과 청년마을은 물론 할머니들도 세상에 알리는 시간을 보내며 청년과 할머니의 재능을 함께 활용해 새로운 경험들을 쌓아나갔다.

마을 프로그램

"세대를 넘어 소통하는 따뜻한 바람 함양"

일반적인 귀촌을 넘어 청년이 개인주의와 경쟁 사회에서 탈피하여 할매와의 교감과 감동을 통해 함양에 쉽게 적응하고, 홀로 살고 계신 할머니들은 청년들과 연결됨으로 고립과 외로움에서 벗어나 농촌에 활력이 더해지길 소망한다. 청년들의 적극적인 지역 문제 개입과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으로 많은 청년들이 정착하는 확장의 기회를 만들길 기대한다.

최종적으로는 자연에게까지 고마워할 수 있는 관계인구를 만들고 관계인구의 정주화를 꿈꾼다. 세대 간 공감과 연결을 소망하고 할매의 푸드 레시피를 함양만의 로컬 관광 콘텐츠화하고 청년들의 관련 창업·창직을 지원하여 지역 주요 산업체계 전환에 기여하려고 한다.

고마워,할매 청년마을은 다양한 세대와 공감하고 소소한 재능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청년을 희망하고, 제철 밥상에 진심이며 주체적이고 자발적으로 삶을 만들고 싶은 청년들을 환영한다.

2021



부산광역시 동구

이바구마을 2021

DREAM
꿈을 이야기하는 곳, 이바구 마을

청년기관	㈜공공플랜
대 표	이유한, 이정우
위 치	부산광역시 동구 영초길 191번 길 10-2, 이바구벤처캠프
S N S	인스타그램(@ebagumaeul)

마을의 시작

8년간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던 중 고향인 이바구마을에서 도시재생 활동가 활동을 했고, 이는 정착의 계기이자 이바구마을의 시작점이 되었다.

원도심인 동구 초량동은 관광객 방문율이 높지만 실질적인 소비와 주거로 이어지지 않고, 빈집만 늘어나는 쇠퇴지역이다.

청년들을 사회적 경제기업 창업가로 양성하여 청년과 지역사회가 다 함께 꿈꿀 수 있는 마을을 만들고자 한다.

그동안의 성과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을 통해 183명의 청년들이 부산 동구를 찾았으며 이 중 외부인은 80%에 달했다.

이바구마을은 작업 및 교육에 초점을 맞춰 지역의 빈 거점을 활용해 공간을 조성하였으며 해당 공간들은 MICE 기업 '하랑플랜', 캐릭터 활용 상품 개발 기업 '이바굿즈', 영상 교육 업체 '펜스프로덕션', 로컬 의류 판매숍 '1997', '카페 289' 등 총 5곳으로 지역 청년들의 사회적 경제 기업 창업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현재는 부산교육청과 부산동부창의센터를 운영하며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활동을 알려주고 있으며, 부산 동구청과의 협력으로 사업 범위를 확대 중에 있다.

이바구마을의 한 청년은 청년마을 프로그램을 통해 6개월 동안 합숙을 하며 창업을 준비해 명란젓을 캐릭터화해 다양한 굿즈를 판매하는 '이바굿즈'라는 브랜드를 창업했다. 현재는 정착 청년 중 2팀이 예비 사회적기업 인증까지 완료하여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마을이 그리는 미래

기존 정착 청년들이 떠나지 않는 마을, 고민을 공유할 수 있는 마을. 마을에 사회적 경제분야의 청년들이 정착하거나, 교류를 통해 부산의 원도심 지역인 동구에 새로운 가능성을 볼 수 있게 유지한다.



인천광역시 강화

강화유니버스 2021

강화유니버스 Ganghwa Universe

청년기관	협동조합 청풍
대 표	김선아
위 치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68번길 6
S N S	인스타그램(@ganghwauniverse)

마을의 시작

우연히 마주친 청년들이 풍물시장에서 장사를 시작하면서 청년마을 사업의 토대를 다졌다.

강화는 수도권 지역 중 유일한 고령화 지수 상위권이나, 최근 I턴과 U턴 청년이 증가하여 지역 내 젊은 세대 간 교류가 확대되고 있다. 강화 이주를 고민하는 청년이 늘고 있음에 따라 그들이 삶의 경로를 상상하고 생업의 기반을 다짐과 동시에 로컬 마스터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자 했다.

그동안의 성과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프로그램 참여자 수는 총 620명 (지역민 37명, 외부인 583명)이다. 주거공간 4실, 기타 공간 2실이 청년마을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되어 관계인구의 정착과 지역주민 네트워킹에 활용되고 있다. 실제로 지역 주민이 강화유니버스 워크샵 및 투어에 참여하며 자체적인 호스트 역량이 강화되었고 마을에서 자란 청소년이 조직 구성원이 되기도 하였다.

청년마을 사업 이후 인천광역시, 문화체육관광부와 연계하여 투어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며 외부기관과의 협업을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다.

마을이 그리는 미래

협력을 바탕으로 한 단계별 이주지원으로 청년들이 다양한 삶의 경로를 만들고, 강화의 자원을 바탕으로 다양한 로컬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청년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고자 한다.



울산광역시 울주

365발효마을 2021

Barhyo village
발효 醱酵 마을

청년기관	(사)공동체창의지원네트워크
대 표	이철호
위 치	울산 울주군 상북면 등억알프스로 552
S N S	인스타그램(@barhyo.village)

마을의 시작

가족과의 시간이 그리워 고향으로 돌아왔고, 지역 로컬 브랜드들과의 협업을 통해 우리의 공통적인 요소가 '발효'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어릴 적 할머니가 일러주신 말씀, 발효를 통해 맛이 들게 하는 '삭히다', 화난 감정을 가라앉혀 풀리도록 하는 '삭이다', 이 두 단어에 마을이 지향하는 가치를 담고자 했다.

로컬 브랜드 간의 협업을 통해 다양한 제품군을 삭히는 과정에 대한 실험을, 도시 청년들의 몸과 마음, 꿈을 탐구하고 숙성시키는 공간으로서의 삭이는 과정을 통해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하나의 키워드로써 발효를 콘텐츠화하고자 한다.

또한, 지역사회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울주의 발효문화를 강화하고자 한다.

그동안의 성과

365발효마을의 프로그램 참여 청년은 441명이다.

청년마을 사업을 통해 물과나무(주거공간), 해몽산장(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했고 입주사무공간, 창작 공간 등 3개의 신규 공간조성 예정에 있다. 해당 공간들은 프로그램 운영 및 지역 내 커뮤니티 활성화에 활용된다.

울산광역시 청년주간을 통해 단독 홍보부스를 운영하거나 사기업 ㈜옥수수콘과 협력하여 울산관광홍보영상 로케이션 대관사업을 진행하는 등 협업 사업의 성장 가능성이 기대되고 있다.

마을이 그리는 미래

청년 기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발효문화를 제시하고 마을 유휴공간을 활용한 창업기반 및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전통기술로부터 오래된 미래를 제시하고자 한다.



강원도 강릉

강릉살자 2021

청년기관	주식회사 더웨이브컴퍼니
대표	최지백
위치	강원도 강릉시 임영로 175 2층
SNS	인스타그램(@liveingangneung)

마을의 시작

최지백 대표는 일자리가 없어 떠나는 강릉 토박이 청년들과 지역 네트워크 부재로 강릉 이주를 주저하는 청년들의 어려움을 듣고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강릉을 경험한 청년들이 강릉살자만의 커뮤니티를 통해 이 지역에서 살아갈 이유를 찾기를 바란다. 또한, 지역을 여행하며 일하는 새로운 업무 문화인 워케이션의 가치와 의미를 확산하고자 한다.

그동안의 성과

청년마을 사업 시작 이후 총 38명의 청년이 마을을 찾아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청년마을 사업으로 주거공간 5실, 업무공간 2실이 조성되었으며 해당 공간들은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 및 청년들의 안정적인 정주화를 위한 기반이 되고 있다.

파도살롱(코워킹스페이스), 희나리(발표 및 모임공간), 베이스캠프(발표 및 모임공간)처럼 재구성된 공간들은 워케이션 및 지역 네트워킹 현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청년마을 사업을 계기로 강릉시청 등의 지자체 및 '디캠프(D.CAMP)', '데스커(DESKER)'와 같은 기업과의 협력이 늘었고, 워케이션을 활용한 관광 콘텐츠 사업의 성장 역시 기대 중에 있다.

또한 강릉살자의 한 정착 청년은 강릉살자 프로그램 참여 후 강릉 기업에 취업을 하거나 스튜디오 등을 창업하였다.

마을이 그리는 미래

로컬 크리에이터가 된 토박이 청년들과 정착 청년들이 일과 삶의 새로운 방식을 만들어 구도심의 지역 생태계를 재탄생시키고자 한다.



충청북도 괴산

뭐하농스 2021

moha nong

청년기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뭐하농
대표	이지현
위치	충청북도 괴산군 감물면 충민로 694-5
SNS	인스타그램(@mohanong_official)

마을의 시작

괴산의 청년 농부들이 농촌의 삶과 문화를 새롭고 즐겁게 그려나가기 위해 농산물 생산 및 판매를 넘어 농업의 비즈니스를 구상했다.

창농 단기 프로그램 및 비즈니스 멘토링을 통해 농촌에서의 창농·창직에 대한 인식전환을 꿈꾼다.

괴산은 국내 유일 유기농업군으로, 지리적 특성상 다양한 작물 재배가 가능하여 창농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교육지로 적합하다.

그동안의 성과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이래 1,142명의 청년 (지역민 385명, 외부인 757명)이 뭐하농스의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사업의 일환으로 4실의 공간 (로컬디자인편집샵, 농부취향책방, 공유주방, 공유오피스)이 조성되었으며 이는 청년 네트워크 및 창업 기획 등 관계인구 확장을 위해 활용되고 있다.

지역과 청년 간 소통 플랫폼의 역할을 해 온 뭐하농스를 통해 지자체와 청년과의 직접적인 관계가 형성되고 있다.

2021년 3월에 오픈한 카페 '뭐하농하우스'는 여름철 한 달 5,000명 이상이 방문하면서 주민과 청년의 소통의 장이자 외지인 관광 코스의 일부로 자리 잡았다.

마을이 그리는 미래

뭐하농스는 농업으로 청년과 지역을 연결하여 청년들이 삶의 영역을 주체적으로 고민하는 환경을 구축하고, 미래 세대가 농촌과 농업을 통해 확장된 꿈을 꿀 수 있도록 농부에 대한 직업적 인식을 전환한다.



충청남도 공주

자유도 2021

자유도 DEGREE OF FREEDOM

청년기관	주식회사 퍼즐랩
대 표	권오상
위 치	충청남도 공주시 큰샘3길 8
S N S	인스타그램(@degree.offreedom)

마을의 시작

각자의 전문성과 색깔을 지닌 팀들이 마을에 먼저 정착한 뒤 느슨한 연결을 통해 협력하는 '공주 커뮤니티'를 구성하고, 마을에서 재미있는 일들을 함께 할 수 있는 동료들을 찾고 있다.

공주 자유도는 지역 이주와 정착을 위한 목적과 필요조건을 내건 것이 아니라 청년들이 자연스럽게 마을을 발견하고 커뮤니티와의 접점을 찾으며, 그 안에서 자유로운 실험과 연결이 가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그동안의 성과

2021~2022년(2년간)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을 통해 1,209명(21년 774명, 22년 435명)이 자유도의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청년 각자의 관심과 니즈에 따라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루에서 한 달까지 다양한 루트로 지역에 스테이(stay) 경험을 통해 관계를 만든다.

주거공간(버드나무빌, 슬로크루즈), 업무공간(크림, 업스테어스), 교육장(금강관), 리빙랩 스튜디오(노인회관)가 조성되었으며 이는 청년 관계인구 확장에 적극 활용되고 있다. 지역 내 · 외부 12개의 파트너사가 프로그램 운영과 공간 활용에 적극적으로 협력했으며, 이 경험을 토대로 각자 유료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다.

자유도에서 설계한 경험을 통해 마을에서 공방을 창업하고, 거주할 집을 계약하는 등 이주, 정착의 사례들도 하나 둘 늘어가고 있다.

마을이 그리는 미래

지방 소도시의 이상적인 모습을 현실에 옮긴 것 같은 공주 원도심 제민천 마을에서 다양한 청년들이 공주를 방문하여 각자의 리듬과 취향에 맞는 공간을 찾고, 커뮤니티 안에서 연결되며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경험을 하고 있다. 공주에 온 청년들이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며 작은 성공의 경험을 얻어가는 장으로 존재하고자 한다.



충청남도 청양

로컬몬스터 2021

청년기관	로컬몬스터
대 표	이재영
위 치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칠갑산로4길, 2층
S N S	인스타그램(@localmonster_)

마을의 시작

토박이 청년과 귀촌한 청년이 함께 모여 지역사회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왔다. 청년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민과의 네트워크가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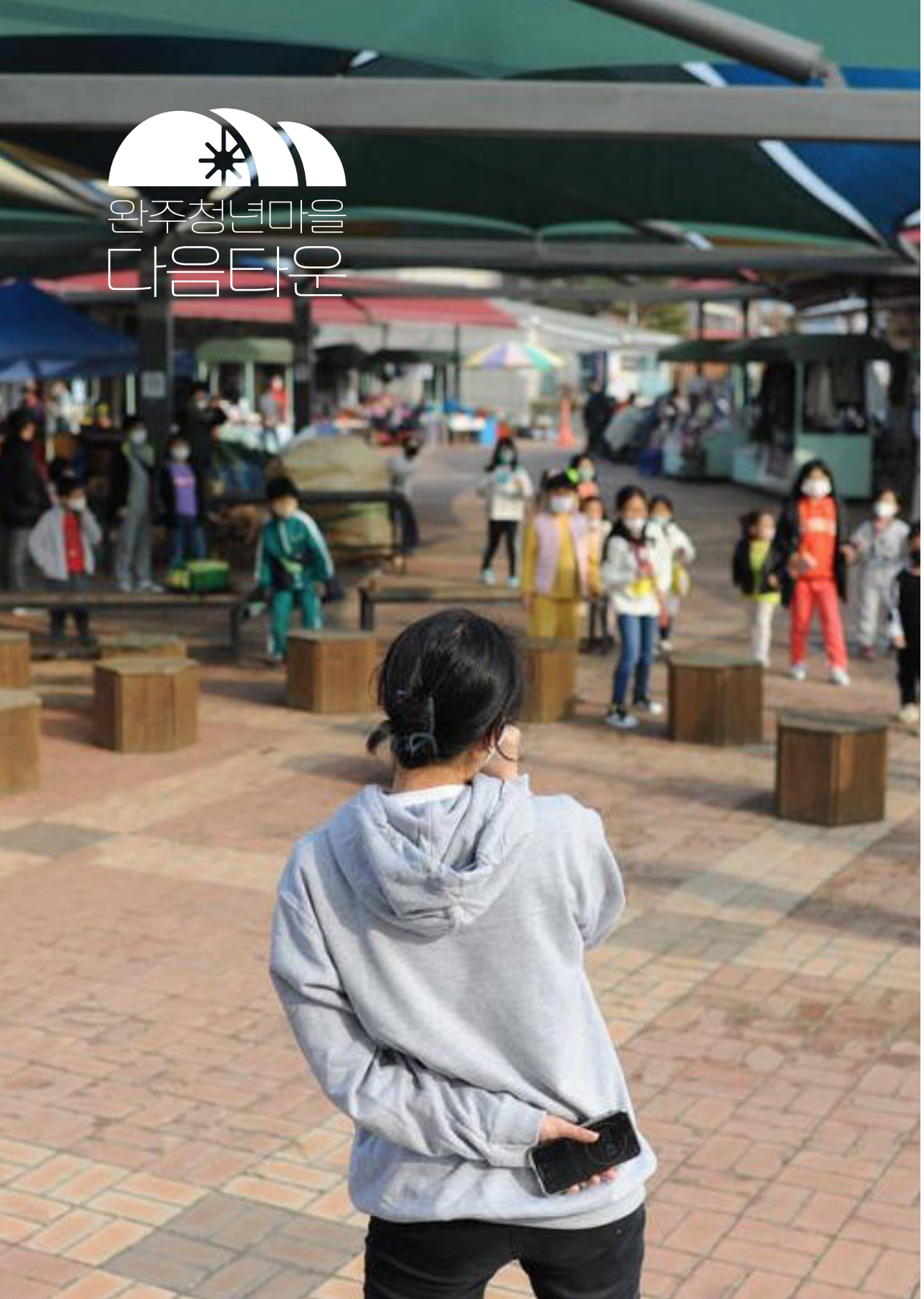
주민들과 청년을 연결하는 문화사업들을 추진하면서 자연스럽게 청년마을로 이어지게 됐다. 지금은 다양한 청년들이 농촌을 무대로,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다양한 실험을 할 수 있도록 로컬몬스터가 뒷받침을 해주고 있다.

그동안의 성과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이후, 4실의 창작공간을 중심으로 청년 창업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실제로 다수의 청년들이 청양에 정착하여 새로운 법인이 되고, 지역을 새롭게 바꾸고 있다. 카페, 로컬푸드 도시락, 굿즈샵, 콘텐츠 크리에이터 등 총 7개 팀이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며, 3개 팀은 법인화를 마치고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했다. 이제는 이들과 함께 지속가능한 지역살이의 방안을 탐구하며 고군분투하고 있다.

마을이 그리는 미래

로컬몬스터는 청년들의 도전적인 창업과 실험을 지원하는 환경을 구축하고, 청양이 가진 우수한 자원을 브랜딩하여 청년과 지역민이 시너지를 창출하는 지속가능한 지역이 되길 기대한다.



전라북도 완주

다음타운 2021

완주청년마을
다음타운

청년기관	씨앗문화예술협동조합
대 표	김주영
위 치	전라북도 완주군 고산면 성재리 157-3 (송학길 10)
SNS	인스타그램(@local_platform_c.art)

마을의 시작

완주로 이주한 2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한 세대가 함께 모인 5개 단체가 이주 청년과 토박이 청년에게 비빌언덕이 되고자 걸음을 같이하며 청년들의 정착을 위한 플랫폼과 브릿지 역할을 하고 있다.

그동안의 성과

약 2,000명(지역민 1,200명, 외부인 800명)의 사람들이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청년마을 사업을 통해 주거공간 1실(다음스테이), 업무공간 3실 (비빌언덕 중개사무소, 비빌언덕공유실험실, 고래당)을 조성하여 청년들을 위한 보다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청년 정착율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해당 공간을 활용하여 다음타운만의 비즈니스 모델인 커뮤니티부엌, 게스트하우스, 문화기획, 탐방 및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 중이며, 청년이 지역민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청년마을 사업을 통해 농식품부와 서울시의 청년 지역탐색 프로젝트, 전라북도의 예비청년마을을 만들기 등 지자체와의 협업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다음타운을 통해 완주에 정착한 청년들이 모여 제로웨이스트샵 '만큼'과 전통주 협동조합 '막동막순' 등을 창업하였다.

마을이 그리는 미래

다음타운은 다양한 마을 실험을 통해 청년과 지역의 새로운 공동체 문화를 구축하고 도시와는 다른 대안적 삶으로의 전환을 모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청년들이 협력과 연대의 마을 시민으로 성장하는 기반을 만들고 지역 구성원 모두가 청년을 환대하며 청년과 함께 성장하는 '로컬의 미래'를 꾸려 나가고자 한다.



전라남도 신안

주섬주섬마을 2021

주섬주섬마을

청년기관	스픽스
대 표	이찬슬
위 치	전라남도 신안군 팔금면 탑목개길 124(팔금분교)
S N S	인스타그램(@zoosome)

마을의 시작

이찬슬 대표는 2019년부터 안좌도 중심의 여러 섬에서 동물들과 함께 섬 마을 아이들을 가르치고 전시를 기획하면서 신안의 섬과 바다에 반하여 정착했고, 더 많은 청년이 오가는 마을을 만들고 싶다는 바람이 생겼다.

독거 어르신의 집을 고쳐 셋방을 얻고 폐교를 미술관으로 조성하는 등 와우마을의 유휴공간을 하나씩 재구성함으로써 지역과의 접점을 만들어 나갔다.

신안군 안좌도는 산, 들, 바다, 갯벌이 공존하는 자연 그대로를 간직한 섬 마을로, 사라져 가는 신안군의 문화를 콘텐츠화하여 주민들과 함께 향유하고자 한다.

그동안의 성과

게스트하우스 주거공간과 500평의 폐교를 창업공간으로 조성하여 관계인구 확대의 핵심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방치된 폐공간을 마을 캠핑장으로 조성하자, 마을 청년이 해당 공간에서 한옥 게스트하우스를 창업하였으며 관광 콘텐츠 개발이 미비했던 팔금도 폐교를 동물원으로 만든 우실동물숲은 대표 관광 콘텐츠로 자리 잡아 관광객들로 들끓어 신안군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

마을이 그리는 미래

동물, 지역, 사람을 연결하여 특화된 로컬 콘텐츠를 개발하고 섬으로 향하는 이상하지만 이상적인 비전을 가진 친구들을 모아 영원히 늙지 않고 도전과 모험을 즐기는 환상의 섬, 네버랜드를 만들고 싶다.

공간이 없다면 버려진 섬 마을 학교를 무단점거해서 동물원으로 바꾸겠다는 꿈을 말하며 사회운동을 벌이는 미친 사람들이 모여 소멸위기의 섬을 상상을 실현하는 마을로 변화시키고 있다.



경상북도 상주

054마을 2021

청년기관	이인삼각 협동조합
대 표	주민준
위 치	경상북도 상주시 서성로20
S N S	인스타그램(@2in._.3gak)

마을의 시작

벽화 봉사활동을 15년 이상 해온 주민준 대표는 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해보고 싶은 마음에 사회적 기업을 세우게 되었다. 창업동기인 이바구마을 대표를 통해 청년마을 사업을 접하게 되었고, 상주라는 지역을 알게 되어 정착을 결심하였다. 현재 사회공헌 활동 및 봉사활동 대행업무로 주요 수익을 얻고 있으며 공공기관과 협력하며 비즈니스를 진행하고 있다.

그동안의 성과

청년마을 프로그램에 총 148명이 참여하였다. 주거 공간 5실, 업무 공간 1실(휴사이드왕산)이 청년마을 사업을 통해 조성되었으며 청년 창업 활성화와 관계인구의 정주화에 있어 핵심이 되고 있다.

'상부상주' 봉사 프로그램을 통해 상주만의 이야기를 담은 벽화 거리를 조성한 사례는 청년마을이 지역 간, 세대 간 소통의 매개체가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마을이 그리는 미래

누구나 쉽게 찾아와 쉬면서 상주를 경험하고 가까워지며, 상주에 정착할 수 있는 처소가 되기를 소망한다.



경상북도 영덕

뚜벅이마을 2021

뚜벅이마을 ESTD 2021

청년기관	㈜메이드인피플
대표	설동원
위치	경상북도 영덕군 영해면 예주2길 35
SNS	인스타그램(@walk_village)

마을의 시작

트레킹 등 좋아하던 활동과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에 사업을 시작하여 트레킹을 좋아하는 청년들이 모여 지역을 경험하고 사유의 시간을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의 발전을 꿈꾸고 있다. 영덕은 블루로드 코스를 바탕으로 다양한 해양 트레킹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의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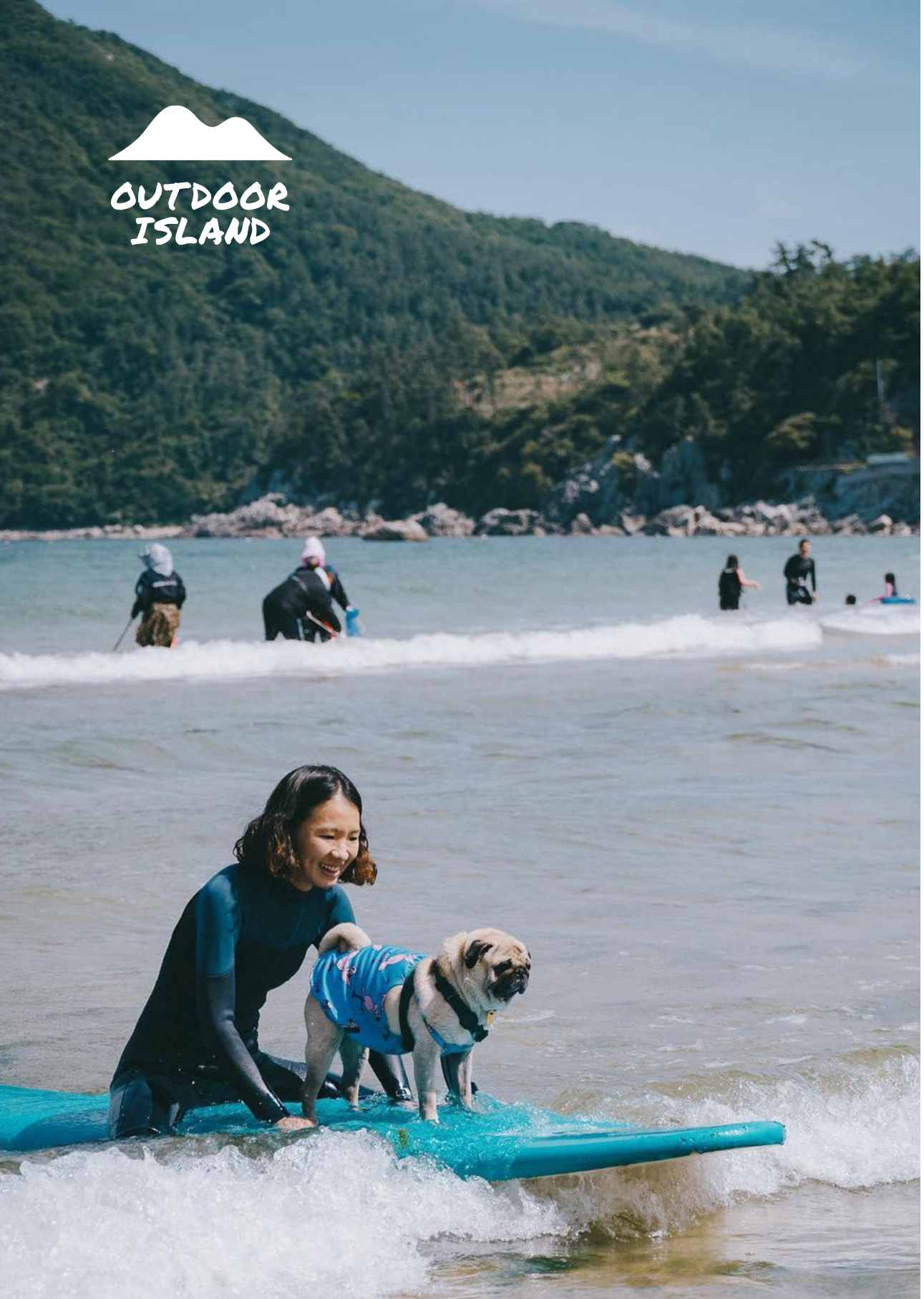
총 2,163명이 뚜벅이마을의 온 · 오프라인 트레킹 프로그램에 참여하였고, 정착 청년 중 일부는 전통주 브랜딩, 귀농, 플랫폼 사업 등을 준비하고 있다.

게스트하우스 '뚜벅이스테이션' 및 앵커스토어 '덕스(DUCKS)'를 운영하고 있으며 뚜벅이마을만의 트레킹 관광 콘텐츠와 연계한 트레킹 어플리케이션을 출시 예정에 있다.

청년마을 사업을 기점으로 문화재청, 독일 World United 등 다양한 기관과의 협업이 발생하였고 문화기획에서의 강점을 바탕으로 다양한 지자체 프로젝트를 수주하여 운영하고 있다.

마을이 그리는 미래

트레킹이라는 취미를 매개로 다양한 프로젝트를 운영하여 청년들이 천천히 걸음을 걷는 대안적 삶을 배우고, 영덕을 대한민국 최초의 트레킹 성지로 만들고자 한다.



경상남도 거제

아웃도어아일랜드 2021

OUTDOOR ISLAND

청년기관	㈜아웃도어아일랜드
대 표	박은진
위 치	경상남도 거제시 장승포로 77-1
S N S	인스타그램(@outdoor_island)

마을의 시작

부산 지역재생 사업에서 느꼈던 보조자적 역할의 한계를 탈피하기 위해 살고 싶은 동네를 직접 만들 수 있고, 풍부한 자연환경을 보유한 거제로 이주했다. 거제는 일본식 가옥 등 근대역사 건축자원과 장승포 방파제, 망산 해안도로 등 일상적으로 아웃도어를 즐길 수 있는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다. 개개인이 나다움을 찾고 부캐가 본캐가 되는 아웃도어 공동체를 목표로 시작해 아웃도어 라이프스타일 타운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그동안의 성과

총 97명 (지역민 4명, 외부인 93명)이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에 참여하였다. 해당 사업을 통해 조성한 주거공간 9실, 업무공간 2실은 청년 정주화에 기여하고 있다. 거제시 어촌활력 증진 지원 시범사업 장승포 권역을 수주하여 4년간 70억 예산을 유치한 바 있으며, 정착 청년 2인이 한국관광공사 예비창업자 사업에 선정되었다는 점에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의 기여도를 확인할 수 있다.

마을이 그리는 미래

지역자원을 아웃도어 라이프스타일로 해석하여 장승포만의 정체성을 공고화함과 동시에 청년들은 새로운 삶의 방식을 기획하는 과정에서 자기만의 부캐 라이프를 발굴한다. 박은진 대표는 “거제에서는 내가 주체가 되어, 원하는 곳에 캠핑 의자와 텐트를 놓으면 그 곳이 바로 쉬고, 놀고, 일하는 곳이 됩니다. 앞으로 아웃도어 라이프의 성지가 될 장승포가 기대돼요.”라고 말했다.

2020 – 2018



경상북도 문경

달빛탐사대 2020

청년기관	가치살자 협동조합
대 표	주재훈
위 치	경북 문경시 문경읍 활공장길 122, 플레이버 하우스
S N S	인스타그램(@munlight2020)

마을의 시작

청춘들이 무궁무진한 자원과 가능성을 발견하고 스스로 미래를 그릴 수 있는 미지의 땅을 만들고자 했다. 2020년, 외식업, 디자인, 식품개발, 공연기획 등 각자의 분야에서 왕성히 활동하는 청년 사업체 5개가 모여 가치살자를 만든다. 당해연도 5월, 행정안전부 청년지역정착 신규발굴 용역 사업을 시발점으로 달빛탐사대 프로젝트 운영을 본격 시작했다.

그동안의 성과

총 160여 명의 청년들이 달빛탐사대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해당 사업을 통해 커뮤니티 공간 3실, 창업공간 7실이 조성되었으며 창업 아이템 중 '문경약돌소금커피'는 특허 출원에 성공했다. 커뮤니티 공간(보름달오피스, 달맞이스페이스, 플레이버하우스)은 지역 청소년들이 방과 후 들러 책을 빌려 읽거나 악기를 연주하는 등 자연스러운 지역문화 형성의 거점이 되고 있다. 또한, 달빛탐사대 프로젝트를 통해 다양한 창업공간(다시오후, 카페 앓이, 오그린 샐러드, 반달책방, 개취존, 헬로우문경, 봄베이스낵바, 하리과자점, 여유라탄공방 등)이 조성되었으며 현재도 왕성하게 운영 중이다.

마을이 그리는 미래

지역자원과 청년 취향을 연결한 지역 체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출판, 행사, 상품 개발 등 폭넓은 콘텐츠 크리에이터 그룹으로 성장하고자 한다.



충청남도 서천

삶기술학교 2019

삶기술학교
한산캠퍼스
slowtech

청년기관	㈜자이엔트
대 표	김정혁
위 치	충청남도 서천군 한산면 한산모시길 33 2층
S N S	인스타그램(@slowtechhansan)

마을의 시작

2017년~2019년 한산모시문화제 청년기획단으로 활동하면서 충남 서천군 한산면에서 한산모시를 활용한 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시작했다.

한산면은 청년 세대의 부족으로 지역 소멸 위기에 있었고 2030 청년이 많이 머물 수 있는 마을을 만들어보자는 결심으로 삶기술학교가 탄생했다.

도시와 마을의 삶기술을 통해 청년들의 자기실현을 코칭하고 지역 혁신형 인재를 육성하여 지방정부, 주민 등과 함께 지방소멸을 합력하여 해결해 나가고 있다.

그동안의 성과

약 1만 2천 명이 청년마을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19개의 마을 유휴공간이 재생되었고 협력기관은 51팀에 이른다. 청년마을 사업을 통해 다양한 개인과 단체가 마을을 찾아 105건의 마을투어가 진행되었고 15팀의 청년 창업이 발생했다. 그중 '일오백'은 한산의 전통주 한산소곡주를 리브랜딩하여 창업한 브랜드이다.

더불어 공유오피스와 다양한 업무 공간으로 조성된 '한산디지털노마드센터'가 올해 오픈하며 서천을 디지털 노마드들의 성지로 그려나가고 있다. 전통주 마을에서만 즐길 수 있는 워케이션 서비스인 '술케이션'을 런칭하였다.

마을이 그리는 미래

"마을이 벤처다"라는 비전으로 신인류 청년들과 지역주민들의 상생을 통해 지역 전통산업의 가치 확산과 경제적 확산으로 미래도시를 꿈꾼다. 이를 위해 농업법인 투자를 유치하고 전통주 시장의 온·오프라인 플랫폼을 구축하여 전통주 산업에 대한 혁신을 일구고자 한다.



전라남도 목포

괜찮아마을 2018

괜찮아마을

청년기관	㈜괜찮아마을목포, ㈜공장공장
대표	홍동우, 박명호
위치	전라남도 목포시 해안로229번길 13 2층
SNS	인스타그램(@dwv_official)

마을의 시작

서울에서 여행사를 운영하며 청년 세대가 쉼에 대한 갈증을 느끼고 있으며 언제든 돌아갈 수 있는 고향을 필요로 함을 깨닫고 괜찮아마을을 구상했다.

2016년 제주, 2017년 목포에서 청년 지역 거주 프로그램 '한랑유치원', '놀고, 먹고, 사는 게 인생이라면'을 운영하면서 괜찮아마을의 윤곽을 잡았다.

시민참여 공간활성화 사업에 선정되면서 괜찮아마을 1기 30명, 2기 30명을 유치하며 6주간의 지역살이를 최초로 진행했다.

그동안의 성과

약 205명의 청년들이 괜찮아마을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청년마을 시작 이후 민간투자 24억, 공공투자 14억을 유치하였으며 조성한 공간은 1,000평에 육박한다.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을 발판 삼아 성장을 지속하면서 행안부장관상 수상, 대한민국 체인지 메이커 선정, 로컬 크리에이터 선정, 창조관광기업 선정 등 자타공인 마을재생의 성공사례로 인정 받았고, KBS, 조선일보, 한겨레 등 국내 언론을 넘어 홍콩 남화조보, 영국 BBC, Times 등에 소개되어 'K-로컬'로의 비상을 눈앞에 두고 있다.

괜찮아마을의 정착 청년들은 '최소한끼'라는 채식식당을 오픈하였다.

마을이 그리는 미래

청년들이 상상을 실천으로 옮길 수 있고 인생을 다시 설계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으로 자리 잡아 청년들의 교육, 경제, 생활 기반 공동체로 성장한다.

PART.2

청년마을

청년마을
임팩트 스토리

Human Impact

로컬에서 다양한 삶의 모양을 만들어 나가는 청년들의 이야기



8가지 취미로 괴산에서 취미 공작소를 시작하다
괴산 뭐하농스 , 최예나

삶을 뒤흔든 터닝포인트, 둘이라서 가능했던 경주 정착 이야기
경주 가자미마을 , 박서영, 양혜진

가자미 문화 콘텐츠를 디자인하다
경주 가자미마을 , 김종률

몸이 고단해도 함양 사과농장에서 행복을 찾다
함양 고마워,할매 , 김소영/해수

도자기로 차 맛을 살리고 하동 청소년들을 살리다
하동 오히려하동 , 최성훈

'연주'의 영역을 넓히는 대그머(대금연주자)
태안 오락발전소 , 박송이

속초에서 AR 필터 제작을 통해 흐릿했던 삶도 필터
속초 라이프밸리 , 이충근

속초 파도에 7일 동안 덮인 후 로컬의 블루오션을 찾다
속초 라이프밸리 , 이지나

재봉 학원 경험으로 태백에서 광부 패션 산업의 길을 트다
태백 광광스토리지 , 박상아

자급자족 라이프로 '에코(ECO)'를 외치다!
영월 밭멍 , 손태원

도고온천의 새로운 사회적 가치, 비건을 들이다
아산 DOGO온천 , 오현경

따듯한 도고온천을 '핫'하게
아산 DOGO온천 , 서민지





Human Impact #1

8가지 취미로 괴산에서 취미 공작소를 시작하다

괴산 청년마을, '뭐하농스'의 최예나 청년 이야기

답답한 도시생활과 사람에 지쳐 괴산 청년마을 '뭐하농스'로 떠난 한 청년은 로컬에서 다시 사람이 좋아지고 사람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괴산에서의 정착을 준비하며 버킷리스트인 '도이도이 스튜디오'와 '도이도이툰' SNS 채널을 운영하며 자신만의 콘텐츠를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든든한 친구들과 함께 삶의 주인공으로 다채로운 공작소를 꿈꾸는 최예나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Q. 괴산으로 오기까지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반에서 생일 편지 써주고, 그 위에 귀여운 그림을 그려주는 친구였어요. 그림 그리는 건 계속 좋아했고 패션디자인을 전공하면서 머릿속으로 생각한 것을 직접 만들어낸다는 일이 정말 좋았어요. 하지만 이 일이 싫어서 라기보다 저에게 더 잘 맞는 것 같은 일을 찾아갔다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저는 대학교 4년 내내 패밀리레스토랑에서 일했는데, 사람들을 응대하는 게 재미있고 참 잘 맞는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서비스직 중에 제일로 보이는 공항에 가기로 마음을 먹고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연간 공항에서 일하면서 스케줄 근무로 몸도 많이 상하고 사람들로 인해서 마음도 많이 지쳐갔어요. 퇴사를 하고 나서도 이게 쉽게 회복이 되지 않더라고요. 서울에서 머물고 있었는데 도시가 너무 답답하고 시끄럽게 느껴져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었어요. 저를 더 우울하게 하는 환경에서 벗어나 뻥 뚫려있고 초록 초록한 곳으로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도시 자체가 감성 있고 자연 풍경도 예쁜 치앙마이로 한 달 살이를 떠나려 했지만 코로나로 인해 나가지 못해 시골로 시선을 옮겨 귀농, 귀촌 기사를 자주 찾아봤어요.

우수사례로 뭐하농스 청년마을이 나왔어요. 또 마침 그날이 신청 마지막 날이었고요. 우연치 않게 봤지만 마침 신청 마지막 날이라고 하니 운명인가 보다 하고 바로 신청서를 작성하게 되었어요.

청년마을이 어떤 곳인지 전혀 몰라 더 찾아봤어요. 찾아보니 21년도에 농사를 짓는 곳은 괴산 청년마을 밖에 없더라고요. 귀촌을 생각했을 때, 농사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두 달 동안 농사를 체험하고 또 프로그램도 탄탄해 남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들었어요.

Q. 지금의 일상은 어떠신가요?

괴산에는 농부들을 위한 지원이 더 많다 보니 아직 집을 구하지 못했어요. 본가가 원주이고 또, 요즘에는 온라인으로도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 현재는 원주에 작업실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괴산을 자주 왔다 갔다 하며 지내고 있어요. 뭐하농스와 함께 여러 가지 기획, 디자인 업무를 하기도 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자 혹은 운영진으로도 함께하고 있어요. 뭐하농스에서 운영하는 편집숍에서도 제가 만든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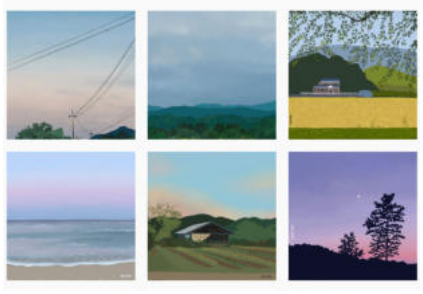


Q. 뭐하농스에서는 어떤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뭐하농스에서는 저희의 삶, 스토리들을 알리는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각자의 일들을 하면서 함께 단기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행사를 열기도 하고요. 또 괴산에는 청년 인구가 5천 명 정도로 굉장히 적은데 괴산 소모임 지원 프로그램과 자체 청년 모임들을 만들어 등산, 출판, 취미활동, 플리마켓 등 재미있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Q. '도이도이 스튜디오'의 한 장의 그림과 비하인드 스토리가 사소하지만 공감이 가는 콘텐츠 같아요.

도시에 살 때 뭔가 답답한 마음을 집에서 해소하기 어려웠어요. 자연 풍경으로 된 포스터를 사서 벽 곳곳에 붙여 놨었는데, 멍하니 보고 있으면 빨려 들어가서 따뜻해지고 뭉클해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괴산에 오고 나서 풍경을 사진으로 담아도 분위기가 담기지 않아 결국 그림으로 그려 SNS에 업로드하기 시작했어요. 그림을 그리는 것과 SNS 채널 운영을 막연히 버킷리스트처럼 여겼었는데 괴산에서 시작을 하게 되어 저에게 큰 의미가 있어요.



괴산에서 지내다 보면, 똑같은 풍경을 매일 봐도 색감이 오묘하게 다르거나 공기나 냄새가 다른 것을 매일 느껴요. 습도가 높은 날엔 색이 진해지고, 어떤 날엔 소리로 힐링 되는 느낌을 받아 그 순간 느꼈던 저의 감정들까지 그림에 담으려고 해요. 이 그림들을 보면 잠시나마 자연을 느끼고 삭막하고 바쁜 일상에서 짧은 쉼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Q. '도이도이툰'은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나요?

'도이도이툰'은 저의 기록장이라고 할수 있어요. 저에 대해서 기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일 테지만 그중에서 제가 제일 접근하기 쉬운 그림으로 표현해 봐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종종 어떤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나와는 다르게 멋져 보인다고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하지만 실제로 보면 다 비슷한 생각을 하고 같은 어려움들을 겪는 사람이 많아요. 누군가 저의 툰을 보고 위로받고 공감한다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Q. '도이도이'의 의미도 그렇고 '도전' 그리고 '확신'이 중요한 것 같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순간들을 되돌아보면,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패션디자인과로, 패션디자인에서 공항 지상직으로, 또 괴산에서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그때마다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바꿔왔던 것 같아요. 누군가는 쉽게 질려 하고 끈기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용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는 것에 멈칫하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지금은 다른 사람의 시선보다 '지금의 나', '내가 하고 싶은 것'에 집중하려고 끊임없이 다짐해요.

Q. 뭐하농스 혹은 청년마을 사업이 어떤 가치를 주었나요?

청년마을은 주저하고 있는 많은 청년들에게 기회와 확신의 장을 열어주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지역 내에서 청년들이 꿈꾸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멘토들을 만날 수 있고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해줬거든요. 저는 청년마을에서 마음속으로만 생각해 왔던 일들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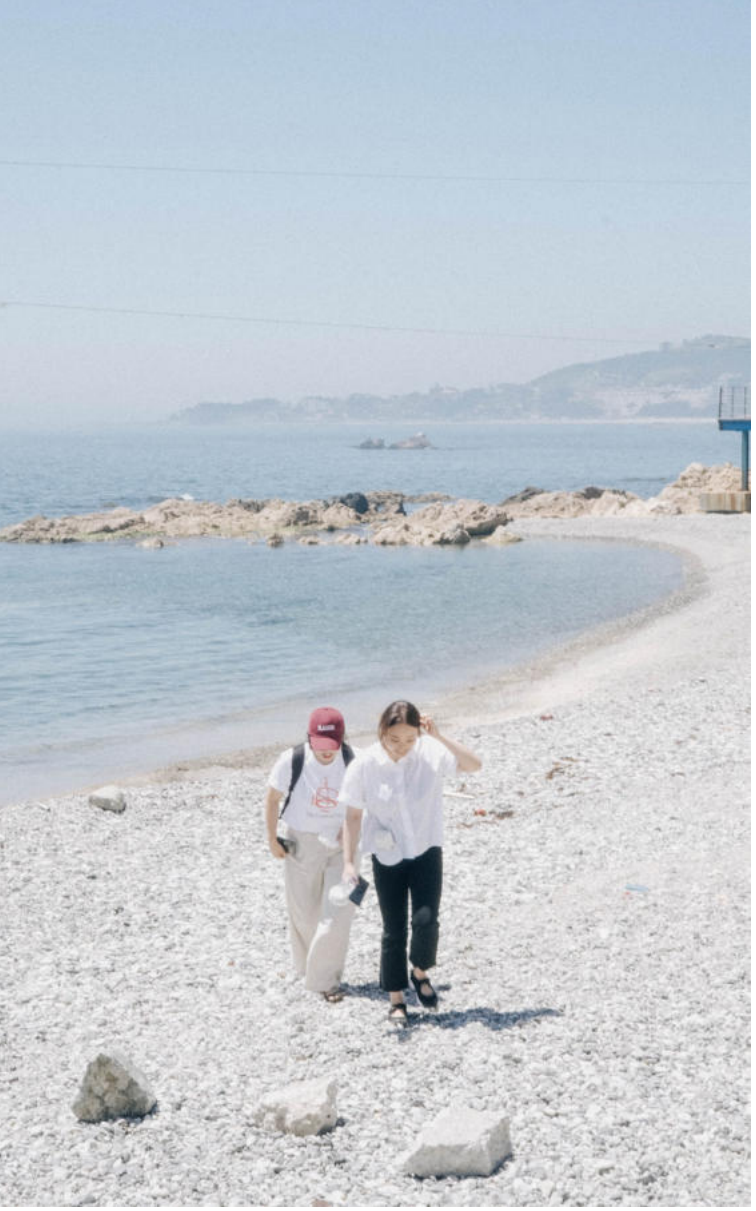
또 청년마을을 참여하면서 저의 세상이 넓어진 것 같아요. 이렇게 인터뷰도 하게 되고,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통해 다른 청년마을 청년들도 만날 수도 있어 더 많은 청년들이 청년마을을 경험하고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Q. 예나님에게 어떠한 변화가 있었나요?

가장 크게 얻은 건 바로 '사람'이 아닐까 싶어요. 사람 때문에 지친 제가 사람이 다시 좋아졌으니까요. 처음 내려왔을 때는 '내가 할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들어있던 상태였는데 다들 칭찬을 계속해 주어 마음이 채워지고 여유로워지고 너그러워졌어요. 또 뭐하농스의 청년들은 농사, 창업 등을 통해 시골에서 자기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저도 자신감을 많이 갖게 되었고, 앞으로 많은 것들을 함께 해 나갈 친구들이 생겨 든든합니다.

Q. 앞으로의 꿈, 목표, 계획이 궁금해요.

일단 첫 번째로는 꾸준히 하고 싶은 일들을 배우고 도전하면서 제 삶의 주인공이 되는 게 목표예요! 하나의 계획이 있다면, 저는 취미 부자인데요. 지금 주로 하고 있는 아이패드 드로잉 이외에도 오일 파스텔 드로잉, 뜨개질, 위빙, 비즈공예, 재봉, 점토공예, 칼림바 연주까지 손으로 하는 것은 이것저것 다 하고 있습니다. 괴산에는 센터에서 운영하는 장기적인 교육은 있지만, 한 번씩 접해 볼 수 있는 원 데이 클래스 공간은 거의 없어요. 사람들이 나에게 맞는 취미를 찾기 위해 여러 공방들을 돌아다니는데 저는 이걸 제 공방 한 장소에서 다 해결해 주고 싶어요. 제가 만든 제품들도 판매하며 함께 할 수 있는 '도이도이공작소'를 만드는 게 저의 꿈이자 목표입니다.



Human Impact #2

삶을 뒤흔든 터닝포인트, 둘이라서 가능했던 경주 정착 이야기

경주 청년마을, '가자미마을'의 박서영(앵이), 양혜진(히죽) 청년 이야기

서울로 상경한 꿈 많던 20대 청년. 답답한 하늘, 수많은 사람들 속 한 명으로 살아가던 중 청년마을을 발견하고 과감하게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과 함께한 또 다른 한 명의 변화를 갈망하던 청년.

"여기 다녀오면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 질문 하나로 시작된 경주 가자미마을 경험. 변화된 나, 관계, 다채로운 일상 그리고 꿈꿔왔던 은퇴 후의 삶을 살고 있는 박서영(앵이), 양혜진(히죽) 청년입니다.

Q. 먼저 '앵이와 히죽이', 별명의 의미가 궁금해요.

앵이 : 친구들이 제 이름 '서영'을 재미있게 발음하다 보니 앵이가 되었고, 혜진이는 '히죽'이라는 별명이 이미지와 잘 어울리고 이름 초성과도 같아서 '히죽'으로 짓게 되었어요. 저희 둘의 별명을 합쳐서 '앵죽' 이에요.

Q. 가자미마을에 오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나요?

앵이 : 고향은 대전이고 서울에서 5년을 지냈어요. 서울이 한국에서 가장 큰 도시잖아요. 저는 원래 다큐 PD가 되고 싶었고, 막연히 '서울에 가서 지금까지 해 온 것만큼 하면 돈도 많이 벌고 유명한 사람이 되겠지?'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며 저는 우물 안 개구리였다는 걸 깨달았죠. 어렸을 때부터 나름 주목을 받으며 살았는데 서울에서는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눈에 띄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너무 막막하고 자신감도 하락해서 힘든 시간들을 보냈어요. 또 하늘이 보이지 않는 것도 그렇고 매일 반복되는 지옥철도 너무 지치게 했어요.

그러다 취업 준비를 하려고 잠시 대전에 내려와 지냈는데 서울에 다시 가서 살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때 이런 질문들이 떠올랐어요. '지역의 아름다운 도시에서 살 수는 없을까?',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좋지 않을까?' 그러던 중 우연히 가자미마을 모집공고를 봤어요. '생텀마을'과 '오히려하동' 청년마을도 봤었지만 정착을 염두에 두고 보니 가자미마을을 통해 지역에서 결과물을 확실하게 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저는 단순히 체험만 하고 오는 것이 아닌 제 눈으로 직접 결과물을 확인하고 싶은 간절함이 있었거든요.

히죽 : 1년 정도 대학병원 영양사로 있었는데, 취업한 해에 코로나가 터져 각별히 조심해야 하는 상황이 지속되었어요. 그런 상황이 알게 모르게 저를 답답하게 했고, 또 첫 사회생활이다 보니 스트레스 해소 방법도 몰랐어요. 영양사라는 일이 보람을 느끼기 보다는 힘든 부분이 컸던 것 같아요. 영양사를 하고 싶어서 했지만, 생각했던 이상과 현실은 너무나도 다르게 느껴졌어요. 거기서 느꼈죠, '아, 나는 지금 쉼이 필요하구나.'

일을 그만두고 쉬면서 찬찬히 생각해 보니 병원 영양사를 하고 싶어서 했고 목표를 달성했는데, 거기에서 오는 뿌듯함이나 보람이 부족하고 앞으로의 목표도 사라지니까 힘들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영양사라는 직업에 대해 생각이 많아지면서 제가 처해있는 익숙한 환경에 대해서도 고민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한곳에 오래 있다 보니 생각을 깨고 나오기 힘들어하는 걸까?' 이런 질문도 던져보게 되더라고요.

쉬던 중 앵이를 불러 맥주 한잔하자고 했는 데 '가자미마을' 프로그램에 신청했다고 하더라고요. 마침 그날이 신청 마지막 날 이었는데 그 얘기를 듣고 호기심이 생겨 바로 신청했어요. 저는 대전에서만 지내서 익숙한 환경에서 벗어나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스스로 우물 안 개구리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던 시기였고, 바닷가 마을에서 살아보고 싶은 로망 때문인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Q. 가자미마을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어떤 것들을 경험했나요?

앵이 : 가자미마을은 요리부, 홍보부, 기록부 등 팀이 나뉘어 있어요. 저는 영상 담당이어서 프로그램 콘텐츠 제작을 맡았어요. 어떻게 보면 제가 찍은 영상들이 결국 홍보영상으로도 쓰일 수 있으니까 더 책임감을 가지고 활동하게 되었어요. 세세한 부분까지 들여다보며 영상을 찍다 보니 혼자가 아닌 같이 해 나가는 것에 중요성을 느꼈어요.

히죽 : 저는 운영부였어요. 전체적인 일정과 '소셜 다이닝' 협찬 및 공간 연출, 각 부서의 서포터 역할, 스토리 작업을 했습니다. 저는 가자미마을 프로그램을 경험하며 용기를 많이 얻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전에는 제가 남들이 만든 선택지에서 선택을 했다면 지금은 선택지를 제가 직접 만들며 선택하는 느낌이에요.

또 한 가지 느낀 점은 삶은 계획적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원하는 대로도 안되니 그냥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지 말아야겠다 싶었어요. 적당히 큰 틀을 잡아서 해보고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습관으로 바뀌었어요. 처음부터 세세하게 하려다 보면 하기 전부터 스트레스 받아서 하기 싫어지더라고요. 대신 이렇게 하면 추진력이 더 잘 생기는 것 같았어요. 쓸데없는 걱정이 없어지고, 또 굵은 가지가 정해진다면 잔가지를 생각하면 되어서 심플하게 생각하게 돼요.

Q. 프로그램을 하면서 어떤 부분이 정착에 대한 확신을 주었나요?

앵이 : 저는 청년마을을 경험하고 나서 마치 좋은 여행지를 다녀온 것처럼 '그래, 이 기억으로 서울에서 힘내서 살아가자!'의 흐름이 싫었어요. 그래서 면접 때부터 '저는 남고 싶은데 계속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가능성이 있는지' 여쭤보며 정착할 생각을 어느 정도 갖고 있었어요.

그 외에도 '가자미식탁' 활동을 하면서 경주라는 도시의 풍경과 프로그램을 함께 하는 사람들이 좋았어요. 이를 계기로 사람에 대한 생각도 많이 바뀌었어요. 서울에서는 좋아하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과 지냈는데, 여기는 언제나 봐야 해서 관계에 문제가 생겨도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는 방법을 터득하게 되었어요.

한번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다시는 못 본다고 생각했었는데,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면서 잘 지낼 수 있구나'를 알게 되었고 관계가 더 돈독해지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를 끌어가는 느낌을 알게 되었고, 제 자신도 더 많이 사랑하게 되었어요. 이런 경험들이 정착을 결정하는 데 큰 역할을 한 것 같아요.

히죽 : 운영진분들도 너무 좋으신 분들이고, 멘토분들도 많이 만나게 되어서 용기가 되었어요. 좋은 인연을 만나 여전히 저희는 많은 득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저에게 프로그램 참여는 체험보다는 모험이었던 것 같아요. 앵이와 다르게 지역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당진에 잠시 발령 났을 때도 '나는 도시에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도시 인프라를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솔직히 용기도 없고 겁도 많고 긍정보다는 부정에



가까운 사람이었어요. 어떤 일을 해도 최악의 상황까지 생각해서 해결책까지 미리 생각하는 편이었고 실패를 두려워했거든요.

그런데 '가자미식탁'을 하며 제가 도전을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계획적으로 되지 않아도 낙담하지 않고 '그럴 수 있지'하며 넘길 수 있는 변화된 제 모습이 마음에 들었어요. 예전에는 내일이 궁금하지 않고, 10년 뒤 모습이 기대가 되지 않았는데 '가자미식탁' 활동을 하며 처음으로 내일이 궁금해지고, 1년 뒤 10년 뒤 모습이 기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당연히 경주로 내려오기를 결심하게 되었어요.

Q. 얼마 전에 '앵죽은 못 말려' 채널을 시작하셨는데 시작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앵이 : 사실 인생을 살면서 주변에서 반대 하거나 염려하는 선택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런 시선에도 불구하고 '이거 해야 해, 잘할 수 있어 믿어줘!' 하고 내려왔기에 놓치지 않고 기록하고 싶은 이유가 가장 커요. 부모님도 보시고 '잘 지내는구나' 생각하실 수 있고, 저희 둘이 같이 있으면서 기록하니까 더 용기 있고 밝은 모습이 담기는 것 같아 좋아요. 주변 사람들이 보고 '저걸 하네, 나도 해볼까?' 이러 용기를 가지게 된다면 저희는 그것만으로 성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꾸준히 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히죽 : 저는 정착을 생각하고 있는 청년에게 정보 공유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커요. 도시가 아닌 지역으로 내려가는 것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긍정으로 바꾸고 싶어요. 또 저희가 도전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기록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Q. 자주 가는 경주 산책길은 어떤 의미가 담긴 곳일까요?

앵이 : 감포는 마치 다른 차원의 세상같이 느껴졌어요. 서울에서 일을 하던 감포에서 하던 일은 항상 고되고 힘들고 하기 싫은 날이 분명 있어요. 서울에서 지낼 때는 출퇴근 시간에 경의중앙선에서 사람 꽉 찬 상태에서 다니다 보니 집에 가도 계속 화가 나고, 겨우 한다는 퇴근 후 일상은 5평짜리 방에서 영상만 보는 거였어요. 그때와 비교하면 지금이 너무 좋아요. 감포에서는 출퇴근할 때 아름다운 바다 풍경이 보이고 퇴근하면 집 앞의 야경, 위로 올려다보면 별들이 쏟아져요. 무엇보다 은은하게 들리는 파도 소리와 함께 좋아하는 사람들과 맥주 한잔하면 일에 대한 스트레스가 해소돼요. 이런 일상이 저랑 너무 잘 맞고 삶의 질이 올라가는 것 같아 행복해요.

히죽 : 저희가 자주 산책했던 곳은 가자미마을 소셜다이닝을 진행했던 근방에 있어요. 걸어서 한 15분 정도 걸려요. 맥주 한 캔씩 그리고 돗자리를 들고 가서 바닷가에 앉으면, 뒤에는 파도 소리가 들리고 앞은 가자미마을이 보이는 뷰에요. 앵이 말대로 하늘에는 별이 쏟아졌고요. 그리고 음악을 듣고 있으면 서로 감정적으로 통하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며 보냈던 시간은 크루원들과 애틋해지고 가까워질 수 있었던 시간이었어요. 함께 하다 보니 언제 친해졌는지도 모르게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었어요. 생각해 보면 이런 인연, 관계를 만난다는 것 그리고 앵이와 함께 이 모든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은 정말 어렵잖아요. 그래서 기적처럼 느껴지고 감사해요.

Q. 일상이 궁금해요.

앵이 : 프리랜서라 고정적인 일상은 없어요. 한 가지 말하자면, 경주에서 걷는 것만큼 행복한 일상이 없어요. 걸을 수 있는 곳과 앉아있을 곳이 많아요. 실내에서 누워있는 채로 생각에 빠지면 걱정을 하게 되는 되는데 걸으면 영감과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걱정보단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하게 되어요. 그러다 보니 밤에도 방에서 핸드폰을 들여다보는 대신 나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내가 원하는 도시에 있구나' 매일 체감해요.

Q.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앵이 : 당분간은 영상 기획, 촬영, 편집을 도와드리며 생계를 해결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또 책을 좋아해 은퇴하면 책방을 차리고 싶다는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꿈을 실현해 보려고 합니다. 정부에서 하는 청년사업 지원 정책에 도전해 볼 계획이에요. 저의 책방은 책도 팔지만,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키고 현생을 잊고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해요. 나중으로 미루지 않고 빨리 시작해 보고 싶더라고요. 되도록이면 1-2개월 안에요.

조금 먼 꿈을 얘기하자면, 제가 지역에 온 것이 무엇인가를 포기하거나 야망 없어 온 거라고 보이고 싶지 않아요. 저는 오히려 꿈과 야망이 있기에 지역에 왔거든요. 지금 지역 정착에 유일한 문제는 일자리인데, 앞으로 10년, 20년 지났을 때 지역에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체를 가지고 싶어요. 저만 잘 사는 것이 아닌 다른 사람들도 경주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어요.

Q. 가자미마을을 한마디로 하자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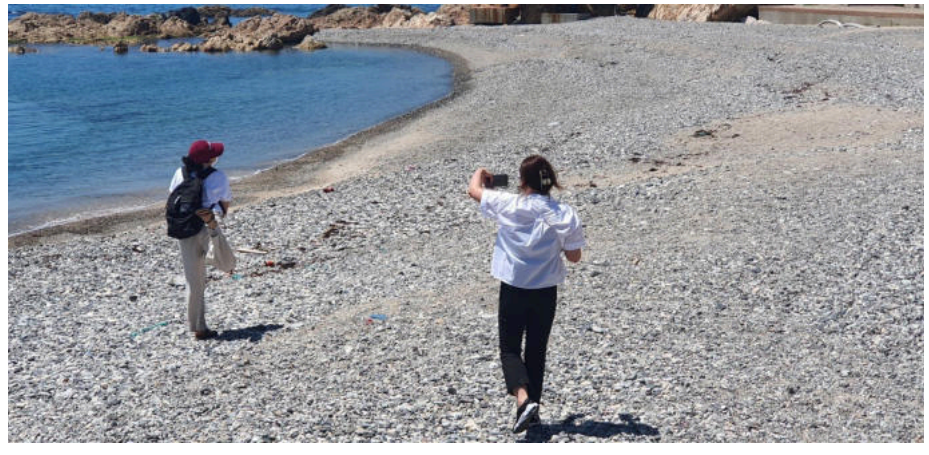
앵이 : '내 20대의 터닝포인트'라고 생각해요. 이번 계기로 제 인생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흔들어 놓았거든요. 그리고 어쩌면 다른 누군가의 삶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청년마을이에요.

히죽 : 저는 '영광스러운 경험'이에요. 활동들을 같이 하고 또 그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셔서 너무 좋았어요. 가자미식탁을 하면서 저는 실패로부터 자유로워졌어요. 목표에 달성하려면 중간 과정이 필요한데 그 중간 과정을 실패라고 착각했던 것 같아요. 안 되는 것들을 너무 두려워하고 생각이 많았었는데 막상 하면 생각보다 괜찮고 제가 나약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더 가벼운 발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또 제 장점을 발견하니까 자존감도 더 높아진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니 저에게도 '인생의 터닝 포인트'네요.

Q. 지역 정착에 관심 있는 청년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앵이 : 일단 목적이 뭐가 되었든 경험해 보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다면 해보는 게 좋다고 봐요. 청년마을 경험은 마이너스가 되지 않고, 무조건 얻어 가는 것이 있어요. 어쩌면 그 선택이 저처럼 삶을 뒤흔드는 경험이 될 수도 있어요. 한두 달 정도의 시간이 정말 크고 충분히 가치 있는 경험이 될 거예요.

앵이 : 저는 청년들이 자신에게 맞는 삶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지역에 맞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너무 잘 맞으니까요. 직접 경험을 해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 있구나 알게 되었거든요. 반드시 지역에 내려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에만 맞춰 생각하면 놓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도시에 살지만 힘들다면, 꼭 도시여야만 할 필요는 없어요. 도시가 아니어도 괜찮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Human Impact #3

가자미 문화 콘텐츠를 디자인하다



경주 청년마을, '가자미마을'의 김종률 청년 이야기

"저도 얼마 전에 알았어요. 제가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는지."

'웃는 얼굴'과 첫 작품이자 첫 포트폴리오를 들고 가자미마을에 와 다양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재미있는 경험을 통해 시야가 넓어지며 하는 일에 가치를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도시로 간 친구들과 만날 때면 당당하게 자신이 하는 가치 있는 일들을 이야기하며 디자이너로 자신만의 사업을 꿈꾸며 도시 청년들에게 지역에서도 기회와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고 합니다. 가자미마을의 김종률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Q. 가자미마을에 오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나요?

경주 같은 지역에서는 학생들이 실업계 고등학교를 가서 바로 일자리 혹은 대기업에 취직하는 그림을 많이 그려요. 저는 군대를 다녀 오고 사람들을 많이 만났는데 그 과정에서 광고 대행 쪽 디자이너를 알게 되었어요. 그렇게 디자인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일러스트 쪽 으로 눈을 돌리게 되었죠. 저는 사실 어릴 때부터 그림을 좋아했는데 꿈을 펼치지 못하고 실업계 쪽으로 갔었고 군대 다녀오고 나서 이 한이 풀어졌던 것 같아요.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요.

채용공고를 친구가 먼저 접해서 저에게 알려주었고 바로 지원했어요. 그때의 전 디자인이라곤 하나도 뽑아보지 못한 새내기였고 면접에 준비한 포트폴리오가 제 첫 작품이었어요. 믿을 것이라고는 당당함과 웃음밖에 없었는데 다음 날 같이 일하자는 연락이 와 지금까지 함께하고 있어요.

Q. '가자미마을'에서의 일은 어떠한 가요?

가자미마을의 공식적인 프로그램 등 홍보가 필요한 내용은 빠른 시간 안에 그릴 수 있어요. '가자미식탁' 때는 홍보부와 지역 주민 인터뷰를 카드 뉴스로 만들고 개별적으로 '하삼'이 웹툰을 만들었어요. 지금은 프로그램이 끝나 마을에서 일어나는 일상을 업로드하고 있어요.

가자미마을에 있으면서 실력의 성장보다 한 사람으로서의 성장이 더 가치 있다고 느꼈어요. 저에게 첫 회사이고 아무런 실력도 없이 들어왔지만 실수를 해도 웃으면서 대해주시는 상황 등을 통해 인간관계와 책임감에 대해 배울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배움의 과정이 디자인을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Q. 하삼이의 탄생 배경이 궁금합니다

'가자미 식탁' 당시 홍보부 크루원들과 함께 청년들의 이야기를 어떻게 하면 잘 녹여낼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하삼'이라는 캐릭터가 탄생했어요. 가자미마을 홍보영상에 제가 출연했는데 그중 가상인물 이름이 '춘삼'이에요. 하지만 춘삼이의 '춘(春)'자는 여름과 어울리지 않으니 계절에 따른 여름 '하(夏)'자를 사용해 하삼이가 되었어요.

하삼이를 통해 제 내면의 속마음을 표현해 보자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하삼이는 직접적으로 울고 기뻐하는 장면을 통해 감정을 표현하는데 그건 제 속에 있는 감정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Q. 경주 출신으로서 가자미마을을 통해 일어난 지역의 변화가 무엇인가요?

제가 경주 시내에서 지낼 때 감포라는 동네는 진짜 조용하고 관심에서 떨어진 동네였어요. 근데 '마카모디'와 '가자미마을'이 생기고 감포읍내에서 가장 오래된 목욕탕을 '1925감포' 카페로 새 단장하여 오픈한 것이 영향이 컸던 것 같아요. 지금 매 수요일마다 문화동에 이벤트나 행사를 할 정도로 시끌시끌해요. 곳곳에 강연과 미술을 하고 음악 소리가 퍼지는 그런 외부적인 변화들을 보면 마을이 살아나고 있는 것 같고 마을 분들이 구경 오실 때 마을이 움직이는 느낌이 들어요.

Q. 마을 주민분들은 어떤 인식이나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1925감포'를 기획할 때 저희가 혼자 했다면 어려웠을 텐데 마을 주민분들이 적극적인 의견을 내주시고 힘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이 지역을 살리고 싶어 하는 어른들이 계신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어요. 이런 굵직굵직한 인연들을 통해 계속 다리를 놓고 나무가 뻗쳐가듯이 확산되어 지금은 저희들이 '청년마을에서 왔어요' 하면 좋아해 주시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Q. 청년마을을 통해 개인적으로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계속 경주에서 지내다 보니 타지에 있는 사람들이나 또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접할 기회가 적었어요. 근데 가자미마을 프로그램을 통해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제 생각과 시야가 넓어졌어요.

처음에 막연히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근데 다양한 경험과 다른 청년들의 이야기를 듣게 됨으로써 그냥 '할 수 있다'가 아닌 '나도 이 사람처럼 시나리오를 작업해 볼 수 있겠다', '나도 저 사람처럼 서류작업해볼까?' 이런 현실적이고 디테일한 방향으로 작용했어요.

또 시야가 넓어지니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알게 되었고 새로운 일을 하는 것에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특히 팀으로 일할 때 느꼈어요. '가자미식탁' 홍보팀을 운영할 때 저는 기술적인 일을 했고, 한 분은 문과적인 시나리오와 스토리 작업, 또 다른 한 분은 기획, 활동보고서 등 서류 작업을 잘하셨어요. 왜 팀으로 일하는지 알게 되었어요.

Q. 도시로 간 지역 친구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인프라와 대기업이 있고 꿈을 펼쳐보기 위해 도시로 가는 청년들이 많아요. 친구들 입장에서는 제가 계속 여기서 일하고 있는 것을 경험적인 것보다 시도하는 것에 신기해해요. 제가 재미있게 일하는 이야기들을 당당하게 하니 친구들이 저에게서 느껴지는 에너지가 있다고 말해요.

Q. 앞으로의 계획과 꿈에 대해 알려주세요.

면접 볼 때 경주에 나만의 디자인물을 다 붙여서 꾸미고 자신을 알리고 싶다는 목표를 얘기했는데 지금 그 목표를 이룬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제가 멘토로 생각하고 있는 일러스트레이터, '조조(조인혁)'처럼 그분은 로고 작업을 주로 하시는데, 일러스트레이터에서 그치는 게 아닌 사무실, 카페, 브랜딩 등 사업적으로도 넓혀 가고 싶어요. 또 그분처럼 작품에 제 색깔을 확실하게 나타낼 수 있는 영향력 있는 디자이너가 되고 싶어요. 그리고 타 지역 청년들이 지역에서 이렇게 일하고 있는 청년들을 보면 지역에서 뭐든 해볼 수 있다는 꿈과 희망을 품을 수 있지 않을까 해요.



Q. 가자미마을은 종률님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가자미마을은 거창한 단어일 수 있지만 '인생'인 것 같아요. 제 인생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시간과 에너지로 뭔가를 하고 있기에 지울 수 없고 돌이킬 수 없어요. 그래서 더 잘하고 싶고 더 마음이 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가자미가 많이 잡히면 한 가정을 지키고 감포를 돌게 하는 에너지 역할을 했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가자미마을은 존재 자체만으로 든든한 것 같아요.



Human Impact #4

몸이 고단해도 함양 사과농장에서 행복을 찾다

함양 청년마을, '고마워,할매'의 해수 청년 이야기

지치고 힘들 때면 어렸을 적 외할머니와의 추억과 초록 초록한 자연을 떠올린 청년. 우여곡절 끝에 함양으로 내려가 마음의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할매와의 일상은 저를 울컥하게 해요."

퇴사 후 심리치료까지 생각했던 청년은 함양에 내려가 자연스럽게 회복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연과 관련된 일이라면 몸이 고단할지라도 꾸준히 도전하고 두드립니다. 좋아하는 자연들을 엮어 바다 '해(海)'에 나무 '수(樹)' 자로 이름을 지어 함양의 매력을 다양하게 전하고자 하는 해수 청년입니다.

Q. 고마워,할매는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3년 동안 중국에서 유학 생활을 했는데 그 시간들이 제 성향과 미래를 바꾸게 된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중국 학교의 활동을 추구하는 교육 문화로 소심한 성격에서 도전적이게 변화할 수 있었고 중국어 습득 경험과 중국에 대한 꾸준한 관심으로 성인이 된 후 한국에서 중국어 관련 일을 계속했어요. 가장 최근에는 한국 유튜버 크리에이터 분들이 중국 영상 플랫폼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돕는 업무를 했어요.

그러다 번아웃이 와 올해 5월 말에 퇴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 시기에 초록 초록한 시골과 어렸을 때 저를 키워 주셨던 외할머니와의 추억이 많이 생각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골로 떠나고 싶었지만 방법을 몰라 검색을 했어요. 그렇게 '고마워, 할매' 2기 모집공고를 우연히 보게 되어 바로 지원했죠.

Q. 프로그램 중 어떤 부분이 제일 인상 깊었나요?

할머니랑 스냅 촬영하는 프로그램 일정이 가장 행복했어요. 그날 유독 날이 더워 7명의 청년들이 할머님들을 꾸며드리고 촬영까지 마치고 나니 모두 지쳐 있었어요. 그래서 할머니 집 나루에 할머님들과 다 같이 누워 쉬었는데 할머님들이 말하고 웃으시는 소리를 들으면서 뭉클했어요. 돌아가신 할머니도 생각났지만 도시에서는 보기 힘든 풍경이라 그 순간이 너무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근데 한 할머니께서 그때 저희 몰래 영상 촬영을 하셨나 봐요. 저희 마지막 날 팜파티 때 결과물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할머니가 찍으신 영상이 서프라이즈로 공개되었어요. 영상을 보는 순간 울컥했어요. 영상 속에서 할머니가 "손녀들아, 나는 너희들이 우리 집 마루에 누워 있을 때 너무 귀여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순간 할머니가 저희를 바라보셨던 시선이 상상되면서 할머니로부터 보답을 받은 것 같아 그때가 제일 기억에 남아요.

Q. 할머니들로부터 레시피를 전수받는 경험은 어땠나요?

저는 외할머니랑 같이 요리를 해본 적이 없어서 할머니와 요리하는 경험이 새롭게 다가왔어요. 특히 로컬 음식들을 만드는 것, 함께 요리하는 과정, 그리고 먹고 난 후 함께 노래하며 웃고 이야기하는 시간이 너무 좋았어요.



Q. 사과 농장에서 일은 어떤가요?

제가 '고마워, 할매' 프로그램이 끝나고 함양에서 2주 추가살이를 하며 집과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사과 농장에서 연락을 받아 출근하게 되었어요.

새벽 6시 반 버스를 타고 7시 안에 면에 도착하면 사장님이 픽업 오세요. 가는 길에 베트남 이모들, 삼촌도 태우면 7시 반 농장에 도착해요. 아침을 같이 먹고 일을 시작해요. 안 쓰던 근육을 쓰고 몸 여기저기 멍이 들어 너무 고단하지만 마음은 항상 즐거웠어요.

'농부시장 마르쉐'라는 채소시장이 한 달에 한두 번씩 서울 성수, 혜화, 용산 등에서 열리는데 사장님이 주말에 사과를 판매하러 가세요. 한 번은 제가 도와드리러 같이 새벽부터 출발해 사과를 판매했어요. 판매 경험도 좋았지만 사람들이 사과를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함양에서 난 사과가 얼마나 맛있고 좋은 사과인지 알게 되었어요. 서울에서 푸석푸석한 사과를 먹다 보니 사과를 안 좋아했는데 함양 사과는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사과를 좋아해요.

또 직접 사과나무 잎을 정리하고 사과를 따고, 담고 관리해 줄 수 있는 것 자체가 좋아요. 제 손길이 닿은 그 사과들을 받은 고객들이 너무 맛있다고 하면 보람차요. 그리고 퀄리티 좋은 사과를 제가 관리한다는 게 감사해요. 사장님도 너무 좋으시고 함께 일하는 베트남 이모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 해결해 주는 사소한 일들도 저를 즐겁게 해요.

일은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데 이왕 하는 거 이렇게 보람을 느끼는 일이었으면 좋겠어요.

Q. 함양에서 또 어떤 활동들을 하시나요?

'이소'라는 함양 청년모임이 주기적으로 있는데 빠짐없이 참석해요. '이소'는 함양에서 일하고 계신 기자분과 '도하 2금도 이미 와인 모임이나 독서 모임 등 다양한 모임이 계속 진행되고 새로 생겨나고 있어요.



Q. 함양의 매력은 무엇인가요?

무엇을 하고 어디에 있든 마음 건강이 중요한데 도심에서는 마음이 늘 불안하고 두렵고 조급했어요. 환경적으로 도심은 너무 갑갑하고 흔히 말하는 회색빛이잖아요. 근데 함양에서는 특히 자연환경을 통해 건강한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함양의 둥근 형태의 산들이 저를 둘러싼 듯한 느낌은 저를 지켜주는 듯한 든든함과 편안함을 주었어요. 일본 애니메이션 '지브리 스튜디오'를 좋아하는데 함양은 저에게 '지브리' 감성이에요. 산의 굵은 나이테를 가진 나무들을 보다 보면 어딘가에서 '토토로'가 튀어나올 것 같고 일을 하다가 눈을 들어 산을 보면 한 그루 한 그루 듬성듬성 뾰족뾰족하지 않은 산들의 느낌이 좋아요. 제 마음과 몸이 건강해지는 걸 느낄 수 있고 오랜만에 생기발랄해진 제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또 사과농장 일이 끝나고 여유가 되면 베이스 들고 기타 학원 가서 연습하거나 좋아하는 카페에 가서 잠깐 차를 마시고 공원에 가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여유가 있었어요. '퇴사하면 뭐 하지?'라는 생각을 자주 할 만큼 취직에 대해서 항상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함양에서는 조급함이 풀려요.

그리고 하늘이 가깝게 느껴지는 함양의 풍경이 좋아 상림공원 '연잎 밭'을 자주 가고 여름에는 정자에 많이 앉아 있었어요. 금요일에 농장 일 끝나고 달달한 게 당기면 '꾸움'이라는 카페에 가서 좋아하는 자몽, 청포도, 샤인 머스캣 등 과일 타르트를 먹었어요.

기타 학원도 저만의 비밀 장소예요. 기타 선생님이 멋지신 분이라 마실 수 있는 차를 항상 바꿔 놓으세요. 그래서 베이스 연습하는 공간이지만 차 마시고 싶을 때 차 한 잔을 할 수 있고 마음이 힘들거나 교류하고 싶은 날에도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Q. '고마워, 할매' 청년마을은 해수님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새로운 경험을 하게 해주었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해준 것 같아요.



Human Impact #5

도자기로 차 맛을 살리고 하동 청소년들을 살리다



하동 청년마을, '오히려하동'의 최성훈 청년 이야기

"우리 때는 이런 얘기를 해 주는 청년이 없었어요."

하동의 다양한 차 '맛', 그에 맞는 맞춤형 찻 '잔' 어린 나이에 도자기를 만들기 시작하여 한동안 서울에 지내며 도자기를 계속 해온 청년이 있습니다. 그러다 고향인 하동에 다시 내려와 다원이 많은 지역의 특성을 보아 각 다원들의 차 맛에 맞는 찻잔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찻잔을 넘어 하동이란 지역을 하동 청소년들에게 맞는 '잔'으로 만드는 데 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귀감이 되고자 하는 하동의 최성훈 청년입니다.

Q. 어떻게 하동에 다시 오게 되셨나요?

저는 하동에서 중학교까지 살았고 그 후로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녔어요. 처음에는 도자기 배우러 밀양에 4년, 그리고 서울에서 3년 반 정도 살았어요. 다시 하동으로 돌아온 건 병역 때문이었어요. 사회복무요원으로 서울이나 부산에서 근무를 하고 싶었지만 결국 하동으로 내려오게 되었어요. 복무 끝나자마자 바로 떠날 생각이었는데 막상 제대하니 떠나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

저는 도자기를 만드는데 생각해 보니 도자기 만들기에는 하동이 최적화된 환경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떠나 있던 7년 동안 하동이 많이 바뀌었어요. 이전에 하동은 프랜차이즈 가게 하나 볼 수 없었고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들도 없었는데, 하동군청에 '카페하동'이라는 한 가게가 생기면서 조금 달라졌어요. 그리고 그런 가게들이 조금씩 늘어나는 걸 보고 하동의 변화를 느꼈어요.

무엇보다 고향 친구(지금의 '오히려하동'의 이강희 대표)가 서울에서의 생활이 맞지 않아 마침 하동으로 내려왔어요. 하동에서 스타트업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어떻게 보면 그 친구가 제가 다시 나가지 않은 가장 큰 이유일 것 같아요. 상상하지도 못한 일들을 친구들이 도전하고 시도하려는 모습을 보면서 가능성을 보게 되고 결국 저도 정착하게 되었죠.





Q. 어떤 모습에서 청년들의 도전과 시도를 볼 수 있었나요?

하동 청년들의 친목모임이 있는데 '우리 이것도 해 볼래? 저것도 해 볼래?' 이런 대화들이 자주 오고 갔어요. 그리고 하동의 알려지지 않은 맛집들을 찾아 지도로 만드는 등 프로젝트성 일들을 계속했는데 여러 사람들이 모여 일을 이루는 것을 보고 도전에 대한 확신을 얻었어요. 특히 하동에는 회사가 없고 관광공사 공무원, 자영업자, 그리고 농업 하시는 분들만 있어요. 그래서 하동에서 창업을 시도한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Q. 어떤 부분에서 하동이 도자기 만들기 적합한 지역인가요?

기본적으로 하동에서는 도자기 만들기에 필요한 작업실과 가마를 보다 쉽게 마련할 수 있었어요. 서울은 공방 나가서 직접 흙을 사야 되고 개인 물레도 없어서 순서를 기다리다 사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원하는 시간에 작업실을 사용하지 못했고 월세도 계속 내야 되는 부분이 있었죠. 만든 도자기 또한 판매할 곳이 없어서 지인들에게만 판매하는 상황이었어요.



Q. '오히려하동'과 어떤 일을 하고 계시나요?

각 차들을 돋보이게 해주는 '맞춤형 찻잔'을 제작하고 있어요. 하동 다원마다 대표하는 차가 있고 향과 맛이 모두 달라요. 잔의 흙 종류, 형태 그리고 느껴지는 무게감이나 온도에 따라 차 맛이 다르게 느껴져요. 예를 들어 부드러운 차는 곡선 형태가 있고 입에 닿는 '전' 부분을 두껍게 만들어 부드러움을 더 부각시킬 수 있어요. 이번 프로그램에서 방문했던 다원에 차 내려 주시는 선생님에게 도자기를 선물해 드렸더니 이 도자기로 먹으니까 차 맛이 산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듣고 아이디어를 떠오르게 되어 '맞춤형 잔'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어요.

옛날부터 이런 일들을 하고 싶었는데 제가 내향적이라 실행하기 어려워요. 지금은 제가 만들고 '오히려하동' 청년들이 다른 부분들을 채워주어 이번에 '도재명차'와 함께 협업할 기회도 생겼어요.



Q. 청년마을은 하동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하동에 있다가 나간 저희 또래 친구들도 아마 저희가 계속 도전하는 것을 보고 용기를 얻어 다시 돌아오는 친구들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최근에는 서울에서 디자인 회사를 다니던 청년이 있었어요. 하동에 가야겠다' 결심하고 '하동에서 뭐 하지?' 하면서 검색했을 때 저희가 했던 작업들을 보게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얼마 후 그 청년의 친구분도 함께 정착하셨어요.

항상 '하동에 청년을 어떻게 유입할까?'라는 질문을 던지는데 그럴 때마다 '사람은 사람이 불러오는 것 같다'는 말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하동에서의 저희의 행보가 일조하지 않았나 싶어요.

Q. 오히려하동이 하동 청소년들에게는 어떠한 영향을 주나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지역에서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청년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 지금 제 나이 때 형들을 보면 오히려 하동을 떠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있는 청소년들에게 적어도 그런 이미지가 되지 말자는 생각을 해요.

고향 하동을 벗어나고 싶지 않은 청소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희 역할은 하동에 남고 싶어 하는 청소년들이 하동에서의 삶도 또 다른 대안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사실 그 친구들도 대학 문제로 어쩔 수 없이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런 친구들에게 귀감이 되고 싶어요. 저도 이런저런 일하면서 잘 살고 있으니까 용기를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Q. 서울에서의 삶과 여기서의 삶은 어떻게 다른가요?

저는 서울에서의 삶보다 오히려 하동에서의 삶이 더 바쁜데 더 여유가 있어요.

처음에 문화적인 것들을 누리고 싶어 서울에 갔는데 현실은 여유가 없어서 거의 문화생활은 못하고 계속 일과 집을 오가기만 했어요. 서울에 있을 때는 너무 당연한 생활이라 그게 좋지 않은 삶이라고 인지를 못했는데 하동에서 지내다 보니 그 시간이 아깝더라고요.

보통 사람들은 귀농, 귀촌을 하고 지역에 내려간다고 하면 쉬러 가고 힐링 하러 간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생각과 달리 지역은 수도권에서 사는 것보다 더 치열해요. 서울은 가만히 있어도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서 관계가 넓고 정보를 얻기 쉬워요. 지역은 한정적이어서 꾸준한 자기 PR이 필요해 바쁘게 지낼 수밖에 없어요.

Q. '오히려하동'을 한마디로 얘기해 주세요.

'주체적이다.'

여기 오시는 청년분들도 설령 본래 성격이 그런 분이 아니셨더라도 주체적으로 살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하고 싶은 게 명확하면 오히려 지역이 나은 것 같아요. 지역에서 시작하는 게 자본도 비교적 덜 들고요. 로컬에서 살아도 괜찮겠다는 용기를 가져보세요.

Q. 앞으로의 계획 또는 꿈이 무엇일까요?

단기적인 목표는 작업실이 완공되면 그 공간에서 수강생을 모집하여 원 데이 클래스를 진행하고 개인적인 작품 활동과 판매를 하는 것이에요. 지금 주민분들이 제 도자기를 가게에 두고 싶다는 분들이 계세요. 장기적으로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들이 서로 작품과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살롱 형식의 모임을 운영하고 싶어요. 청년과 예술가들과 전시도 같이 열고 도자기뿐만 아니라 그림 그리는 청년, 나무 공예 하는 청년과 함께 콜라보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예술가 집단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Human Impact #6

'연주'의 영역을 넓히는 대그머 (대금연주자)

태안 청년마을, '오락발전소'의 박송이 청년 이야기

단순 퍼포먼스가 아닌 관객과 교감하며 관객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연주자. 가난한 예술가가 아닌 예술 활동이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예술가들을 위한 현실적인 기반을 만들고자 오락발전소와 함께하게 된 청년이 있습니다. 청년마을 활동을 통해 예술인들이 모여 서로의 아이디어를 나누고 격려하는 모습을 보고 새로운 꿈을 꾸게 되고, 연주만 하는 연주자가 아닌 연주자로서의 새로운 역할과 영역들을 배워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태안 청년마을, '오락발전소'의 박송이 청년 이야기입니다.

Q.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서울과 태안을 오가며 생활하고 있는 대금 연주자 박송이입니다. 닉네임 '대그머위로'의 '대그머'(대금er)는 대금을 연주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가야금 연주하시는 분이 계신데 '가야그머'라는 말을 사용하셨어요. 그걸 듣고 사람들에게 설명할 때도 재미있을 것 같아 지어 보았습니다.

Q. 오락발전소는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오락발전소에 최윤상 소장님이 계신데 20대 중후반쯤 만나 '훌'이라는 팀을 함께 했어요. 코로나 이후로 공연계가 많이 힘들어졌어요.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겠다고 느껴서 태안으로 정착하셨고 청년마을로 선정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올해 하반기부터 같이 참여하게 되었어요.

Q. 오락발전소의 경험은 어떠셨나요?

짧은 사이에 많은 경험을 했어요. 공연기획도 해보고 예술가들끼리 진행한 '오락발전 투나잇'이 제일 기억에 남아요. 서울에서 지낼 땐 돈을 많이 벌지 못하거나 이력에 남는 일이 아니면 소모적이라고 생각했는데 태안에서 많은 예술가분들을 만나고 얘기해 보니 제 음악에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부담 없이 다양한 장르와 이야기 나눠볼 수 있었던 시간이어서 재미있었고 제 인식이 많이 바뀌었어요.

국악을 전공했지만 대학원은 실용음악과를 나왔어요. 그 이유가 국악 안에서 답답한 부분들이 있어 그 안에서 새로운 음악을 만들어보고 싶었거든요. 전통적인 국악에 실용음악을 통해 현대적인 요소들을 추가해 주어 자유롭게 이 시대의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음악을 생각했어요.

Q. 기존의 음악 활동과 오락발전소에서의 활동과 다른 점이 있을까요?

오락발전소에서는 음악을 연주하는 것보다 다른 일들을 더 많이 했어요. 연주자가 음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부분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원래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로 공연 기획을 해보며 현장 진행 프로세스도 이해했고 사람들을 케어하고 움직이게 만드는 방법도 배울 수 있었던 시간이었어요. 제가 음악을 함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Q. 지금은 청년마을에서 어떤 일들을 하시나요?

1년에 몇 회 진행되는 큰 축제의 초기 기획 과정에 참여하고 공연에 필요한 아티스트 섭외와 축제 일정을 진행하는 일들을 해요. 이 외에 촬영, SNS 카드뉴스 및 영상 제작을 하고 있어요. 청년마을 책자도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계속 태안에만 있는 것은 아니고 프리랜서로 생활하고 있어서 서울과 지방을 오가며 제 공연도 하고 있어요.



Q. 오락발전소와 함께 하기로 결정한 계기가 있을까요?

태안에 처음 내려갔을 때 바다와 자연이 너무 좋아서 쉼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서울에 살며 프리랜서 생활을 오래 해서 쉬지 못했어요. 사람들은 모두 바쁜데 저만 늦게 일어나서 일을 안 하고 있으면 불안하고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계속 떠올라요.

근데 바닷가에서 며칠 지내보니 불안함이 많이 사라졌어요. 온전히 쉰다는 건 몸만 쉬어서 되는 게 아니라 머리도 쉬어야 하잖아요. 쉴 때는 온전히 쉬고 충전해서 무언가를 시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을 경험하니 인식이 많이 바뀌었어요.

예술가들은 영감을 얻어서 창작을 해내는 일을 하기 때문에 환경이 중요하고 멍 때리거나 자연을 보며 아이디어들을 많이 얻어요. 태안은 자연과 공간이 있어서 작업하고 싶을 때 편하게 내려와 작업할 수 있는 부분이 좋은 것 같아요.

Q. 오락발전소만의 방향성에서 송이님이 공감하는 메시지가 있을까요?

예술가 마을인 만큼 다양한 예술가들이 오세요. 다들 하고 싶은 게 있지만 혼자는 불안한 것들이 있었는데 다른 예술가들과 함께 있으면 아이디어에 공감해 주고 실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이런 과정을 통해 든든한 구석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더 많은 예술가들이 이곳을 알고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처음에 '태안 왜 가지?' 했던 사람으로서 그 잠깐의 경험으로도 생각이 달라지고 꾸준히 활동하며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오락발전소의 존재를 알리겠다는 목표가 생겼어요. 제가 태안에서 활동을 시작하게 된 이유도 여기 있어요.

Q. 마음의 변화가 있었을까요?

지역은 일을 많이 해요. 어떨 때는 회의하면 새벽 2-3시까지 하기도 했어요. 축제 기간에는 거의 폐인으로 지내기도 하고요. 하지만 진행하면서 참여 청년들이 새로운 것들을 알게 되고 좋아져가는 모습을 보면 너무 뿌듯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여기 오래 지내고 싶어서 수익적인 기반들을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Q. 연주자로서 송이님만의 철학은 무엇인가요?

저도 연주를 하고 제 주변에도 연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공연을 보다 보면 너무 잘하고 멋있지만 그게 끝일 때가 있어요. 마음이 온전히 통하지 못하고요. 왜 그럴까 생각했을 때 결국 음악도 '사람'이지 않을까 싶었어요. 한 사람이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곡을 만들었는지, 음악뿐 만 아니라 마음도 전달하면 이 곡의 의미 전달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살다 보면 삶이 팍팍하잖아요. 마음의 여유도 없고. 나도 살기 힘들어서 남을 이해하는 건 더 힘들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공연을 보는 그 순간 만이라도 다른 사람의 생각을 들으며 여유를 가지고 하루 정도는 따뜻한 말이 오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Q. 연주 외에 다양한 일의 경험을 하셨는데, 이를 통해 지향하는 연주자로서의 모습이 있을까요?

오락발전소에 오면서 미래에 대한 목표가 생겼어요. 공연기획과 관련된 일들을 잘 해내서 시작하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선배가 되고 싶어요. 아티스트 섭외할 때도 20대 초중반 어린 친구들을 섭외하려고 해요. 일을 더 열심히 찾아다녀도 공연하기 어려운 시기예요. 그런 청년들 중에서 잘 해내거나 자기만의 하고 싶은 게 있으면 태안에서 지내며 도움을 주고 싶어요.

돌아보면 소장님도 저에게 그렇게 해 주신 것 같아요. 당시 저는 20대 중반이었고 소장님은 국악에서 유명하신 분이었는데 큰 공연을 데리고 다니면서 도와주셨어요. 제 음악적 경험에 큰 힘이 되고 태안까지 오게 되었잖아요. 후배 뮤지션들에게도 이런 기회를 주고 싶어요.

Q. 오락발전소를 한 마디로 정의하자면 무엇일까요?

오락발전소는 '인생의 한 페이지'가 된 것 같아요. 책 목차 중 하나인 것처럼 터닝포인트가 된 그런 경험이에요. 저는 음악을 잘하는 거에만 집중하는 사람이었어요. 제 것만 하며 바쁘게 지냈는데 오락발전소를 통해 숲을 보게 되었어요. 혼자 무언가를 하면 어렵고 같이 해야죠.



Human Impact #7

속초에서 AR 필터 제작을 통해 흐릿했던 삶도 필터

속초 청년마을, '라이프밸리'의 이충근 청년 이야기

"가장 큰 변화는 나만의 가치가 있다는 믿음이 확실해졌다는 것이에요."

나만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예술가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나에 대한 의구심, 남들과의 비교. 하지만 청년마을에서의 경험을 통해 자신감이 회복되고 자신에게 확신을 가지게 된 청년이 있습니다.

바쁘고 복잡한 환경 속에서 남과 자신을 계속 비교하며 본인을 잃어가던 청년은 라이프밸리의 경험을 통해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본인에게 집중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자신이 무엇을 잘하는지 알게 되어 자신의 장점인 기획력과 이전에 갖고 있던 작은 경험을 활용하여 SNS AR 필터와 춤을 기획해 속초에서 챌린지를 시작한 라이프밸리의 이충근 청년입니다.



Q. 라이프밸리에 참여하신 계기가 궁금합니다.

SNS 광고를 통해 청년마을에 대해 알게 되었어요. 평소에도 청년마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에 관심이 많았고, 복수 전공으로 건축공간예술전공 수업을 들으며 도시 발전과 지역 개발에 흥미를 느껴 청년을 통한 지역 발전을 취지로 하는 라이프밸리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는 일에 함께 기여하고 싶어 참여하게 되었어요.

또한, 라이프밸리에 신청할 때 졸업을 앞둔 4학년이었어요. 진로 문제 등으로 인해 심적으로 많이 위축된 상태였는데 본격적으로 졸업전시를 시작하기 전 환기하는 시간을 보낼 겸 또 이러한 경험이 저에게 영감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여 참여하게 되었어요.

Q. 속초시의 마스코트인 '해오미'를 활용해 AR 필터를 제작하게 된 계기가 궁금해요.

AR 필터 제작은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 이 무엇일까' 고민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기획이에요. 시각디자인을 전공하고 있기 때문에 3D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AR 필터를 제작할 수 있었고, 건축 관련 수업을 수강하며 지역을 효과적으로 홍보하는 방안에 대해 고민할 수 있었죠. 최근 관광 트렌드가 간판 없는 가게로 변화하는 걸 보며 정보를 알리는 것이 더 이상 길거리가 아니라 SNS로 변화하였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속초 랜드마크나 특별한 공간을 SNS 상에 많이 노출되도록 해야겠다 생각했어요. 여행 콘텐츠 기획 보다 정보제공을 중심으로 하고 싶었어요. 기획과 함께 AR 기술을 접해본 적이 있어서 이를 접목시키면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참신한 기획일 것이라는 기대로 AR 필터를 활용한 SNS 챌린지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이번 기획안은 개인 프로젝트로 진행하려고 모델링까지 마친 상태로 라이프밸리에 참여하였어요. 근데 함께 한 팀원들이 좋아해 주고 함께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아 팀 프로젝트로 하게 되었어요.

저는 주로 필터를 제작해서 퍼블리싱 하는 업무와 인터랙션을 구현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기획하는 것을 맡았고, 팀원 중 한 명은 릴스를 제작해 주었어요. SNS 콘텐츠를 제작하고 기획서를 제출하는 등 팀에서 힘을 합쳐 일을 진행했어요. 6명이서 준비해도 시간이 부족해서 서로 도우며 모두가 무엇이든지 열심히 참여했어요. 팀원들과 함께 해서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AR 필터는 모두 제작을 하였지만 지역 마스코트의 사용권 허가를 받아내지 못해 마무리를 하지 못해 아쉬움이 남아요. 라이프밸리 측에서도 프로그램이 지속가능성이 있다고 느끼셔서 추가로 진행할 것을 제안해 주셨지만 졸업전시로 인해 그러지 못했어요.

이어서 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기획을 더욱 탄탄하게 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싶어요. 또 마스코트를 3D로 전환할 때 보다 친숙하고 귀여운 형태로 변형하였는데 형태 변형 역시 허가를 받기 어렵다 하여 상황적으로 끝까지 진행하지 못했어요. 승인 후 다시 진행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Q. 'ㅅㅊ춤'은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나요?

속초의 초성을 표현한 'ㅅㅊ춤'을 미리 기획해 갔어요. 처음에는 '속초 가자'라는 하나의 콘셉트로 기획을 하였는데 다른 팀원들의 아이디어로 '속초다움, 속초하다' 등 다양한 메시지가 나왔어요.

SNS 챌린지의 경우 사람들이 즐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규격 없이 '속초 ㅇㅇ하다'의 형태로 사람들이 원하는 단어를 넣어 활용하도록 제작했어요. 누구나 속초에서 즐거움을 느낀 것을 본인만의 자유로운 콘텐츠로 만들어 갈 수 있게 했어요.

Q. 청년마을을 통해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나요?

가장 먼저 자신감이 생겼어요. 원래는 전공 특성상 주변 친구들이 작업하는 것을 보고 위축되곤 했어요. 경쟁적인 상황 속에서 창의력도 쉽게 발휘되지 않고 다른 친구들, 후배들과 제 자신을 비교하며 자존감도 깎이고 스트레스를 받곤 했죠. 하지만 라이프밸리에서는 다양한 필드에서 각자 자신의 분야에 자기 것을 펼칠 수 있도록 분위기가 형성되어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었고 좋은 자연 속에서 생각을 하다 보니 저에게 집중할 수 있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고 이곳에 모인 친구들과의 시너지를 낼 것을 생각하다 보니 경쟁 속에서는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신감이 붙었던 것 같아요. 또 제가 기획을 해왔던 것을 팀 프로젝트로 진행하게 되어 제가 리더의 역할을 맡고 함께한 친구들이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준 것이 힘이 되어 활동 자체가 저에게 큰 도움이 되었어요.



자신감과 더불어 가장 큰 변화는 나만의 가치가 있다는 믿음이 확실 해졌다는 거예요. 미술을 전공하며 나만의 길을 걸어가도 될지 의구심이 들 때가 많아요. 하지만 라이프밸리를 통해 의심은 사라지고 졸업전시 기획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어요. 제가 원하는 대로 나아가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확신이 들어 나만의 가치를 믿고 걸어가기로 결정했어요.

기획력이나 제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접목시켜 새로운 형식으로 바꿔 재밌는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능력, 새로운 형식으로 기획하고 새로운 감각을 유발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기획하는 능력 등 저의 장점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이런 저의 모습을 발전시켜 추후에도 다른 사람들과 협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해요.

Q. 라이프밸리에서의 시간을 통해 무엇을 얻었나요?

먼저 지역에 대한 개념을 배우고 지역 탐방을 하며 어떠한 콘셉트로 사업체가 발전하고 있는지 지역에 도움이 되는 사례들을 직접 보고 배우는 시간을 가졌어요. 또한 플로깅 등 다양한 체험을 하며 마을 주민분들과 네트워킹을 할 수 있었어요. 지역 분들에게 직접 듣는 이야기를 통해 지역에 대해 많이 배웠어요.

가장 좋은 것은 좋은 사람을 많이 얻었다는 것이에요. 라이프밸리 운영진도 좋은 분들이 많이 짧게 있었던 저희와 꾸준하게 인연을 이어나가고 함께한 팀원, 다른 팀들과 모두 끈끈한 정이 생겨 인적인 네트워크도 많이 얻었다고 생각해요.

Q. 라이프밸리 청년마을이 지역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나요?

지역민들과 소통을 통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느꼈어요. 청년들을 반가워하시고 저희와 소통하면서 열정적이고 활기차지시는 것을 느꼈어요. 속초는 청년들이 많이 없으니 이전에 진행하던 방식으로 홍보를 진행하시는데 청년들은 색다른 방법으로 재미를 더해 기획을 해 나가니 이전 방식과 청년들의 방식을 접목시켜 새로운 기획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시더라고요. 또 청년마을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이 활기가 생겨 활동을 꾸준히 해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캐릭터 상품을 개발해서 팝업스토어를 하시는 로컬 크리에이터 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청년들이 와서 새로운 기획으로 상품을 개발하고 속초를 홍보하니 도시 자체가 활기차지고 새로운 부가가치가 생기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다고 전해 주셨어요. 지역의 이야기를 담은 새로운 기획들이 청년들을 통해 실험되고 활기를 제공할 수 있어 청년마을만이 할 수 있는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Q. 나만의 가치를 활용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보신 부분이 있나요?

가장 무게를 두고 생각한 것은 미디어아트를 통해 사람들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것이에요. 관심사가 다양해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 두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확신을 가진 가치는 한 가지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 두고 배우고 있는 중이에요.

방향만 잡아 둔 채로 걸어가도 다양한 기회들이 올 것이고 또 다른 길들도 열릴 것이라고 생각해요.

라이프밸리에서도 내년에 운영진으로 합류하는 것을 제안 주셔서 졸업전시 이후에 고민을 해보려고 해요. 청년 마을에서는 기획력이 필요한데 제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어요. 문화기획 등 다양한 방향으로 뻗어 나가도록 준비하고 싶어요.

Q. 라이프밸리를 한마디로 한다면?

라이프 밸리의 슬로건이 'Sketch Your Life'에요. 슬로건처럼 라이프밸리는 좋은 스케치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주변에 많이 휘둘리면서 놓쳤거나 흐려졌던 밑그림을 라이프밸리를 통해 다시 그리는 계기가 되었어요. 나만의 가치를 찾아가며 정리하고 또 새로운 스케치를 그릴 수 있게 만들어주는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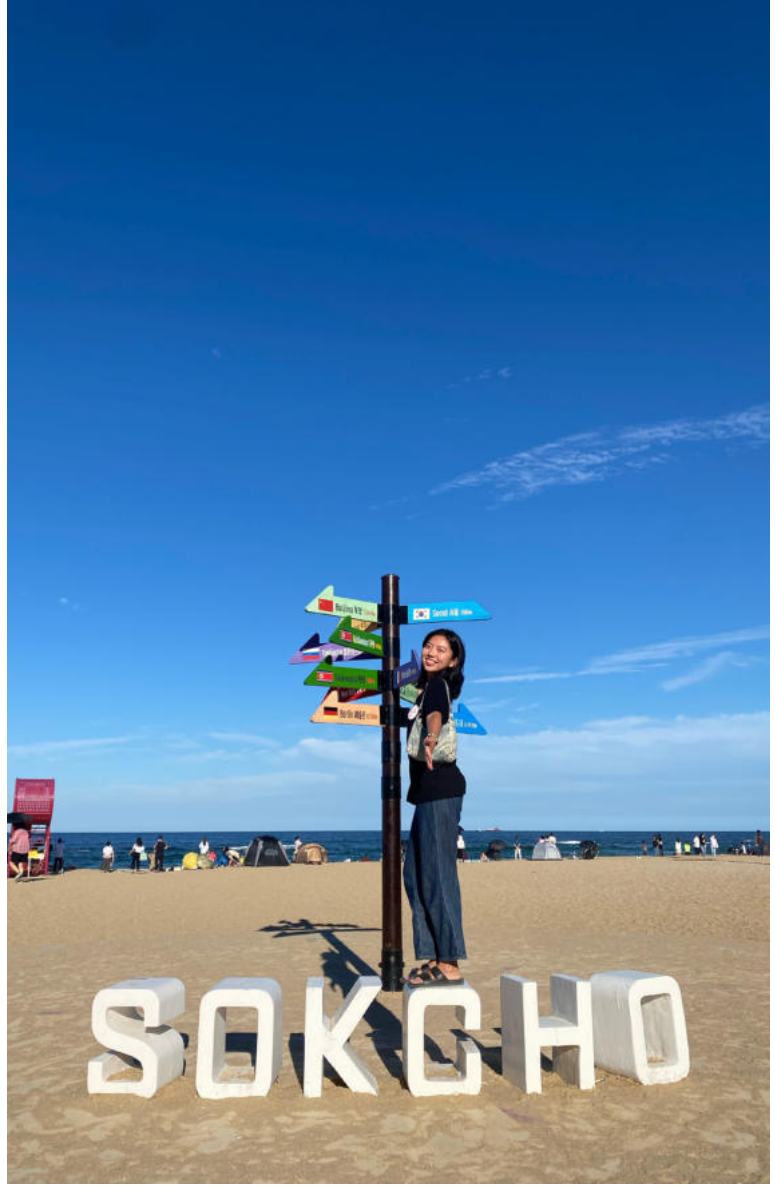


Q. 아직 청년마을을 경험하지 못한 청년들에게 전하고 싶은 한마디는?

청년들이 놓치고 지나가기엔 아쉬운 기회예요. 꼭 경험해 보라고 권유하고 싶어요. 혼자서 여러 활동을 하기에는 시간이나 돈이 많이 들어요. 열정을 가지고 청년마을에 참여하면 아주 적은 비용으로 자신의 실력을 실험해 보고 많은 것들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예요. 청년마을이라는 사회안전망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좋은 시간을 망설일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본인이 어리던 어리지 않던, 지역에 관심이 있든 없든, 누구나 도전하라고 하고 싶을 정도로 좋은 기회가 되고 삶을 보는 시야도 넓어지더라고요. 무조건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특히 사회에 진출하기 전에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짧은 기간 참여하였지만 그곳에 있던 시간이 다른 것과 바꿀 수 없을 정도로 좋았어요.

Human Impact #8

속초 파도에 7일 동안 덮인 후 로컬의 블루오션을 찾다



속초 청년마을, '라이프밸리'의 이지나 청년 이야기

"7일이라는 시간이 저의 70년을 결정하는 키포인트가 되었어요."

파도처럼 덮친 라이프밸리에서의 7일, 남들에게는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이었지만 충분히 진로를 새롭게 그려보는 시간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도전하고 주체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가능성과 에너지를 얻고, 졸업을 앞둔 상황에서 본인의 재능을 살려 자신이 원하는 길을 자신 있게 걸어가려고 합니다. 속초 라이프밸리의 이지나 청년입니다.

Q. 속초 라이프밸리 청년마을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계기가 궁금해요.

프랑스어를 전공하며 아직 대학교 생활을 하고 있어요. 좋아하는 것은 많지만 어떤 일을 해야 할지 고민이 많이 들던 시기에 SNS 광고를 통해 속초 라이프밸리 모집 포스터를 보게 되었어요. 일상에서 벗어나 속초라는 공간에서 청년들과 함께 프로젝트를 하면 영감도 얻고 진로나 인생을 결정하기 전 많은 경험을 쌓을 수 있을 것 같아 참여하게 되었어요.

저는 속초가 한국의 대표적인 휴양지라고 생각했는데 현실로 들어가 보니 젊은 도시가 되기 위해 해야 할 것들이 많은 곳이더라고요. 또 지역 정착과 관련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은 것을 보고 라이프밸리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도시재생이나 지역민 커뮤니티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전에도 비슷한 프로그램에 참여해 로컬 크리에이터로 활동한 적이 있어요. 로컬분들과 함께 로컬 문화를 경험하고 문제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또다시 로컬 민들과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싶은 기대감으로 속초에 오게 되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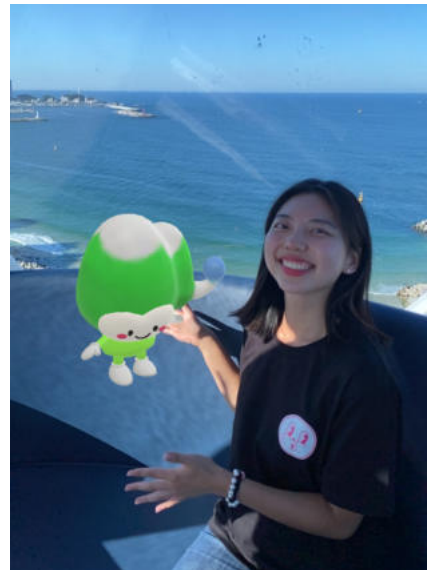
Q. 지역민을 섭외하는 역할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구체적인 스토리를 들려주세요.

외향적인 성격으로 새로운 사람에게 말을 거는 것을 좋아해요.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지역민과 함께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다양한 분들께 다가가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 번은 영랑호를 산책하다가 지역 관련 기자 한 분을 만나게 되어 지역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챌린지를 하는 중에는 시장 상인분께 제안하여 함께 춤을 추어 챌린지를 진행했어요. 사람에게 먼저 다가갈 수 있는 저의 성격을 활용해 지역민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어요.

Q. 라이프밸리에서 진행한 프로젝트는 어떠셨나요?

저희 팀은 이충근 청년의 'ㅅㅊ춤'과 'AR 필터' 프로젝트를 진행했어요. 저는 'ㅅㅊ춤'의 안무를 함께 짜고 릴스의 촬영과 편집을 담당했어요. 원래도 유튜브나 릴스 등 영상을 찍고 편집하는 것을 좋아해서 잘하는 일을 맡게 되었어요. 새로운 영상을 만드는 일이 창의적이어야 가능한 분야인데 제가 좋아하는 일이기에 즐기면서 참여할 수 있었어요.





Q. 라이프밸리를 경험하고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라이프밸리를 경험하면서 진로에 확신을 가지게 되었어요. 라이프밸리에 오기 전에는 창업에 대한 생각을 두루뭉술하게 가지고 있었기에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청년마을에서 비슷한 연령대인 친구들이 창업하며 본인의 일을 이끄는 것을 보고 도전정신이 생겨 창업에 확신을 가지게 되었어요.

또한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면 로컬과 협업해서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다시금 깨달았어요. 아직 로컬과 관련된 여행 사업이 블루오션이라 더욱 발전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해요. 속초에서 콘텐츠를 진행해 봤던 경험도 특별했기에 여행 사업에 더욱 애정이 가요. 평소에는 남들이 만들어 둔 챌린지를 따라만 했지 주체적으로 기획을 해본 경험이 없었는데 속초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기획을 하고 릴스를 만들면서 나만의 것을 진행한다는 것이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잊을 수 없던 경험이라 이 기억을 살려 일을 하고 싶어요.

제가 프랑스어를 좋아하니 이를 활용해 사업을 운영해 나가고 싶어요. 프랑스인 관광객분들을 대상으로 한국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정착이나 수업 프로그램을 만들고자 해요. 그리고 프랑스인들의 관광을 로컬로 연결 지어 외국인들이 서울 외에 알려지지 않은 지역도 방문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최근에 일주일간 프랑스 친구들을 가이드 해주는 일을 하였는데 프랑스인들이 한국을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서울만 구경시켜 주었지만 속초나 제주도를 경험하게 해줘도 좋아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외국인들은 서울만 알고 로컬 지역을 잘 알지 못하니 한국 관광 프로그램을 로컬과 연결해 개발하고 싶어요. 프랑스와 한국은 완전히 다른 느낌이기에 프랑스인들이 좋아할 만한 포인트를 잡아 진행하고자 해요.

Q. 라이프밸리 청년마을을 한마디로 한다면?

'파도'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속초가 바다가 유명해서이기도 하지만 라이프밸리에서의 경험이 저를 파도처럼 덮쳤어요. 바다도 파도가 덮치기 전과 후가 굉장히 다른 모습을 띄는데 저도 라이프밸리라는 파도가 저를 덮치기 전과 후가 분명해요. 매일 파도를 통해 다른 모습을 띄고 다른 매력을 가지는 속초처럼 저도 다양한 것들을 발견하면서 변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느끼게 되었어요.



Q. 아직 청년마을을 경험하지 못한 청년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일단 와라'라고 전하고 싶어요. 자신의 터전을 떠나 새로운 곳으로 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도전인데 일주일 동안 제가 현실을 벗어나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경험을 해보니 다른 사람들도 이런 좋은 경험을 꼭 해봤으면 좋겠어요.

짧은 7일이라는 시간이 저의 70년을 정하는 키포인트가 되었다고 생각해요. 이 경험이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는 시간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저도 이곳에 오지 않았더라면 아직도 고민하며 허우적대고 있었을 거예요.

제가 주체적으로 원하는 때에 자유롭게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으로 변하였어요. 다른 선택을 한다고 모두 실패하는 것이 아닌 자신만의 열매를 맺고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을 통해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해 보자는 용기를 얻게 되었어요.

Human Impact #9

재봉 학원 경험으로
태백에서 광부 패션
산업의 길을 트다



태백 청년마을, '광광스토리지'의 박상아 청년 이야기

나를 진심으로 대해주고 고민을 함께해 주는 어른들과 공동체.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 노력하고 싶어 주체적으로 변한 청년.

모두 태백 청년마을, 광광스토리지에서의 경험입니다. 자신의 관심사를 마음껏 펼쳐보고 시도하며, 실패해도 괜찮은 놀이터 같은 곳이라 오히려 일을 즐겁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의류 리폼(패션), 영상 편집, 기획 등 다양한 창작 활동을 즐겁게 배워가고 있는 박상아 청년입니다.

Q. 왜 태백이라는 지역을 선택하셨나요?

저는 전북 완주에서 왔어요. 작년 완주 청년마을 분들과 교류할 기회가 생겨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이 진행되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그 시기에 군대에 있어서 참여를 못했어요. 제가 전라도에서만 살았는데 전라도는 바닷가 지역으로 높은 산이 없어요. 여행 다닐 때 태백을 경험했는데 높은 산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지역을 고민할 때 제가 살던 곳과 반대되는 환경을 원했고 강원도권에서 가장 지대가 높은 태백을 선택했어요.

Q. 청년마을에서 어떤 활동들을 했나요?

태백 '광광스토리지' 청년마을에 와서는 광부 작업복 리폼 프로젝트에 참여했어요. 대표님이 제가 할 수 있는 것들 안에서 시도해 보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1년 반 정도 재봉 학원에 다녔던 것이 떠올랐어요. 저와 잘 맞았던 기억이 있어 이 재능을 활용해 리폼 프로젝트를 하게 되었어요. 한 달 동안 옷을 3벌 만들었어요. 치마, 점프슈트. 그리고 여러 주머니를 달아 저만의 새로운 옷을 만들기도 했어요.



광광스토리지의 세은님이 패션 전공이셔서 조언과 격려를 많이 받을 수 있었어요. 그분의 안목 덕분에 더 깔끔한 디자인이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공간을 활용해 전시회를 열어 만든 옷들을 전시했는데 마을 주민분들이 아직까지도 방문해 주세요.

Q. 태백에 더 오래 머물게 된 계기가 궁금해요.

제가 8월에 태백에 와서 지금 약 4개월째 머물고 있네요. 내년까지 지내볼 생각이에요. 이렇게 오래 머물게 된 이유는, 대표님과 새벽 5시까지 얘기한 적이 있는데 삶에 대한 대화 가운데 여러 실질적인 조언, 직접적인 대안이 되는 루트 그리고 어떻게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까지 저에게 그런 말을 해주는 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 청년마을 분들과 함께라면 성장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현재는 프로그램이 끝나서 여러 가지 일들과 대표님께서 맡겨 주신 과제 몇 가지를 해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영상 편집, 기획서 작성하는 법도 배우고 있어요. 기획, 창작하는 일은 동경하는 마음이 있었고 바래 왔던 일들이어서 하나 둘 펼쳐 나가는 것들이 너무 재미있어요. 무엇보다 무한으로 지원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 여기서는 실수하더라도 괜찮겠다는 믿음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 있어서 마음 편하게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지 과정 자체가 즐거워요.

Q. '공동체에 진심인 청년'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계세요. 공동체는 상아님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아버님이 '식구'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먹을 '식(食)'에 입 '구(口)'. 거창한 단어가 아니라 밥을 같이 먹는 사람들이라고 이해하고 저와 연관되어 있는 사람 모두 공동체의 일원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공동체는 살면서 어쩔 수 없이 항상 속해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사회로 나와 여러 사람들을 만나보니 오히려 자기중심적이고 공동체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위해 노력하며 살아가는 것이 공동체의 의미라고 생각해 지금 광광스토리지 공동체에서도 그렇게 실천하고 있어요.

Q. 광광스토리지로 인해 지역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었나요?

태백 지역 보면 다 각자 할 일만 하고 모이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런 분위기에서 '광광스토리지'가 모일만한 명분을 만들어 주는 것 같아요. 저희가 '작은 영화제'등 마을 주민분들이 같이 모일 수 있는 장을 만들기도 하고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관계를 이어 나갈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청년마을이 아니라면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Q. 광광스토리지와 함께하며 내면의 변화가 있었을까요?

전에는 무언가 선택하고 활동할 때 소극적이었고 주변으로부터 어떤 제안을 받으면 활동하게 되었는데 여기서는 먼저 말을 하게 되고 행동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주체적이게 되었어요.

Q. 태백에서 앞으로의 꿈과 계획을 공유해 주세요.

콘텐츠를 기획하고 창작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는데 이 일들을 잘 해내서 '1인분'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청년마을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획하는 과정에 영상, 디자인 등의 부분도 너무 재미있을 것 같아 기대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번에 진행 예정인 폐의류로 난간을 꾸며보는 '장난감'(장성, 난간, 감성 입히기)와 같은 프로젝트를 통해서 패션 쪽 재능을 취미로 가져가려 해요.





Q. 광광스토리지를 한마디로 표현해 주세요.

'놀이터' 같은 곳이에요. 마음껏 부담 없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입니다.

Q. 청년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적응하기 위해 주체적으로 움직이게 되고 거기서 오는 원동력이 저에게 큰 성장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아직 주체적으로 살지 못하고 계시다면 지역에서 활동해 보는 경험이 삶의 방향성에 대해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관심사나 취향이 비슷한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모이니 관계 속에서도 배울 것들이 많아요. 청년마을에서 제가 꿈꾸는 저의 10년 뒤 모습의 분들을 만났거든요.



Human Impact #10

자급자족 라이프로 '에코(ECO)'를 외치다!

영월 청년마을, '밭멍'의 손태원 청년 이야기

어릴 때부터 환경문제에 유독 마음이 많이 쓰였던 손태원(에코)청년은 문제 해결의 뿌리를 농업에서 발견하고 '밭멍' 청년마을에 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진짜 자연이 궁금해서, 자연이 좋아서, 그러한 마음으로 농사를 짓고 싶어요."

10평 남짓 텃밭으로 시작해 '밭멍'의 대형 나뭇잎 밭을 경험하며 자급자족 라이프를 위해 할 수 있는 다양한 생활 방법들을 터득한 그는 '밭멍'의 김지현 대표(호미)와 함께 공동체를 만들어 퍼머컬쳐를 널리 알리고 함께 지구를 살리는 농업을 실천하고자 하는 꿈을 갖고 있습니다.

Q. 귀농에 결심이 섰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다니던 회사가 좋았어요. 회사의 직원들 모두 너무 선하고 저를 인정해 주시는 분위기라 좋았어요. 하지만 다양한 것들을 해보지 못하고 정해진 일만 해야 하는 상황이 답답하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어느 날 문득 회사 분들을 쭉 둘러봤을 때 제가 되고 싶은 어른의 모습을 가진 사람은 없다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를 많이 동경했어요. 어떤 문제가 일어나거나 필요한 것이 생기면 직접 만들고 노장의 노하우로 해결하는 모습이 너무 듬직하고 어른스러웠어요. 그래서 '이런 어른이 되어야지!' 싶었어요. 근데 저희 회사 사람들을 봤을 때 회사라는 조직 내에서는 인정받고 능력 좋은 사람들이지만 회사라는 틀을 빼고 본다면 내가 원하는 어른의 모습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직에 계속 남아 있다면 내가 결코 우리 할아버지와 같은 어른이 되는 데에는 한계가 있겠구나'해서 결심이 섰던 것 같아요.

지금 퍼머컬쳐가 그런 부분과 가까운 것 같아요. 친환경 자급자족이 환경적으로 긍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결국은 자급자족하는 것과 좋은 가치를 위해 살아간다는 건 한 사람으로, 그리고 한 어른으로 올바르게 성장한다는 부분에서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진짜 어른인 거죠.

Q. 자연에 어떻게 관심을 가지게 되셨나요?

제가 어릴 때부터 그런 감수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초등학생 때 친구들이 간식을 먹고 쓰레기를 바닥에 버리면 제가 그 쓰레기를 다시 주워서 주머니에 꽂아 넣었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지구온난화로 빙하가 녹는 영상들을 봤을 때 마음이 아파서 하루 종일 생각나곤 했어요.

환경 문제에 '내가 행동해야겠다!' 결심했던 계기는 해병대 시절 청정지역 백령도 밑 대청도라는 작은 섬이 있었는데 일반 주민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온갖 쓰레기들이 해안가로 밀려와 항상 쌓여 있었어요. 자연이 아름다운 그 섬에 계속 쓰레기가 쌓이는 걸 보고 문제에 대해 경각심을 느끼게 되었어요. 혼자 그때부터 조금씩 쓰레기를 줄여 나가며 친환경을 추구했고 (제로 웨이스트를 실천했고) 전역하고 대구에서 '수달을 지키자'는 의미의 '안녕하수달' 쓰레기 줍기 모임을 직장 생활하며 꾸준히 활동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환경에 대한 관심이 깊어지며 기후 변화 등 더 많은 환경 문제들을 알게 되었고, '내가 하고 있는 이 쓰레기 줍는 행동이 환경에 도움이 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좀 더 그 문제의 뿌리로 들어가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 고민하고 공부하다 지금 현대 농업의 문제점을 알게 된 거예요.

그때 다큐멘터리와 책을 보며 영감을 많이 받았는데 자연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했던 농업이 생산성을 추구하다 보니 가장 자연을 직접적으로 파괴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것을 보고 우리의 환경 문제가 되고 있는 유통 등 다양한 산업이 결국 먹거리에서부터 시작을 하니 '저기가 뿌리다!' 라는 유레카를 얻었죠. 그래서 대구에서 직장 생활을 하며 집에서 15분-20분 거리에 있는 '도시 텃밭'을 10평 정도 임대 받아 이것저것 심기 시작했어요. 과연 내가 농사를 진짜 좋아할까?를 보려고요.

Q. 자신만의 텃밭을 가꾸며 설레고 재미있었던 부분이 궁금해요.

퇴근 후, 그리고 주말마다 오가며 밭을 관리했는데 너무 재미있더라고요. 다른 텃밭을 보면 한 가지만 심어서 농사처럼 지으시는데 저는 이게 재미있어서 하는 거니까 콩, 수박, 오이 등 다양하게 20가지 정도 키웠어요. 그때 '내가 좀 더 해봐도 되겠다' 확신이 들었어요. 또 마트에서 채소를 사면 포장지 쓰레기가 나오는데 내가 키운 농산물을 바로 요리해 먹으니 쓰레기가 나오지 않아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답인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채소들이 생각보다 빨리 자라서 매일 매일 모습이 달라요. 농사일하면 힘들고 지루할 거라고 주로 생각을 하는데 저에게는 '놀이' 같았어요. 회사에서는 큰 기계부품이 된 느낌이라면 밭에서는 제가 모든 것을 관장하고 행위 하나하나가 영향을 주니까요.

처음에는 재미로 시작했지만 쓰레기도 줄고 자연스럽게 채소들의 유통과정에서 발생되는 탄소들도 줄어드니까 만약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텃밭을 가지고 먹는 것들을 자급자족하기 시작하면 모든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겠다 싶었어요. 그렇게 '이거다!' 확신이 들어서 퇴사를 결정하게 되었죠.

Q. 밭멍은 어떻게 오게 되셨나요?

저는 영월 우프(WWOOF : World Wide Opportunities on Organic Farms, 유기농가에서 일을 도와주는 대신 숙식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 중 하나) 호스트 중 한 곳에서 '팜 가드닝 프로젝트'를 했었어요. 팜 가드닝은 농장과 정원을 합친 개념이고 그와 관련된 교육을 해주는 프로그램이었어요. 농장에서 2주 동안 교육을 받고 일주일 동안 다른 농장에 가서 실습을 해야 했는데 그때 실습했던 농장이 밭멍이었어요.

산이 보이고 강이 보이는 이런 영월의 자연 풍경이 안정감을 주어 제 마음에 쏙 들었어요. 그리고 영월의 기후도 마음에 들었어요. 여름은 여름답고 겨울은 겨울 다운 곳에서 살고 싶었는데 영월은 사계절이 뚜렷해서 적합했죠.

또 저희 대표님(호미)이 청년들이 자급자족할 수 있는 마을 공동체를 만들고 싶은 꿈에 대해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감동과 설렘을 주더라고요. 그리고 농사를 짓고 친환경 창업을 도전하는 청년들이 모여 함께 지속가능한 삶을 사는 꿈을 함께 꾸게 되었어요.

저도 자급자족하는 삶을 꿈꿔왔지만 혼자는 불가능해요. 이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같이 모여야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막막하고 고민되었는데 호미 님도 그 꿈을 꾸고 있어 든든하고 기대가 되었어요.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라 함께 하면 많이 배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더 밭멍에 남기로 선택하게 되었어요.

Q. 공무원에서 농부로 간다고 했을 때 가족분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당연히 반대하죠. 그럼에도 설득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제가 가꾸는 텃밭을 자주 보여드렸어요. 그러고 제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니 부모님도 조금씩 마음을 열어 결국 허락해 주셨어요. 사실 저희 부모님이 전라도 완주 시골 출신이시고 이전 세대부터 농사를 지으셨거든요. 힘든 걸 아셔서 반대를 하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흔히 농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 그리고 밭이 생산적인 측면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기존의 농업문화처럼 생산하는 공간으로만 받아들인다면 고생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그래왔기 때문에 고생의 서사가 생긴 것 같아요.

이 밭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예를 들어 밭 한가운데 있는 평상에 앉아 명상을 하거나 밥을 먹을 수 있고, 밭일을 하다 캠핑을 할 수도 있는 건데 '이 밭은 오로지 뭔가를 생산해서 앞으로 먹고살아야 된다.' 이렇게만 보면 너무 힘든 농사가 될 수밖에 없어요.

Q. 현재 밭에서 어떤 재미있는 것을 하고 계시나요? 자급자족 라이프도 궁금해요.

현재 한 2천 평이 되는 밭에 작물이 마흔 가지 정도 심어져 있어요. 일반적인 밭은 한 가지 작물만 심어서 똑같이 뿌리고, 솎아주고, 거두고, 약치고 하며 재미가 없는데 여기는 매일매일 다른 일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재미있어요.

'오늘은 여기 벌레가 많이 먹었네 그럼 여기 옆에는 뭘 심어야 될까?', '저쪽은 잘 자랐는데 여기는



또 안 자라네?', 등 고민을 하니 지루할 틈이 없어요. 밭멍에 온 이후로 한 번도 심심해 본 적이 없어요.

마치 실험소 같아요. 일로서 받아들이지 않고 나중에 나만의 농사를 위해 실험한다는 느낌으로 도전해 보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밭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요. 급하게 일만 하고 들어가서 실내에 앉아 있는 것보다 밭에 나와 있으면 보이는 것들이 많고 이런저런 아이디어들도 떠올려요. 그늘이 빨리 지는 공간을 발견한다면 '어떤 습한 걸 심어보지?' 멍하니 앉아서 고민해요. 해 넘어가는 것도 가만히 보고 있기도 하고요. 저는 이렇게 자연이 궁금해서, 자연이 좋아서 하는 마음으로 농사를 지어야 진짜 땅을 이해할 수 있고 쉽게 지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파머컬처에는 12가지 원칙이 있는데 제일 첫 번째가 '관찰'이에요. 농사를 지으려는 땅을 먼저 알아야 하는 거죠. 그리고 오랜 시간을 밭에서 보내야 어떤 땅인지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청년마을 프로그램을 할 때에도 참여 청년들이 밭에 와서 최대한 일처럼 느껴지지 않게 일을 하더라도 왜 하는지 정확하게 알려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유를 모르고 일을 하면 힘드니 작은 일 하나를 하더라도 이유를 다 설명해 줘요. 그러면 사람들이 조금 더 의미를 가지고 참여를 하더라고요. 저희는 이유 있는 농사를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요.

현재 자급자족 라이프는 주로 먹거리에서 이뤄지고 있어요. '밀'과 '포르투갈 케일'로 만든 빵과 케일 주스로 아침을 시작하고, '폐 팔레트'로 만든 닭장과 땅 '냉장고'에서 계란과 당근을 가져와 '배추'로 김장한 김치와 함께 점심을 건강하게 먹을 수 있어요. 오후에는 '허브'티와 '바질 페스토' 또는 직접 만든 '어스(Earth) 오븐'으로 피자를 구워 간식타임을 갖고 저녁에는 '고추장'과 '콩'으로 요리를 만들어 먹어요. 식사가 끝나면 자체 순환 시스템으로 다시 밭에 뿌려주는 '퇴비장'에 음식물 쓰레기를 해결하고 볏짚을 단열재 삼는 '스트로베일 하우스'에서 낮잠 시간도 가질 수 있어요.

Q. 지역 주민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나요?

사실 어른들 눈에는 소꿉놀이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저희가 작년부터 팜파티 같은 행사들을 하기 시작하면서 청년들이 동네에 자주 보여 어르신들이 많이 좋아하셨고 그 이후로는 많이 응원해 주셨어요. 이런 일들을 겪고 나시니 이런 방법으로도 사람들이 오는구나를 알게 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청년들을 더 많이 데리고 와 다 같이 마을 구경을 가기도 했어요.

Q.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자연농법이 사람 그리고 지구한테 좋다는 걸 아는데 '이 가치를 어떻게 사람들한테 알릴 수 있을까?' 항상 고민되었어요. 혼자 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옳은 일이라면 더 많은 사람들이 같이 해야 영향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영월에 한 우프 농장을 경험했는데 농사도 지으면서 한 팀씩 민박을 같이 운영해요. 항상 아침 식사를 밭에서 수확하고 요리해서 손님들과 드세요. 어느 날 손님들을 밭에 모시고 나가 직접 경험시켜 드렸는데 '이 농사는 어떻게 지은 거예요?' 여쭤보시더라고요. 호스트님이 땅을 갈지 않고 약도 안 치고 친환경적으로 농사 지어 맛있을 수밖에 없다고 답을 드리는데 체험을 통한 궁금증 유발과 질문을 통해 자연스럽게 자연농법에 대한 가치가 전달되었어요.

저는 거기서 가능성을 보았어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가치들을 하루 지내면서 직접 수확하고 먹어봤던 복합적인 경험들을 통해 자연스럽게 전달된 거잖아요. '저렇게 하면 조금 느리더라도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전달해 줄 수 있겠구나. 나도 해야지!' 마음먹게 되었어요. 그래서 가까운 목표로 농사를 지으며 머무르는 손님들과 같이 농장에서 수확한 걸로 바로 요리해 먹을 수 있는 '팜 투 테이블' 공간을 운영하고 싶어요.

그리고 자연 농법을 청년들에게 재미있게 알려줄 수 있는 학교를 만드는 게 저의 궁극적인 목표예요. 수업과 실습뿐만 아니라 같이 숙소에 모여 밭에서 난 음식을 차려 놓고 소소하게 자연농과 농사에 대한 철학을 나누며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철학적으로 접근하기보다 친구 집에 놀러 오듯이 편하고 방법론적인 것들을 많이 보여줄 수 있는 재미있는 곳을 만들고 싶어요.궁극적으로는 제가 옳다고 생각해서 어떤 일에 몰두해 진짜 나의 일로 만들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수단이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Q. '밭멍' 혹은 청년마을이 나에게 준 경험은?

밭멍과 청년마을은 저한테 '행복한 실험소'라고 말하고 싶어요. 다양한 것들을 실험하고 부딪혀볼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계획들을 더 확실하게 다져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밭멍만의 힘으로 부족한 것들이 청년마을로 많이 메꿔지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을 어떠한 매개체로 모으는 게 어려운 일인데 청년마을이라는 큰 사업이 있어서 그걸 통해 밭멍에 청년이 모이고 있어요. 저는 점점 더 많은 청년들이 이곳을 알아봐 준다는 게 제일 가치 있는 일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되고 그 어떤 것보다 저희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어요.

Q. 마지막으로 청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시골에 살면 가장 큰 특권이 내 밭을 가꿀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 안 되는 텃밭에서 다 자급자족하기는 어렵겠지만 정서적인 안정과 소소한 즐거움을 주고 계속 이 시골 생활을 유지해 나갈 수 있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그 특권을 꼭 놓치지 않고 작은 규모라도 밭을 가꿔보라고 권하고 싶어요.



Human Impact #11

도고온천의 새로운 사회적 가치, 비건을 들이다

아산 청년마을, 'DOGO온천'의 오현경 청년 이야기

진로를 고민하던 중 만나게 된 도고온천. 아는 것도, 아는 사람도 없지만 청년마을을 통해 공동체, 소속감을 경험하고, 사회적 가치를 향해 나아가는 청년마을을 봄으로써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어 정착을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도고의 분위기와 맞게 비건과 친환경 화장품 비즈니스를 꿈꾸게 되었다고 합니다.

도고이기 때문에 무엇이든 도전하고 가능하다고 말하는 도고온천의 오현경 청년 이야기입니다.

Q. 도고온천에 어떻게 오게 되셨나요?

오랜 기간 시험을 준비하였는데 결과가 좋지 않아 계속해야 하나 고민에 빠져있던 상태였어요.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제가 정말 원하는 일을 위해 달리고 있는지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저는 원래 비건, SNS 등에 관심이 많아 비건 음식이나 비건 화장품을 공부해 일을 하고 싶었거든요. 당시 공부하던 시험은 완전히 다른 분야여서 더욱 고민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중 인스타그램 광고를 통해 도고온천에 대해 알게 되었어요. 도고가 아버지 고향과 가까워 동네가 친숙하고 도고온천의 한 달 살이 주제가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식물'이었기에 저와 관련성이 높다 생각하여 참여하게 되었어요. '식물'을 단순히 식물 그 자체가 아닌 농산물 등으로 확장하여 생각해 볼 수 있었어요. 또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팀 프로젝트로 풀어간다는 것을 보고 관심사를 확장해 나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Q. 어떠한 이유로 '비건'에 관심을 가지게 되셨나요?

건강을 찾기 위해 시작하게 되었어요. 저는 완전한 비건은 아닌 플렉시테리언이에요. 몸이 건강하지 않아 자주 응급실에 갔었는데 한의원에서 고기가 맞지 않는 체질이라 해 고기 섭취를 지양하는 '비건 지향'이 되었어요. 비건 지향을 하다 보니 건강해지는 것이 느껴지고 아픈 곳이 사라지니 최대한 건강한 재료로 건강한 음식을 먹기 시작했어요. 비건 지향을 공유하는 분들의 이야기도 들으며 조금씩 환경문제에 대해서도 배우며 생각을 넓혀 나가고 있어요. 더 나아가 비건 화장품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어 이와 관련된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한 달 살이 프로그램에서 다양한 식물 수업을 통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다양한 재료들과 활용법을 배웠어요. 도고에서 비건 화장품을 시작한다면 하고 싶었던 식물과 곁들여 온천수를 활용해 로컬의 특징을 담아낸 화장품을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또 개인적으로는 친환경적인 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만나게 되어 친환경적이고 제로 웨이스트를 지향하는 기업을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도고에 정착을 마음먹게 되었어요. 처음 참여할 때에는 아는 사람도 없고 잘 알지 못하는 지역에서 생활한다는 것이 큰 도전이었지만 이곳에서 체험을 하고 만난 분들과 대화를 하면서 도고에서는 하고 싶은 것을 해볼 수 있겠다고 느껴 정착을 결심했어요.



Q. 도고 한 달 살이 프로그램의 어떤 부분이 좋으셨나요?

참가자분들과 함께 하는 것도 좋았지만 정착에는 운영진분들의 긍정적인 영향이 컸어요. 정착을 하게 되면 그분들을 통해 많이 배우고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청년으로서 아산에 모여서 함께 활동하고 가치를 공유해 나가며 함께 힘을 내는 모습이 정착해서 공동체의 일원으로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많이 배울 수 있겠다는 기대를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소속되어 있는 곳이 없는 상태로 이곳에 왔으니 정착하면 소속감도 들고 여기서 만난 분들에게 다양한 것을 배우면서 가치를 공유해 나가며 새로운 시작을 해봐도 좋겠다는 가능성을 보았어요.

또 도고의 평화롭고 자연 친화적인 환경 자체가 좋았어요. 도시에서 빡빡하게 살다가 내려갔더니 더욱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한가롭지만 마음이 편안하고 자연환경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곳이 많고 주변에 산길도 많아 자연을 느끼며 걷는 것이 메리트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Q. 청년마을을 경험하기 전과 후 스스로 느끼는 변화가 있으신가요?

청년마을에 오기 전에는 무언가를 해 나갈 때 혼자 모든 것을 책임지고 해내야 한다는 느낌이 강했어요. 같이 해 나간다는 것이 쉽지 않고 하고 싶은 일을 해도 혼자 고군분투하는 느낌이 있었는데 청년마을에서는 가치와 생활을 모두 공유하고 서로 도와주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것을 보고 공동체가 주는 힘을 느끼게 되었어요. 청년마을을 경험하며 의지할 수 있는 공동체,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함께 고민해 주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에 기대가 되더라고요.

Q. 도고온천에서 이루고 싶은 꿈과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개인 SNS를 운영하며 비건 화장품이나 비건식을 협찬받아 사용하고 있어요. 비건에 관심이 많았기에 많이 접하게 되었고 저도 도고에서 비건 화장품 사업을 시작해 보고 싶다는 꿈을 꾸었어요. 협찬받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것도 좋지만 좋은 가치를 담은 제품을 제가 직접 만들어서 알리고 싶은 욕심이 생겼어요. 비건 지향이라는 게 누구나 실천할 수 있고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요.

기본적으로 비건 화장품이 주제이지만 친환경, 제로 웨이스트를 담아내는 사업을 하면서 같은 분야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어요. 함께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고객들과 그런 가치를 충분히 실현해낼 수 있는 사업을 하고 싶어요.

정착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수입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었는데 도고온천 대표님을 통해 도고에 새로 오픈하는 제로 웨이스트 카페에서 일하며 사업을 준비해 나가기로 했어요. 배울 점이 많고 하고 싶은 사업을 준비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얻게 된 것 같아 기대가 돼요. 도고온천에서의 삶을 통해 제가 원하는 것에 더욱 가까워질 수 있을 것 같아요.



Q. 도고온천을 한마디로 한다면 어떻게 표현하고 싶으신가요?

'가능성'이라고 생각해요. 이곳은 모든 것이 갖춰진 곳이 아니에요. 애초에 시골 지역이기에 여러 기반 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지역이지만 충분히 무언가를 해낼 수 있는 기동력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해 본인이 마음을 먹는다면 무엇이든지 시작할 수 있는 곳이 도고라고 생각해요. 무엇이든 해낼 수 있는 가능성을 갖춘 곳이에요.

Q. 청년마을을 경험하지 않은 청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청년마을을 경험하기 전에는 청년마을에 대해 전혀 모르고 그저 짧게 즐기다 오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말 그대로 청년들이 모여 즐겁게 매일을 보내는 곳이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가 충분히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어요. 예상치 못한 일을 통해 내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좋은 경험을 해볼 수 있으니 청년마을을 꼭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Human Impact #11

따뜻한 도고온천을 '핫'하게

아산 청년마을, 'DOGO온천'의 서민지 청년 이야기

"도고온천에서의 삶은 알에서 깨어나온 느낌이에요."

한 남자의 아내로, 그리고 두 아이의 엄마로 살아온 이 청년은 도고온천 청년마을의 운영진으로 참여하며 본인을 위한 삶, 하루하루 용기를 내며 도전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도고온천 청년마을을 진행하며 사업을 확장하고 싶다는 용기가 생겼고 도고 주민분들을 알아가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냥 만나서 수다만 떨고 지나가는 것도 좋지만 도고의 역사를 담아내고 도고의 발전 가능성을 찾아내는 역할을 하고 싶어요.

서민지 청년은 도고온천에서의 경험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Q. 어떻게 도고온천 청년마을에 오게 되셨나요?

결혼을 하며 아산에 처음 내려오게 되었어요. 3년 전 남편이 영상업체를 창업하게 되었고, 저도 비슷한 분야로 일을 해보고 싶었어요. 사진을 찍는 게 취미였는데 이것을 발판 삼아 사진 스튜디오를 창업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한 달 살이' 프로그램을 접하게 되었는데, '도고'라는 주제에 맞춰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또 아산에서 만난 사람들이 좋아서 그분들과 함께 일을 해보고 싶기도 했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 가치 있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 청년마을을 만든다는 것이 의미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다른 아산의 여러 지역도 좋지만 저희 아이들이 도고에 있는 어린이집에 다닐 정도로 도고를 좋아해서 자주 방문하였는데 그런 도고에서 청년마을을 진행한다고 하니 더 더욱이 함께하고 싶더라고요. 도고는 교통편이 좋지 않지만 자연이 아름답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올 가치가 있어요. 아이들도 어린이집에 가면 산에서 뛰어놀고, 벌레 잡고, 온전히 자연을 즐기면서 노는데,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도고만이 가진 가장 큰 메리트였어요. 자연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요즘은 많이 줄었으니까요.

Q. 아이를 키우면서 청년마을에 참여한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병행 과정이 궁금해요.

아이들이 있는 상태에서 저희 부부가 청년마을을 함께 하는 게 사실 부담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사업적으로도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았는데, '이미 잘하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해낼 수 있을까' 고민도 있었어요. 근데 막상 하니 이런 고민들은 금방 사라지더라고요.



사실 대부분의 아이들이 엄마, 아빠 외에 다른 사람들과 있으면 더 말을 안 듣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시는 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같이 아이들을 케어해 주셔서 제가 잘 적응할 수 있었어요. 함께하는 팀원들에게는 고마우면서도 미안한 마음이 커요.

그런데 다른 분들은 오히려 저희 가정을 보면서 희망을 얻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이를 케어하면서도 청년마을에 참여할 수 있고, 가족과 함께 청년마을에서 지낼 수 있다는 것을 저희를 통해 가능성을 보았다고요. 운영진들끼리 장난 식으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도 지금처럼 다 같이 모여서 살자는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 시범 주자가 저희가 된 거죠. 가정을 꾸린다는 게 막연히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실제 사례가 있으니 다른 분들이 그걸 더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저희가 본이 되는 부부가 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Q. 청년마을로 인해 지역에 어떠한 변화가 생겼나요?

도고온천을 진행하기 전에는 마을 주민분들과 소통을 할 수 없었는데 청년마을을 통해 주민분들과 많은 교류를 나누고 그분들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마을 분들과 친밀한 관계를 가진 것만으로도 큰 변화예요. 마을 주민분들께서는 젊은 사람들이 마을에 있으니 활력이 생겨 사람 사는 느낌이 난다고 말씀해 주세요.

Q. 청년마을을 통해서 이루신 게 있을까요?

저는 원래 육아에 전념했던 사람이라 도고온천 이후의 삶은 알에서 깨어나온 느낌이에요. 자유롭게 활동을 할 수 있는 경험이 처음이어서 모든 게 새로워요. 특히 아이가 있으면 제약이 많아 일을 할 수 없는데 이곳에서는 함께하는 멤버들 덕분에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청년마을을 통해 제가 누릴 수 있는 것이 많아졌다고 자부할 수 있어요.

그리고 특히 운영진 멤버들과 한 달 살이를 참여하는 외부 청년들을 통해 세상에 다양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저의 시야가 넓어지고 용기도 생기는 등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어요.

2기 한 달 살이를 진행하며 참가자에게서 공통적으로 느꼈던 것은 모두 용기 있는 일을 해내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자기가 사는 곳을 떠나 한 달 동안 아무도 없는 외지에 나와 산다는 것이 용기 없이는 할 수 없으니까요. 저를 대입해서 생각해 보았을 때, '내가 그분들이라면 해낼 수 있었을까?'라는 의문이 들었어요. 혹여 염려를 가지고 이곳에 왔더라도 잘 해내는 모습 을 보며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1기 때는 운영진들끼리 한 달 살이를 진행했는데 운영진 중에 흔히 말하는 '덕후'기질이 있으신 분이 계셨어요. 그전에는 덕후라는 것에 선입견이 있었는데 그분을 보고 '한 우물을 파는 것이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지름길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도고온천의 운영진으로 있으면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계신 대표님들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고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저도 제가 관심 있는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Q. 청년마을을 통해 이루고 싶으신 게 있을까요?

내년에는 도고에 분점을 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도고의 관광을 살리며, 사진을 찍어줄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많은 분들의 추억을 쌓는 데 도움을 드리고 싶어요. 도고온천 청년마을을 진행하며 사업을 확장하고 싶다는 용기가 생겼고, 도고 주민분들을 알아가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냥 만나서 수다만 떨고 지나가는 것도 좋지만 도고의 역사를 담아내고 도고의 발전 가능성을 찾아내는 역할을 하고 싶어요. 도고의 아름다움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자연 경관을 사진으로 담아두고 주민분들의 삶과 추억도 사진으로 저장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어요.

도고를 옛날에 유명했던 신혼여행지로만 기억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 기억에만 멈추는 것이 아닌 도고의 현재의 모습도 알리고 도고만이 가지고 있는 좋은 부분들을 전달하고 싶어요.



Q. 도고온천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도고온천은 '따뜻함'인 것 같아요. 온천의 따뜻함도 있고 노을의 따뜻함도 있어요. 도고에서 본 노을이 저에게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도고에는 높은 건물이 없고 탁 트인 자연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기에 도시에서는 볼 수 없고 도고에서만 볼 수 있는 노을이 있어요. 그 노을이 저에게 따뜻하게 다가왔어요.

또 도고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따뜻함을 많이 느꼈어요. 다른 운영진분들과 항상 하는 말이지만 도고는 지금 따뜻한 온도를 가지고 있으니 우리는 이 온도를 뜨겁게 만들어보자라고 우스갯소리로 이야기를 해요. Hot 도고를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이 열기로 많은 청년들이 도고에 와 도고가 다시 살아나기를 바라고 있어요.

Q. 도고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은 어떻게 성장하기를 바라시나요?

아산에 있는 동안에는 건강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기를 가장 바라고 있어요. 건강함으로 가득한 도고에서 안정적인 삶을 살아갔으면 해요. 또한 요즘엔 1차 산업인 농업이 죽는 산업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에 아이들이 도고에서 농업을 경시하지 않고 자연과 항상 함께 하며 이러한 공간과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또 다양한 지역을 방문하며 다양한 경험을 쌓게 도와주고 싶어요. 청년마을을 통해 짧게나마 지역살이를 해본 타 지역 청년들처럼요. 아이들에게 하나의 직업군이나 지역만이 목표가 되지 않았으면 해요.



Business Impact

로컬 자원을 활용한 로컬 비즈니스 창조스토리,
그리고 만나는 다양한 형태의 일

명란젓에 '힙함'을 입히다
부산 이바구마을, 박서란

워라블WORK-LIFE BLENDING을 위한
청년들의 아웃도어 워케이션
거제 아웃도어아일랜드, 박은진 대표

지치지만 쉴 수 없는 당신을 위한 워케이션
강릉 강릉살자, 최지백 대표

워케이션의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다, 술케이션
서천 삶기술학교, 김정혁 대표

농업의 영역을 넓히는 농업 트렌드 메이커
괴산 뭐하농스, 이지현 대표

예술의 사회적 기능을 광산문화로 풀어내다
태백 광광스토리지, 양세은

영덕에서 트레킹 하다 창업에 눈을 뜨다
영덕 뚜벅이마을, 김단홍

'나'를 찾기 위해 떠난 경주에서 좋아하는 요리를 시작하다
경주 가자미마을, 강윤혜

명상의 틀을 깨고 모든 것을 명상화 하다
예천 생텀마을, 이지우

로컬과 도시를 연결하는 제품개발에 나서다
의성 나만의-성, 최형근

서울청년, 의성에서 노인문제 해결에 앞장서다
의성 나만의-성, 이수길

자급자족 라이프를 위해 사과농장 먹거리숲을 계획하다
영월 밭멍, 홍성결

도고에서 '환경'과 '동물'에 대한 비즈니스를 실현하다
아산 DOGO온천, 강유정

어쩌다 군산 청주바 운영, 어쩌다 전통주 홍보대사
군산 술익는마을, 박신영

'배스밤'을 통해 로컬의 향을 내다
강진 병영창작상단, 김민지

하동의 '차'로 하동의 인구 소멸을 '방해'하는 청년 '차 이야기꾼'
하동 오히려하동, 김완준



Biz Impact #1

명란젓에 '힘함'을 입히다

부산 동구 청년마을, '이바구마을'의 박서란 청년 이야기

시각디자인을 전공하고 이제 막 졸업한 청년은, 일러스트를 활용한 굿즈를 만들어 지인들에게 나눠주며 작은 즐거움을 찾아가고 있었다. 주변에 창업 제안을 듣고 고민하던 시기, 우연히 SNS 광고 포스터를 보고 터닝포인트를 맞게 되었다.



[지금의 '이바굿즈'가 있기까지]

이 청년은 '이바굿즈'의 박서란 대표이다. 이바구마을 프로그램을 통해 창업에 대한 꿈을 구체화하여 부산 동구 지역을 돌며 이 지역만이 갖고 있는 특산물 등을 파는 쇼핑거리의 니즈가 생겨나, 직접 그 꿈을 가지고 굿즈 숍을 차리게 되었다.

창업을 앞두고 이바구마을에 대해 조사하다가 명란젓 관련 기사를 보게 되었고, 명란젓이 부산 동구 초량이 발상지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심지어 옆 동네 출신인 박서란 대표의 아버지도 모르고 계신다는 사실에 문득 '명란젓'을 활성화시켜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고 한다. 그래서 '이바굿즈'에서는 '명라니'라는 캐릭터를 개발하고 키링, 엽서 등 다양한 제품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현재 '이바굿즈'가 자리한 곳은 부산 노인분들의 일자리 소개 클럽을 운영했던 곳, 그전에는 카페를 운영했던 곳이다. 창업 전 6개월간 이바구마을 프로그램을 통해 동네에 빈 공간을 찾아다니며, 계약이 끝났다는 정보를 전달받아 내부 공간에 대한 디자인을 시작할 수 있었다.

'이바굿즈'는 주로 관광객과 주민들이 방문하고, 건너편 초등학생들도 가끔 신기한 마음에 구경을 온다. 주변에 가게를 운영하시는 주민분들은 타지 젊은 청년이 운영해 나가는 모습을 보고 자주 안부를 물어주셔 주민분들과의 관계도 쌓아나가며 즐겁게 지내고 있다. 더 많은 관광객의 방문과 '명라니'의 안정화를 위해 계속해서 고민해 나가고 있다.







[이바굿즈, 부산의 명라니를 알리다]

더 큰 확산을 위해 가을에 일러스트페어 전시 회에 참여 예정이다. '이바 굿즈'의 명라니 를 많이 알리고, 온라인 숍도 준비하며 SNS 활용 방법과 온라인 스마트스토어와 홈페이지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며 요즘 머릿속에는 온통 명라니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명라니를 알리고 지역에 스며들고 있는 과정 가운데 박서란 대표는 또 하나의 새로운 목표가 생기게 되었다.

"명라니의 안정화를 넘어, 새로운 캐릭터를 만들고 싶다!"



[실패해도 괜찮아]

여기 오기 전 원래라면, 새로운 도전보다는 이미 해봤던 것에서 안정감을 찾아 지금의 안정성만을 추구했을 것이다. 하지만 6개월 동안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을 만나며 매장 운영도 해보니, 점점 다양한 것을 경험해 보며 도전해 보자는 생각으로 바뀌었다.

가벼운 마음으로 내려왔지만 결국 정착하고, 명라니 안정화를 넘어 새로운 캐릭터 기획을 생각하게 된 것도 바로 이러한 변화 때문이다. 요즘은 여러 팝업스토어를 방문하며 온라인 서핑을 통해 유행하는 트렌드나 '밈'(영어 meme의 외래어 표기, 쉽게 말하자면 "짤")을 통해 영감을 받으며 즐거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그러다 가끔 두려움이 찾아올 때면, '할 수 있는 만큼 다 해보자'는 마음으로 마을의 다른 청년들과 함께 나아가고 있다. 이런 변화에는

"실패해도 괜찮아"
"부담 갖지 말고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보자"

라고 응원해 주는 공공 플랜 대표님의 든든한 한마디가 있었다고 말하며 미소를 보였다.

지금 이렇게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이바 굿즈'라는 로컬 브랜드를 통해 지역의 미래에 변화를 일으키고 싶다는 꿈도 꾸게 되었다. 로컬 브랜드에 대해 아직 잘 모르는 지역 분들에게는 '이런 곳도 있네?' 하는 의외성을 발견했으면 좋겠고, 이미 알고 있는 분들은 로컬 브랜드에 대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고, '이바굿즈'를 통해 좋은 인식이 생겨 '로컬 브랜드도 잘될 수 있구나'라는 인식이 생기기를 희망한다고 이야기한다. 이런 지역 변화에 대한 기대감에 하루하루 새로운 에너지로 또 도전할 수 있는 힘을 얻는다고 박서란 대표는 말한다.

진짜 부산, 부산의 산동네 모습을 잘 보여주는 이바구마을의 '이바굿즈'는 오늘도 지역에 대한 미래의 꿈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다.



Biz Impact #2

워라블 WORK-LIFE BLENDING을 위한 청년들의 아웃도어 워케이션

거제 청년마을, '아웃도어아일랜드'의 박은진 대표 이야기

[꿈의 아웃도어 라이프]

"내가 살고 싶은 동네에서 일과 쉼을 누리며 살았으면 하는 꿈이 있었고, 그런 동네를 찾기 어렵다면 내가 직접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한 박은진 청년, 즐거운 마을 활동을 그리며 공유를 위한 창조의 대표가 되었다. 부산에서 참여한 이바구캠프를 통해 이들의 미션을 직접 실행한 경험과 새로운 기회를 얻어 부산을 떠나 낙후되어 활기를 잃은 동네를 찾기 시작했다. 여러 지역을 다녔지만 거제의 원도심이 최적의 장소로 여겨졌고 마침내 아웃도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거제에 정착하게 되었다.

그렇게 정해진 이름 "아웃도어아일랜드"는 거제 장승포에서 아웃도어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웃도어를 부캐로서가 아닌 본캐로 일상적인 아웃도어라이프를 즐길 수 있는 곳이라는 의미가 담겨있다. 2020년부터 아웃도어 라운지 '밖'에서 로컬 커뮤니티를 운영하며 즐길 수 있는 아웃도어 프로그램과 함께 세 가지 핵심 가치 '야외에서 하는 모든 일상적인 행위'의 아웃도어, '하고 싶은 일, 살고 싶은 삶'의 라이프 그리고 '지속 가능한 마을'의 아일랜드에 대한 이야기들을 풀어나갔다.

4 년이 지난 지금, 거제 장승포에서 쌓아온 경험과 시간을 돌이켜보면 박은진 대표는 처음 거제도 장승포로 이주, 정착하며 꿈꿔왔던 '일과 쉼을 유연하게 넘나들며 자연환경으로부터 영감을 얻는 삶'은 더 이상 꿈이 아닌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고 말한다.

[영감과 생산의 원천]

아웃도어아일랜드에는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진 작은 바닷가 마을이지만, 치열하게 일을 하다가도 잠시 밖으로 나가 바다와 산을 보며 산책도 할 수 있는 소중한 일상이 있다.

토요일 오전, "오늘 서핑하러 가도 돼요?" "네! 2시에 파도 좋습니다. 오세요"

뜨거운 햇빛과 시원한 바람을 느끼자마자 생겨버린 작은 마음과 의지로 바로 서핑하러 떠날 수 있다. 장승포에서 차로 20분이면 만날 수 있는 흥남해수욕장에서 새카맣게 탈 때까지, 온몸의 근육이 뭉칠 때까지 파도를 타고 나온다. 일에 지치거나 삶에 약간의 무료함이 생길 때면, 주저 없이 산과 바다 속으로 들어가 트레킹부터 서핑의 축제를 즐기고 자연 속에서 여가와 쉼을 얻는다. 이런 일과 쉼을 넘나드는 워케이션 라이프스타일은 이들을 고스란히 에너지로 다시금 채워지게 해준다고 한다. 이렇게 누리는 삶을 이곳, 아웃도어아일랜드의 지속적인 삶의 형태로 자리할 수 있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한다.

이처럼 아웃도어아일랜드에서는 일할 곳, 머물 곳, 쉴 곳 그리고 바다, 산, 모두 도보권으로 만날 수 있어 삶이 다양한 풍경으로 채워지기도 하지만 조화로움도 만들어진다. 일과 여가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연스럽게 섞여 들어가게 만들어지는 것이다. 출퇴근에 걸리는 시간을 산책, 서핑, 캠핑 등 '나'를 위한 시간으로 쓸 수 있고, 점심시간 바다를 보며 물멍을 하며 엉뚱한 상상 속을 헤엄칠 수도 있다.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새로운, 재미난 일이 시작되어 삶을 더 편안하고, 더 행복하고, 더 풍요롭게 만들어 준다. 특히 여유롭게 캠핑을 하다 보면 문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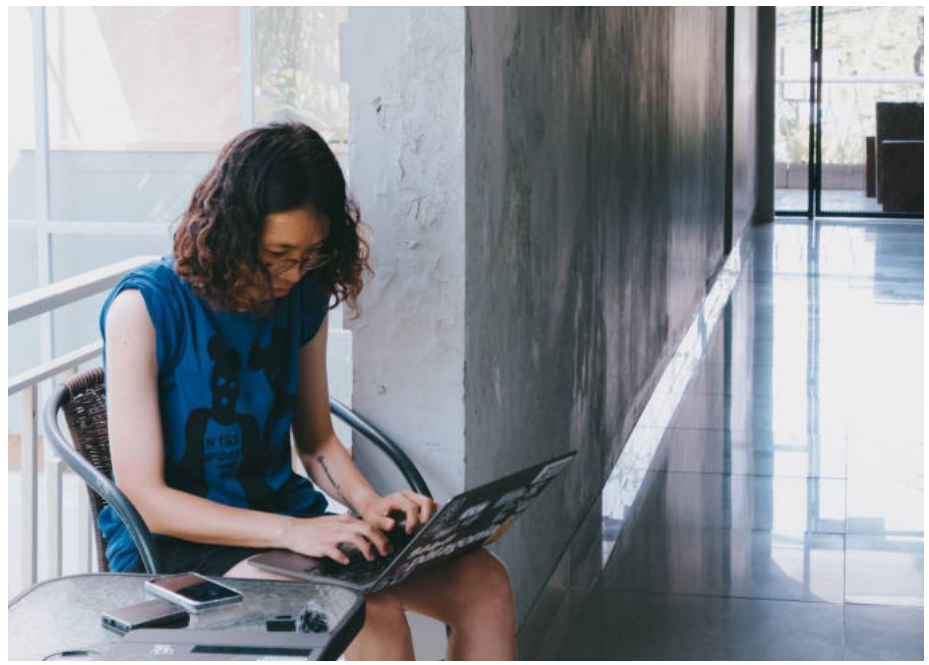


자연은 '내가 주체가 될 수 있는 장소'라는 생각이 들게 된다고 한다. 마음먹기에 따라 캠핑 의자, 테이블, 텐트가 놓여있는 장소가 쉴 곳, 노는 곳 심지어 일하는 곳까지 될 수 있는 것이다. 어쩔 수 없이 흘려보냈던 시간을 '나'를 위해 쓰며 쉼을 갖고, 동시에 다시 '일'하기 위한 재충전을 할 수 있다.

이런 조화로운 워케이션 라이프스타일의 연속이 앞으로 더 재미난 삶을 살아가게 할 힘을 준다. 이런 힘을 채워줄 수 있는 아웃도어 아일랜드에서의 워케이션은 '내'가 주체가 되어 마음껏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쌓고 만들고, 바꾸고, 시도할 수 있는 모래사장과도 같고, 아웃도어는 '영감과 생산의 원천이 되는 가능성의 세계'이며, 아웃도어 아일랜드의 역할은 바로 '생산의 원천으로써 아웃도어를 지속해 나가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젠, 아웃도어 워케이션!]

이들의 꿈은 이렇게 현실이 되어 아웃도어는 '놀 곳, 일할 곳, 쉴 곳이 될 수 있는 자연환경', 라이프는 '주체적이고 생산적인 일상', 아일랜드는 그 모든 걸 담고 있는 '터전, 마을, 공동체'로 구체화되었다. 바다를 보며 일을 하고 저녁에는 훌쩍 캠핑을 떠나기도 하는, 여행과 닮은 워케이션의 삶을 이미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 그리고 모두가 워라밸 (work-life balance)을 외칠 때 일과 삶의 경계가 무너진 워라블 (work-life blending) 을 믿는 장승포의 청년들은 더 많은 청년들이 이곳 장승포에서 경험해 보고, 새로운 에너지를 얻을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작년의 'Anywhere Office(어디든지 일하는 곳이 되는) 워크-트립'부터, 올해의 아웃도어 워케이션까지 흘러오게 되었다고 한다.



이들은 앞으로 더 확실한 워케이션을 제공하기 위해, 얼마 전 디지털노마드의 천국이라 불리는 '발리'로 떠났다. 발리에서의 직접적인 경험을 앞으로 아웃도어아일랜드의 워케이션 시스템에 적용하고 사업을 확장해 나가기 위함이다. 이미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지만, 워케이션에 진심인 이들은 끊임없이 고민하고 보완하여 최고의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

"5분 거리에 산과 바다가 있으니까…그래, 여기는 아웃도어다!"로 시작된 아웃도어 아일랜드가 이제는 "그래, 이제는 아웃도어 워케이션이야!"라고 자신 있게 말하고 있다.

Biz Impact #3

지치지만 쉴 수 없는
당신을 위한 워케이션,
'일로오션'



강릉 청년마을, '강릉살자'의 최지백 대표 이야기

수도권의 복잡한 업무 환경을 떠나 독립된 숙박공간과 업무공간에서 강원도의 바다, 산, 호수와 같은 지역의 자연을 오감으로 경험하고, 원하는 곳에서 하고 싶은 일과 생산적인 업무를 하며 성장하는 삶을 꿈꿀 수 있는 곳, 바로 더웨이브컴퍼니의 일로오션이다.

[생산적인 낮과 창의적인 밤의 경험]

더웨이브컴퍼니의 최지백 대표는 오래전부터 '행복한 삶'에 대해서 늘 고민했다. '행복한 삶'은 주관적인데 그 당시 그의 기준에 행복한 삶이란 서울에서 사는 삶이었다. 이는 주변 사람들이 다들 서울에서 사는 것, 서울에서 다니는 학교,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는 것이 행복한 삶의 기준이라고 그에게 말했기 때문이다. 다들 서울에서 살기를 원하니까 그들이 원하는 대로 된다면 행복해지지 않을까 생각했던 것이다.

고등학교 졸업 후, 울산에 있는 대학교에 지하철로 갈 수 있다고 생각했을 만큼 서울 밖 지역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지만 그는 울산을 시작으로 10개 도시 정도에 이주하고 정착하기를 반복하며 지역에 사는 삶에 대해 선입견을 버리게 되었고, 행복한 삶은 서울에서만 있지 않다는 사실을 그때 이해하게 되었다. 이와 동시에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좋은 학교와 직장, 서울에서의 삶이 행복한 삶을 가져온다는 공식에 의문을 품게 되었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원하는 곳에 살며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하게 되었다. 그는 서울과 가까우면서, 산과 바다와 같은 아름다운 자연이 있는 강릉, 이 지역에서 사업을 통해 사회가 가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며 더웨이브컴퍼니 창업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다.

일로오션은 '일'과 '여가'사이의 '균형'이라는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 일하면서 쉴 수 있는 방법을 고민으로 시작하여 강릉살자 1기 청년들과 함께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업무 환경을 바다(Ocean)에서 찾게 되었다. 바다를 찾아온 일 하는 여행자들에게 바다 바로 앞에서 일할 수 있는 근사한 경험을 준다면 일하는 것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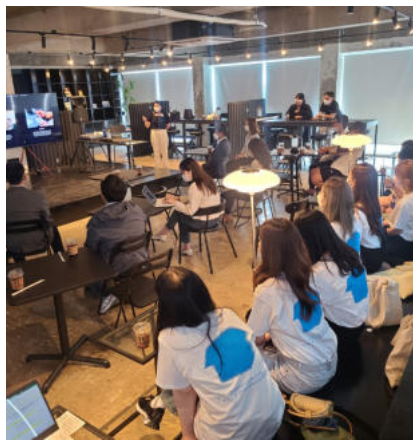


하나의 '유희' 활동이 될 것이라 믿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탄생한 강릉 일로오션은 '근로자가 일을 잘 할 수 있는 최적의 오피스 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지향한다. 하지만 이것은 서울에 잘 갖춰진 코워킹 스페이스처럼 큰 건물에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아니다. '일로오션'이라는 말 그대로 '일'하다 고개를 들어 주변을 둘러보면 '바다'(ocean)를 볼 수 있는 코워킹 스페이스의 모습이다.

최지백 대표를 포함한 더웨이브컴퍼니







청년들은 자신의 일을 사랑하고 즐겨하는 사람들로서, 실제로 바다에서 오랫동안 일도 하고 쉬기도 하면서 근로자의 관점에서 어떤 것이 필요한지 가장 잘 이해하고 있다. 이처럼 일로오션은 근로자 관점에서 워케이션 공간, 프로그램, 서비스를 만들어가고 있다. 오로지 일을 위해 온 사람을 위해 바다가 보이는 곳에서 편안하게 쉬고, 몰입해서 일하고, 일에서 잠시 환기가 필요할 때는 강릉의 다양한 로컬 콘텐츠를 경험할 수 있도록 말이다.

지금까지 '일로오션'에 방문한 사람들의 직군은 기획자, 디자이너, 개발자, 마케터들이 있었고, 자신들의 일에 있어서 새로운 자극이나 영감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대부분 워케이션에 대해 궁금해하고 경험하고자 하는 니즈가 있었다고 한다. "안온한 일상 속 뇌의 늘 쓰던 부분만 좁게 쓰고 있었다면, 쏟아지고 밀려들며 몰아치는 감각 자극이 잠자고 있던 나머지 부분을 깜짝 놀라게 흔들어 깨운 것 같다"라는 후기를 남긴 고객도 있었고 4박 5일 내내 온전히 일에 집중하여 어느 때보다 생산적인 자신을 발견했으며 의도치 않은 한 번의 경험으로 강릉에서 찍었던 바다 사진을 포스터로 판매하는 새로운 일을 만들어 가는 고객도 있었다.

일로오션은 이러하다. '지역의 자연과 문화로부터 몰입감과 영감을 받고 워케이션에서만 누릴 수 있는 여유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즐기며, 크리에이티브하게 생산적으로 일하는 문화'라는 정체성으로 수준 높은 퀄리티의 워케이션을 제공하며 강릉 워케이션을 찾는 사람들에게 '생산적인 낮과 창의적인 밤'에 대한 경험을 선사한다.



[워케이션 하러 '일로오션'~]

최지백 대표는 멀지 않은 미래에 시간과 공간의 경계가 사라지게 되며 일하는 문화가 바뀌게 되고 이에 따라 행복한 삶의 기준이 다양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이 공존하는 도시를 만드는 조직', 더웨이브 컴퍼니의 비전처럼 일로오션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도시(꼭 강릉이 아니더라도)를 찾기를 희망한다고 전하며, 누구나 거주 이전의 자유를 가지고 어디서든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원하는 곳에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금 대부분 얼리어답터인 디지털 노마드, 프리랜서들이 워케이션을 위해 강릉의 '일로오션'을 찾는다고 한다. 하지만 최지백 대표는 최근 서울 소재한 IT 스타트업 중심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창의성을 확장시키는 워케이션에 대해 기업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워케이션이 새로운 근무 문화로 받아들여지는 것을 발견했다. 최지백 대표는 이러한 관심은 새로운 근무 문화의 시작일뿐이라고 말하며 워케이션은 스타트업을 시작으로 중소기업, 대기업까지 보편적인 근무 문화로 받아들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변화에서 누구나 워케이션을 하면 '일로오션' 을 떠올릴 수 있도록 하나의 보통명사가 되는 것, 그리고 대내외 대표적인 워케이션 브랜드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나아가고 있다. 강릉에서 시작한 브랜드이기에 일로오션은 강릉의 바다에서 출발했지만 국내에서 워케이션 에 적합한 자연 공간들(산, 바다, 숲, 습지, 호수 등)을 하나씩 하나씩 찾아내어 고객들에게 일로오션으로 제공하고 싶다고 말한다. 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선사하는 바다 앞 워케이션 '일로오션'을 통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작' 모드의 자신을 발견해 보길 바란다.



Biz Impact #4

워케이션의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다, 술케이션

서천 청년마을, '삶기술학교'의 김정혁 대표 이야기

어릴 때부터 서울로, 대도시로 가야 한다는 무언의 압박 속에서 지내왔다. 대학부터 수도권으로 가지 못하면 실패한 듯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삶. 태어난 시점부터 무수한 경쟁을 하며 살아왔는데 지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

김정혁 대표는 이러한 생각을 품고 사회적으로 도움이 되는 문화기획 사업을 고민하다 2012년 공연·축제를 여는 기획사를 창업했다. '모시할매'란 캐릭터를 창조하여 한산모시문화제를 연 20만 명 이상이 찾는 우수축제로 만들었다. 경쟁이 치열한 도시의 청년들이 축제를 통해 모시, 소곡주, 공작 부채, 대장간 기술 등 명인들이 살아 숨 쉬는 서천의 매력에 빠지면서 기회를 발견하였고, 이 청년들이 청년이란 존재 자체로 소중하게 인정받는 곳에서 삶기술학교를 열게 되었다.

최근에는 사람들이 인터넷과 노트북 하나만 있어도 제약 없이 여기저기 이동하며 업무를 볼 수 있는 디지털노마드에 관심을 돌리기 시작했다. 서해 대표 선셋 맛집, 전통주 메이커 도시 한산은 그에 맞춰 디지털 노마드들을 위한 워케이션에 한산의 1500년 된 전통, 한산소곡주를 더해, 새로운 워케이션의 문화를 창조했다. 이렇게 탄생한 술케이션은 “일에 취하고, 술에 취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일오백'의 탄생]

한산 소곡주는 1500년 전통을 이어온 한국에서 가장 역사가 깊은 술이다. 69개의 허가 양조장에서 유통하며 주로 오프라인 판매를 해오던 한산소곡주는 코로나19 발생으로 관광객이 줄면서 매출이 30% 이상 떨어졌다. 이에 삶기술학교 청년들이 소곡주 조합장님의 도움 요청을 받아 온라인 판매용 홈페이지를 제작하여, 도시 청년들을 타깃으로 하는 온라인 마케팅을 통해 단기간에 700병을 판매해 한산면의 양조 농가들을 도울 수 있었다. 이 일을 계기로 디지털 노마드의 삶기술학교 청년들은 한산면의 대표 특산품이자 지역 경제의 대들보 역할의 전통주 병을 젊은 세대를 타깃으로 현대의 감각에 맞게 리브랜딩 하여 소곡주 산업화에도 뛰어들게 되었다.

그렇게 뛰어들게 된 이유에는 술을 팔아 수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단순한 사업이 아닌 열악한 환경의 양조장에게 판매된 수익을 배분하며 한산소곡주의 다양성을 보존하는 동시에 쇠퇴하고 있는 한산면의 전통주 사업을 발전시키는 역할을 맡고 싶은 청년들의 포부가 있다. 삶기술학교 김정혁 대표는 “도시에서 청년들이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러 왔으니까 이제는 좋은 기업도 만들어보고, 이왕이면 워케이션과 결합시켜보자는 생각을 했다”라고 말한다. 이 말을 통해 주민들의 전통주 제조기술과 디지털 노마드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서로 협력해 상생을 이루고자 하는 청년들의 마음을 엿볼 수 있었다.

삶기술학교 청년들은 일오백의 온라인 리테일 비즈니스를 위한 첫 와디즈 펀딩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고, 2차 앵콜펀딩도 하게 되었다. 이들은 더 많은 사람들이 일오백을 통해 일상이 무르익길 바란다며 “오늘도 혁신을 실험하는 중”이라고 말한다.





[술케이션]

삶기술학교의 청년들은 서천을 '산과 들, 바다가 한데 모여 있고, 천혜의 자연을 배경 삼아 더불어 살아가는 때 묻지 않은 청정지역 생태도시'라고 소개하며 금강을 낀 너른 갈대밭 장관도 빼놓을 수 없다고 얘기한다. 이처럼 아름다운 자연을 가지고 있으면서 5G 초고속 인터넷망이 설비되어 있어 한산면은 어디서든 노트북 하나만 있다면 워케이션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다 갖추고 있다. 더불어 1,500년 역사의 한산 소곡주와 한산 모시 전통을 이어왔기에 작지만 오롯한 시골 마을에 '워크'와 '술'이 더해져 하나뿐인 술케이션이 탄생했다. 답답한 도심에서 벗어나 이곳 청정마을에서는 술과 함께하는 워케이션 라이프스타일을 누릴 수 있다고 이들은 자부한다.

물론 처음부터 다 갖추어져 있진 않았다고 한다. 삶기술학교의 청년들은 필요한 인프라들을 조성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직접 진행해왔다. 삶기술학교의 없던 것을 직접 만드는 모험을 즐기는 디지털 노마드들이 이곳을 다녀가며 노마드 센터를 완공하였고, 보다 최적화된 워케이션을 위해 마을형 코워킹 스페이스 서비스를 준비했다. 노마드 센터는 총 4개 실의 IT기업과 스타트업이 입주할 수 있는 사무실 공간이 있고 최신식 IT 기기를 활용할 수 있다. 더불어 1개의 공유 교육장 공간도 있어, 커뮤니티 활동과 워케이션을 하기에 최적화되어 있다. 또한, 리모트 워크와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즐길 수 있도록 삶기술학교 커뮤니티는 이색적인 음식점, 카페, 문화 프로그램 등을 멤버십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다.

삶기술학교는 현재 디지털 노마드들이 일하고, 로컬 문화콘텐츠를 소비하며 함께 지내볼 수 있는 '노마드 타운'을 만들어 가고 있다. 한산 워케이션에 마음이 있는 이들에겐, 더 많은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커뮤니티로의 성장을 꿈꾼다. 김정혁 대표는 "그동안의 프로그램이 '여기 와서 살아' 하는 경향이 강했다면, 우리는 그러지 않는다. '네 삶을 위해 필요하면 도시와 로컬을 오가며 삶의 질을 높여나가'라고 말한다"라며 디지털 노마드가 힐링하는 삶으로 확장되어 노트북 하나로 어디서든 일할 수 있는 워케이션 시대가 열렸다고 말한다.

그리고 전통주 마을에서만 가능한 워케이션, '술케이션' 서비스를 통해 디지털 노마드들의 성지를 꿈꾸고 있다고 말했다. 서천에서 꿈을 꾸고 있는 이들에게는, 일상이 여행이 되는 워케이션의 삶은 그리 허황된 꿈이 아니다. 건지산, 황금 들녘, 금강 갈대밭 풍경을 만끽하며 자연 ASMR 서라운드 사운드의 근무 환경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마을의 시그니처 술, 한산소곡주와 함께 칵테일을 즐기고 마음만 먹으면 15분 거리의 가까운 바다와 산과 들로 팀원들과 훌쩍 드라이브를 떠나 뇌를 리프레시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인터넷 용어로만 보던 워케이션이라는 단어가 몸소 실감 나는 경험은 일상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지금도 서천 한산면에서 삶기술학교는 혁신적인 실험에 동참할 수 있는 팀원을 초청하고 있다. "일상이 여행이 되는 삶을 우리와 함께할 당신을 늘 기다린다."라며 말이다.



Biz Impact #5

농업의 영역을 넓히는
농업 트렌드 메이커

괴산 청년마을, '뭐하농스'의 이지현 대표 이야기

[농부가 말하는 행복]

도시에서의 삶은 늘 바쁘고 경쟁과 긴장으로 가득하다. 야근에 주말 출근에, 회사원으로 사는 삶에 비전은 없었다. 해가 뜨면 일하고, 해가 지면 일을 안 하는 직업이 농부라는 단순한 생각에 괴산행을 선택했지만 이곳에서 만난 삶은 상상 이상으로 가치로웠다고 이지현 대표는 말했다. 앉아서 네잎클로버를 찾을 때나, 노루 한 마리가 지나갈 때나, 작물이 잘 크고 있는 것을 볼 때나, 일하다 지나가는 지인이 시원한 맥주 한 캔을 건네줄 때나, 선선한 바람이 불 때. 괴산에서는 소소한 순간을 놓치지 않을 여유가 있었고, 그 순간이 모여 커다란 행복이 되었다.

자연에서 비롯되는 평안과 여유는 마음의 무게를 덜고 행복할 자유를 선물한다. 근본적인 치유와 회복이 있는 것이다. 농사는 기본적으로 힘을 쓰고 땀을 흘리는 일이기에 근육통을 달고 살기 일쑤였지만 이상하리만큼 즐거웠고 어느새 농사는 그의 삶 자체가 되어 있었다고 이지현 대표는 말했다. '워라밸'은 일과 삶의 명확한 분리가 아니다. 일이 삶이고 삶이 일이 될 때 거부감이 아니라 조화로움을 느끼는 것이다. 뭐하농스의 농부들은 진정한 일과 삶의 밸런스를 보여주는 산증인이며, 더 많은 청년과 그 즐거움을 나누고 여정을 함께 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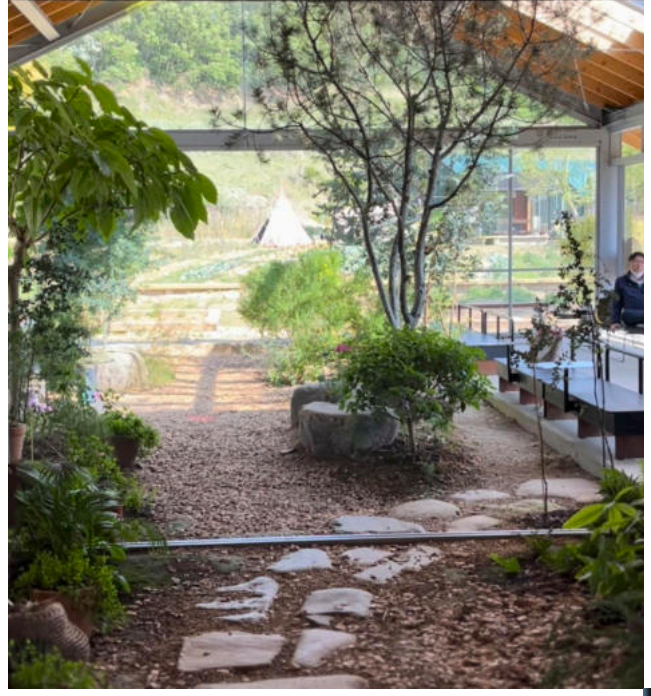
['농사'의 재정의]

농업회사법인 ㈜뭐하농스는 다양한 업종에 종사하던 농부들로 구성되어 있다. 국책연구원에서부터 조경 디자이너, 바리스타, 파티시에, 국제회의 기획가, 조리사까지. 농부가 된 데에는 각자의 이야기가 다르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도시의 생활처럼 일을 위한 삶이 아닌, 바로 옆에 있는 사람, 가족, 친구와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는 하루하루, 내가 주도하는 나를 위한 삶, 그리고 이 즐거움이 지속될 수 있는 삶을 살고자 한 것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들은 '농부'라는 직업이 단순히 가락시장에 농산물을 납품하는 사람이 아니며, 사람과 자연을 살리는 직업이라는 것을 바른 방식으로 알려 농부의 직업적 가치를 재조명하고자 했다.

여정의 시작은 농부의 삶과 철학, 그리고 그들이 가꾸는 가치를 삶을 통해 보여주는 것이었다. 어떠한 가치관을 가진 농부가 어떤 방식으로 농사를 짓느냐에 따라 흙, 동식물, 곤충이 살기도, 죽기도 한다. 뭐하농스는 농약이나 화학비료를 쓰지 않는다. 요즘 같은 세상에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싶겠지만 동반 식물을 활용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동반 식물은 함께 심으면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식물이다. 식물에도 궁합이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파와 오이는 뿌리를 겹쳐 심을 때 잘 자란다.

파뿌리의 천연 항생 물질은 오이의 덩굴쪼김병을 막아 주기 때문이다. 식물들은 거센 햇빛의 가림막이 되기도, 넘치는 빗물을 대신 머금어주기도 하며 서로가 서로의 비빌 언덕이





된다. 총 2천 평의 땅에서 80여 종의 작물들이 이와 같은 자연순환농법으로 가꾸어진다.

더불어 뭐하농스는 농부, 농업의 가치를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농업인 교육을 통해 전달하고 농촌의 삶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대안적 삶을 제안하는 사명을 품고 있다. 또한 이미 정착한 청년들에게도 기반을 마련하고 농촌의 삶을 이어 나갈 수 있는 역할과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실제로 뭐하농스를 거친 대부분의 청년들이 정착한 이유 중 하나는 뭐하농스의 재무제표까지 짜서 공유해 주는 등 괴산에서 먹고 살 수 있는 실질적 방안들을 마련해 주었기 때문이었다. 뭐하농스는 이토록 괜찮은 농부를 키우는 데 열심이다.

그동안 농촌공간디자인, 농촌 무브먼트(교육, 포럼) 진행 및 동참, 팜스테이 프로그램 진행, 비즈니스 (카페, 교육) 등의 활동들을 통해 농촌의 삶과 문화를 새롭고 즐겁게 그려왔다. 올해는 특별히 작물 경관을 통해 공간디자인 영역의 전문성을 높이고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작물 경관은 단순 디자인 작업이 아닌 전문적인 농부가 개입해 현실에서 가능한 경작 디자인을 만들어내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농부 컨설팅 및 멘토링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비즈니스로 만들어 나가려는 것이다.

또한 올해는 특히 파지 농산물을 활용한 비즈니스를 구상 중이다. 여기선 식품 외에 것으로 농산물의 가치를 전달하는 것이 핵심이다. 가뭄으로 인해 감자 파지가 많아 이를 위한 해결책이 필요한데 감자 아이스크림, 전분이나 가공식품으로 만드는 것 외에 감자 껍질로 식품이 아닌 상품, 천연 염색도 그 대안이 된다. 천연 염색을 활용해 옷을 요즘 트렌드를 반영한 디자인으로 물들여 농산물의 가치를 먹는 것을 넘어 '입을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실행하기를 계획하며, 유명 의류 브랜드와 콜라보 하는 날을 꿈꾼다.

그리고 이지현 대표는 농사를 짓는 실질적인 일뿐만 아니라, 농업의 가치와, 농부로서 자신들의 철학을 기반으로 하는 모든 활동들을 자신들은 '농사를 짓는 것이다'라고 당당하게 말한다.

[간지나는 직업, 농부]

"엄마 아빠, 저 농부가 되고 싶어요." 이지현 대표는 다음 세대의 직업 선택지에 농부가 있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누가 되었든 농부를 경험하는 순간 선택하길 잘했음을 고백하게 하겠다는 포부도 응원하게 된다. 괴산에서 걸음을 같이 하는 이들이 본보기 청년이 될 때 농부는 워너비 직업이 될 수 있다. 괴산의 뭐하농스와 같은 곳이 있기에 농촌은 더 이상 고생으로 등이 굽은 어르신과 까맣게 타버린 피부로 단정되지는 않을 것이다. 자연의 순리를 따르는 농사가 영리한 비즈니스를 만날 때 배가 될 선한 영향력을 기대한다.



Biz Impact #6

예술의 사회적 기능을 광산문화로 풀어내다



태백 청년마을, '광광스토리지'의 양세은 청년 이야기

"'광산'하면 떠오르는 것들은 너무 뻔하잖아요."

인생의 우여곡절을 경험하고 태백에 이주한 양세은 청년은 청년마을에서 청년의 시선을 통해 새롭게 탄생하는 빛나는 '결과물'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청년들 또한 자신을 발견하며 더 반짝이게 되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쩌면 그 안에서 자신을 보았는지도 모릅니다.

따뜻하게 맞이해주는 진정한 공동체 속에서 더 많은 청년들이 태백의 숨어 있는 빛과 자신 안에 내재되어 있는 빛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Q. 광광스토리지에 어떻게 오게 되셨나요?

제가 나고 자란 서울에서는 제가 더 이상 청년의 나이가 아니어서 많은 기회들이 제한되는 경험을 했어요. 지원 사업이 있더라도 청년들에게 더 기회가 많은 것 같고 저는 누릴 수 없는 중간 세대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몇 년 외국 생활을 하다 돌아왔는데 다시 적응할 때 커뮤니티가 필요하다고 느끼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태백을 알게 되었을 때 큰 매력으로 다가왔고 시기 상으로 이런 공동체에 대해 더 관심을 갖게 되었던 것 같아요.

저는 원래 패션 머천다이저 (패션 MD, 패션의 상품 기획에서 판매까지 담당하는 전문인)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암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으며 인생의 전환점을 겪었어요. 10년 뒤 2019년도에 만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이번 생 뭐지?' 황당하기까지 했어요.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젊은 나이에 두 번이나 병에 걸린다는 것에 대해 알 수 없는 사명감이 느껴졌어요.

원래 사회 변화에 관심이 많았는데 불확실하고 한정된 생의 시간을 더 가치 있게 쓰고 싶다는 생각에 커뮤니티를 찾다가 암 인식 개선 및 암 환자들의 사회복귀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활동하면서 커뮤니티가 조금은 강하고 폐쇄적이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두 번의 아픔을 겪고 단순 질병 암이 아닌 사회적 약자와 다양한 종류의 아픔을 가진 사람에 대해 생각하게 되면서 그 마음은 자연스럽게 사람들, 모든 생명체를 품고 아파하는 지구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에서 나와 마침 당시에 김신애 대표가 '남쪽모서리'라는 커뮤니티를 구성해 청년마을을 준비한다고 들어서 태백에 오게 되었어요. 여러 가지 일들을 겪고 나니 항상 살던 도시가 아니어도 상관없다고 느껴지더라고요. 이곳에서 무언가를 할 수만 있다면. 무엇보다 저는 예술을 통해 사람들의 삶의 질이 긍정적이게 변화하는 것에 대해 항상 고민을 했어요. 이 일을 태백에서 더 임팩트 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Q.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무엇인가요?

저에게 중요한 가치는 예술 문화로 지역사회 공동체에 긍정적인 변화를 주는 것이에요. 그로 인해서 사람들의 삶의 질이 더 여유로워지고 행복해질 수 있는 것.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구라는 환경을 덜 해하는 모습으로 다음 세대한테 물려줘야 하지 않을까 책임감을 느낍니다.

영국에서 '큐레이팅 컨템퍼러리 디자인' 석사과정을 밟으면서 예술에 대해 많이 고민했던 부분이 있어요. 예술은 아름다움에 대해서 논하고 철학을 공유하고 창작자가 어떤 것을 얘기하고자 하는지 알아가는 과정이 기본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넘어 예술의 사회적 기능이 무엇보다도 강력하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직접 경험 했기 때문이에요.

2년 동안 휴가 한 번 안 낼 정도로 삶의 90%가 일이었던 시기, 그리고 암 판정을 받고 이 악물고 치료했을 때, 완치 판정을 받아 회사로 복귀했지만 극심한 좌절감을 마주하게 되어 우울증에 빠졌어요. 저는 언제 죽을지 너무



불안했고 더 이상 삶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매일 오가닉 음식만 먹고 백화점에서 살다시피 쇼핑을 하고, 그럼에도 무언가 채워지지 않았어요. 그때 어떤 계기로 회사를 그만두고 영국으로 떠났어요. 한 갤러리에서 '오필리어(Ophelia)' 그림을 보게 되었는데 물에 몸을 던져 목숨을 끊는 여자의 평온한 모습이 그려져 있었고, 제가 힘들어서 나쁜 생각까지 했던 모습이 떠오르며 그 여자의 눈빛을 다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런 경험은 처음이었어요. 마음이 편안해지고 새로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예술기획 쪽으로 일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저도 그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신과 의사를 만나며,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힘들다고 털어놓아보고, 철학관도 찾아갔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었던 게 그림 하나로 절망의 시간에서 벗어나게 된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이런 경험을 통해 삶이 긍정적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생겨, 앞으로 '이 일을 하고 살아야겠다'는 인생의 목적을 찾게 되었죠.

그래서 사적 영역의 미술보다는 공유하는 미술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지역 작가들과의 협업이나 커뮤니티 기반의 아트 프로젝트, 공공미술 프로젝트들 중심으로 실행해왔어요. 현재는 이곳 장성에서 "2022 소소한 동네연구"의 지원을 받아 공공미술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지역에서 나눔 받은 의류를 활용해 주민들과 함께 워크숍을 하고 있고요. 결과물은 동네의 구조물에 설치미술 형태로 나오게 될 예정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환경도 영국에 있을 때 지역의 환경단체를 우연히 알게 되어 자원봉사하면서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우리가 지구를 잠시 빌려 쓰고 있는데 우리가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함부로 쓰고 있어요. 다른 생명들에 해를 끼치고 그 해가 코로나 같은 것으로 다시 돌아오는 게 제가 겪은 암 또는 다른 질병과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환경보호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기 시작했어요.

Q. 환경과 예술이 광산문화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나요?

얼마 전 현직 광부님과 대화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 시간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인식에 대해 듣게 되었어요.

태백 황지천에서 아무도 물놀이를 안 해요. 그 이유는 옛날 광산에서 작업에 이용한 물을 그대로 흘려보내 황지천 물이 검은색이었고 지역 사람들에게 아직 그 인식이 남아있더라고요. 지금은 철저하게 정화처리 후 흘려보내서 물이 깨끗해요. 공식적으로 수질 검사를 했고 2급수가 나왔는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물놀이는 태백 밖에서'라는 강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광업소에서도 환경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최근에 환경 모임을 만들었어요. 태백이 마지막 남은 훼손이 적은 지역 중 하나가 아닐까 해 지켜야 할 곳이라는 생각이 강렬했어요.

그리고 잘 알려지지 않은 광산문화를 기록하고 알리는 일은 예술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광산의 이미지 말고도 광산마을의 사람들의 이야기, 광산마을의 자연 등 소재로 연결 지어 볼 생각이에요. 생생한 스토리텔링을 해줄 지역 작가들뿐만 아니라 태백이라는 매력적인 환경에서 영감을 얻을 수 있는 외부의 예술가들과의 작업도 가능하죠.



Q. 광광스토리지가 지역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광산프로듀스' 2기 외지 청년 중에는 가야금을 하는 팀이 있었어요. 1기 졸업식 공연 초대 공연자로 오셨는데 그 경험으로 태백이 좋아 2기 참여자로 오셨어요. 한 분은 무형문화재 가야금 병창 이수자이고 또 한 분은 버클리 음대에서 타악기 전공하신 다재다능한 아티스트들이에요. 그 두 분이 저희 태백 청년마을의 음악적인 아쉬움을 채워주고 싶다고 해서 가야금 클래스를 열었어요. 그때 제가 '태백 아라리'라는 곡을 처음으로 들었는데 광산이랑 관련 없는 사람들이 태백이라는 곳에 모여 전통적인 악기를 통해 그 문화를 느끼고 예술을 경험한다는 게 광광스토리지가 찾는 새로운 광산문화가 아닐까 싶어요.

반면에 태백 청년들 중 초를 만드는 청년, 유리 공예를 하는 청년들도 있는데 이분들도 청년마을에 참여하면서 지역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광광스토리지가 태백에 줄 수 있는 긍정 임팩트가 아닐까 생각해요.

Q 동네에 어떤 변화들이 있었나요?

태백 분들은 청년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는 거 처음 봤다고 하시며 신기해하시고 저희가 뭘 하는지에 대해 관심이 많으세요. 이처럼 청년들이 모여서 움직이고 있다는 걸 주민분들이 긍정적으로 봐주시고 또 도와주시려고 한다는 게 변화 중 하나예요. 한 분은 직접 담그신 고추장이나 된장 이것저것 나눠 주시기도 하시고 공간들도 편하게 사용하라고 해 주세요.

Q. 청년들이 이주를 생각하는 요소는 어떤 걸까요?

저도 처음에 미술관 큐레이터로 제안을 받았을 때 보수가 크거나 안정적인 직업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지만 태백의 매력을 보았기에 오게 되었어요. 특히 내가 함께 살아갈 사람들이 아닐까 싶어요. 저의 경우, 11명의 '남쪽모서리 사업단' 분들이 모두 환대해 주셔서 자연스럽게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낯선 곳이지만 어색함이 없고 편안하게 녹아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청년들도 마찬가지 일거예요. 가장 현실적이자 절대적인 요소인 주거, 일자리 등은 청년마을인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게 사실 많이 없어요. 하지만 거주할 곳을 찾기 위해 대신 발로 뛰고 같이 무언가를 해결해 주려고 하는 마음을 느껴서 청년마을 사업을 통해 이주를 하는 청년들이 생긴 것이 아닐까 싶어요. 청년들이 지역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세팅만큼이나 그들을 포용하는 '커뮤니티'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Q. 청년의 눈으로 콘텐츠를 기획했을 때에 다른 점들이 있을까요?

광산이라고 하면 클리셰 하게 떠올리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각자의 시각으로 바라보라고 했을 때는 스토리들이 담기기 시작해요. 그게 다른 점인 것 같아요. 왜 이것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고, 왜 이런 콘텐츠를 만들게 되었는지 생각했을 때 차이가 보여요.

예를 들어, 광부 도시락이요. 양은 냄비에 밥과 핑크 소시지가 들어간 도시락이 여러 광산도시에 상품으로 판매되고 있어요. 하지만 저희 중에 광부의 딸인 청년이 있었는데 지금은 돌아가신 아버지가 갱도 안에서 차가운 도시락을 드시는 게 너무 안타까웠다고 해요. 지열 때문에 너무 더워서 땀이 물처럼 쏟아지고 항상 갈증이 났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서사를 통해 따뜻한 국물과 한방차를 정성껏 준비해 차별화되고 스토리가 담긴 광부 도시락을 만들었어요.

타지에서 온 청년들도 나름대로 자신의 시각으로 바라보며 여러 결과물들을 만들었어요. 어떤 프로젝트 모임에서 주민 어르신하고 같이 얘기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분이 70평생을 여기서 살아서 모든 게 똑같고 뻔하고 갇혀 있는 것 같았는데, 청년들이 이렇게 다른 시선으로 보는 것만 해도 너무 좋다고 하셨어요.

Q 광광스토리지가 꿈꾸는 광산문화의 모습은 어떤가요?

지역의 내에서도 '광산'의 '광'자도 꺼내기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숨기고 싶은 역사, '사고', '막장 인생' 등 긍정적이지 않은 이미지 때문이에요. 하지만 어떻게 바라보고 만들어 내는지에 따라 재탄생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요.

Q. 광광스토리지가 내리는 광산문화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새로운 빛을 캐어낸다'라는 것이 저희 광광스토리지의 캐치프레이즈에요. 태백의 광산은 전에 많은 것들을 캐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캐낼 게 없으니까 문을 닫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 여전히 캐낼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청년의 시각으로 봤을 때 여전히 반짝반짝 빛나는 것들이 묻혀 있는 거죠. 광산뿐 아니라 청년들의 잠재력을 캐내고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를 했을 때 더욱 빛이 날 것 같아요.

Q. 청년마을은 세은님에게 어떤 존재인가요?

'원동력, 매개체'

제가 만약 청년마을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태백을 이렇게 빨리 이해하고 애정이 생길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해요.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말의 뜻과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 안에서 스스로 어떤 사람인지를 발견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어요.

청년마을 활동을 통해서 지금의 제가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당당하게 청년이라고 말할 수 있어서 좋아요.



Q.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청년에 대한 그런 고정관념들이 있어요. 건강하고 에너제틱 하고 진취적이고 이런 것들. 하지만 청년 중에도 몸이나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혹은 특별한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고, 타인이 손을 내밀어 주길 바라며 기다리고 있는 청년들도 있어요. 그들도 모두 청년이고, 그 존재만으로도 괜찮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생각해 보면 저도 아픔이 있기에 많은 민폐를 끼쳐요. 하지만 암 2관왕인 저도 사회 구성원으로 나름대로 제 역할을 해내고 있잖아요. 사람들마다 할 수 있는 능력치나 형태가 다르니 다양성들이 존중되는 그런 청년마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청년마을에 변화에 능동적이고 열려있는 다양한 청년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각각의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독특한 매력이 있는 태백도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Biz Impact #7

영덕에서 트레킹하다 창업에 눈을 뜨다

영덕 청년마을, '뚜벅이마을'의 김단홍 청년 이야기

갑작스러운 귀국, 어렵게 결정한 퇴사 그리고 즉흥적으로 떠난 영덕 7주살이를 경험하고, 더욱 단단해져 자신만의 속도로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김단홍님을 만났습니다. 우당탕탕이었던 자신의 과거를 소개하며 뚜벅이마을 경험으로 느낀 가치를 통해 새로운 즐거움을 찾아 변화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는 똑똑하게 자유로운 자신의 모습을 기대한다고 말합니다.

"저에게 영덕은 도전할 수 있는 영역과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는 지역이었어요"

미래에 대한 기대로 두 눈이 반짝이며, 로컬을 담는 사람이 되어 한국 곳곳을 해외로 알리고자 하는 꿈을 가진 김단홍님을 소개합니다.

Q. 어떤 일을 하다가 퇴사를 하게 되셨나요?

호주에서 워킹홀리데이를 하던 중 설날인 것을 확인하고 충동적으로 귀국을 하게 되었어요. 1년만 있을 생각으로 한국에 오게 되었는데 코로나로 인해 한국에 정착하게 되었어요. 당시 코로나가 심하고 직장이 없는 상태가 지속되다 보니 물류센터에 지원하여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일을 재미있게 하니 관리자로 일할 수 있는 기회도 얻었어요.

보통 사람들은 회사를 다니면서 승진을 꿈꾸지만 저는 일 자체에 대한 재미에 더 의미를 두었어요. 일이 좋아서 재미있게 하다 보니 직급을 얻게 되었는데, 그것에 의해 회사에 대한 기대치가 따라오니 업무에 대한 흥미가 떨어지고 부서의 기대가 숨 막히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일에 대한 미련이 남지 않았을 때 퇴사를 하게 되었어요. 누군가에게는 갈망하는 직업, 잘 맞는 직업일 수 있지만 저에게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Q. 뚜벅이마을은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호주로 워킹 홀리데이를 갔을 때, 러닝과 트레킹이 일상인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저도 호주에서 자연스레 러닝을 많이 했어요. 한국에 돌아와 그 루틴이 이어졌어요. 마라톤을 통해 동물과 환경을 살리는 다양한 취지들을 접하게 되어 더욱 열심히 참여하게 되었어요. 최근에는 가수 션과 함께하는 마라톤 '8.15런'을 했는데, 독립유공자 후손을 위해 모금하는 취지여서 돈을 내고서라도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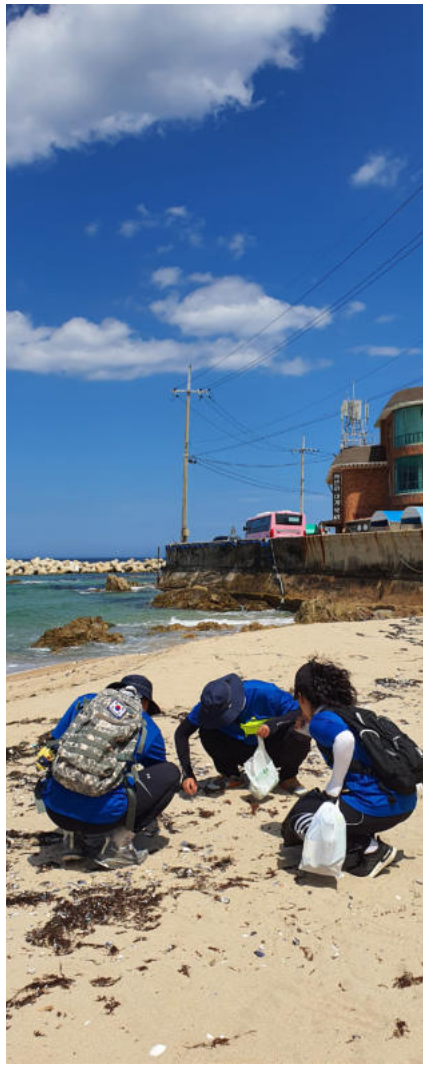
퇴사 후 이런 상황에서 SNS에 백수일지를 작성해 볼까 하다가 우연히 뚜벅이마을 광고를 보게 되었어요. 뚜벅이마을 광고를 봤을 때, 한국에 트레킹 코스가 있다는 것 자체가 크게 와닿았어요. 그리고 '걸으면서 함께 해보자!'라는 취지가 청년마을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봤을 때도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왔어요. '우리나라에 이런 걷는 코스들이 있다고?'라는 생각이 들자마자 바로 가기로 결정했어요. '누군가가 길을 안내해 줄 때 가지 언제가?'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 영덕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뚜벅이마을을 경험하고 나니 지금은 '똑똑하게' 자유롭고 싶다는 생각을 해요. 원래는 우당탕탕이고 즉흥적이었어요. 지금은 플랜을 세우고, 이런저런 방향성에 대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직은 즉흥적인 부분들이 남아있지만, 인생을 계획하고 장애물들을 피해가는 방법으로 내 모습을 바꾸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고 변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Q. 뚜벅이마을은 걷는 것 자체에 대한 철학적인 접근을 합니다. 삶에 지쳐있는 사람들이 걷는 것에서 얻는 가치가 있는데, 단홍님 얘기를 듣다 보니 그 가치가 와 닿았을 것 같아요.

'메이드인피플'의 장명석 대표님과 트레킹을 하게 되었는데, 첫날 한국에 산티아고 순례길을 만들고 싶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 말이 뇌리에 박히게 되었어요. "한국의 산티아고에서 함께 걸어볼래?"라고 다가오더라고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영덕에 있다면 저도 재밌게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퇴사를 하고 좋아지긴 했지만 1년 동안의 삶은 암흑 그 자체였는데, 트레킹을 통해 한국에서 다시 즐거움을 찾을 수 있게 되었어요. 전에는 국내여행을 즐기지 않았는데 영덕에 와서 트레킹 코스를 알게 되어 우리나라도 좋은 곳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더불어 다른 지역의 청년마을들도 함께 알게 되며 한국이 다채롭게 보이더라고요.



제가 참여했던 프로그램은 영덕에서의 7주살이었는데 처음에는 트레킹 위주로 블루로드를 경험했어요. 마을 주민들과도 함께 플로깅을 하고 창업한 청년들이 운영하는 수제 전통주 클래스를 경험하며 영덕을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딱 4주차에 변화를 느꼈던 것 같아요. 강사님들이 오셔서 창업 관련 프로그램을 해주시는데 신세계였어요. 살면서 창업에 대해 어렵게만 생각했는데 상세하게 알려주셔서 좋았고, 식비 외에 숙소와 프로그램이 전부 제공되어 그 시간 동안 부담도 크게 없었던 것 같아요. 프로그램을 통해 창업계획서도 써보고 지원금으로 아이템을 선정해 보는 과정들이 생소하면서도 즐겁더라고요. 창업에 대한 벽이 있었는데 문이 열린 느낌이었고, 저처럼 아무 생각이 없던 사람도 어렵지 않게 발을 들여놓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신 것 같아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컨설팅 받는 시간에 '재능도 부족하고 창업에 대한 생각도 없었던 나도 시작할 수 있는지' 여쭤보러 갔었는데 그 틀을 깨시며 어려운 게 아니고 하다 보면 전문가가 될 수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 과정들을 거치며 저의 삶을 더 정립할 수 있었고 변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기 시작한 것 같아요. 즉흥적이니 도전할 수 있는 것들이 있겠지만, 제 감성적인 사고에 이성을 들여보며 '나도 계획을 하며 즉흥적으로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목표라는 게 크게 없었는데 지금은 차곡차곡 뭔가를 해 나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Q 어떤 창업 아이템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평소에 영덕에서 트레킹을 하며 주변에 보이는 쓰레기들이 눈에 밟혀 자연스레 줍게 되었어요. 같이 참여한 친구가 이게 '플로깅'이라고 알려주더라고요. 그렇게 처음으로 '플로깅'이란 단어를 접하고 그 후, 영덕 주민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에서 실제 플로깅을 하게 되었어요. 또 노인 복지센터에 가서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작년 어버이날에 저희 할머님께 카네이션 하바리움을 선물 드렸던 것이 생각났어요. 자연스럽게 자연을 아름답게 하는 '플로깅', '하바리움' 그리고 '꽃'을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영덕에는 고연령층 어르신들이 많아서, 어르신들에게 제가 트레킹과 플로깅을 하며 본 영덕의 아름다운 자연의 경관을 하바리움을 통해 보여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생각해낸 사업 방향성이 '영덕의 아름다움을 하바리움에 담는 것!'이었어요.

실제 제작하기 전에 키트를 사서 만들어 복지센터에 가서 보여드렸는데 보시고 어르신들이 좋아해 주셨어요. 볼펜 하나를 가져가신 할아버님께서 '이 볼펜 이번 주에 손녀딸 오는데 보여줄거에요, 고마워요'라고 몇 번이고 말씀해 주셔서 더욱 확신을 얻게 되었죠.

그 후 '제1회 뚜벅이 장터'에서 판매를 했는데 장보러 오신 분들이나 가게 사장님들이 관심을 가지면서 지인들한테 사가라고 하시고 직접 선물용으로도 구매하시더라고요. 덕분에 100개가 넘는 하바리움을 판매할 수 있었어요. 또 차량에 놓을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는 요청과 내년에도 와 달라는 얘기를 해주셔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내년에 대한 기대가 생긴 시간이었어요. 이런 얘기들을 들으니 가능성을 더 보게 되었고 '내가 더 다양한 것을 지역에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처음엔 하바리움을 잘 모르시니 '이게 될까? 사람들이 관심이 없을 거야' 생각했는데 예상 밖으로 지역 주민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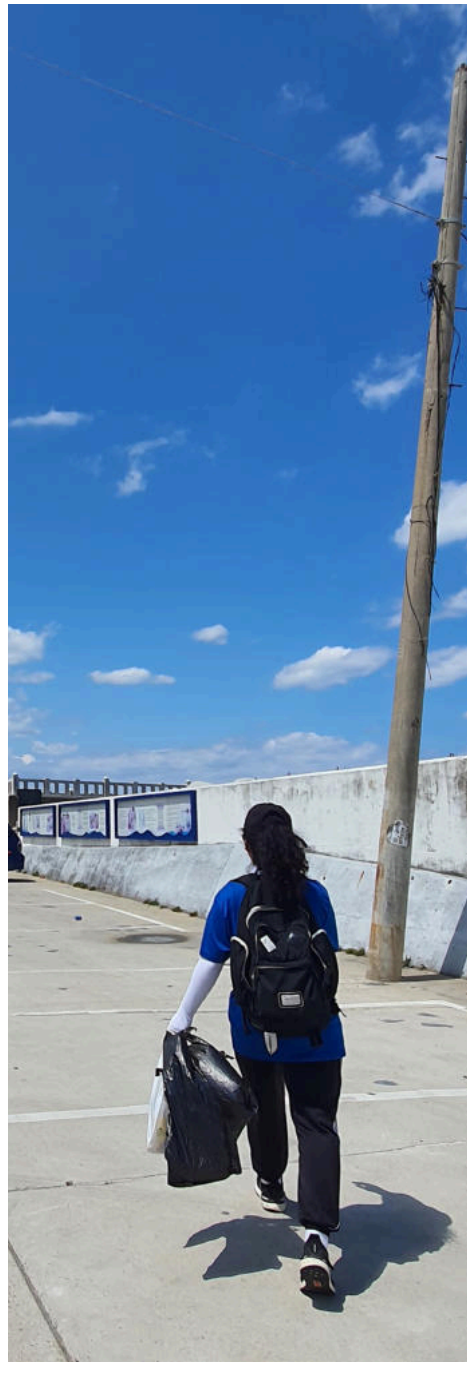


Q. 프로젝트를 구체화하며 정착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하바리움'은 이제 막 시작한 거라 전문적이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이전에 저였다면 무조건 정착부터 했을 텐데 이제는 영덕에 대해 다양하게 알아보고 영덕의 아름다움을 담을 수 있는 방법을 중심으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단기성이 아닌 지속 가능한지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영덕 7주살이의 5주차쯤에 영덕군청 사이트에 프리마켓 모집을 보고 은어 축제에 하바리움 판매와 체험 진행으로 참여하게 되었어요. 이전에 진행되었던 '뚜벅이장터'에서 영덕군 담당자분께서 연락처를 알아가시면서 여러 기회들이 생기고 제가 인프라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같이 하는 청년 중 샵을 운영하는 청년이 있어 아이디어를 주고받고 이야기를 하며 지속가능성을 보았어요. 먼저 실행에 옮긴 청년들을 보고 저 또한 도전정신과 실행력이 생겼어요.



Q. 영덕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청년들과의 만남에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저는 어릴 때부터 즉흥적인 성격으로 여러 동네가 궁금해서 뚜렷한 목표 없이 돌아다니며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영덕에서 만난 친구들은 눈이 반짝이더라고요. 재능에 대한 자신감과 뿌듯함이 있는 친구들도 있고 긍정적인 친구와 뚜렷한 목표와 꿈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들에 대해 얘기하는 것을 들으며 마치 먹물에 희석제가 떨어진 느낌으로 제가 물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 친구들을 보며 변하고 싶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게 되었어요.

Q 앞으로의 목표, 꿈은 무엇인가요?

저는 로컬 어디든 정착하고 싶어요. 영덕에 있게 된다면, 알려지지 않은 영덕의 구석구석을 다니며 가볼 만한 곳들을 찾고 또 어르신들을 계속 만나고 싶어요. 젊은 사람들은 재밌는 것들을 찾아가지만 어르신들은 잘 모르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제가 찾은 아름다운 것들을 함께 나누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혼자가 아닌 어르신들과 함께 하고 싶은 것이 가장 큰 꿈이자 목표라고 할 수 있어요. 결국에는 로컬을 담아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 나중에는 해외에 한국의 로컬을 알리는 사람이 되길 꿈꾸고 있습니다.

Biz Impact #8

'나'를 찾기 위해 떠난 경주에서 좋아하는 요리를 시작하다



경주 청년마을, '가자미마을'의 강윤혜 청년 이야기

나를 잃어갈 즘, 다시 나에게 집중하기로 마음먹은 청년.

단순히 요리가 취미라는 이유로 경주 가자미마을의 요리부에 과감히 지원해 3주 만에(1주차 감포 지역 강의, 2~3주차 요리 개발, 4주차 소셜 다이닝 진행) 메뉴 개발부터 소셜 다이닝까지 진행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경주의 특산물인 가자미를 활용한 요리를 개발하며 누군가에게는 한낱 생선으로 여겨질 '가자미'를 통해 예상치 못한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된 강윤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Q 감포에서 경험한 그 곳 사람들은 어떠셨나요?

처음엔 감포가 바닷가 마을이어서 보수적인 동네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보수적인 것과 별개로 따뜻하게 반겨주시더라고요. 한 가지 일화가 있는데 저희가 가자미마을이 끝나고 한 달 만에 감포를 다시 방문을 했어요. 그때 자주 갔던 식당의 사장님을 만나 뵈었는데 저희 목소리를 듣고 가자미마을 청년들이라고 바로 알아보시더라고요. 저희는 짧은 기간 동안 그곳에 있었는데 사장님에게는 기억에 남는 청년들이었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저희를 기억해 주시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안에서 감포의 따뜻함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Q 어떻게 경주 가자미마을에 오게 되셨고, 요리부에 지원을 하게 되셨나요?

일을 하며 스트레스가 쌓이고 제가 했던 일이 하는 일에 비해 돌아오는 성취감이 작다고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것을 계기로 일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고 결국 퇴사를 결정하게 되었죠. 퇴사를 한 후에 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20대 초반에는 취향, 식습관 등 호불호가 강한 사람이었는데 퇴사를 하고 보니 그런 개성이 모두 사라져버린 것 같았어요. 제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를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던 중 행정안전부 홍보기사로 청년마을에 대해 보게 되었는데 왠지 모르게 끌리더라고요.

그중 경주를 고르게 된 첫 번째 이유는, 경주에 대해 아는 것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여길 가더라도 저를 편견 없이 대해주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두 번째 이유로는 취미가 요리인데 경주 가자미마을에서 소셜 다이닝을 운영한다고 하여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셜 다이닝을 운영한다는 점이 경주로 오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였어요.

Q 요리부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메뉴 개발하는 경험은 어떠셨나요?

4명이서 2주 만에 3일 동안 진행할 코스요리를 만들어야 했으니까 힘들 수밖에 없는 스케줄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불평, 불만을 하지 않고 버텨주어서 좋은 요리를 만들 수 있었어요. 누군가 포기하였더라면 이렇게 좋게 끝마치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다들 살도 빠져가며 힘들었을 텐데 열심히 노력해 줘서 정말 고마워요.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다 함께 움직였으니 준비하면서 알게 모르게 더 돈독해졌던 것 같아요. 가자미마을이 끝난 후에는 요리부 팀원 4명을 포함한 스케줄이 가능한 타 크루원들과도 만나서 파티도 했어요. 저희가 표현은 안 했지만 서로서로를 아끼고 좋아한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Q. 메뉴 선정하는데 있어서 개발까지 그 과정이 궁금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자미'는 요리부와 코알라님에게 어떠한 존재였나요?

저희가 활동하는 곳이 가자미마을이었기 때문에 가자미는 반드시 활용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저희 모두가 이곳에서 활동을 하기 이전에는 가자미에 대해서 아는 것이 전혀 없었어서 맨 처음에는 각자 가자미로 만들 수 있는 요리를 최대한으로 생각해냈어요. 그다음에 저희가 샐러드, 스프, 메인 이렇게 세 코스로 진행되는 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어울리는 것이 무엇인가 고민을 해보았어요. 양식 음식과 가자미를 조합했을 때 어울리는지, 조리시설에서 조리가 가능한지 등을 따져보았어요. 초반에 저희가 가자미에 대해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더 다양한 음식을 시도할 수 있었어요. 틀에 박히지 않고 생각을 하니 더 많은 가능성을 보았고 더 많은 범위의 음식을 생각해낼 수 있었어요.

가자미는 진짜 저희에게 미지의 세계였기 때문에 계속 도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가자미는 저희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준 소중한 경주 감포의 특산물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게 가자미를 활용할 요리를 정하고 보니 감포를 보다 더 알릴 수 있는 재료들을 사용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같은 팀에 있던 경주 출신 친구에게 의견을 얻어 경주의 특산물로 쌀, 토마토, 체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경주의 특산물들을 활용하면 경주는 물론 감포도 잘 알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쌀을 활용한 리조또, 체리를 활용한 디저트, 토마토를 활용한 샐러드와 스프를 만들게 되었어요.

Q. 경주의 이야기를 담을 수 있는 메뉴라고 했을 때, 그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가장 큰 목표는 '경주에 감포라는 곳이 있고 여러분이 평소에 먹던 식재료를 다른 방식으로도 조리할 수 있어요'라고 알리는 것이었어요. 제가 감포에 지내면서 감포가 아는 사람만 아는 장소로 남아있는 게 아쉽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감포의 공간 공간을 최대한 음식에 담으려고 노력했어요. 감포를 가장 대표하는 특산물은 가자미이지만 다른 해산물도 맛있어서 해산물 샐러드를 준비해 감포에 다양하고 맛있는 해산물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자 했어요.



스프는 경주 토마토를 활용하여서 한국에 잘 알려지지 않은 비스크스프를 만들었어요. 메인 요리에는 소셜 다이닝이 가자미마을에서 주최한다는 것과 가자미가 감포의 특산물임을 알리고 싶어서 가자미를 집중적으로 사용했어요. 또한 음료는 복숭아청을 활용해서 만들었어요. 이 복숭아 청은 1기 활동을 하면서 열심히 지원해 주신 동네 어르신이 계시는데 그분이 주신 복숭아를 활용하여서 만들었어요. 그동안 받은 것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고 싶어서 요리에 녹여냈습니다. 디저트 같은 경우에는 체리 와인을 활용했어요. 경주 체리의 색상과 그 맛의 상큼함에서 느낄 수 있는 따뜻함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소셜 다이닝을 한 장소가 송대말 등대에 있는 빛 전시관이고 노을 지는 시간에 진행을 해 체리 디저트로 여름에 노을 지는 송대말 등대를 표현하였어요.

저희의 모든 메뉴는 경주, 감포 그리고 그곳의 사람들을 담았다고 볼 수 있어요.

Q. 메뉴 이름이 특이한데 왜 그렇게 지어졌는지 이해가 더 가네요.

메뉴 이름은 저희도 참여했지만 홍보부가 저희 취지를 담아 잘 지어주었어요. 보시면 해질녘 감포, 온통 여름, 한낮의 가자미 등 모두 감포를 표현하고 있어요. 감포의 공간, 시간 등을 모두 메뉴에 담고 싶었어요. 일정 중에 새벽 어판장을 간 적이 있는데 그때 일출부터 아예 다 뜬 것까지 보게 되었어요. 그 장면에서 영감을 얻어서 비스크스프의 이름을 '당신과 해오름'이라고 지었어요. 감포는 다른 지역에 비해 어판장도 작기 때문에 잘 알려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감포의 하루를 표현하면서 이름을 짓고 요리를 제공하자라는 의견이 나와서 감포를 담은 이름을 짓게 되었어요.

Q. 소셜 다이닝 이후에 가능성을 보셨나요? 혹은 아쉬웠던 점이나 개선할 점이 있었나요?

저희는 경주에 거주하는 청년분들, 감포 주민분들, 가자미마을에 도움을 주신 분들을 모시고 소셜 다이닝을 진행했어요. 소셜 다이닝에 오신 분 중 한 분은 소셜 다이닝을 통해서 감포만의 특색을 담은 한국식 가자미 음식을 원하셨다고 해요. 보통 '가자미' 하면 감포를 떠올리지 않고 속초랑 강원도를 떠올리기 때문에 '가자미' 하면 떠오를 만한 감포만의 음식 말이죠.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어요. 저희는 그저 독특한 조리법을 통해 가자미와 감포를 알리고자 하였는데 또다시 기회가 된다면 이러한 관점으로 메뉴를 개발해 보고 싶어요.

감포는 노인 비율이 높기 때문에 가자미를 활용해서 다른 음식을 만들 생각을 못 하셨을거에요. 그런데 소셜 다이닝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요리한 가자미를 드셔보셨으니 이게 그분들의 새로운 경험이 되어서 주변 지인에게 '가자미를 새 방식으로 먹어봤다'라고 얘기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 소셜 다이닝 이후에 메뉴 발전 가능성을 봤다고 생각해요. '당신과 해오름'(스프)이라는 메뉴는 소셜 다이닝 내내 극찬을 받았어요. 해산물의 맛과 향이 정말 풍부했고 토마토와 잘 어울렸다는 평을 계속 받았거든요. 비스크스프 자체가 한국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메뉴이다 보니 유독 반응이 좋았어요. '한낮의 가자미'(리조또)의 경우 이탈리아 여행을 갔을 때 먹었던 리조또와 같은 맛이 난다는 후기를 들었어요. 저희는 짧은 시간 동안 만들었는데도 이런 극찬을 받았는데 만약에 감포에서 이런 식당을 만든다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많기 때문에 감포의 이야기를 더 잘 담아낸 요리가 나와서 감포를 알리는데 더욱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해요.



Q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거창한 계획은 딱히 없어요. 남은 2022년을 잘 보냈으면 좋겠어요. 제가 원래 사회학을 공부하고 싶었는데 가자미마을에서 많은 경험을 하고 나니 다시 한번 공부에 대한 확신이 생겨서 그 공부를 시작할 것 같아요. 저는 평소에도 "왜?"라는 질문을 많이 하는 편인데 감포에 가보니 "감포는 왜 이럴까? 왜 사람들은 이렇게 행동하고 저런 의견을 내는 거지?"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런 것들을 사회 현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사회학을 더 공부하고 싶어졌어요.

Q 경주 청년마을 경험을 기반으로 마지막으로 하고싶은 말이 있을까요?

청년마을 사업은 단순히 수치화해서 표현하기엔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희의 모든 일상, 같이 하루를 보내는 사람들과의 관계, 감포에서 좋은 추억 등을 많이 쌓았는데 이런 것들은 숫자로 표현할 수 없잖아요. 저희가 감포에 정착하지 않더라도 감포에 대해서 알리고 다닐 수 있으니까 이것이야말로 감포를 홍보할 수 있는 진정한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정착하는 것만으로는 지역을 살리기 부족하기에, 오히려 방문자 수를 늘리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가자미마을만으로 이미 감포 홍보대사가 20명은 생겼으니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감포를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이 인터뷰가 감포를 알리는 기회의 발판이 되면 좋겠어요.



Biz

Impact #9

명상의 틀을 깨 모든 것을 명상화 하다

예천 청년마을, '생텀마을'의 이지우 청년 이야기

마블 영화 중 '닥터 스트레인지'가 수행하고 거주하는 공간으로 묘사되었던 생텀sanctum. 이를 모티프로 소백산 자락 경북 예천 효자면의 순수한 자연 환경을 기반으로 한 청년마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닥터 스트레인지의 서사와 비슷한 이야기를 가진 한 청년이 그 청년마을, 바로 생텀마을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운동선수였던 청년, 삶의 우여곡절을 통해 인도에서 얻은 깨달음과 명상을 하며 느꼈던 편안함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고 싶어 명상 지도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정적인 이미지로 각인된 명상. 이 틀을 깨고 어떠한 활동도 명상화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며 그 방법과 '명상'의 개념을 확장하기 위한 연구와 시도를 생텀마을의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해 나갈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명상에 있어 원칙이 없는 것이 원칙인 청년.

예천 생텀마을의 이지우 청년입니다.

Q. 명상지도자로 생텀마을에 참여하게 된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어렸을 때 국가대표가 되기 위해 운동만 하며 살았어요. 대학교도 운동으로 진학하였지만 결국 운동을 그만두게 되었고 부모님 사업을 도우며 지냈어요. 하지만 사업도 잘 진행이 되지 않아 삶에 회의감이 들었어요. 열심히 살아왔다고 생각했지만 이룬 것이 없다고 느껴져 힘들었어요. 방향을 모른 채 마냥 뛰기만 하며 살아왔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던 중 아는 분의 권유로 명상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제 생활에 명상이 도움이 될지 의심이 들더라고요. 명상을 할 때 많이 졸기도 하며 집중하지 못했는데 인도에 가서 우연히 가슴이 찡한 체험을 하게 되었어요. 갠지스강에 일출을 보러 가서 모래 한 줌을 쥐었다가 손을 폈는데 손가락 사이로 모래가 흩어져 나가는 것을 보고 그 모래 한 알이 저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왜 이렇게 열심히 잡히지도 않는 목표를 가지고 앞만 보고 뛰어왔을까'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노력한다고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는 생각에 허무주의에 빠지기도 했지만 이대로는 안되겠다 싶어 다시 열심히 살고자 인도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공부를 시작했어요.

불교학과를 다니며 이론 공부와 명상 수련을 함께 하니 더욱 명확해지는 것들이 있었고 깊어지고 평온해지는 체험을 했어요. 이 경험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명상 지도사가 되기를 결심했어요.

함께 불교철학을 공부했던 분의 소개로 생텀마을을 알게 되어 사람들에게 더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법, 제가 모르는 분야에 대해 더욱 배우고자 생텀마을에 명상 지도사로 오게 되었어요.

Q. 다른 명상 장소와 생텀마을의 차이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보통 명상을 할 때 몸이나 감각으로 많은 것을 느낄 수 있는 원음에 가까운 소리를 내는 음향 시스템, 더 좋은 환경을 가진 명상 장소를 찾아다녀요. 결국은 자연에 가장 가까운 곳을 찾아가고 싶은 갈망의 반영이죠. 아무리 잘 꾸며도 자연보다 더 좋은 환경은 없거든요.



자연은 추위나 더위 등 경우에 따라서 불편한 요소가 있지만 자연에서 하는 명상만큼 좋은 것은 없어요. 바람의 소리까지 들릴 정도로 아주 고요하고 햇살의 따뜻함을 한 번에 체험할 수 있는 자연을 인위적인 장비를 통해 따라가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에 자연을 그대로 보존하는 생텀마을이 명상을 하기에 좋은 장소예요. 인간이 자연의 일부이기에 명상을 깊이 있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이 자연이에요.

사람들은 보통 명상으로 휴식을 취하거나 재활활동을 하는 것이 힐링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힐링의 핵심은 '회복'이라고 생각해요. 회복이란, 우리는 원래 건강하니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간다는 의미예요. 사람들은 내 몸에 안 좋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 스트레스가 극심해지지 않는 이상, 명상이나 운동을 할 생각을 하지 않지만 건강할 때 미리 훈련을 해놓으면 다치는 일도 적고 회복도 빠르게

돼요. 운동과 명상의 공통점은 평소에 훈련을 해놓으면 힘들고 지칠 때 몸도 마음도 더 빨리 회복된다는 것이에요. 회복은 자연 속에서 더 빨리 진행돼요. 이는 산림치유에 대한 많은 연구결과들이 뒷받침 해주고 있어요.

명상의 주제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는 '지금 여기'에요. 과거의 일을 회상하며 스트레스를 받고,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를 상상하며 불안에 떠는 것이 인간의 모습인데 그것을 떠나 내가 지금 하는 일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이 명상이에요. 사람들이 명상을 떠올릴 때 눈을 감고 앉아서 가만히 있는 것을 생각하는데 명상은 이것 외에도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어요.

저도 강사 아르바이트를 처음 시작했을 때는 막연히 사람들에게 앉아서 눈 감고 명상하게 하였지만 지금은 움직이며 재미있게 할 수 있는 다양한 안내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생텀마을에서 다양한 종류의 명상법을 배웠고 제가 알고 있던 것을 생텀마을 측에 소개할 수 있어 좋은 경험이 되었어요. 이를 바탕으로 탄생한 생텀마을만의 명상법도 있으니 이 또한 생텀마을 명상의 차별점이라고 생각해요.

Q. 예천에 정착을 하겠다고 결심하신 계기는 무엇이었나요?

지금까지는 혼자 강사 생활을 하니 전달력 혹은 확장성이 더디게 발전한다고 생각했어요. 코로나로 인해 사람들의 활동 방식이 변하면서 명상을 지도하는 일을 쉬기도 했고 혼자서 활동하다 보니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제한적이라 명상 강의가 제자리걸음을 한다고 느꼈어요. 그런데 생텀마을이라는 공간, 그리고 그곳의 사람들과 함께 하면 나 혼자 소리치는 것보다 더 큰 효과를 불러오고 더 많이 알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각자가 가진 자질이 다르고 제가 할 수 없는 부분을 다른 사람이 메꿔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빈 부분을 제가 보완해 줄 수 있어 더 확장성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천에 정착하여 함께 연구하고 활동하기로 결정하게 되었어요.

저는 불교철학 기반의 명상을 중점으로 공부를 했어요. '깨달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정적인 부분으로 공부를 오랫동안 해왔는데 다른 분들과 함께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많이 깨닫고 있어요. 지금 대학교에서는 서구에서 명상이 왜 발달하게 되었는지를 배우면서 사람들이 본인에게 직접적으로 쓰임이 되는 방법을 원한다는 것을 배웠어요. 사람들이 원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아도 활용을 할 수 없는 법인데 제가 해왔던 명상법을 최고라고 생각하며 사람들에게 주입하려고 고집을 부렸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생텀마을 1기를 참여하는 동안 힐링 프로그램을 기획하며, 깨달음이란 누군가에게는 무겁게 느껴질 수 있는 주제에서 벗어나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 우울증 극복 방법 등 대중적인 니즈에 초점을 두고 접근했어요. 이 과정에서 수행자만이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는 대중적인 명상법의 가치와 가능성에 스스로 놀랐어요. 현대사회에 꼭 필요한 명상의 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요.



Q. 많은 생각의 변화를 가져왔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하고 있는 수행이 최고이고 나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 제가 못하는 부분, 부족한 부분을 인정하게 되었어요. 실질적으로 생텀마을에서 좋았던 것은 다양한 전공자들을 다방면으로 만날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꼭 명상으로만 힐링을 줄 수 있는 게 아닌 조경으로 힐링을 주는 분, 음식으로 힐링을 주는 분 등을 경험하며 여러 방법의 힐링을 합쳐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큰 기쁨과 안정감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우고 생각이 바뀌게 되었어요.

또, 사업성이나 브랜딩과 관련된 것은 저희의 힘으로만 해낼 수 없기 때문에 사업성을 좋게 만드는 프로그램, 브랜딩하는 법, 교육 프로그램, 다양한 CEO분들을 통해 배우게 되고 사업화를 위해 모색되어야 하는 부분을 알게 되었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합심함으로써 다양한 것이 모이고 각자가 가진 재능대로 역할을 맡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참여하는 청년들 중에서도 다양한 분들이 오시니 작은 것이라도 협업을 하면 시너지를 낼 수 있더라고요.

Q. 생텀마을을 한마디로 한다면?

말 그대로 생텀이다. 생텀마을은 엄마의 품과 같이 보호를 받고 있다는 기분이 들게 하는 청정지역 같아요. 그만큼 훼손되지 않았고 잘 보존되고 있다는 거죠. 사람의 손길이 최대한 닿지 않은 그 상태로 보호되고 있고 건물을 지어도 자연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삼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Q.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을 때 제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일지 생각해 보았는데 사람들이 저를 통해 기뻐하고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는 것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들이 상담을 하거나 명상을 한 후에 환한 얼굴로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건네주실 때 그 어떠한 것보다 높은 가치를 느끼고 행복해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싶어요. 혼자가 아닌 같이 알리는 것이 더 큰 시너지효과를 내는 것을 알기에 많은 사람에게 생텀마을과 프로그램이 알려지는 것이 목표예요. 이를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는데 일조하고 싶어요. 명상을 진행하는 이유가 힘듦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니까요. 최근 WHO(World Health Organization)에서 발표한 건강의 정의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인 건강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요. 이와 맞게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저의 비전이에요.

다양한 명상법도 개발할 예정이에요. 원래는 정적인 명상만 진행했지만 생텀마을에서 몸을 움직이면서도 명상을 할 수 있다는 확장성을 깨닫고 운동과 명상을 함께 할 수 있는 명상법을 개발하고자 해요. 몸과 정신건강이 회복될 수 있는 명상법을 만들면 더 많은 사람이 명상의 혜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최근에는 생텀마을과 대학원에서 배웠던 명상법을 병합하고 개발하면서 명상 지도를 하고 있는데 배우시는 분들의 피드백이 전보다 좋아져서 더욱 발전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년에는 예천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명상과 생텀마을의 힐링 프로그램을 지도해 보고 싶어요.

Q. 명상지도자로서 갖고 계신 원칙이 있을까요?

명상에 있어서 원칙을 만들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울타리 안에 가두지 않고 제어를 할 수 있는 정도로만 만드는 것이에요. 명상의 핵심을 알면 모든 것이 명상화될 수 있으니 목적에 맞게 다양하게 활용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생텀마을을 통해 움직임 명상을 경험하면서 제 울타리를 부수게 되었고 더 적극적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명상을 하며 한 곳에 메이는 것이 함정인 것 같아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진행하는 것이 제가 원하는 명상의 방향이에요.

Q. 아직 생텀마을을 경험하지 않은 청년들에게 하고싶은 말은?

자기 전문분야의 지혜와 지식에 집중하는 것도 커리어를 쌓는데 중요하지만 다양한 분야의 경험을 쌓는 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해요. 젊을 때는 세상을 넓게 보기 어렵고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부족한데 청년마을은 시간적, 재정적으로 많은 것을 지원받아 다양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줘요. 그래서 특히 젊은 청년들이 경험하기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요. 책으로 얻는 것과 경험에서 얻는 것은 많이 다르니까요. 책 정보는 계속 바뀌지만 경험은 나만의 재산이 돼요. 제가 그런 것처럼 청년마을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으면 좋겠어요. 특히 힐링이나 명상에 관심 있는 청년이라면 생텀마을에서 새로운 경험의 영역을 확장시킬 수 있을 거예요.



Biz Impact #10

로컬과 도시를 연결하는 제품개발에 나서다

의성 청년마을, '나만의-성'의 최형근 청년 이야기

전역 직후 의성으로 내려오게 되어 처음 보는 청년들과 시작하게 된 샹그리아 비즈니스, '소별'. 소별 제품을 구성하는 과정과 받은 지원을 통해 로컬과 도시를 이을 수 있는 제품 개발과, 앞으로 의성에 올 다른 청년들에게 로컬 멘토가 되어 주기를 꿈꾸게 되었다고 합니다. 취업 고민을 하다 26살에 대표가 된 나만의-성의 최형근 청년입니다.

Q. 나만의-성에는 어떻게 오게 되셨나요?



경영학과를 전공하며 비즈니스에 관심이 있었지만 실전 감각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던 중 나만의-성 운영진으로 있던 대학 동기의 소개로 나만의-성에 오게 되었어요. 원래 창업에 관심이 있었지만 쉽게 다짐해서 시작하기가 어려웠어요. 의성에서 기회가 주어진 지금을 잡지 않으면 창업을 시작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에 성공을 하던 실패를 하던 시도를 해봐야겠다고 생각해 첫 창업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소별'이 하나의 완전한 사업체가 된다면 의성에 정착해 일을 진행하고 싶어요. 현재는 온라인 펀딩 사이트에서 저희 프로젝트 제품을 런칭하는 것을 목표로 팀원들이 각자 자리에서 노력하고 있어요. 수입이 저희 모두에게 만족스럽다면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현재 프로젝트를 발전시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프로젝트가 지속 가능한지와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지 다양한 고민과 실험을 하는 중이에요.

Q. 샹그리아를 활용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하신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로컬 하면 농산물을 떠올리기에 멘토님의 조언에 따라 의성 농산물을 활용한 샹그리아 키트를 제작하여 젊은이들의 취향에 맞추고자 선택하게 되었어요. 의성의 농산물인 사과, 자두, 복숭아를 건조시켜 장기간 먹을 수 있도록 상품을 개발하고 있어요.

또한 '소별' 제품만의 차별점으로 설탕 대신 코디얼을 사용하고 있어요. 허브와 과일을 같이 졸여 만든 코디얼을 넣어 샹그리아에서 달콤한 과일 맛과 허브향이 같이 나게 만들었어요. 기본 구성으로 건조과일이 들어있는 큰 유리병과 코디얼을 넣은 작은 병이 제공되어 본인이 가지고 있던 레드와인과 함께 냉장고에서 1-2일 숙성한 뒤에 마시도록 만들었어요. 와인에 대한 접근성이 좋고 선물로도 주고받기 때문에 와인만 있으면 쉽게 만들 수 있도록 키트를 제작하였어요.



샹그리아의 특성상 주 타겟층은 20대 여성으로 하여 페르소나는 25세 여성의 학생 또는 사회초년생으로 잡았어요. 새로운 것을 도전하는 걸 즐기거나 와인에 대해 알아가고 싶어 하는 사람, 혹은 친구들과 함께 파티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을 주 타겟층으로 삼아 페르소나를 만들었어요. 실제로 온라인 펀딩의 연말연초 선물

기획전에 출시하고 싶은 이유도 연말을 즐길 때 샹그리아 키트를 선물하도록 만들고 싶어서도 있어요.

샹그리아 키트 이외에도 로컬과 도시를 이을 수 있는 특별한 무언가를 활용해 다른 아이템도 진행하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아직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외부의 멘토링과 청년마을을 통해 배우고 있지만, 전문성을 키워 '소별'이라는 브랜드를 생각했을 때 농촌과 도시를 잇는 제품들을 다양한 카테고리나 시리즈로 만드는 이미지를 생각하도록 전문적인 브랜드를 만들고 싶어요.

Q. 이전에 정착한 청년이 프로젝트 멘토가 되어 많은 가이드를 주었다고 들었어요.

멘토님의 도움을 받아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 진행하고 있어요.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의성에 내려와 수제 맥주를 만들고 탭룸을 운영하고 계신 멘토님이에요. 외부 청년이 의성에 정착하여 길을 먼저 닦아 놓고 다른 청년들이 의성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멘토링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거죠.

브랜드의 신념을 정한 후 진행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을 해주셔서 방향성을 잡을 수 있었고, 코디얼을 첨가하라는 조언과 허브로치와 함께 진행한 마켓도 멘토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할 수 있었어요. 청년 대표님들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현재를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도움을 받았어요. 이러한 청년 대표님들로 인해 정착하는 청년들이 더더욱 많아질 것이라고 확신해요.

저도 이 프로젝트가 성공한다면 의성에 정착하여 다른 청년들의 자립과 정착을 위해서 도움을 주는 멘토가 되고 싶어요. 상부상조의 문화가 자리 잡게 된다면 다른 사람들도 의성에, 또 로컬에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해요.

Q. 브랜드 이름인 '소별'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저희가 의성에서 만난 것이 아주 거창한 일은 아니지만 로컬을 경험하는 것은 사소하고 특별한 일이라는 것에서 브랜드 이름을 정하게 되었어요. 다른 팀원들은 학생이었는데 방학 시즌에 흔히 할 수 있는 공부나 자격증 준비를 하지 않고 로컬에서 새로운 경험을 한다는 것이 남들과는 다른 사소하고 특별한 경험을 의성에서 찾았다고 생각해 이러한 경험을 제품에 녹여내고자 했어요. 농산물을 사용한 것, 코디얼을 사용한 것이 특출나게 특별하고 거창하지는 않지만 샹그리아 키트는 흔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소소한 특별함을 줄 수 있는 포인트라고 생각했어요.

로컬에서는 샹그리아를 접하기 쉽지 않으니 도시의 사람들을 소비자로 타겟팅하여 '소별'의 제품소비자들이 로컬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로컬의 문화에 관심을 갖게 하고 싶어요. 또한 소비자들에게 '퇴근 후 맥주 대신 샹그리아'라는 느낌을 주어 사소한 특별함을 제공하고자 하였고 이를 통해 '소별'이라는 브랜드가 알려지면 샹그리아 키트가 의성 농산물로 만들어졌고, 로컬에서도 새로운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리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믿어요.

Q. 처음 만난 팀원들과 팀워크는 어떠셨나요?



모두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만난 친구들이기에 주어진 프로젝트에 최선을 다했어요. 7주라는 짧은 시간 안에 제품을 만들고 판매하는 것까지 커리큘럼을 짰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스케줄이었어요. 제품의 레시피를 만들고 좋은 기회로 마켓을 열 수 있게 되어 판매를 하고 나니 저희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효용과 성취감을 얻을 수 있었어요. 일회성 판매로 끝내기 아쉬워 팀원들끼리 각자의 자리에서 끝까지 해보자는 마음으로 1기가 끝난 후에도 온라인 펀딩을 위해 준비하고 있어요. 오프라인 행사를 발돋움으로 해서 더 끈끈해졌어요.

Q. 소비자들에게 로컬문화의 어떤 부분을 경험시켜드리고 싶나요?

제가 그랬듯 청년들이 로컬을 생각하면 밭을 가꾸는 일만 생각할 수 있지만청년들이 고정관념을 깨고 농업을 통해 다양한 가능성을 찾아 일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또한 제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청년마을 문화인 화합을 알려 로컬에 관심을 갖도록 하고 싶어요. 의성에서는 로컬 청년과 외지 청년이 구분 없이 서로를 도와주는 것이 가장 큰 메리트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의성 주민인 청년들이 청년마을에 관심을 갖다가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기도 하고 노인분들과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팀은 노인분들과도 친밀해졌다고 해요. 저희의 제품을 통해 막연히 가지고 있는 로컬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고 화합이라는 이미지를 저희 제품을 통해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싶어요.

Q. 청년마을에 오시기 전과 지금의 가장 큰 변화는?

제일 먼저 로컬에 대한 인식이 많이 변화하였어요. 기존에는 농촌 하면 농사 외에 할 것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이곳에서 활동하며 농촌에서도 무조건 할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청년마을에 오기 직전에 군대 생활을 하며 취업 걱정을 많이 했어요. 무엇을 잘 하는지, 하고 싶은지 정하지도 못한 채 취업에 대한 걱정만 많이 쌓이던 상태였어요. 그런데 나만의-성에 와서 취업 걱정 없이 새롭게 하는 비즈니스를 즐기는 것이 저의 삶에 큰 변화이고 지금이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 시점인 것 같아요.

Q.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가장 가까운 계획은 펀딩 사이트 내 연말연초 기획전에 출시하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 '소별'이라는 브랜드를 잘 살릴 수 있는 새로운 아이템을 찾아 선보이는 것이고 최종적인 꿈은 저희가 받은 도움을 새롭게 올 청년 비즈니스 팀에게 멘토로서 돌려주고 싶어요.



Biz Impact #10

서울청년, 의성에서 노인문제 해결에 앞장서다

의성 청년마을, '나만의-성'의 이수길 청년 이야기

"제가 소셜 섹터에 관심을 가진 이유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행복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에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행복하기를 꿈꾼다는 청년. 소셜 문제 해결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도움을 받아 행복해지면 좋겠다고 합니다. 의성에서 노인문제를 해결하며 로컬에서 이미 실천하고 있는 이수길 청년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Q.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제 자신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낭만 있게 살고 싶은 사람이에요. 제가 정의하는 낭만은 자유롭게 좋아하는 것들을 선택해서 일하는 것이에요. 저도 낭만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살아가고 싶어 청년마을에 참여했어요. 고향이 경남 남해라서 로컬에 관심이 많았고 사람 관련 사회적인 일을 하고 싶었어요. 청년마을에 '임팩트랩'이라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고 매력적이라고 생각하여 나만의-성에 오게 되었어요.

보통 문제 해결을 위해 실내에서 조사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의성에서는 직접 살아보면서 노인분들과의 소통을 통해 실제 문제를 경험하니 현실적인 방안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 참여했어요. 의성에 오기 전에는 로컬보다는 소셜 프로그램에 초점을 두었는데 막상 와보니 로컬 출신인 제가 겪었던 로컬이랑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로컬은 다를 점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생각 외로 다른 점이 많아서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로컬에도 초점을 맞추어 지내고 있어요.

Q. 어떠한 노인문제들을 다루고 계신가요?

처음엔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고 그저 '노인의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기'라는 주제만 있었어요. 그렇기에 직접 노인분들과 길거리 인터뷰를 진행하며 마을과 친해졌고 노인분들이 마을에서 겪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알게 되었어요.

그중 가장 심화 있게 다루고 싶었던 문제는 '낙상 문제'였어요. 노인분들의 집은 단차가 높아서 집 안에서 밖으로 나오실 때 몸 중심이 앞으로 쏠리면서 다리가 흔들려 넘어질 수 있는 위험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주변 집들도 같은 구조이니 당연하게 여기셨더라고요. 주변 분들, 군청 직원분들도 해당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셨기에 해결하지 못했던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보였어요. 낙상문제에 대한 관심도가 낮으니 자료를 수집하고 낙상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알리기 시작하면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믿어 노력하고 있어요.

아직은 데이터를 수집하는 단계이기에 프로그램이 끝난 직후에는 큰 변화가 없었고, 변화를 기대하며 의성에 남기로 결정했어요. 사회 문제를 다루면서 논리적인 자료를 만들고, 관련 제품을 만들어 공모전에 참여하며 대외적으로 인정을 받는 동시에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논리적 완결성을 가질 때까지 진행하고 싶어요.

Q. 노인분들의 반응은 어떠셨나요?

문제 해결을 가장 바라고 계시는 노인분들은 언제 문제가 해결될지 기대하세요. 하지만 문제를 즉각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데이터만 쌓는 단계에 있다고 말씀드리면 실망하시는 모습을 보이세요. 그 모습을 보면 죄송스러워 더 열심히 제품을 개발해 당장 도움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제품이 잘 개발되고 문제의 심각성이 전달된다면 함께 할 사람들이 늘 것이라고 믿어요.

저희는 제품을 개발하는 데에 초점을 맞췄어요. 기존의 제품들 중에 개발이 필요한 안전손잡이에 중점을 두었어요. 올라갈 때만 안전하게 잡을 수 있고 내려갈 때는 손목이 꺾여 제대로 잡을 수 없는 구조를 띄고 있어요.

내려갈 때가 더 위험하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개발하려고 해요. 노인분들께 활용도가 높고 가장 안전한 방식으로 개발하고자 노력하고 있어요.

또한 저희 문제에 관심이 있는 자원봉사 센터장님이 집을 보수하는 단체를 소개해 주시고자 하셔서 단체와 협력하면 계단을 수리하는 등 낙상 문제를 줄일 수 있으니 함께 진행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희는 청년으로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을 하여 제품도 개발하고 협업하며 노력할 거예요.



Q. 프로젝트를 개발하여 비즈니스화하고 싶은 아이디어가 있나요?

저의 최종 목표는 소셜 벤처를 만드는 것이에요. 처음부터 사회적인 일로 시작하면 사회 단체의 성격이 강해져 원하는 구조가 나오지 않더라고요. 비즈니스를 통해서 소셜 미션을 수행해 나간다면 더 좋은 소셜 벤처를 만들고 원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제품을 개발하면서 대중들에게 설득력을 얻고 그 후에 사회적인 기업으로 발돋움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사회적인 일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나중에 새로운 비즈니스를 키워 소셜 벤처를 만들도록 차근차근 노력해 나가고 싶어요. 아직 비즈니스도, 소셜도 잡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가 둘 다 놓치는 상황이 오지 않도록 비즈니스를 배운 후에 소셜과 블렌딩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Q. 의성에서의 낭만적인 삶은 어떠한 모습인가요?

도시에서 흔히 취업이나 대학원 등을 선택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당장 이익을 창출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 한 지역에 내려와 그 지역문제에 관한 프로젝트를 스스로 선택해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그 자체가 충분히 낭만적인 삶이라고 생각해요.

Q. 의성은 어떠한 지역인가요?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재미있고 좋은 사람들이 많아 의성이 좋아졌어요. 또한, 도전의 장벽이 낮아 자유롭게 무엇이든 도전하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많은 분들이 함께 도와주시기에 저에게는 굉장히 든든하고 믿음직스러운 곳이에요. 만약 창업을 시작한다면 의성에서 도전하고 싶어요.



Q. 나만의-성에 오기 전후의 생각이나 삶 등에서 변한 부분이 있을까요?

평소에는 노인의 삶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지 않았어요. 관심은 많았지만 어떻게 삶을 살아가시는지, 어떠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생각하시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분들과 가깝게 지내면서 삶의 좋은 마무리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노인분들은 죽음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삶을 잘 마무리할 것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것을 보고 삶을 살아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마무리하는 것에 대해서도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잘 '살아야지'라고만 생각했다면 '잘 살다 가는 것'에 대해 생각을 하고 현재의 행복만이 아닌 더 깊게 삶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Q. 아직 청년마을을 경험하지 않은 청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저는 도심이 수많은 건물에 갇힌 좁은 곳이라고 생각해 로컬에서의 행복을 찾기 어렵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마냥 행복만을 찾기 위해 청년마을에 오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꼭 로컬이 아니더라도, 흘러가는 대로가 아닌 본인들이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것들을 향해 살았으면 해요. 본인이 어떨 때 행복한지, 어떻게 하면 행복할지를 생각하며 어디서 무엇을 하든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소셜 섹터에 관심을 가진 이유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행복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에요. 그럼 저도 더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로컬이 절대적인 답은 아니지만 행복을 찾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청년마을을 선택해도 좋을 것 같다고 전하고 싶어요.



Biz Impact #12

자급자족 라이프를 위해 사과농장 먹거리숲을 계획하다

영월 청년마을, '밭멍'의 홍성결 청년 이야기

**"단순한 농업, 농법이 아닌 지속 가능한 생활방식을 디자인하며 자급자족하는 것.
밭멍은 이 모든 것을 실행하고 있어요."**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 미래세대의 위기. 이를 막기 위해 자급자족에서 답을 얻게 된 또 다른 밭멍의 청년이 있습니다. 그가 생각했던 환경을 위한 '자급자족 라이프'를 운이 좋게도 밭멍에서 경험하게 되어 영월에 정착 결정을 내리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았다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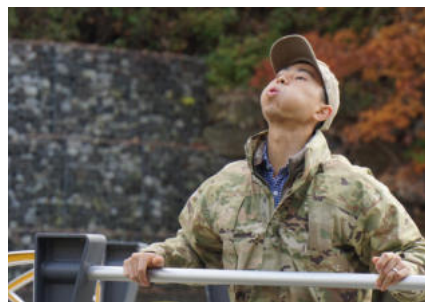
퍼머컬처를 실천하는 사과농장을 영월에서 시작해 자신만의 자급자족 공동체를 이루고 '반농반X'의 라이프를 꿈꾸는 밭멍의 홍성결 청년입니다.

Q. 밭멍에는 어떻게 오게 되셨나요?

우연히 본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통해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깨닫고 환경문제를 다루는 일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 공부를 하고 환경 관련 스타트업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쓰레기와 환경에 대해 관심을 가지니 우리가 쓰는 모든 제품과 서비스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지구를 파괴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현대는 그저 대량생산과 쓰레기 배출이 피하기 힘들 정도로 삶에 당연하게 들어와 있어 예전처럼 다시 자급자족하는 부분들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회사를 퇴사하고 인스타그램 광고를 통해 밭멍을 알게 되었어요. 자급자족, 귀농에 관심이 있어 밭멍 2박 3일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처음부터 자급자족을 실천하고 있는 밭멍이 매력적이어서 정착에 대한 마음이 있었어요. 부모님의 귀촌 생활로 시골을 경험했었는데 또래 친구가 거의 없어 로컬에서 외로움을 느꼈어요. 하지만 밭멍은 다양한 청년들이 방문하니 고립되지 않고 청년들과 교류할 수 있다는 희망이 보였어요. 어렸을 때는 외로워서 도시생활에 대한 욕구가 있었는데 지금은 도시생활을 충분히 했고 청년들이 농촌으로 오는 추세로 변한 것 같아 영월 정착에 대한 마음이 더 생겼어요. 현재는 영월에서 사과농장을 운영하려고 계획 중에 있어요.



Q. 어떻게 농업과 환경에 관심을 가지게 되셨나요?

저의 아토피로 부모님이 환경, 유기농 음식에 관심을 많이 가지셨어요. 건강한 먹거리, 건강한 생활습관과 태양열에너지 사용 경험으로 환경과 농업에 관심이 자연스레 생겼어요.

농업 중에서도 퍼머컬처의 개념이 마음에 들었어요. 단순한 농업, 농법이 아닌 지속 가능한 생활방식을 디자인하는 방법론이 제가 찾던 농업이었어요. 지금의 기후 위기나 지구온난화 등이 인간의 욕심으로부터 비롯된 게 많은데 자급자족이 대안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 매력적이었어요. 밭멍은 이 모든 것을 실행하고 있었고, 관심이 있는 친구들이 모여 정착을 하려는 게 흥미로웠어요.

지금은 매일 나무 씨앗을 심으며 일상 속에서 친환경을 실천하고 있어요. 작지만 이 씨앗들이 큰 나무로 성장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Q. 밭멍의 자연환경이 일상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고 들었어요.

예전부터 새벽형 인간이 되고 싶어 아침 일찍 일어나는 시도를 많이 했어요. 목적성을 가지고 일찍 일어나려고 노력하니 오래 유지되지 않고 압박감과 스트레스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매번 성공하지 못했는데 밭멍에서 자연과 함께하니 의도하지 않아도 아침에 눈이 자연스럽게 떠지고 건강한 루틴을 찾게 되었어요. 농촌 생활은 아침 먹고 일하고 점심 먹고 일하는 등 반복적인 생활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런 게 행복해요. 상대적이지만 단순함에서 찾는 행복으로 삶이 풍요로워져 무언가를 시도해 보고 시작하고자 하는 마음도 생기는 것 같아요.



Q. 환경에 관심이 많으셔서 그런지 다음 세대 아이들과 동물에도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어린아이들이 누릴 미래가 저희로 인해 망가질 수 있다는 생각에 더욱 관심이 가요. 지금 어린 친구들이 저희 나이가 되었을 때는 경험할 수 있는 게 훨씬 줄어든다고 하더라고요. 생태계가 많이 파괴되고 면적으로만 보더라도 인간의 수는 늘어나고 동물들은 사라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원하든 원하지 않든 다음 세대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기에 그들을 위해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보면 결국엔 퍼머컬처, 귀농, 밭농사 등 이더라고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변화해야 한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Q. 밭멍의 공동체 생활은 어떠셨나요?

귀농을 하면 밭멍과 비슷한 형태의 농장을 운영하고 싶을 만큼 밭멍이 좋았어요. 20살 때 친구들이 타지로 떠나 외로움을 겪던 중 대학교에서 진행하는 '농활' 프로그램으로 여름마다 대학생 친구들이 왔고 그 활동이 좋았어요. 농활과 밭멍의 공통점으로 농촌에서 보기 힘든 또래 친구들과 함께 농업을 이어가고 같은 주제로 소통할 수 있어 좋았어요.

Q. 영월에서 시작할 사과 농장에 대한 계획이 궁금해요.

밭멍에서 농장을 운영하는 것은 아니지만 서로 도우며 일을 할 것 같아요. 원래는 사과가 남쪽 지방에서만 재배가 가능했는데 지구온난화로 인해 중부지방에서도 가능해져 사과 농장을 하게 되었어요. 농약을 많이 치는 작물로 유명한 사과를 농약 없이 키우고 싶어요.

사과를 주 작물로 키우되 전체적으로는 먹거리 숲을 이루고 싶어요. 퍼머컬처의 개념에서 보면 나무들이 서로 공생하면서 서로가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거든요. 동반작물 개념으로 서로 힘을 보태며 살 수 있는 작물을 심어서 다양한 모습을 만들고 싶어요.

Q. 밭멍을 한마디로 한다면?

자급자족하는 삶을 실천할 수 있게 도와주는 '마중물'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만들고 싶은 공동체이기도 해요. 혼자서가 아닌 청년들과 함께 하는. '반농반X'라는 도시와 농촌을 모두 즐기는 농촌의 유명한 개념이 있어요. 가족이 먹을 만한 먹거리 정도의 농사를 지으며 하고 싶은 일로 수익을 얻는 것을 '반농반X'라고 불러요. 밭멍이 딱 이러한 농촌의 자급자족 라이프더라고요.



Q. 청년마을을 경험하지 않은 청년들에게?

한 번쯤 와보면 좋다고 이야기해 주고 싶어요. 농촌의 개념으로 본다면 도시와는 다른 비일상을 경험하여 생활방식이 확연히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 오히려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계기가 돼요. 저는 2주라는 시간 동안 도시에 살 필요가 있는지 제 자신에게 물어봤고 아니라는 답을 내렸어요.

청년마을을 경험하며 다양한 청년들과 소통하고 같은 관심사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가장 좋았어요. 도시에서는 출퇴근길에 많은 사람을 접하지만 깊은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데 청년마을의 경우 만나는 사람마다 모두 관계를 맺고 교류를 하거든요. 관계가 하나하나 값지고 깊이 관계 맺을 수 있어 오히려 더 풍요로운 것 같아요.

또한 같은 관심사를 가진 친구들을 만나 힘을 얻어요. 텃밭 등 농촌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별로 없었는데 관심 있는 사람들만 모이니 함께 하고 싶어지고 농촌에 용기를 얻게 돼요.



Biz Impact #13

도고에서 '환경'과 '동물'에 대한 자신만의 비즈니스를 실현하다

아산 청년마을, 'DOGO온천'의 강유정 청년 이야기

"DO 시도하고! GO 살아보고! 도고온천의 슬로건 그 자체예요. 딱 이게 가능한 지역이에요."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일, 자신이 좋아하는 일, 그리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지속 가능한 일들이 되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도전하며 도고에서 자신만의 '우물'을 파고 있는 청년이 있습니다. 방향을 잃지 않고 계속 도전한다면 꿈꾸는 삶, 꿈꾸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을 향해 나아가는 청년. 도고온천의 강유정 청년 이야기입니다.

Q. 환경 등 사회적 가치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어린 시절부터 환경이나 동물, 문화재 보존에 관심이 많았어요. 다른 사람들도 관심이 많은 줄 알았는데 사회적 기업 협의회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며 제가 생명과 자연에 유독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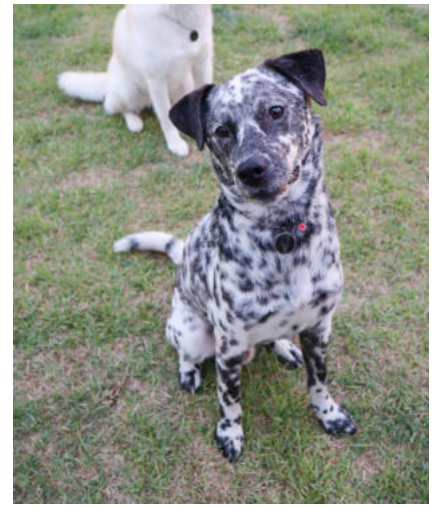
'사회적 경제'라는 것을 안 이후부터는 사회적 가치가 있는 일을 택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대학생 때는 사회적 가치를 위해 일하시는 분들의 강연이나 행사에 참가하며 사회적 가치를 알리는 활동들을 했어요. 이것을 직업으로 삼아 일로서 알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회적 기업이 매력적으로 다가온 것 같아요.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사회적으로도 좋은 도미노 효과를 만들 수 있으니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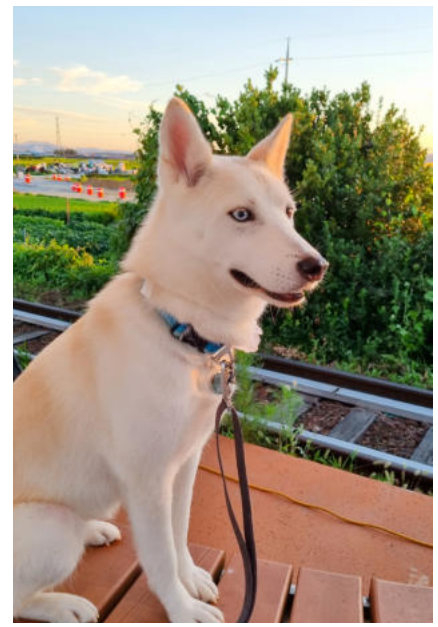
사회적 경제활동의 방향도 현재의 자본주의의 '잘 살아보자'에서 '함께 잘 살아보자'로 변했어요. 앞으로는 이 방향으로 나아갈 일만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모두가 함께 잘 살 수 있는 일을 하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 또한 알리고 싶어 청년마을에서 일을 하게 되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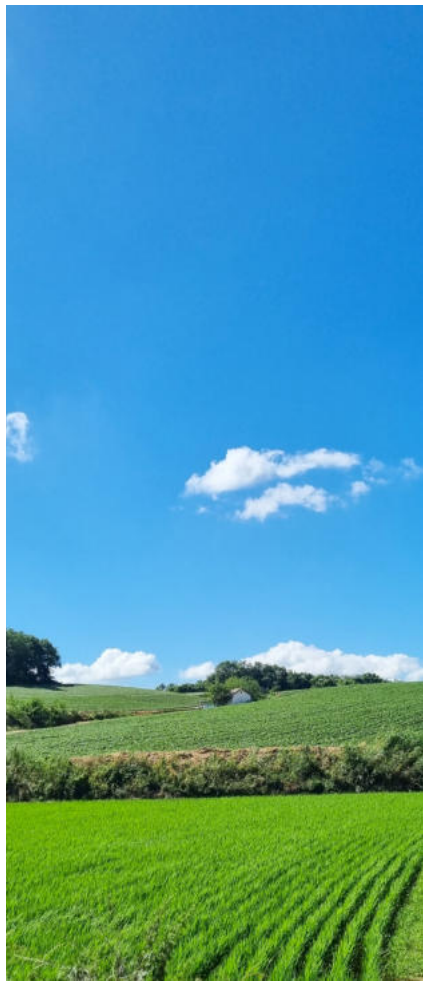
Q. 유기동물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궁금해요.

어렸을 때는 막연히 동물을 좋아해서 동물원이나 수족관에 가보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동물들이 갇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을 보며 그저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해 줘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만 잘 사는 것이 아닌 식물도, 동물도 잘 사는 삶이 제가 원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동물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어요.

'오보이!'라는 잡지를 통해 동물복지에 대해 알게 되었어요. 육식에 있어서도 생각이 바뀌었고, 특히 사람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동물들을 잘 돌보고 지키는 것도 동물을 위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 유기견을 입양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하며 가치적인 일에 도전하며 살고 있어요.







이더라고요. 넓은 들판이나 마당을 갖는 게 소원이었는데 도고에 오면 어디든 들판이 펼쳐져 있어 그 들판을 즐길 수 있어요.

그리고 도고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라 제가 원하는 대로 분위기를 잡아 꾸며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적당한 여백이 있어 저희가 원하는 청년이 주체가 되는 마을을 꾸릴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주민분들의 불편함에 대해서도 들으며 마을에 대해서 더 알게 되면 저희가 원하는 활동과 청년마을이 합쳐져 멋진 시너지를 낼 것 같은 확신이 생겼어요.

무엇보다 모두 도시에서 오랜 시간 살며 지쳐 있었는데, 친한 친구들과 함께 같은 동네에서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이 매력적이어서 모두 함께 하게 되었어요.

Q. 도고온천의 운영진으로 오게 된 과정은 어떠 한가요?

운영진 대부분은 대외활동을 하며 알게 된 분들이에요. 공통적으로 환경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마을 간의 순환시스템에도 관심이 많았어요. 친한 사람들과 이웃이 되어 살아도 좋겠다는 생각에 도고에 오게 되었어요.

또, 전 직장에 다닐 때 도고에 방문할 일이 있었는데 제가 꿈꾸던 자연이 있는 곳

Q. 한달살이 프로그램 진행과정이 궁금해요.

처음 한달살이 기획을 맡았을 때, 한달살이 프로그램 자체에 고민이 많았어요. 그러던 중 청년마을 합동 발대식에서 다른 청년마을 대표님들과의 이야기를 통해 많은 고민들이 해결되었어요.

'도고온천'이기에 '온천'을 콘텐츠화해서 진행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갖고 있었는데, 부담감에서 벗어나 하고 싶은 일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조언을 해주셨어요. 단기적이 아닌 지속적으로 사업을 이어 나가야 하기에 사업으로 유지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라고 말씀해 주셔서 그동안 느꼈던 '내가 하고 싶은 일'과 '한달살이 담당자로서의 일' 사이의



괴리감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하고 싶은 일을 해야 함께 하는 사람도 즐겁다는 말씀을 듣고 생각을 전환하게 되었고 방향성을 180도 바꾸게 한 큰 울림이 되었어요.

좋아하는 것을 하니 진정성이 드러나고 지속 가능성을 찾을 수 있었어요. 이전의 방식으로 진행을 했더라면 금방 지쳤을 텐데, 제가 하고 싶은 것을 이루기에 가장 적합한 지역인 도고에서 원하는 것을 하게 되어 즐기고 있어요. 평생 한 동네에서만 살다가 도고에 오게 되었는데 좋은 곳에서, 원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하니 두 번째 삶을 살아간다고 느껴 행복하고 스스로 환기가 되어가는 것이 느껴져요.

특색을 확실하게 갖추되, 좋아하는 것을 위주로 진행하고자 환경, 자연, 동물 등의 귀중한 자원을 살려 프로젝트를 진행했어요. 개인적인 성향으로는 채식이나 길냥이들을 위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싶어요. 도고에 유독 길고양이들이 많고 강아지를 위한 공간도 많아 동물 관련 프로젝트를 하기 적합한 곳이에요.

Q. 도고온천에서 지내면서 어떤 변화를 경험하셨나요?

원래 콘텐츠를 찾아다니는 것을 좋아해 콘텐츠가 모여 있는 서울에서 사는 것이 꿈이었어요. 하지만 좋아하는 것을 찾아가는 것보다 좋아하는 곳에서 좋아하는 것을 하기로 결심했어요. 도고온천 슬로건도 같은 의미로 'DO 시도하고! GO 살아보고!'로 짓게 되었어요. 타의로 일자리가 있는 곳에 찾아가는 청년들에게 좋아하는 곳에서, 좋아하는 것을 하며 자의적으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목표예요. 제가 도고에서 그런 삶을 살고 있기에 다른 사람에게도 권유하고 있어요. 운영진 중에서도 가장 먼저 도고에 정착하게 되었고 만족하고 있어 청년마을에 오는 새로운 청년들에게도 기쁜 마음으로 마을살이를 전하고 있어요.

제 성격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건강한 방법으로 인간관계를 가꾸어 나가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낯설었던 단체 생활이지만 도고온천을 통해 사회성과 여유를 배우며 스스로 좋은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 중에 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큰 두려움 없이 계획을 세우고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으니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희망을 갖고 앞으로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어요.

Q. 지역에도 변화가 있었을까요?

한달살이는 청년마을 이전에도 진행했어서 지역주민분들은 저희를 '한달살이 했던 친구들'로 기억을 하셨어요. 갑자기 도고에 많은 청년들이 와 당황하실 법도 한데 긍정적으로 바라보시고 청년들이 하는 일을 받아들이려고 해주세요. 초반에는 외부 청년들이 와서 마을을 돌아다니니 주변 환경이 달라질까 봐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은 먼저 마을을 소개해 주시고 도움을 주시려고 하세요. 청년들이 마을에 옴으로써 마을 주민분들의 일상에도 활력을 넣어드리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마을 행사에도 초대해 주셔서 많이 친밀해졌다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

청년들에 대한 수용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어 마을 주민분들도 저희의 사업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라시며 미래를 함께 그려나가고 계세요. 평소에 거래를 할 때도 단기가 아닌 앞으로 진행할 것까지 염두에 두고 거래를 하세요.

주민분 중 건물 무상임대를 제안하신 분도 계셨고, 동물을 주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씀드리니 농장을 구경시켜주시는 등 많은 도움을 주고 계세요. 아직 많은 가능성을 가진 도고에서 주민분들과 함께 도전하고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Q. 도고온천을 한마디로 한다면?

'DO 시도하고! GO 살아보고!' 도고온천의 슬로건. 그 자체가 가능한 지역이에요. 식물, 동물, 사람을 기반으로 원하는 삶을 꾸려 도고온천에서 시도하며 살 수 있기에 슬로건 자체가 도고온천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Q. 청년마을을 경험하지 않은 청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을까요?

초반에는 '새로운 경험을 하러 와보세요. 일상생활에서의 탈출을 위해서 청년마을을 경험해 보세요.' 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단순히 그러한 의도로 여유와 힐링만을 꿈꾸며 청년마을에 오라고 말하지 못할 것 같아요. 해야 할 일도 많고 생각보다 여유롭게 살 수는 없지만 도시에서는 누릴 수 없는 경험을 할 수 있다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나만의 '우물'을 파고 싶은 사람이 오는 곳이 청년마을이라고 생각해요. 삶 속 다양한 것을 경험하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마음으로 임하며, 로컬에 대한 어려움이나 변수 등에 모두 열려 있는 사람이 청년마을을 경험하여야 적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도고온천에 있는 사람들을 우물지기라고 불러요. 내 우물을 파고 싶은 의지가 있고 이를 통해 청년마을을 경험하고, 도전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물이 궁금한 사람, 자신만의 우물을 파고 싶은 사람, 다른 사람의 우물 물을 마시고 싶은 사람, 우물 안 개구리에서 탈출하고 싶은 사람 누구나 환영해요.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는 재미있지만, 실제 비즈니스로 모델화를 시키면 실패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여러 현실적인 이야기를 듣고도 청년마을에서 도전하고 싶은 사람들이 와야 한다고 생각해요. 열정을 가지고 관심분야를 어떻게 현실화시키고 지속 가능하게 만들지 치열하게 고민해요. 새로운 지역에 정착해



일하는 것이 쉽지 않고, 가진 것이 없다는 것에서 불안함도 와요. 하지만 저희는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소유할 예정이에요. 다 갖추고 시작하는 것은 청년마을의 취지와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방향성을 잃지 않고 원하는 대로 진행하면 다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요.



Biz Impact #14

어쩌다 군산에서 청주바 운영, 어쩌다 전통주 홍보대사

군산 청년마을, '술익는마을'의 박신영 청년 이야기

'한달만 청주바 사장' 팝업을 통해 전통주바 '수복'(叟馥: 쌀 씻는 소리와 향기)을 운영하고 있는 청년. 경험 삼아 신청한 술익는마을 프로그램 이후 어느새 군산에 정착해 전통주바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주의 고향 군산에서 전국 전통주를 취급하고 있으며 전통주가 사람들에게 생소한 만큼 더욱더 익숙해지도록 자신만의 서비스 방법을 찾아가며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 둘 단골손님과 지역의 재미있는 이야기를 만들어가며 더 깊이 군산에 "군며드는" 술익는마을의 박신영 청년입니다.

Q. '술익는마을'로 오게 되신 스토리가 궁금해요.

디자인과를 1년 휴학하고 저만의 브랜드를 만들고자 반 년 동안 이런저런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새벽에 SNS를 보다가 우연히 '술익는마을' 게시물을 발견했고 바텐더 쪽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던 차에 원하는 가게를 기획해 보고싶어 자연스레 지원폼을 작성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군산에 내려와 한달살기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한달만 청주바 사장' 팝업 가게까지 운영하게 되어 전통주바까지 운영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전공을 살려 기획, 디자인으로 지원했지만 사장님으로 직접적인 운영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가게를 운영하며 술에 대해 가장 많이 고민했고 '군산의 전통스러움을 살리자' 해서 전통주를 취급하게 되었어요. 그중에서도 군산과 전라남도 술 위주로 선택하고자 했지만 선택사항이 많지 않아 손님분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전국 전통주로 확장하였어요. 종류를 늘리다 보니 메뉴판 한 장에서 시작해 지금은 다섯 장이 되었습니다.

Q. 술 종류를 어떻게 늘리게 되셨나요?

한 달 동안 다양하게 마시고 바 테이블을 통해 손님들과 얘기를 주고받으며 피드백과 반응을 확인해 보며 늘리게 됐어요. 전통주라는 단어가 생소해서 희석식 소주를 찾으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전통주를 접하며 다양한 맛과 향을 좋아하게 되어 지금은 전통주만 찾으시는 분들도 생겼어요.

처음에는 한 부분만 맡았지만 지금은 한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으로서 책임감의 무게가 달라졌어요. 손님들의 반응에 민감하고 세세하게 신경을 쓰고 있어요.



Q. 전통주를 손님들이 더 접할 수 있도록 하는 '수복'만의 노하우가 궁금해요.

전통주의 경우 낯설게 느끼시는 손님들이 많아 취향에 따라 상세하게 추천드리고, 다양한 샘플러를 제공해 직접 조금씩 맛보며 선택하실 수 있도록해요. 이런 사소한 서비스를 통해 전통주를 더 친근하게 느끼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더 많은 손님들이 더 많은 전통주를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맛있는 술이 많고 숙취도 없어 전통주를 경험해 보신 분들은 모두 만족하세요. 맛있다고 피드백해 주시는 분들도 많아 뿌듯함을 느끼고 있어요.

Q. 디자인과를 나오셨는데 가게를 운영함에 있어서도 유용할 것 같아요.

저희 가게 관련 모든 디자인과 SNS 운영을 담당하고 있어요. 또 주변 가게의 명함, 포스터, 간판 등 생활 속 디자인물도 작업해드리고 있어요. 저는 디자인물을 제공하고 주변 가게 사장님들은 식사를 제공해 주세요. 상부상조하는 관계라고 생각해요.

과에서는 3D 산업디자인 쪽으로 수업을 많이 들었는데 지금 '수복'에서는 시각디자인 쪽이어서 작은 실수들을 하지만 직관적인 피드백을 받으니 역량도 빨리 강화되고 좋아요. 별개로 나중에는 직접 술잔 디자인을 해보고 싶어요.



Q. '수복'만의 감성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원래 사진 찍는 걸 좋아하고 뻔하지 않은 저만의 스타일이 있어요. 망원렌즈를 사용해 오브제 일부를 확대해 촬영하는 것을 좋아하고 색감을 어둡게 하여 빛을 드러내는 보정방법을 사용해요. 그런 특징을 활용해 틀에 갇히지 않은 수복만의 감성을 사진으로 표현했어요. 공연하는 컨셉의 사진에서는 공연하시는 분들의 특징과 소소한 재미를 녹이고 싶어 기타 피크를 치며 발을 까딱까딱하시는 모습을 담거나 공연 도중 막걸리를 마시는 모습을 표현했어요. 촬영할 때도 바닥에서 찍어 일부를 담거나 색다른 각도의 가게를 담아보려고 시도했어요.



또 가장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건 '술잔'이에요. 손님분들은 술잔 하나로 대접받는 느낌을 받으시기에 술 종류와 도수, 향에 따라 다양한 디자인으로 잔을 맞춤 제공해 드리고 있어요. 손님분들 반응이 너무 좋고 유대관계가 더욱 쌓여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서울에서는 익명성이 보장되고 개개인의 삶이 중요하지만 군산에서는 주변 가게 분들이 마감이나 퇴근하시면서 수복으로 찾아와 주세요. 각자 오셨지만 만나기로 했다는 듯 함께 모여요.

Q. 술익는마을 전과 비교했을 때 일상이 어떻게 달라졌나요?

코로나로 학교를 많이 못 가서 평범한 대학생들처럼 스터디 카페를 가거나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술익는마을에서는 다른 가게 사장님들과 함께 술 마시며 다양한 정보와 이야기들을 나눠요. 저는 아직 어리니까 항상 배우는 자세로 이야기들을 경청해요. 또 수복은 월요일이 휴무라 월요일엔 주변 가게로 투어를 다녀요. 평소에 저희 가게를 많이 방문해 주셔서 저도 많이 찾아갑니다.

수복의 메뉴 가격은 5천 원 미만으로 저렴하게 측정했어요. 퇴근하고 오뎅 하나에 술 한 잔 가볍게 먹다 가는 느낌으로 구성해서 혼자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혼술을 하기 위함보다는 말동무가 필요하신 분들 같아서 대부분 손님들과 술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이런저런 일상을 공유해요. 저는 그런 이야기들이 재미있어요.

Q. 가게를 오픈하고 겪었던 시행착오가 있을까요?

초반에는 술의 종류가 적어서, 그 다음에는 메뉴에 대한 요청사항이 많아서 고민이었어요. 술도 늘리고 메뉴도 된장 토마토 조림, 문어 초무침 등 다양하게 시도하며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손님이 한국적인 음식을 찾으신다면 두부 김치, 버터 새우구이 등을 새롭게 도전했고 지금은 바지락 술찜과 편육 등 메뉴를 개발해 보고 있어요.

그렇게 탄생한 저희의 메인 메뉴는 '맡김 차림'(사장님 마음대로 차리는 세트 메뉴)이에요. 웬만하면 종류가 정해져 있는데 만약 재료가 소진된다면 다르게 드리기도 해요. '술익는마을'을 통해 만난 요식업 종사자분의 도움을 받아 여러 요리를 배우고 있어요. 술익는마을에서 제 나이대에 절대 할 수 없는 많은 경험을 하고 있어서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더 늦게 복학을 할 것 같아요.

Q. 수복을 어떻게 더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신가요?

지금은 메뉴와 술에 생소함을 느끼시는 손님들을 위해 술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어 발전해 나갈 계획이에요. 보통 생각하시는 오뎅의 이미지와 저희 메뉴 속 오뎅이 다르고 저희처럼 다양한 전통주를 취급하는 가게가 많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더 익숙하게 메뉴판에 녹여 낼지 고민이에요. 메뉴만 보고 모르시는 분들은 쇼케이스에서만 몇 분이고 서 계시는데 손님분들이 '나에게 맞는 술'을 더 쉽게 찾아내고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방법을 찾고 있어요.



Q. 신영님에게는 술익는마을을 통해 개인적으로 어떠한 변화가 있었나요?

처음엔 전혀 정착할 생각이 없었어요. 프로그램 기간 동안 서로 익숙해지며 한 달 더 남아 팝업을 운영할지에 대해 자주 대화를 나누며 소통했고, 주변에서 이 나이에 할 수 없는 좋은 기회라고 해 한 달 팝업을 하기로 결정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한 달을 함께 운영해 보니 너무 재미있고 서로 계산적으로 대하지 않아서 가게를 잘 운영할 수 있었어요. 새로운 경험의 기회를 잡을 수 있음에 감사했고 그렇게 군산에 더 오래 있을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Q. 술익는마을을 한마디로 하자면?

'군며들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들 수도권에서 바쁘게 살다가 군산에서는 매일 술을 즐기고 아침마다 산책을 해요. 그리고 주변 할머니분들과도 사소한 이야기를 나눠요. 이런 부분들을 보고 크루 청년들이 군산에 정겨움에 빠져서 '군며들다' 워딩을 사용하게 되었어요. 막바지에는 '군며들었는데 가기 아쉽다'로 굿바이 인사를 하곤 했죠.

군산에 정착해 살아보니 지역 분들과의 직접적인 교류를 통해 또 다른 '군며드는' 경험을 하고 있어요. 이전에는 군산을 잠깐 스쳐 지나가는 좋은 곳이라고 느꼈다면 지금은 군산에 대한 솔직한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깊은 관계의 느낌이에요.

Q 청년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생각해 보고 경험하지 말고, 먼저 경험하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하나 따지면 안 맞는 부분들을 찾게 되는데, 그 시간이 너무 아까울 것 같아요. 일단 해보고 아니면 다른 것들을 또 시도해 봐도 좋을 것 같아요.



Biz Impact #15

'배스밤'을 통해 로컬의 향을 내다

강진 청년마을, '병영창작상단'의 김민지 청년 이야기

"게스트하우스를 오래 운영한 것은 관광객들의 행보를 최전방에서 볼 수 있었다는 뜻이에요. 천편일률적으로 명동, 남대문 등에 가서 화장품, 한국 과자 등을 사는 모습에 외국인들이 한국 지역의 특색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는 게 안타까웠어요."

서울에서 게스트하우스 9년, 파티룸 여러 지점을 운영하는 김민지 청년은 사업가답게 강진의 모든 것들이 사업 아이디어로 보인다고 합니다.

특별히 오랫동안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며 관광객들조차 알지 못하는 니즈와 페인 포인트를 발견해 더욱더 지역의 특색을 제품에 담아 알리는 것에 대한 갈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갈증 해소의 시작으로 강진의 청자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강진을 담은 배스밤 창작을 시작으로 국내뿐 아니라 해외까지 강진 및 로컬을 알리고 싶은 김민지 청년의 열정을 담았습니다.

Q.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강진에서 '피오니앤스와니' 라는 팀으로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6월부터 강진에서 시간을 보냈고 현재 강진에서 주거지원을 받아 3명이서 쉐어하우스 형태로 거주 중이예요. '병영창작상단'에 앞서 '넥스트 로컬'이라는 청년창업 지원 사업을 통해 강진을 알게 되었고 SNS를 통해 청년마을 사업을 접해 참여하게 되었어요.

Q. 청년마을의 어떤 부분이 와 닿았나요?

처음에 홍보물을 보고 '병영창작상단'에서 추구하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개인적인 사업으로 강진을 방문하며 1기 참여자분들에게 여쭤본 결과 주거 가능성을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이해했고 참여했을 때의 저의 모습이 궁금해졌어요. 알고 보니 대표님께서는 과제 형태로 프로그램이 진행될 것을 피하고자 사전에 알려주지 않은 채 초대하셨더라고요. 가능성을 열어 두었더니 열린 생각을 가진 다양한 청년들이 왔다고 생각해요.

Q. '병영창작상단' 청년마을 참여 계기가 궁금합니다.

'넥스트로컬'로 참여하게 되었지만 병영창작상단을 통해 '피오니앤스와니'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저의 1차 목표였고 공방 등 강진에 회사를 세우는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강진에서 사업을 하며 병영창작상단에 대해 알게 되었기에 청년마을 취지에 맞춰 정착을 염두해 참여해 봐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로 지속적인 활동을 위한 앞으로의 창작 가능성을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강진에서 사업을 하며 병영창작상단에 대한 정보를 접하게 되어 청년마을 취지에 맞춰 정착을 염두에 두어 참여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로 지속적인 활동을 위한 앞으로의 창작 가능성을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Q. 이전에는 어떤 분야에서 일하셨나요?

서울에서 관광업종에 오랫동안 종사했어요. 외국인 대상으로 게스트하우스를 9년 정도 운영했고 코로나 이후에는 파티룸 사업을 새롭게 시작해 현재 12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Q. 게스트하우스와 파티룸을 운영하시다 어떻게 굿즈 관련 사업을 생각하게 되셨나요?

게스트하우스 손님의 90% 이상이 외국인 손님이었어요. 외국인들이 한국에 놀러 왔을 때 어디를 방문하고 어떤 물건을 구매하는지 최전방에서 볼 수 있었어요. 천편일률적인 루틴으로 명동에서 화장품, 남대문 시장에서 인삼 그리고 롯데마트에서 한국 과자를 구매하더라고요. 관광객들이 한국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워 지역의 특징을 보다 쉽게 접하고 대중들이 많이 알 수 있도록 만들고 싶었어요.

지금은 힙하고 좋은 관광상품이 많아졌지만 아직 외국 분들에게는 정보가 부족하기에 알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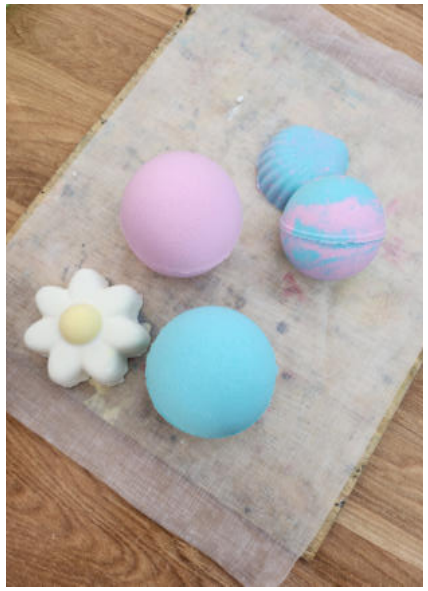
진 것만 구매할 수밖에 없어요. 다양한 지역에서 한국의 다채로움을 느낄 수 있는데 알려지지 않아 아쉬워요. 강진도 예쁘고 좋은 장소가 많지만 강진 주민들조차 잘 모르기에 지방을 알리고 접근성을 높이고 싶은 갈증이 컸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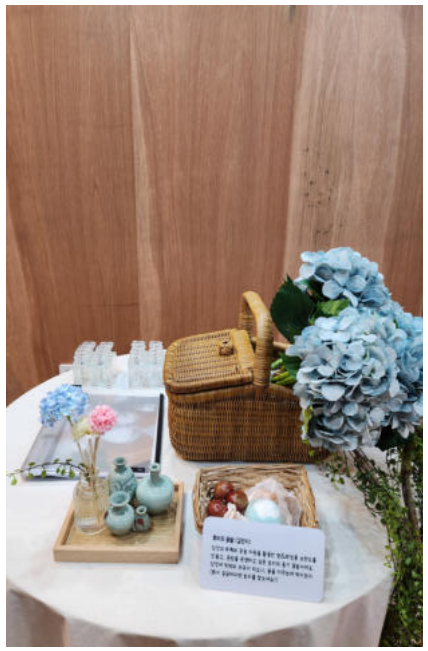
그때부터 굿즈에 대한 욕망이 올라왔어요. 지역 식품을 활용한 빵이나 과자도 있지만 고국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을 바랐어요. 그리고 한 지역에만 한정된 게 아닌 다양한 지역으로 확장되기를 바랐어요. 그래서 여행에서 많이 쓰는 배스밤을 떠올렸어요. 유통기간도 길고 고국으로 돌아가서도 한국을 느끼고 기억을 불러오는 모티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청자가 들어간 제품뿐만 아니라 강진에서 생산되는 원물을 사용한 제품도 기획 중이에요. 배스밤을 활용해 타 지역 관련 굿즈도 만들고 싶어요. 지역 기반으로 뻗어 나가 결국 한국의 모든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굿즈 개념의 배스밤이 되기를 꿈꿔요.

Q. 배스밤에 강진 꽃을 넣으려다 결국 강진의 다른 특색을 담았다고 들었어요.

1차적으로 강진 꽃과 추출물을 넣고 싶었어요. 하지만 꽃을 넣은 굿즈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인증을 받아야 해서 강진의 지역색을 입힐 수 있는 다른 방법을 모색했어요.

그때 강진이 청자로 유명한 곳이라는 게 떠올랐어요. 이 작은 지역에서 신기하게도 천년 넘게 청자 역사가 이어져 왔고 20년 넘게 활동하신 도예가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과 협업하여 소통하던 중 미니어처 청자를 배스밤 안에 넣어 제작하는 아이디어를 냈어요. 청자 박물관에서 신안 앞바다 출토 청자를 보며 욕조에서 청자를 건져 올리면 재미있겠다는 생각도 했죠.





Q. 강진 청년마을만의 특색이 있을까요?

병영창작상단 활동을 하며 지역 청년과 참여 청년들이 편하게 대화할 수 있었고 궁금증을 모두 해결해 주셨어요. 남에게 관심을 주지 않던 도시에서 '오지랖이 있는' 공동체에 오니 신기하고 재밌었어요.

뿐만 아니라 강진은 유독 따뜻하고 끈끈한 동네예요. 제 질문, 행동 그리고 하고자 하는 것들을 유심히 보시고 최대한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시는 것이 느껴졌어요. 정을 나누는 경험이 오랜만이어서 마음이 따뜻했고 강진에서 이루어지는 작은 교류들이 모두 재미있어요. 비록 창작자로서 강진에 갔지만 따뜻한 부분이 없었다면 정착하고 싶은 생각까지 들진 않았을 것 같아요.

Q. 청년마을 프로그램 및 함께 참여하신 청년들과 교류는 어떠셨나요?

저희 5명 중에 금속공예, 그림 등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고 자아 찾기를 하고 싶으신 분과 저처럼 강진의 관광 요소를 활용한 제품을 만들고 싶은 청년도 있었죠. 2주살이 후에 함께 결과물을 내야 해 강진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전시를 하기로 결정했어요.

'남상살롱' 공간에 세계관을 넣은 전시를 열었어요. 강진을 체험할 수 있는 '용기마을'에 '까진'(까치와 강진이 합쳐진 이름)이가 여행을 오는 컨셉으로 참여 청년들은 강진에 사는 캐릭터들로 콘셉트를 설정했어요. 저는 강진의 꽃을 사랑해서 그 꽃을 활용해 배스밤과 향수를 만들고 싶어 하는 '토리'라는 토끼였어요. 그 외 한 분은 금속 와이어 공예를 활용해 강진의 풍경을 액자로 만들어 전시했고 마을 이름이 적혀 있는 비석에 관심을 가진 청년은 강진의 오브제들을 활용해 모빌을 직접 만드는 체험을 제공했어요. 저희가 하고 싶은 사업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이 과정을 혼자가 아닌 5명이 함께 강진 주민들과 공유하고 교류할 수 있어서 의미가 있었어요. 전시가 짧아 아쉬움을 느끼시는 동시에 좋아해 주셨고 강진을 알리는 활동을 하는 청년들이 있다는 것을 알릴 수 있어 뿌듯했어요.

정해진 기간 내 결과물을 내는 것이 힘들었지만 그만큼 의미가 있었어요. 원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판매하려 했는데, 강진 사람들도 배스밤, 향수 등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 이번 기회를 통해 강진에 회사를 내고 공방을 만들 때 강진 주민분들을 타겟층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배스밤의 제조 과정도 궁금해하셔서 나중에 클래스를 열어 소통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Q. 참여 전후의 변화가 있을까요?

'넥스트로컬'로 강진을 갈 때는 출장 느낌으로 짧게 다녀왔는데 처음으로 길게 머물며 강진에 살면 어떤 느낌일지 간접적으로 체험하였어요. 거리도 멀고 연고도 없는 곳에 정착하는 것을 고려한 적이 없는데 지금은 강진에 교류할 집단이 생겨 긍정적으로 생각이 변화하였어요.

Q. 앞으로의 꿈과 계획을 말씀해주세요.

강진에 사업체를 설치하고 공방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러쉬Lush'도 시골에서 작은 회사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세계적인 기업이 된 것처럼 강진을 기반으로 한국을 알리는 브랜드를 만들고 싶다는 꿈을 갖게 되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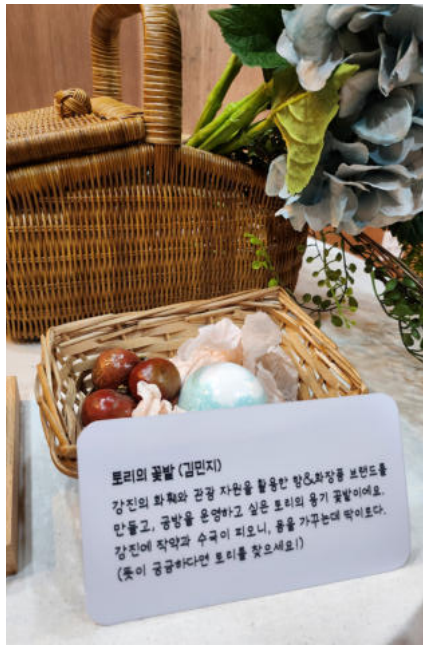
그리고 병영은 마을 전체가 문화유산이에요. 예전에 하멜이 표류했다가 강진으로 유배 와서 돌담벽을 쌓았는데 그 돌담벽이 마을 유산으로 남아있어 동네가 정말 예뻐요. 강진군에서는 동네를 관광자원화하려는 생각으로 빈 집들을 활용해 마을 호텔 등을 세울 것 같아요. 집이라는 공간이 활용하기 나름이니 공방, 클래스, 카페 등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강진을 체험해 보고 싶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짧게 워케이션 할 수 있는 공간을 운영해도 재미있겠다 싶어요. 지역 거주가 그저 단절되는 것이 아닌 또 다른 공간과 도시를 체험하는 콘텐츠라고 느꼈어요. 보통 시골에서 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도시와 전혀 다른 걸 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해요. 직접 체험해 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부분이죠.

Q. '병영창작상단'을 한마디로 한다면?

'가능성'이란 단어가 적절한 것 같아요. 처음부터 확신을 가지고 참여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의 가능성을 찾을 수 있는 곳 같아요.







Q. 아직 로컬을 경험하지 않은 청년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려요.

꼭 강진이 아니라 다른 청년마을도 가보면 알게 되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해보고 좋으면 그 가능성을 열어 두는 기회를 얻는 장이 될 수 있어요. 가볍게 새로운 것을 해보고 싶고 일상에 환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괜찮은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정착으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그 지역과의 관계를 맺는 첫 단추가 될 수 있어요. 또 제가 빈 집 사업을 알게 된 것처럼 다른 것들을 발견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혼자가 아닌 비슷한 생각과 방향성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도전을 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에요.

저는 국내, 해외 국한되지 않고 강진에 많은 사람들이 방문했으면 해요. 한국 사람이 아니라 외국인들에게도 청년마을 사업과 강진이 많이 알려져 관광과 연계해 '한국 지역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 등이 진행됐으면 좋겠어요. 관광 쪽으로 연계해 '한국 지역에서 살아보기'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해도 좋을 것 같아요.



Biz Impact #16

하동의 '차'로 하동의 인구 소멸을 '방해'하는 청년 '차 이야기꾼'

하동 청년마을, '오히려하동'의 김완준 청년 이야기

"하동에서 청년들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원래 하고 싶었던 일들이어서 함께 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다시 돌아온 하동에서 '차'에 대한 지식과 보고 들은 차 이야기들을 통해 하동에 활기를 불어넣으며 하동의 아름답고 역사가 깊은 '다원'을 널리 알리는 꿈을 품고 일상을 살아갑니다. 아버지와 함께하는 다원 '도재명차'를 운영하고 있는 김완준 청년입니다.

Q. 어떻게 '오히려하동'에 오게 되셨나요? 원래 어디서 머무셨어요?

하동에서 태어나 관광을 전공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전선에 뛰어들기 전 모든 것을 시도해 보고자 2년 동안 호주에 워킹홀리데이를 다녀왔어요. 호주에 있으며 SNS를 통해 하동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게 되었는데 다른 지역의 청년들이 하동에 와서 다양한 활동을 하는 모습과 그에 따른 결과물들을 보니 함께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혼자서는 시도하지 못할 것을 다른 청년들이 하고 있으니 함께 하면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Q. 관광에 관심을 가졌던 이유가 궁금합니다.

해외여행을 좋아하시는 아버지와 인도에서 요가를 공부하셨던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 중학생때부터 여행을 좋아했어요. 성인이 되고 자연스럽게 여행하면서 돈을 벌고자 관광과에 진학을 했어요.

지금은 하동에서 아버지와 같이 '차'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지만 차를 활용한 관광 상품을 만들어 운영하는 방향도 생각하고 있어요.

'오히려하동' 청년들을 만난 후 관련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친구들이 많아져 차와 관광을 접목시키는 사업이 점점 구체화되어 가고 있어요.

Q. 다양한 차를 경험할 수 있게 하는 장소가 있을까요?

하동에는 차 농가가 100여 곳이 있고 '다원'(차를 만드는 곳)이 40여 곳이 있어요. 다원마다 차 맛도 다르고 개성이 다양한데 보통 잘 모르고



SNS에서 유명한 장소만 주로 가기 때문에 보다 다양한 다원 체험을 제공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희 집 차실 옆에 아버지께서 사랑방 기념으로 만드셨던 빈 공간이 있어요. 하동에 오면서 아버지와 같이 숙소를 운영하고 다음 날 옆 차실에서 차를 마실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서울이나 외국에서 오신 대부분의 고객분들이 좋아해 주셨어요. 다원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홍보 쪽으로 취약하셔서 관광객들이 좋은 곳을 찾기 어려워요. 그래서 홍보를 청년마을의 젊은 청년들이 많이 도와드리고 싶어요.

Q. 여기 방문하시는 분들은 어떤 부분을 보고 오시나요?

대부분 숙소를 보시고 힐링 하러 오세요. 저희 집도 숙소만 보고 오셨다가 차 마시는 체험을 통해 색다른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직 차를 테마로 여행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아요. 하동에 차로 된 좋은 소스들이 많은데 잘 알려지지 않아 안타깝고 많이 알리고 싶어요.



Q. 친구들을 보면서 다양한 사업을 같이 해볼 수 있겠다 하셨는데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하동에서 행정의 도움을 받아 다원들과 협업해 여행 프로그램을 만드는 청년이 있어요. 그 청년이 코로나 시기에 몇 차례 진행했고 올해 제가 그 청년을 알게 되어 '차'로 잡은 여행상품을 개발하는 일을 하였어요. 저는 누군가가 하고 있으면 함께 하고 싶어지는 것 같아요.

커피 마시러 가자는 말은 쉽지만 차 마시러 가자는 이야기는 어려운 느낌이 들어요. 다원에서는 '팽주(烹主, 차를 우려 주는 사람)'가 차를 소개해 주고 따라주지만 차를 처음 접한 분들은 어떻게 우려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정보를 얻는 방법도 어려워 '오히려하동' 청년들과 이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차 샘플과 차에 대한 설명이 있는 이야기 카드를 넣은 패키지를 구성했어요.

옛날부터 생각은 많이 했지만 전공이 아니다 보니 예쁜 디자인, 홍보 그리고 고객들에게 전달하는 방식 등을 실행하는 것이 힘들었어요. 관련된 회사도 하동에 없으니 온라인으로만 소통할 수 있었는데 '오히려하동' 청년들이 회사를 차림으로써 오프라인으로 소통하며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에 참여한 마을 중에 하동은 정말 청년들이 필요한 지역인 것 같아요. 청년들이 밖으로 나가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회사가 없어서'예요. 청년들을 위한 회사가 필요하고 일을 해야 하는 곳이 군 단위의 지역이에요. '오히려하동' 청년마을을 계기로 많이 생겨나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Q. 차에 대한 이야기가 궁금해요.

옛날 하동 사람들은 끓는 주전자에 홍차, 똘배 그리고 사카린을 넣는 '고뿔 차'를 만들어 감기 걸렸을 때 약 대용으로 많이 드셨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차는 녹차나무, 홍차 나무 등 여러 가지 나무로 만드는 줄 아시는데 하나의 찻잎으로 6종류의 차를 만들 수 있다는 차의 다양함을 알려드리고 고객분들이 좋아하는 기호에 맞춰 차를 마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고 싶어요.

사실 현대인들에게는 빠르게 움직이는 사회 속 한 템포 쉬어 가는 차 마실 여유가 필요해요. 커피보다는 차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요즘은 서울에서도 차 전문 카페가 생기며 트렌드가 변하고 있어요.

Q. 오히려하동 프로그램 참여하셨을 때 어떤 부분이 좋으셨나요?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동에 소통할 수 있는 장이 생긴 것이 가장 좋아요. 통계상 하동 내 청년 인구가 1천 명이지만 실제로 소통하는 청년들은 '오히려하동'뿐이에요. 그리고 직접 겪어보니 청년들의 전공 분야가 다르기에 하동에 있는 농가들에게 정말 필요한 다양한 역량들을 갖추고 있어요. 청년마을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청년들이 모였다는 것이 감사해요. 다양한 시도를 통해 하나 둘 정착한다면 '인구 소멸을 막을 수는 없어도 방해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동은 장점이 많은 지역이에요. 청년들이 창업을 하거나 '다른파도'처럼 회사를 차리면 더 특색있어 보일 수 있어요. 경쟁자가 많은 도시보다 오히려하동이라는 블루오션에서 일을 시작하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Q. 오히려하동이 지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계획을 세우는 중이시더라고요.

청소년들이 미래의 청년들이니 성인이 되어도 하동에 정착할 수 있는 계기 또는 기반을 깔아주는 것이 청년의 책임이라고 생각했어요. 좋은 본보기가 되는 것만으로도 그 친구들이 자연스럽게 고향에 남거나, 떠나더라도 돌아올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해요.

Q. 하동에서 일상은 어떤가요?

처음 하동에 왔을 때는 해외 생활에 대한 향수병이 있었어요. 할 일도 없는 하동에 온 것을 후회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오히려하동' 청년들을 만나면서 하동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많다는 것을 느꼈고 지금은 카페 공사를 하면서 더 바쁘게 지내고 있어요. 또 하동에 있는 자원들을 활용해 관광 상품 등 다양한 것들을 개발하는 아이디어들을 떠올리고 있어요.

만약 서울과 같은 도시에서 회사에 취직을 한다면 할 수 있는 일이 한정되어 있는데 하동에서는 다양한 일들을 선택할 수 있고, 하고 싶은 일들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요. 하동은 언제나 청년들의 손길이 많이 필요하고 그것을 기다리고 있어요.





Q. 카페를 언급하셨는데 어떤 카페를 공사하고 계시나요?

하동에 많은 한옥집 중에 하나를 카페로 리모델링하고 있어요. 실내에서 여러 음료를 판매하고 마당에서는 한 달에 한 번 혹은 보름에 한 번씩 '차' 관련 행사를 진행하려고 준비 중이에요. 안에서 차 마시는 것과 밖에서 밤공기와 함께 차 마시는 것, 또 어느 도자기에 마시는지에 따라 차 맛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차'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로 하동의 차가 많이 홍보되었으면 좋겠어요.

Q. '오히려하동'을 한마디로 한다면?

'오히려하동은 혁명이다' 이런 센 단어를 쓰고 싶을 만큼 아무도 시도하려 하지 않았던 것들을 도전하며 나아가는 '오히려하동'을 저는 혁명이라고 생각합니다.

Q. 앞으로의 계획 또는 꿈에 대해 이야기해주세요.

현재 아버지와 함께 운영하고 있는 "도재명차(荼在名茶)" 브랜드는 씀바귀 '도(荼)'자를 사용하여 '옛날 전통차'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최종적인 목표는 저희 브랜드를 '차' 대기업으로 성장시켜서 하동의 '차'를 세계적으로 널리 알리는 것이에요.

하동 차는 다른 차 브랜드들과 차별점이 있어요. 특히 하동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첫 차를 심은 시배지(식물 따위를 처음으로 심어 가꾼 곳)이자 경사진 곳에 야생차로 심어져 있어 기계가 아닌 할머니들이 직접 손으로 차 밭을 가꾸시고 솥에 덖는 옛날 전통 방법으로 차를 만드세요. 그러다 보니 하동 차는 고급스러워서 세계 시장에 고급차로 수출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요. 요즘은 K-Pop 열풍도 있으니 오히려 더 강점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지냈던 호주 '퍼스'(Perth)라는 지역은 호주가 커피로 유명함에도 불구하고 개인 카페의 개성이 강하고 인기가 많아 스타벅스 같은 대형 프랜차이즈들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하동에 있는 차 다원들이 퍼스의 개인 카페와 같다는 생각을 해요. 차 밭에 따라 제조 방법, 맛, 재배 환경이 다 다른 강점을 가지고 있으니 충분히 가능성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개인적인 목표는 하동을 제가 가장 좋아하는 여행지인 제주도처럼 만들고 싶어요. 제주도는 카페나 게스트하우스가 많아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한 달 살기를 하지만 하동이나 다른 지역은 오히려 비용을 제공하며 한 달 살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그래서 젊은 백패커들, 타지 청년들이 '내돈내산'으로 하동에서 직접



살아보고 정착까지 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하고 싶어요. 지금은 청년들이 하동을 직접 경험하고 느낄 수 있도록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Space Impact

각 지역만이 가지는 각양각색의 모습, 청년의 손길로 새롭게 가치가 부여되다

한반도의 끄트머리, 네버랜드로 만들다
신안 주섬주섬마을, 이찬슬 대표

트레커들의 축제 마을, 트레커들의 성지
영덕 뚜벅이마을, 설동원 & 장명석 대표

감포의 가자미 하나로 문화공간을 만들다
경주 가자미마을, 이미나 대표

드넓은 대자연 공간, 청년들의 힐링 메카로 탄생
예천 생텀마을, 강수원 팀장

'예술 노마드'들을 위한, '예술 노마드들'에 의한 예술인 마을무대
태안 오락발전소, 홍세환 대표

'화개장터 나룻배 정신'을 가진 Z세대의 다양성이 모인 지역
하동 오히려하동, 이강희 대표

창작이 '대책 있는 미래'가 되는 어나더랜드
강진 병영창작상단, 전지윤 대표

작은 술 비즈니스들로 연결해 이루는 '술(익는)마을', '로컬 생태계'
군산 술익는마을, 조권능 대표

할머니의 요리와 인생 레시피, 공간으로 탄생되다
함양 고마워,할매 박세원 대표





Space Impact #1

한반도의 끄트머리, 네버랜드로 만들다

신안 청년마을, '주섬주섬마을'의 이찬슬 대표 이야기

[흑백 샛방에 색깔을 더하다]

주섬주섬마을이 정착한 와우마을은 갯벌과 바다가 있는 안좌도 끝에 있는 섬이다. 자그마한 섬에서 처음 시작한 일은 지역에 어려운 분들의 집을 고쳐드리는 것이었다. 혼자 사는 어르신들의 집을 고쳐드리면서 얻은 샛방을 시작으로 다른 공간을 점유할 가능성이 점차 눈에 들어왔다. 귀신의 집이라고 소문이 나 아무도 가까이하지 않는 허름한 공간에 큰 고민 없이 들어갔다. 귀신의 집은 게스트 하우스로 재탄생했고 틈틈이 어르신 집을 고쳐드리며 받은 샛방은 일할 수 있는 공간, 조그마한 홈 오피스로 조성되었다. 빈 창고는 정착 청년들의 예술 작품으로 가득 채워 미술관으로 탈바꿈했고 쓰레기장과도 같았던 공터는 캠핑장이 되었다.

청년들은 창고 공간을 빠른 속도로 변화시켜 나갔다. 반려동물과의 여행을 콘텐츠로 신안 여행 인스타툰 캐릭터 굿즈들을 전시하는 편집숍과 누구나 자신만의 프린팅 제품을 만들어볼 수 있는 실크 프린팅 공방이 생겼다. 직접 작업하며 버려진 작품을 모아두는 '해적의 화실'과 음악을 제작하고 앨범을 구매할 수 있는 '713스튜디오'가 자리했다. 소멸 위기 마을의 유일한 책방 '우실문고' 등의 공간을 구성했고, '우실동물숲' 대표 미술관에는 그동안 주워 모았던 버려진 청년 예술가들의 작품을 전시하였다.

영화 '해치지 않아'에서 영감을 받아 학교의 놀이터, 운동장, 도서관은 멸종 위기 열대 조류 체험관 '앵무새 놀이터'와 초대형 육지거북 사장 '거북이 운동장', 희귀 도마뱀 체험관 '드래곤 도서관'으로 구현됐다. 앵무새 트레이너였던 이찬슬 대표의 오랜 꿈, 동물원도 마을 한 켠에 자리하게 됐다. 아프리카,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대륙에 사는 열대 앵무새들을 들이고, 거북이들을 데려와 초대형 운동장을 만들고 동물들을 위한 먹거리로 가득 채웠다.







[폐교를 치유의 공간으로]

이찬슬 대표는 생태관광 테마파크 '우실동물숲'이 만들어가는 이야기에 대해 애정이 굉장하다. 애정만큼이나 거침없이 모험해 나갈 자신감도 충분히 있다. 편의점과 카페가 없어 불편함을 느꼈던 방문객들을 위해 감각적인 카페를 만들어 신안의 여유로움을 향유할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우실동물숲 2층 공간은 키즈카페 콘셉트의 동물 카페를 조성하여 동물 테라피 프로그램을 통해 동물 먹이 주는 체험을 할 수 있고, 청년이 동물 캐릭터로 만든 굿즈도 함께 구매할 수 있는 공간을 구상 중이다.

궁극적으로 마을의 모든 공간은 동물의 시선에서 그들을 이해하고 그로부터 진정한 힐링을 경험하는 방향으로 이어진다. 단순히 어떤 자연물과 연계된 힐링 워케이션이 아닌, 앵무새와 한 달 살아 보기 등 애니멀 테라피(animal therapy)를 중심으로 한 교육형 생태관광지와 이색적인 워케이션을 만드는 것을 꿈꾼다고 이찬슬 대표는 덧붙였다.

인간과 동물은 서로 치유를 주고받으며 공존할 수 있는 관계다. 우실은 해풍으로부터 마을을 지키는 돌담과 나무를 뜻한다. 바람을 막는 우실처럼 주섬주섬마을은 안좌도의 쇠락을 막는 방풍림이자 멸종 위기 동물들의 포근한 보금자리가 될 것이라며 굳은 의지를 다진다. 바다 건너 주섬주섬마을의 '우실동물숲'을 찾을 모두에게 동물과의 깊은 교감, 그리고 거기서 오는 따뜻한 치유는 잊지 못할 선물이 될 것이다. 오늘도 주섬주섬마을의 '상상을 이뤄내는 이상주의자들'은 넘어지고 일어서기를 반복하며 진정한 '주토피아'로의 걸음을 내딛고 있다.



Space Impact #2

트레커들의 축제 마을, 트레커들의 성지

영덕 청년마을, '뚜벅이마을'의 설동원, 장명석 대표 이야기

두 대표는 2017년 '메이드인피플'이란 로컬 콘텐츠를 개발하는 청년벤처를 시작하여 홍보, 마케팅과 행사 위주의 일을 해왔다. 일을 하면서 직원들이 공통적으로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하게 되었고, 어렵지 않게 찾아낸 것이 바로 '걷는 것'이라고 한다. 그렇게 시작된 '트레킹' 활동으로 2021년 청년마을 사업을 통해 뚜벅이마을 구성원들은 영덕이란 지역에 매력을 더할 뿐 아니라, 대한민국 트레킹의 성지로 만들고자 하는 꿈을 꾸게 되었다.



[영덕을 한국의 산티아고로]

영덕을 대한민국 트레킹의 성지, 국내에서 가장 걷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 '걷기'에 진심인 뚜벅이마을 청년들. 이를 이루기 위한 계획들을 현재 하나하나, 뚜벅뚜벅 세워가고 있다.

미국의 3대 장거리 트레일 중 PCT(Pacific Crest Trail), 약 4,300km 되는 트레일 3분의 2 지점에 트레커들이 모이는 '천국'이라는 곳이 있다. 그곳은 트레커들이 오랫동안 모여 파티하는 곳이다.

뚜벅이마을 청년들은 작년 청년마을 사업을 통해 진행했던 '뚜벅위크'를 시도하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로컬, 그리고 걷는 것에 매력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트레킹'에 더 확신을 얻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트레킹 관련 프로그램들을 구상 중에 있다.

현재는 트레킹 관광이 당일 치기, 단기 트레킹 관광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앞으로는 6박 7일 정도까지 생각을 하고 있으며 전국에 펼쳐진 트레커들과 다른 지역에 있는 청년마을들과 협업하여 지역마다 길을 연결해 같이 지역을 걸으며 관광하는 대장정의 프로그램을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영덕의 역할은 국내 최대 규모의 걷기 축제를 여는 장소로 만드는 것을 꿈꾸고 있다.

현재 게살김밥집으로 운영하는 '덕스'도 김밥집에 국한된 것이 아닌, 앞으로는 PCT 3분의 2 지점의 트레커들의 천국처럼, 트레커들의 거점 공간으로 숙식이 해결되고, 긴 트레킹의 하루 끝에 시원한 맥주 한 잔을 할 수 있는 펍의 역할과 트레킹의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공간을 여러 개 만들어 뚜벅이 청년마을만의 공간을 꿈꾸고 있다.

이뿐 아니라, 나이키 런 Nike Run과 스트라바 Strava와 같은 GPS 기록을 공유하는 앱을 현재



준비중에 있다. 앱의 첫 대상은 뚜벅이마을을 기존에 이미 경험한 약 천명의 참여자 대상으로 앱을 통해 프로그램 신청 및 기타 인증 프로세스를 설정해 사람들을 유입시킬 예정이다.

이처럼 실질적으로 트레킹에 관심을 가지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가며, 뚜벅이마을, 즉 트레킹을 통해 재정적으로 유지가 되어 트레킹에만 집중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는 것이 목표이다. 트레킹을 기점으로 사업을 확장시켜, '트레킹'이란 요소로 로컬을 브랜딩 하는 것이 이들의 목적이며 현재 풀어나갈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더불어 청년들 외에 초중고 학교와 연계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장정을 시도하고, 더 나아가 해외 커뮤니티로 진출해 외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와 트레킹 관광을 즐기는 콘텐츠도 기획하고자 한다. 현재는 국내에 들어와 있는 교환 학생들을 타깃으로 하고 있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청년마을을 글로벌화 시키는 데 있어 뚜벅이마을이 그 역할을 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트레커들의 성지]

트레킹은 이에 참여하는 청년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들의 삶에 활기와 의미를 가져다주며 청년들이 꿈꾸고 원하던 것에 도전하고 실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영덕에서는 청년들이 트레킹을 하며 처음으로 원하는 일을 할 수 있고, 도시에서 바쁘게 홀로 달리는 청년들에게 천천히 걷는 속도로 살아가는 또 다른 삶의 방식을 제시하며, '걷는 것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게 한다.

단순 트레킹만 있는 것이 아닌 함께 걷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며, 또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동시에, 걷는 행위 자체에서 경험할 수 있는 삶에 대한 영감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다.

미국의 트레커들의 성지는 길이 아름다워서, 고르고 쉬어 갈 수 있어서 '천국'이라 불리는 것이 아닌 사람들이 모여 함께 즐기며 이야기를 만들어가기에 유명해졌다.

2021년 '뚜벅 대장정' 참가자는 "여러 걷기 프로그램에 참여했지만 뚜벅대장정에서 만난 참가자들과는 유독 오랫동안 친분을 유지하고 있다. 다 같이 누워 밤하늘의 별을 보던 날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라고 말했고, 또 다른 참가자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며 나에 대해 알게 되고 전에 없던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뚜벅이마을의 트레킹은 이러하다. 혼자가 아닌 여럿이 함께 속도를 맞춰 걷는 것, 그리고 그 지역 구석구석에 이야기를 남기는 것.

메이드인피플은 결국 전국을 트레킹 코스로 연결하려 한다.지금의 영덕에서의 축제는 그 시작에 불과하다.

그럼, 같이 걸어볼래요?



Space Impact #3

감포의 가자미 하나로 문화공간을 만들다



경주 청년마을, '가자미마을'의 이미나 대표 이야기

감포항이 개항한 지 100년. 번성했던 과거와 달리 지금의 감포는 어획량 감소로 지역 분들의 주업이 부진해졌고 마을도 조금씩 쇠퇴했습니다. '주식회사 마카모디'의 이미나 대표는 문화와 공간들은 과거에 잘 살았던 기억에 머물러 있지만 젊은 청년들이 떠나고 거의 남아있지 않는 감포를 보며 새로운 청년들을 유입하여 감포의 문화와 공간을 새롭게 탄생시키는 방향성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역 자원의 가치와 연결해 스토리와 새로운 문화들을 만들어 간다면 축제 같은 새로운 일들이 이루어지고 마을에 생동감이 넘칠 거예요."

그렇게 한 마을이 탄생해 불이 꺼져 있던 골목에 불을 밝히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가자미마을' 청년들 그리고 이미나 대표입니다.



Q. 감포 1925의 탄생이 궁금해요.

저희가 처음 감포에 왔을 때 적산가옥 거리에 30년 동안 문 닫혀 있는 목욕탕이 있었고 이 공간을 함께 재생하는 활동을 지역주민들께서 제안해 주셨어요. 어떤 분들은 오래된 건물을 깨끗하게 정리해 새 건물을 예쁘게 짓고 싶다고도 하셨지만 저희는 100년 정도 된 건물의 가치들을 잘 이해하고 살리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저희 말에 동의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손 내밀어 주셔서 공간을 재생하고 바꾸며 하나씩 만들어가고 있어요. 지금은 카페를 겸한 감포를 소개하는 앵커 공간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Q. 지역분들이 이 변화와 새로운 발전에 대해 수용하시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네. 초반에 청년들이 들어와 적극적으로 지역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줄 수 있다는 걸 공감해 주시는 몇 분들이 계셔서 지역에 들어와 활동할 수 있었어요.

저희는 수요일마다 지역 분들과 함께하는 '문화로 목욕하는 날' 이벤트를 진행하고 지역 분들을 인터뷰하며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어요. 또한 인터뷰한 분들을 청년마을 프로그램에 강사로 초청해 참여 청년들이 지역 이야기를 듣고 일터에 직접 가서 체험할 수 있도록 연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는 '가자미 원정대' 1박 2일 프로그램을 진행해 가자미 배낚시, 새벽 어판장 그리고 지역에 계신 분에게 가자미 요리도 배워보는 시간 등 감포를 경험해 볼 수 있는 것들을 기획하고 있어요.

'가자미 원정대'는 여행하듯이 관광지를 구경하는 것이 아닌 가자미라는 콘셉트에 맞춰 감포 사람들이 사는 삶의 일부를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런 작은 발걸음들이 나중에 이 마을이 변화되었을 때 다시 돌아보면 저희가 먼저 찍었던 발자국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청년마을처럼 저희가 하는 모든 것들이 개척자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Q. 가자미마을은 어떤 공동체인가요?

전국으로 차박 여행을 다닐 정도로 여행하는 걸 좋아하는 청년들이 모였어요. 저희는 같이 확 불태우는 이벤트, 행사, 축제 등을 좋아하는 팀이에요. 이런 모습을 보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청년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놀다만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공간에서 쉬며 우리 마을에 적용할 수 있는 많은 인사이트를 얻어올 수 있음을 알기에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어요. 항상 삶과 놀이, 여행이 공존할 수 있다면 너무 좋겠다고 생각해요.

저는 가자미마을이 청년들에게 여행을 갔다 돌아올 수 있는 베이스캠프, 제2의 고향 그리고 세컨드 하우스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계를 다니며 다른 곳들을 경험하고, 이곳으로 돌아와서는 재미있는 프로젝트와 실험들이 많이 이루어지길 기대할 수 있는 곳. 그래서 저희는 '실험공동체'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어요.

Q. 티베트와 인도 경험이 가자미마을을 운영하는데 어떤 도움이 되었나요?

인도에서의 여행 프로그램은 인도를 둘러보는 것이 아닌 새롭게 멋진 이야기들을 그려 나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여정이었어요.

남인도에서 '인류의 진화'를 테마로 하는 공동체, '오로빌(Auroville)'이나 식샨타르, 베어풋 칼리지 등에서의 경험이 용기를 준 것 같아요. 감포에서 지역을 개척지로 생각하고 '새로운 프로젝트들을 실험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방식보다는 안 해봤던 방식을 시도하고 지역에서 어떻게 녹여낼 수 있을지 항상 고민해요.

'가자미 식당' 같은 경우도 말 그대로 식당으로만 맞춰서 준비하는 것이 아닌 '실험 주방', '쇼룸', '포럼' 그리고 사람들이 모인 '센터' 등 저희에게 주어지는 작은 공간을 사람들에게 다채롭게 보여줄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하게 되었어요. 이런 요소들이 매력적이다 보니 청년들도 정착하게 되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Q. 가자미마을 라이프스타일을 나타내는 '리얼 버라이어티 빌리지'가 궁금합니다.

단순히 '청년들의 지역 정착, 주민들과의 교류, 숙소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청년마을'로 사업 관련 소개를 하기보다 재미 요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리얼 버라이어티, 즉 '예능'을 모티프로 참여청년들이 주인공이 되는 '리얼 버라이어티 빌리지'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청년들이 온라인으로 영상을 보고 가자미마을에 생활에 대해 미리 그림을 그리며 같이 모여서 '어쩌다가자미 편 봤어?' 이렇게 재미있게 대화할 수 있는 요소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결국 저희는 함께 예능을 만들어 갈 크루를 모으고 있는 거예요. 지역에서 F&B, 영상과 사진, 디자인 등을 해보고 싶은 친구들, 아직 뚜렷한 재능을 못 찾았지만 이것저것 다 해보고자 열정을 가진 청년들 모두 필요해요.



Q. 마을 주민들의 반응은 어떠세요?

요즘 가장 좋았던 부분은 식당 주인분, 말린 오징어를 갖다주시는 앞집 슈퍼 사장님처럼 저희를 보고 더 친근하게 인사해 주시는 분들이 생활 속에서 많아졌어요. 특히 가자미를 활용한 다양한 요리를 선보이는 상반기 '소셜 다이닝'에 주민분들을 초대했는데 저희가 하는 일들을 새로운 시도로 인정해 주시고 좋아하셨어요.

기존의 것들을 추구하시는 분도 계셨는데 그 반응을 보고 이전 것과 새로운 것을 잘 맞춰가는 것도 하나의 과제와 필요 요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작은 시도들을 통해 청년들이 언제 다시 오는지, 다음은 언제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늘어났고 앞으로의 활동을 기대하시는 모습도 보여주셔서 저희는 긍정적은 희망을 보았어요.

Q. 웹툰과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계신데 생각하시는 다른 콘텐츠가 있을까요?

최근 감포 송대말부터 해국길 골목까지 여행하는 당일치기, 1박2일 투어 상품에 가자미마을 이야기가 더해져 새로운 이야기들과 스테이가 더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이런 지역 이야기들을 활용하여 다양한 방향을 확장해갈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어요. 현재 지역 주민분들을 인터뷰하는 '감포 뉴스'를 제작 중인데 글과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는 매거진 형태 등 다양하게 담아 활용할 계획이에요.

저희는 이러한 다양한 일들을 함께 할 많은 청년들이 필요해요. 저희와 함께 지역 자원과 연결해 스토리를 만들어 가고 축제 같은 새로운 일들이 생기면 마을에 생동감이 넘칠 거라고 생각해요. 만약 이 과정에서 하나 둘 정착하는 청년들이 생긴다면 또 다양하게 도전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거라 기대해요.





Q. 음식에 대한 이야기가 빠질 수 없는데요, 푸드트럭을 시작하신다고 들었어요.

이동식 푸드트럭을 처음에 생각했는데 지금은 고정된 가게로 바뀌었어요. 처음 푸드트럭은 지역 분들과 만날 수 있는 장소를 다니며 요리를 판매하고자 시작했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상황으로 다양하게 사람을 맞이할 수 있는 식당으로 만들고자 해요.

식당이라는 공간을 기반으로 하니까 보여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훨씬 많아졌어요.

푸드트럭 콘셉트의 '실험 주방'에서 요리를 해 주민분들과 여행 오시는 주말 관광객들에게 제공하려고 해요. 그리고 바로 옆 공간은 가자미마을에 대한 이야기들을 전시, 홍보하는 쇼룸과 게스트를 초대해 포럼을 열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저희 오피스 공간은 누구나 와서 가자미마을을 들여다볼 수 있는 공간이 아니다 보니, 사람을 맞이할 수 있는 식당 바로 옆에 자연스럽게 가자미마을에 대한 이야기와 문화를 펼쳐낼 수 있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Q. 분식을 주메뉴로 하신다고 들었는데 분식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분식, 특히 떡볶이는 누구나 알고 좋아하는 맛이어서 이런 대중적인 요리에 한 끗 차이를 두면 다른 요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예로, 지역 생산물을 튀김, 핫바 등으로 색다르게 얹는다면 감포만의 새로운 음식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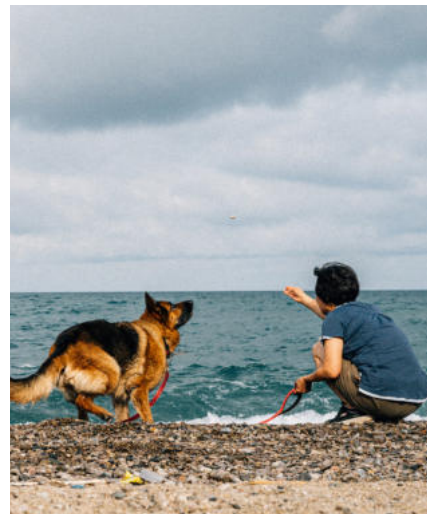
하지만 어떤 청년은 우동을, 어떤 청년은 카레를 해보고 싶다고 해서 앞으로 오는 청년들의 아이디어에 따라 요리가 조금씩 달라지거나 추가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청년들이 일일 호스트가 되어 일주일 중 하루 요리를 판매하고 고객들은 그날에만 맛볼 수 있는 요리로 운영 방식을 생각하고 있어요.

Q. 앞으로 시도해 보고 싶은 새로운 콘텐츠들이 있을까요?

감포는 생산물에 집중되어 다양한 상품이 부족해요. 그래서 저희는 가자미마을이라는 이름으로 기본적인 청년마을 활동, 콘텐츠, 가자미 관련 굿즈 그리고 영상 등 내용을 바탕으로 감포에서 생산되는 것들을 리브랜딩 하거나 기존 상품과 연결하여 새롭게 구현해 내는 작업을 해보고 싶어요. 예를 들어 저희 캐릭터와 감포에서 생산되는 미역, 반건조 가자미, '김명수 젓갈' 등 조합하여 감포에 오면 꼭 사야 하는 밀키트, 선물세트 등 결과물로 만들고 지역 재료를 활용한 여기서만 맛볼 수 있는 도시락을 개발해 투어 상품과 연결해 보고 싶어요.

Q. 지역에 관심을 갖고 있는 청년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지역에 가능성과 기회를 잡으러 왔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는 동료가 되어 드릴게요.





Space Impact #4

드넓은 대자연 공간, 청년들의 힐링 메카로 탄생

예천 청년마을, '생텀마을'의 강수원 팀장 이야기

생텀마을은 그 공간만의 주소가 따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넓은 자연 자체가 생텀마을이기 때문입니다. 생텀마을은 자연의 깊숙한 곳에서 자연스럽게 힐링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낯선 사람들에 대한 경계심을 내려놓고 다 함께 다양한 명상을 하며 산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 그것이 생텀마을만의 매력입니다. 크게 무언가가 있지 않아도, 일상 속속히 힐링이 녹여 있는 생텀마을, 생텀마을만의 힐링을 보여줄 수 있는 강수원 청년의 이야기 입니다.



Q. 생텀마을만의 차별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건강에 대한 관심과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주 연령대인 중장년층이 주로 정적인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생텀마을에는 청년들이 관심 갖기 어렵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의외로 많은 청년들이 자연 자체를 체험하는 요소들을 좋아하더라고요.

요즘은 자연 휴양도 많이 가고 관광도 많이 가지만 그런 곳들과 차별점을 두고 생텀마을에서는 꾸며지지 않은 자연을 보여주고 그 자연 속에서 명상을 하며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하고자 만들었어요.

산 안쪽의 공간은 기존의 자연과는 또 다른 느낌을 주기에 순수한 자연인 그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해요. 깊숙한 산속에서 정돈되지 않은 나무들은 밀림이나 아주 오래된 숲속의 느낌을 내 저는 혼자 그 곳을 '원령공주 숲'이라고 불러요. 생텀마을 참가자들도 그 길을 좋아해서 이를 활용한 트레킹 코스를 만들어, 산속 곳곳의 특징들을 활용해 스토리를 만들 예정이에요. 그리고 산속을 올라가다 보면 계속해서 풍경이 바뀌는 걸 느낄 수 있는데 이러한 자연이 자연스럽게 변화하는 것을 최대한 손을 안 대어 위험 요소만 제거해 유지하고 싶어요.

이렇게 순수한 자연을 유지하는 것이 다른 자연 공간과 생텀마을의 차이점이라고 생각해요. 죽은 나무를 일부러 치우지 않고 그대로 두어서 그 자체로 유니크한 모양을 이룰 수 있게 유지하는 것이 저희가 생각하는 멋이에요.

생텀마을에 참가하였던 청년에게 이 코스를 소개했는데 개발하지 않은 생텀마을의 특징이 가장 좋았다 하더라고요. 한 브랜딩 회사 대표님께서도 한국은 인간의 손으로 개발된 자연이 많아서 아쉬움을 느끼고 있다며 이곳은 꼭 개발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Q. 중장년층과 청년들을 위한 힐링 콘텐츠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청년들은 비주얼적인 영향이 크기 때문에 체험에 디자인을 입히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1기에 참여하셨던 디자이너분과 함께 '오늘하루, 생텀마을'의 포맷을 구성하였어요. 전반적인 세팅을 도와주셔서 전통적인 교육 방식에서 새롭게 틀을 깨는 방식을 배우게 되었어요.

청년들은 그저 앉아있는 것이 아닌 서로 소통하며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체험을 하며 '재미'를 느끼는 것이 중요해 이러한 요소를 반영하여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또 자연, 바람, 햇빛 등을 직접적으로 느끼고 체험할 수 있게 하니 청년들이 자연 속에서의 활동을 더욱 좋아하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아직 생텀마을은 기존의 정적인 힐링을 주로 하고있어 힐링의 고정 관념을 깨고 밝고 즐길 수 있는 분위기로 바꾸려고 노력 중이에요. 자연 속에서 꼭 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커뮤니케이션도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어요. 생텀마을을 통해 청년들이 본인의 밝은 모습을 찾아가는 그런 힐링의 기회가 되었으면 해요.

Q. 생텀마을의 공간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나요?

이 공간들은 예천과 생텀마을을 좋아하시는 작가님과 함께 꾸미고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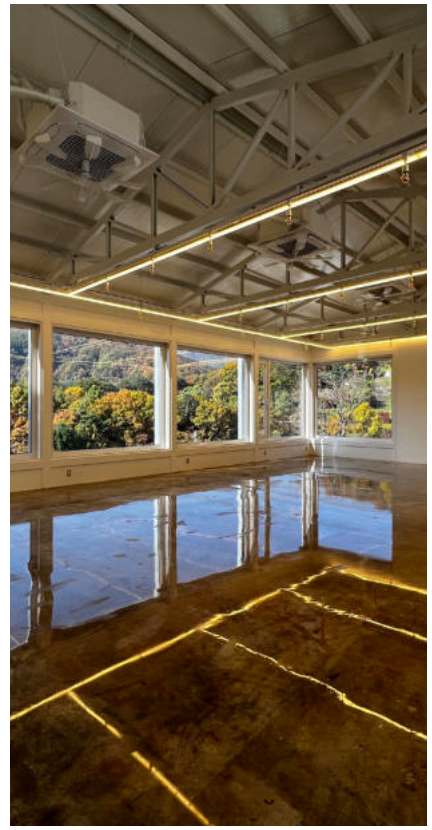
새로 지은 건물 두 개를 연결해서 하늘까지 모두 담는 공간으로 설계하고 있고 옥상을 구름다리로 연결하여 두 건물을 이은 이 옥상 공간들을 모두 정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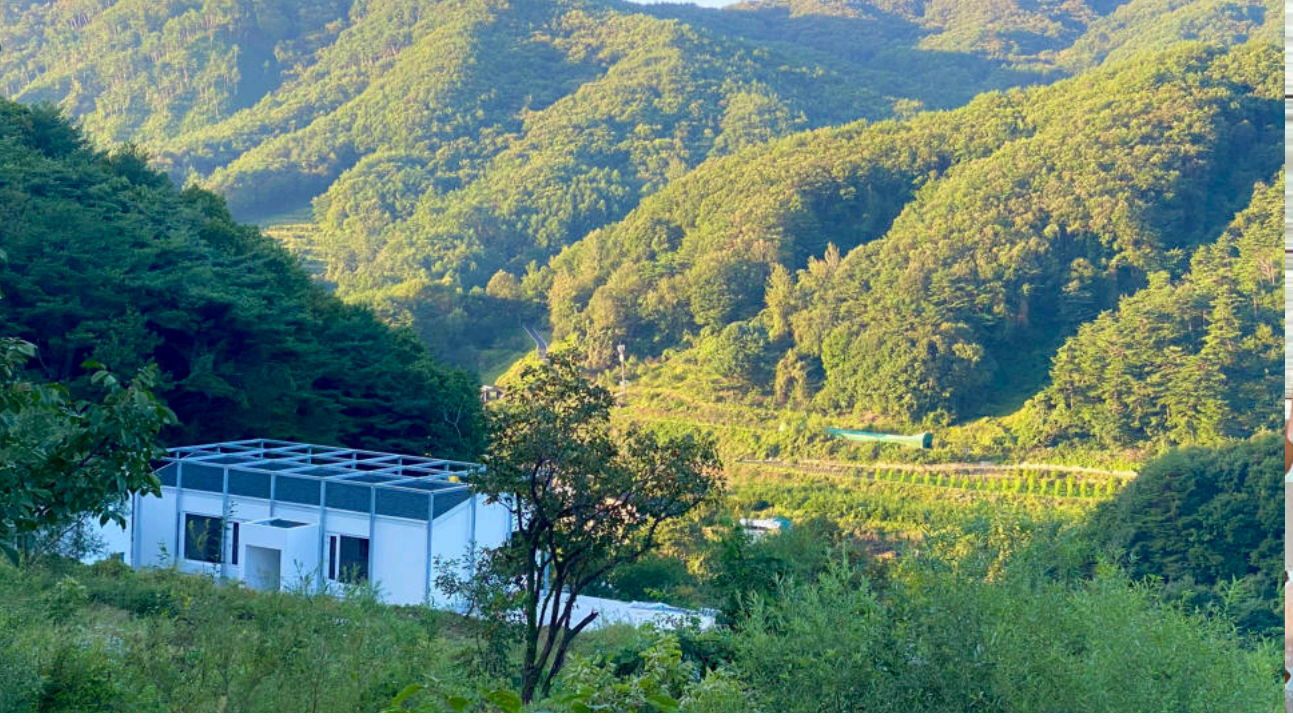
이전에는 호두농장 안쪽에 지붕만 있는 간단한 건축물을 이용하여 체험을 진행했는데 자연과 밀접하게 소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날씨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한계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자연이랑 최대한 접촉하면서도 자연의 날씨나 불편함에 구애받지 않는 장소를 만들도록 설계하였어요. 또한 옆에 보다 작은 건물에는 화목 난로와 오디오 시스템을 두고 그 앞에 컴포트 의자를 놓아서 타오르는 불을 보며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거나 불치유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활용할 예정이에요. 또한 작은 베이스캠프를 만들어 따뜻한 차를 마시거나 담소를 나눌 수 있도록 할 거예요. 최대한 세련되고 멋스럽지만 자연과 어울리도록 만들고 싶어요. 평온함에 세련됨을 함께 전달하는 것이죠.

건물 밖으로 나가 조금 내려가다 보면 생텀마을의 대표적인 콘텐츠라고 할 수 있는 친환경 구들방이 있어요. 친환경 구들방은 거실과 구들방으로 나누어져요.

거실에는 실내에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벽난로가 있고 이 벽난로에서 장작을 때면 그 열로 구들방을 데우게 되어요. 아궁이에 불을 때기 위해 밖으로 나가야 하는 전통 구들방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불을 생활 공간으로 끌어들여 감성 포인트와 치유의 요소 모두를 만족할 수 있도록 했어요. 이 외에도 친환경 구들방에는 아늑한 시간을 보내며 치유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장치들이 있어요.

생텀마을 힐링 프로그램 중에는 구들방 교육도 있어요. 전통적인 것을 편하고 감성적으로 쓸 수 있도록 콘셉트를 잡아 청년들이 구들방에 거리낌 없이 다가가도록 진행하고 있어요. 친환경 구들방은 청년들 사이에서도 만족도가 높기에 이를 활용해 숙소로 만들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Q. 생텀마을이 차별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K-힐링의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친환경 구들방을 통해 한국스러움을 담아냈지만 이것을 강조하기보다는 생텀마을만의 차별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생텀마을만의 라이프스타일에 힐링이 내재되어 있기를 바라요. 일반 명상 프로그램의 교육시간이 되면 진행이 되지만 생텀마을은 완성도 높고 검증된 자체 명상 프로그램과 타이치 프로그램으로 자연환경과 공간, 시간대에 따라 그에 맞는 명상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생활 가운데 자연스럽게 명상 교육이 이루어지게 되어요.

또한 호두를 활용해 건강 회복과 디톡스를 위한 호두 기름과 식초를 만들고, 구들이나 난로를 통해 생텀마을의 공간에서만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는 힐링을 경험하도록 하는 거예요.

생텀마을에서 생활하는 모든 것이 힐링이 될 수 있도록 변화를 주는 게 저희의 힐링 철학이에요.

Q. 내년에는 청년마을 사업을 통해서 어떠한 변화를 기대하시나요?

청년들과 함께 자체적인 사업 프로그램을 만들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힐링 클래스나, 힐링과 음악, 예술을 연계한 프로그램을 진행해 보고 싶어요. 내년에는 실제로 비즈니스화가 될 수 있는 클래스들을 오픈하는 것이 목표예요.

Q. 생텀마을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생텀마을의 최종 목표는 계속해서 자연과 밀접한 공간을 확장해 나가 하나의 '힐링타운'을 만드는 것이에요. 각각의 공간이 다양한 콘셉트로 자연과 소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생텀마을만의 차별적인 타운을 만들고 싶어요.

내년엔 1기에 참여했던 태국에 사는 친구와 함께 국제적인 프로그램을 계획 중에 있어요. 태국에서 타이치 교육을 하는 청년과 함께 태국 청년들을 대상으로 생텀마을을 알리고 싶어요. 심리 치료나 힐링에 관심이 많은 태국 청년들을 대상으로 K-힐링 체험을 하러 혹은 한국의 자연을 느끼러 오라고 생텀마을에 초대하고 싶어요.

도시에 사는 태국 청년들도 자연을 좋아하고, 산이 많이 없는 태국은 산이 많은 한국의 자연이 이색적이게 다가와 같은 자연이지만 다른 느낌을 준다고 해요. 또한 눈을 볼 기회가 많지 않은 태국 청년들에게 한국의 숲속에서 한국의 겨울을 경험하도록 하면 굉장히 매력적일 것 같아요. 한국의 가장 '자연스러운' 숲속에서 이색적인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곳은 생텀마을 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이 저희의 목표예요.

그리고 아직은 먼 이야기일 수 있지만 자연이나 힐링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을 위해 생텀 힐링 대학원을 만드는 것이에요. 힐링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전문가들이 양성되고 그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는 무대가 연계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생텀마을'이라는 이름이 청년들의 힐링을 대표하는 고유명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Space Impact #5

'예술 노마드'들을 위한, '예술 노마드들'에 의한 예술인 마을무대



태안 청년마을, '오락발전소'의 홍세환 대표 이야기

'노래 부르는 일을 더 이상 안 할 수도 있겠구나'에 대한 공포를 느낄 때쯤 오락발전소 프로그램을 마치 한 줄기의 빛처럼 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 번의 프로그램, 여러 번의 방문으로 정착을 생각하게 된 청년은 최근 대표직을 제안받아 온 가족이 태안으로 이주를 결정했습니다.

"예술가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며 재미있게 일할 수 있는 곳이고, 무엇보다 아이들이 바닷가에서 행복하게 뛰어놀 수 있어서 좋아요."

예술가의 목마름과 어려움을 누구보다 알기에 자신이 태안에서 경험했던 것들을 모든 예술가 청년들이 경험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다양한 축제를 통한 무대와 정착할 수 있는 기반들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덕분에 삶에 활력이 생겼다고 합니다.

예술 버전의 디지털 노마드, '예술인 마을'을 꿈꾸는 오락발전소의 홍세환 대표입니다.

Q. 태안에 어떻게 온 가족이 정착하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노래를 부르는 보컬리스트 홍세환이라고 합니다. 음악을 전공해서 오랫동안 밴드 활동을 하다가 결혼하고 자연스럽게 아이 셋을 육아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코로나가 터져 공연 등을 오래 쉬게 되었죠.

우연한 기회로 아내가 '오락발전소'의 '예술인 갭 이어 (Gap Year)' 2주 살기 프로그램 모집 공고를 보고 대신 신청을 해주었고 감사하게 참여하게 되었어요.

2주 동안 태안에 지내면서 예술 하는 청년들과 같이 콜라보 하고 쇼 케이스도 열고 노래도 만들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정말 오랜만에 온전히 예술가로서의 생각들로 가득 찬 시간을 보내 보니 정체성을 되찾는 것 같은 기분도 들더라고요.

무엇보다 경치가 좋고 프로그램도 알차서 아쉬운 마음에 오락발전소 최윤상 대표님에게 가족과 함께 자주 놀러 오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휴가 때마다 여기를 찾았어요. 특별히 일을 하려고 온 게 아니라 단순히 태안이라는 지역이 좋고 같은 음악인으로서 대표님과 말이 잘 통해서 자주 방문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여기는 그렇게 저에게 즐거운 곳, 다시 찾아오고 싶은 곳이었어요. 그러다가 대표직을 제안받고 청년마을도 구체적으로 알게 되어 운영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Q. 대표직을 제안받으셨을 때 어떠셨나요?

처음에는 조금 부담이 되기도 했어요.사업 중간에 들어오는 것이었고 선정되기 부터 사업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저는 '오락발전소'라는 큰 틀 안에서 제가 새롭게 채워 나가야 했으니까요. 지금 진행하면서도 기간은 짧고, 메꿔야 하는 부분과 해야 할 일들이 많아 시간이 부족하고 어렵다고 느껴요. 그래도 재미있게 하고 있어요.

주기적으로 진행되는 청년마을 협의체 워크숍 등에 참여해 다양한 강의를 들으면서 정말 좋은 사업이라는 걸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외부에서 봤을 때 청년마을 사업에 대해 색안경을 끼고 바라봤어요. 단순히 정부가 지역에 청년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방법을 쓴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통해 청년들이 이주할까 생각했는데 실제로 들어와 진행해 보니 정말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겠다 싶어요.

Q. 오락발전소의 어떤 부분이 정착까지 이어지게 했나요?

대외적으로 이름이 잘 알려지지 않은 보컬들은 보통 홍대 클럽에서 무대를 많이 해요. 사실 행사로 아무나 불러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무대에 항상 목말라 있어요. 그리고 좋아하거나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금전적인 부분까지 채워 나가기 힘들기 때문에 중도 포기하거나 다른 일을 찾아 겸하다가 결국 손을 놓게 되는 케이스가 많아요.

그런데 만약 이런 예술가들이 마을 형태로 모여 경제적인 부분을 힘을 합쳐 해결한다면,

그래서 하고 싶은 활동들을 직접 만들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모여 있다면 머리를 맞대고 돈을 벌 수도, 행사를 만들 수도, 그리고 팀을 만들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도 있는 등 여러 가지 기회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예술가들은 굳이 서울에 있을 필요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활동의 기회들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고 하지만 오락발전소에서 축제, 게스트하우스 그리고 클럽 등 예술가들이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서울보다 경치도 아름답고 창작하기 더 좋은 환경이거든요.

Q. 청년들이 오락발전소에서 어떤 가능성을 볼 수 있을까요?

요즘 학교에 기회가 많아져서 실용음악과 등의 통로를 통해 젊은 청년들이 많이 배출되고 유통방식이 대부분 온라인으로 전환되어 앨범 내는 것도 쉬워졌어요.

하지만 코로나가 터지면서 저희가 설 수 있는 축제, 클럽 등 무대가 거의 없어졌어요. 어떻게 보면 환경은 좋아졌지만 길은 더 좁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청년 예술가들이 경제적인 부분에서 어려움들을 겪고 있어요.

저희는 올해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청년 예술인들을 불러 모으고 있어요. 태안에서의 지역살이도 중요하지만, 제가 여기서 많은 예술가들과 경험했던 것 그대로 청년들도 느꼈으면 좋겠어요.

예술가들과 여러 차례 콜라보 하며 음악을 만들고, 아쉬운 마음에 한 번 더 왔다 가는 시간들이 반복되었을 때 청년들이 여기서 무언가 한번 해볼까 생각이 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살다가 돌아가면 그때 거기 참 좋았다는 기억으로 끝나게 돼요. 그래서 다시 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순환이 이루어지기 위해 저희도 축제를 계속 만들어 무대를 제공하고 자연스럽게 여기에서 지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도록 노력하고 있어요. 사실 그 순간부터 이주에 대한 고민이 시작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Q. '예술인이 주체가 된 축제는 없다'는 어떤 의미로 말씀하신 건가요?

보통 공연은 공연기획자들이 하고 아티스트들은 초청되어서 무대하고 페이를 받는 시스템인데 그러면 구조상 지속되기 어렵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공연이 없으면 아티스트들은 갑자기 일자리가 사라지니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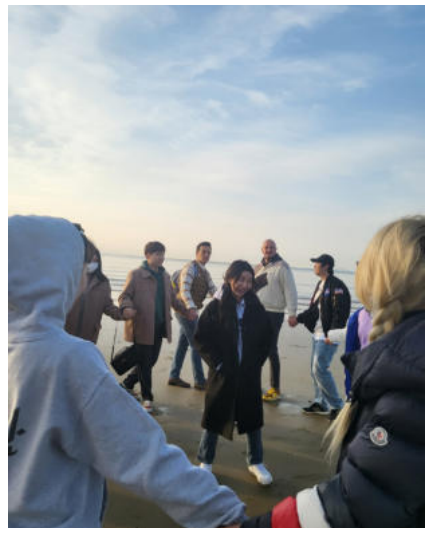
스스로가 설 무대를 스스로 만든다는 개념인 거죠. 혼자서는 어렵지만 그와 비슷한 취지와 의지를 가진 청년들이 모인다면 충분히 가능해요.

사실 예술가들 10명이 일주일 정도만 모여 있어도 축제 하나가 나올 수 있거든요. 저희가 기본적인 틀을 만들어 놓고 청년들이 팀을 만들어 하나씩 파트를 나눠 만들어가는 거예요. 2-5시 타임 공연을 만들거나 한 부스를 원하는 대로 꾸며보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차츰차츰 모이고 갈수록 커져서 지역 사람들과 청년들이 즐거워서 신나게 놀고 있는 축제를 보게 된다면 모두가 즐거워지고 볼거리도 많아질 것 같아요.

오락발전소도 주체가 예술가일 뿐이지 사실은 디지털 노마드와 비슷한 형태를 지향하고 있어요.

Q. 예술가들의 정체성을 지켜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거네요.

맞아요. 직설적일 수 있지만 경제적인 부분이 해결이 되어야 계속 재미있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금전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꼭 축제나 공연이 아니더라도 거기에서 파생되는 것들도 있어요. 예로 악기나 노래하는 청년들이 취미활동으로 만드는 물건들을 제품화해 판매하고 아티스트 홍보에 활용할 수 있고, 또 요리를 하는 청년이 있다면 더 발전시켜서 공간을 얻어 장사를 할 수 있어요. 이런 예술가들이 모여 있는 집단, 모여 있는 동네를 만드는 게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예술가들이 주체가 되어 그들의 예술 활동을 위해 다른 활동들을 재미있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많은 청년들이 '예술가'라는 끈을 놓지 않기 위해 시간 제약을 받지 않는 일을 해요. 하지만 알바 형태로 직장에 들어가게 되고, 나아가 9to6 일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주객이 전도되는 상황이 발생해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예술 활동을 놓아버리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심지어 저는 '무언가 제대로 된 일을 하게 된다면 노래를 부르는 일을 더 이상 안 하게 될 수도 있겠구나'에 대한 공포도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의 활동은 제 삶에 활력이 되는 일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Q. 일산에서의 삶과 지금 태안에서의 삶은 어떻게 다른가요?

일산에 있을 때는 육아와 집안일을 주로 했어요. '방구석 뮤지션'처럼 집에서 혼자 노래 연습하고 오디션에 원서를 내보고 그런 삶을 보내고 있었는데, 여기서는 축제나 무대가 있으니 노래도 부르고 공연도 하며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요즘은 '앞으로 내가 설 수 있는 무대가 더 많아지겠구나, 그리고 더 다양한 청년들과 재미있는 걸 할 수 있겠다'는 기대를 합니다.







Q. 청년마을 사업이 청년들에게 어떤 기회를 제공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수도권에 많은 것들이 밀집되어 있어 수도권을 벗어나 생활하는 것을 생각조차 못해요. 저도 '갭 이어' 2주 프로그램이 정착을 위한 프로그램이었지만, 저는 그냥 '재미있게 놀다 가야지' 생각했어요. 근데 결국 여기서 할 일이 있기 때문 올 수 있었어요. 수익을 낼 수 있는 일이 수도권이 아니어도 괜찮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또 다른 관점에서 '지금 받는 지원이 만약 수도권에서 무언가를 하는 거였다면 과연 할 수 있을까, 뭐가 달라질까, 더 쉬울까' 생각해 본다면 저는 오히려 반대로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오히려 태안에서 지내다가 서울에 볼일 있으면 다녀오면 돼요. 환경도 서울보다 좋아요. 태안 바다가 진짜 매력적이에요. 제 아이들을 바다에 풀어주면 하루 종일 뛰어놀아요.

Q. 앞으로 어떤 청년들의 방문을 기대하고 계시나요?

예술 하는 청년들은 다 왔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저와 최윤상 대표님 모두 음악 하는 사람이다 보니 음악과 관련된 분들이 많이 모이고 있어요. 하지만 미술, 작가, 영상 제작 등 모든 분야에서 같이 했을 때 재미있는 예술과 창작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의 청년들이 오길 기대해요. 제가 '갭 이어' 프로그램에 참여했을 때 무용하시던 분이 계셨는데 제가 무대에서 노래 부르며 옆에서 무용으로 함께해 주셨어요. 이렇게 이루어가는 무대들을 기대합니다.

Q. 앞으로의 계획, 꿈 또는 어떤 청년마을로 오락발전소가 성장했으면 하나요?

오락발전소는 즐거운 곳이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는 일이 노동이 아닌 놀이가 되는 곳. 그리고 더 발전해서 그 일들을 계속 이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고 싶어요.

제가 이번에 이주를 하게 되면서 청년에 대해 생각해 봤어요. 사실 저도 그렇고 결혼한 사람들도 청년이잖아요. 오히려 그런 분들이 이주를 더 진지하게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외곽 쪽에 가족 단위가 더 많은 것도 복잡한 도심을 피해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여유로운 공간을 찾아가시는 거니까요.

실제로 저희를 보고 이주를 고민하시는 부부들이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가정을 이룬 청년들이 많이 이주한다면 아이들을 위한 예술적인 프로그램과 새로운 형태의 커뮤니티도 생겨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외부에서도 보고 지역을 주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Space Impact #6

'화개장터 나룻배 정신'을 가진 Z세대의 다양성이 모인 지역

하동 청년마을, '오히려하동'의 이강희 대표 이야기

'같은 나라인데 왜 하동에서는 안될까?'

도시생활을 정리하고 고향인 하동으로 내려온 한 청년이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당연한 것들이 지역에는 없다는 문제점을 파악해 'IT' 기술과 '디자인'으로 문제들을 풀어나가려고 하는 '오히려 하동' 청년마을 '다른파도'의 이강희 대표입니다.

다양한 서비스 관련 시도들과 크고 작은 실험들을 통해 뽑아낸 '차'(Tea)라는 키워드로 생산지 기업의 새로운 미래를 기대하는 이강희 대표는 로컬로 눈길을 돌리는 청년들에게 말합니다. "로컬에서의 창업은 결코 쉽지 않아요. 하지만 재미있는 매운맛 실험을 도전해 보고 싶으시다면 오히려 하동에서 시작해 보세요!"



Q. 서울에서 개발자로서의 삶은 어땠나요?

저는 사람들이 재미있어하는 게임을 만들어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실제 게임 회사에서의 현실은 다르더라고요. 순수히 '재미'를 사람들에게 선사하기보다 이익이 더 중요했어요. 그러다 보니 좀 더 개발이라는 기술을 값지게 사용하고 싶었고, 차라리 서비스 개발이 낫겠다고 생각했어요. 서비스도 이익 창출은 하지만 사람들에게 '편리성'이라는 가치를 제공하잖아요.

하지만 서비스 개발을 서울에서 하기에는 이미 포화상태라고 생각했고, 서울에서의 삶이 지치기도 했어요. 근데 마침 치앙마이가 젊은 청년들이 많고 자연이 멋진 곳이라는 이야기를 들어 가서 한 달 살이를 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퇴사를 결정하고 다시 가려고 했지만 코로나가 터져 결국 고향인 하동으로 돌아오게 되었죠.

하지만 하동에 와서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어요.

서울에서 당연하게 여겨진 서비스 앱들이 지역에서는 거의 가능한 게 없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했고 또 이 문제를 잘 풀어내면 서울에서 갖기 힘든 기회를 스스로 만들어 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동의 자연 또한 치앙마이 못지않은 곳이라고 생각해서 남게 되었죠.

Q. 하동에 오셔서 처음으로 기회를 맛본 경험은 무엇인가요?

저희가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하기 전에 버스 시간표를 검색하는 뷔다 (영어'view' / '보다' 방언)라는 서비스를 개발했어요.

'버스시간표 조회' 서비스가 10년 전에 서울에는 이미 나와서 일상적인데 하동에서는 그게 아직도 없는 거예요. 인터넷에도 하동 버스 시간표를 조회하면 실제 오는 시간과 다르더라고요. 서울, 경기도에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만 지방에서는 정확도가 떨어져요.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동시에 뚜벅이 여행자에게 필요한 정보도 제공하는 것이 '뷔다'의 목적이었어요.

이러한 시도들을 통해 지역에서 다양한 기회들을 발견해 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요.



Q. '100만 원 50가지 아이디어 프로젝트'가 눈길을 끌어요. 프로젝트 기획 배경이 궁금해요.

저는 섬진강 너머 전라도 무동산이라는 곳을 좋아해요. 하동 안에서는 오히려 하동을 볼 수 없고 거기서는 하동 전체 전경을 볼 수 있거든요. 아이러니하게 하동을 보려면 하동 밖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지역 청년들이 생각하지 못한 것을 외지 청년들이 떠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기획하게 되었어요. 실제로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분들은 가장 먼저 생활에 불편한 것에 많이 집중을 하시더라고요. 불편한 교통을 개선하기 위해 자전거 휴게소를 만들거나, 사진관이 없으니 '인생네컷'과 같은 사진관을 만들고, 생산량이 많은 지역 농산물, 곶감으로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보는 등의 다양한

Q. 프로젝트를 통해 청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싶었나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토 중 하나가 '매운맛'이었어요. 프로젝트성으로 아이디어를 낼 때는 재미가 있지만 실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고자 할 때는 지역이 가진 특징을 파악하고 현실을 고려해야 하는데, 그러다 보면 마냥 재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려드렸으니까요.

보통 로컬은 부족한 게 많으니까 뭘 해도 다 성공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었어요.

오히려 부족한 게 많아 더 고민하고 지역을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히려하동의 역할은 지역에서 비즈니스를 시작할 때 지역의 특징과 현실적인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토박이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역 네트워크를 공유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Q. '오히려'라는 단어가 중요한 키워드인 것 같아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하동을 보려면 섬진강 건너 무동산에서 봐야 하는 것처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시점을 다르게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희 회사 이름도 '다른파도'에요. 하동에 항구, 섬, 바다도 있는데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근데 저희 회사 이름을 들으면 '다른 파도가 왜 파도야?' 이렇게 물어보셔서 자연스럽게 하동에도 바다가 있다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하동같은 지방에서 왜 안 돼?'를 '와이낫(Why Not) 하동' 이라는 문장으로 표현했고, 이것을 한국식으로 바꾸니 '오히려' 같은 뉘앙스가 생각나더라고요. 요즘 Z세대들이 '오히려 좋아' 라는 표현을 유행어처럼 쓰기도 하고 '와이낫'이랑 맥락과 의미는 비슷하다고 느꼈어요. 무엇보다 기존에 안 좋은 것을 긍정적인 것으로 바꿔주는 마법의 수식어처럼 느껴져서 사용하게 되었어요.



Q. '청년이 있는 한 하동은 소멸하지 않는다'라는 인상적인 문구를 봤어요.

프로그램 참여청년이 팀 슬로건으로 만든 거예요. 첫 번째 기수는 실험 성격이 강하고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이라는 걸 인식 시키면서도 '그래도 한 번도 청년이 하동에 이렇게 흔적을 남겨본 적이 없는데 청년들이 흔적을 남기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의 도전이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고 계속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슬로건을 그렇게 정하시더라고요. '청년이 존재하는 한 하동은 소멸하지 않는다'고요.

꼭 정착해야 되기 보다 흔적을 남겼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외지 청년들이 지역 주민과 관계를 맺었던 기억, 그 기억으로 또 하동을 방문하는 것을 관계 인구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흔적을 말하는 거죠. 또 그분들이 아이디어를 14개나 만들고 가셨는데 그 내용들이 하동군 정책을 수립하는데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어요. 하동에 사는 청년들이 얘기하면 한계가 있지만

하동에 살아보겠다고 온 청년 20명이 불편하다고 얘기를 하는 건 다른 효과가 있죠.

Q. 현재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실험을 하고 계시나요?

하동은 강 하구라는 특징으로 인해 섬진강을 따라 나룻배로 전국의 물류가 모이는 곳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화개장터, 하동포구 같은 상업지역이 나타날 수 있었죠. 또 남해 바다와 섬진강, 지리산을 모두 포함한 삼포 지역이기에 산업도 다양한 편이에요. 축산업도 활성화되어 있고, 바다로 나가면 양식업 하는 분들, 산으로 올라가면 녹차가, 평야에는 쌀농사도 지어요.

문화적으로도 조영남의 화개장터 가사처럼 경상도와 전라도를 가로지르는 영호남 문화의 교두보 지역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히려 하동에서는 '화개장터의 나룻배처럼 다양성을 연결하자'라는 가치를 가져가려 해요.

녹차로는 보성이랑 제주도가 유명하잖아요. 보성은 보성녹차 제품이 있고 제주도는 차밭 관광으로 유명한데 하동도 녹차로 유명하긴 하지만 마땅히 유명한 '이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동에 녹차 산업에 있어 더더욱 청년의 힘이 필요하다고 느꼈어요.

하동에는 차명인 분들마다 차를 본인만의 스타일로 내어주는 '차담 문화'가 있는데, 홍보, 브랜딩 등에 대한 것을 청년들과 협업하면 하동의 차 산업에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한 차 상품을 만드는 대부분의 기업은 생산지와 멀리 떨어져 있는데, 저희가 외주 경험을 통해 브랜딩 회사와 제조회사가 같은 지역에 있다면 소통과 로컬성에 있어서 이점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러한 여러 가지 여건들을 통해 차와 관련된 비즈니스 모델을 세우는 것을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무엇보다 브랜딩과 디자인 역량을 갖고 있는 다른파도가 외주만 받기 보다 OEM(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으로 자체 상품이 있어야 결국 지속가능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현재 차와 관련된 라이프스타일을 전반적으로 아우르는 플랫폼을 계획하고 있어요.

하동의 다원들은 지인 없이는 예약이나 체험이 어렵고, 각 다원마다 특징 있는 차를 만들고 있는데 그에 대한 정보와 상품구매가 힘들다는 문제점이 있어요. 이를 해결하는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특히 오히려하동 프로그램 참가자들이 직접 기획하고 개발한 하동 화투, 드립 티백, 다원 맞춤 도자기 세트 등의 상품들도 함께 론칭하고, 오프라인 팝업과 SNS을 통한 쇼핑몰도 운영할 계획이에요.

Q. IT라는 키워드를 꼭 가져가고 싶은 이유가 있을까요?

지방이라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촌스러움'이 IT가 한 방울 들어갔을 때 없어지는 것 같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시골이라는 특성 때문에 흔히 가져가는 '자연' 아니면 '투어', '농사' 등을 메인 키워드로 잡는다면 차별점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 부분은 저희보다 잘하는 분들이 이미 많이 계시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하동이 오히려 IT(아이티) 한다'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싶어요.



Q. 청년마을 시작하고 어떤 변화들이 있었나요?

일단 변화가 가장 큰 것은 초반에 사업 진행할 때 저희가 군청을 자주 갔는데 이제는 군청에서 저희를 찾아오세요. QR코드를 활용하는 법, 살이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방법 등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찾아오시더라고요. 또 저희가 디자인과 영상 관련 일을 한다는 것을 들으시고 협업 요청도 하세요.

이렇게 청년을 필요로 하고 궁금해하는 문화가 조금이라도 생긴 것이 기쁘고 큰 변화인 것 같아요.

Q. 지역 문제 중에 또 해결해 보고 싶은 부분이 있을까요?

저희는 지방 소멸 문제가 심화되는 원인 중 하나가 지역 내 청소년들에게 '서울로 꼭 가야 돼'라고 강요하는 문화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농담으로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의 본질은 청년 전시회다'라고 말해요. 하동 청년 전시회로 우리 라이프를 전시하고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걸 청소년들이 보고 지역에서의 삶도 선택할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니 오히려하동 2기 프로그램에서는 원래 기획에 없었던 '밤 빵 어택'을 하게 되었어요. 어르신들이 특산물 밤을 많이 갖다주셨는데, 이것을 내리사랑 콘셉트로 묘미를 더해 하나의 프로그램을 기획했어요. 그리고 다른파도가 '반달곰상회'라는 빵집을 운영한 적이 있었는데, 손님이었던 학생들에게 그동안 방문해 준 것에 대한 고마움의 표현을 해보고도 싶었어요.

그래서 학생들 등교할 때 빵을 나누어 주는 캠페인처럼 진행을 했죠.

또 제가 하동을 떠났던 가장 큰 이유는 어렸을 때 하동에 남아있는 형 누나들이 실패해서 하동에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하동에 남아있는 형 누나가 되었죠.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하동에 남았다 해서 실패한 것이 아니라 이미 자기만의 일을 하고 있는 형 누나들과 자연스럽게 교류하는 모습을 만들고 싶었어요.

처음에는 학생들이 빵을 왜 주는지 의심하더라고요, 그래도 취지 설명은 안 했어요. 취지를 설명하는 순간 본질을 흐린다고 생각해요. 동네 빵집 하는 형이 맛보기로 그냥 빵을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러한 캠페인을 더 확장해서 미래의 청년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코딩, 디자인 교육, 창업 등을 가볍게 하는 원 데이 클래스를 진행해 지역에 살고 있는 청년들을 연결해 주고 싶어요. '밤 빵 어택'은 간접적인 거라면 직접적으로 일을 알려주거나 체험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좀 해보려고 해요. 하동에 남고 싶은 청소년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회사와 요식업 운영 경험으로 필요한 팁들을 알려주면 하동에서의 가능성도 생각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참고로 작년에 저희가 여고에서 강연을 한 번 했는데 애들이 엄청 좋아했어요. '하동에서 먹고사는 게 돼?' 이런 신선한 충격이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들 '서울로 가야 성공할 수 있어'만 듣고 자랐는데 어떤 형, 누나 청년들이 와서 '서울 가도 좋지만 안 가는 방법도 있어'라고 얘기하는 게 되게 인상 깊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희망을 보았어요.

Q. 앞으로의 계획 또는 꿈이 궁금합니다.

중앙(서울)에서 지역으로 여러 사업들이 내려오는 경우가 있는데, 결국 실무적인 일을하는 사람들은 다시 서울이나 인근 대도시로 돌아가는 상황이에요. 이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디자이너, 기획자, 영상제작자, 마케터 등 프리랜서로 일할 수 있는 청년들이 하동에서 지역주민과 함께 협업하며 사업을 진행한다면 지역의 경제도 활성화되고 정착하거나 관계 맺는 인구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생태계를 만들고 싶어요.

한국의 디지털 노마드 성지 중에서도 정말 지역의 일을 하는 청년들이 많은 동내가 하동이면 좋겠다는 것이 제일 직관적인 표현이겠네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히려하동 프로그램과 다른파도가 지역 청년과 타지 청년을 연결시키는 역할을 해야 해요. 하동을 고향으로 하지만, 또 서울에서 일을 하다가 들어오기도 다른파도가 가장 지역 청년과 타지 청년의 중간 완충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역에 정착시키는 일도 있지만 지역 청년들이 나가는 걸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올해가 가기 전 꼭 하고 싶은 것은 저희만의 상품을 만드는 것이에요. 일단 다른파도 자체도 지역에서 자생해야 로컬 창업이나 디지털 노마드에 있어서 하동 지역에서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일하는 사람이 저희 회사에 많이 찾아올 수 있으니까요..

Q. 지역엔 어떤 가능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가장 큰 부분은 청년이 하는 일이 지역에서는 티가 많이 나요. 브랜딩의 목적은 제품이나 회사의 가치가 눈에 띄어야 되잖아요. 근데 청년이 지역에서 무언가 하는 것 자체가 눈에 띄기 좋고 또 좋게 봐주셔서 그것만으로도 저는 많은 광고 효과를 공짜로 얻어 간다고 생각해요.

다른 지역 분들도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서울에서는 그저 수많은 사람 중 한 명이었다면 지역에서는 한명 한명의 캐릭터가 돋보이거든요.





Q. 대표님에게 청년마을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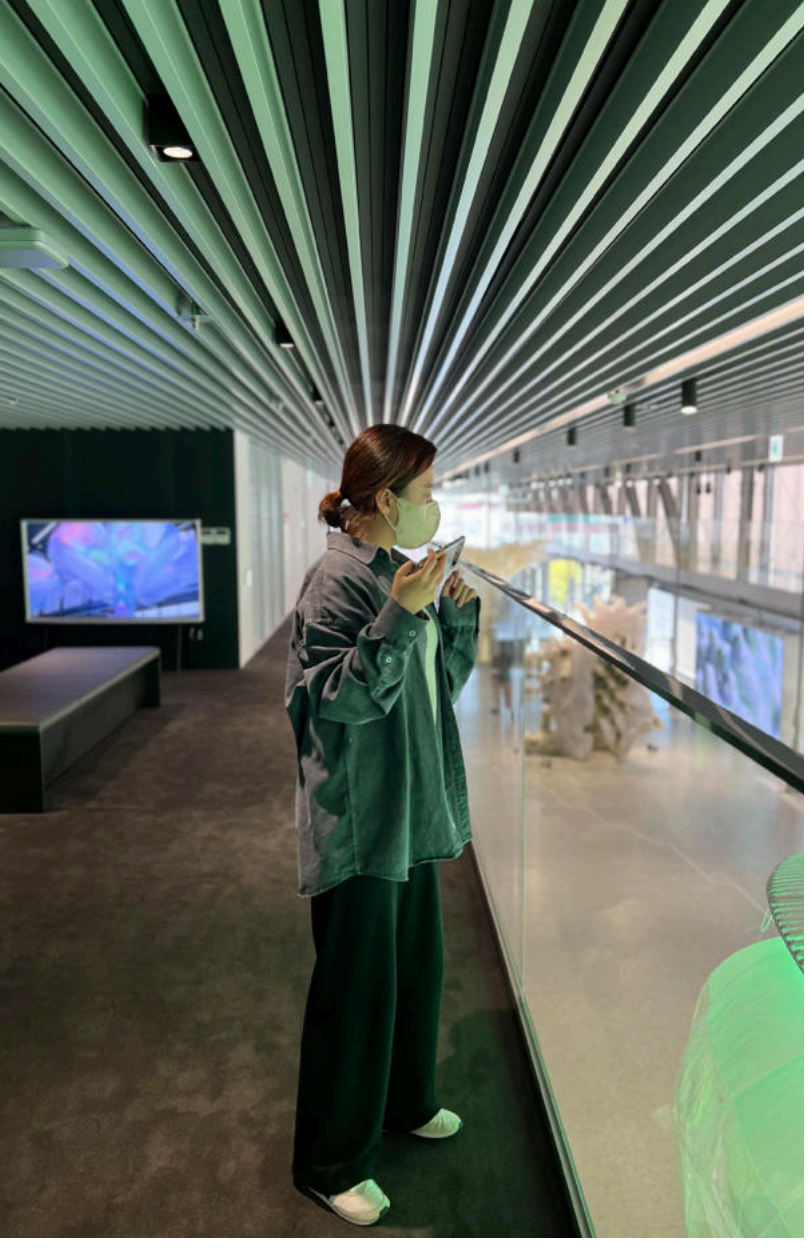
지역에서 기회를 찾아보려는 사람한테 지금 하고 있는 게 맞는 거라고 얘기해 주는 사람이 아직까지는 별로 없잖아요. 근데 '그게 맞다'라고 해주는 아주 큰 존재인 것 같아요. 지역에서 살고 싶다고 얘기하면 사회는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그거 좋아, 해봐!'라고 해주는 유일한 울타리이죠.

청년마을이 없었으면 저희가 하는 활동이 공인도 안 되었을 거예요. 저희가 많이 고맙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행정안전부, 경남도 하동군 로고 사용이에요. 행정의 로고를 사용할 수 있는 것만 해도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가 생긴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로고 없이 '꼴딱영화제'를 한다면 단순한 동아리 느낌인데 로고가 있다면 유심히 보게 되고 하나의 정책으로 생각하게 만들어 주는 부분도 있는 거죠.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은 청년이 지역에서 살고 있는 것에 공신력을 불어넣어 주는 것 같아요.

Q. 로컬에 관심 있는 청년들에게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로컬도 서울만큼 치열하기에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훨씬 더 재미있다고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힘들지만 주체적으로 일하고 스스로 재미를 찾는 성향을 가진 분들이 살아가기 좋은 곳이 로컬인 것 같아요. 청년마을 대표님들도 다 그렇더라고요.



Space Impact #7

창작이 '대책 있는 미래'가 되는 어나더랜드

강진 청년마을, '병영창작상단'의 전지윤 대표 이야기

네덜란드식 담벼락이 줄지어 있는 강진 병영면은 조선에 표류하게 된 네덜란드인 하멜의 아름다운 흔적이 남아있는 동네입니다. 수 세기를 넘어 2022년, 도시에 살던 청년들이 표류하게 되었습니다. 병영의 상단 역사를 청년의 현대적 관점으로 재해석해 창작 활동을 하고 더 나아가 강진에 없던 새로운 일거리를 만들고 있는 전지윤 대표 이야기입니다.

Q. 창작을 위해 강진에 내려온 이유가 궁금합니다.

저는 원래 서울 바라기여서 열심히 노력해 서울로 대학을 갔어요. 무역학을 전공하다가 '이 전공으로 좋은 곳에 취업은 할 수 있겠지만, 여자로서 계속 내 일을 지켜 나가는 현실적인 문제에서는 과연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일까?'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며 스스로 잘할 수 있는 것들로 생각의 방향을 틀었어요.

그때 처음 저의 '말하는 능력'을 단순히 프레젠테이션을 잘하는 것, 대화를 긍정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닌 그 이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강의하는 모습을 떠올렸고요.

그 후에 '무엇을 강의할 것인가'를 치열하게 고민했는데요. 나의 철학이나 색을 확실히 입힐 수 있을 것, 진입장벽은 높지만 그만큼 판에 들어갔을 때 지속가능성도 높은 것 등을 두고 고민하다가 학부 때와는 전혀 다른 전공을 선택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미술사라는 전공으로 석사과정을 마치고 바로 강의를 시작했죠. '넥스트 로컬(Next Local)'이라는 지역연계형 창업지원사업에 도전하게 되면서 사업자를 내고 강진에 내려오게 되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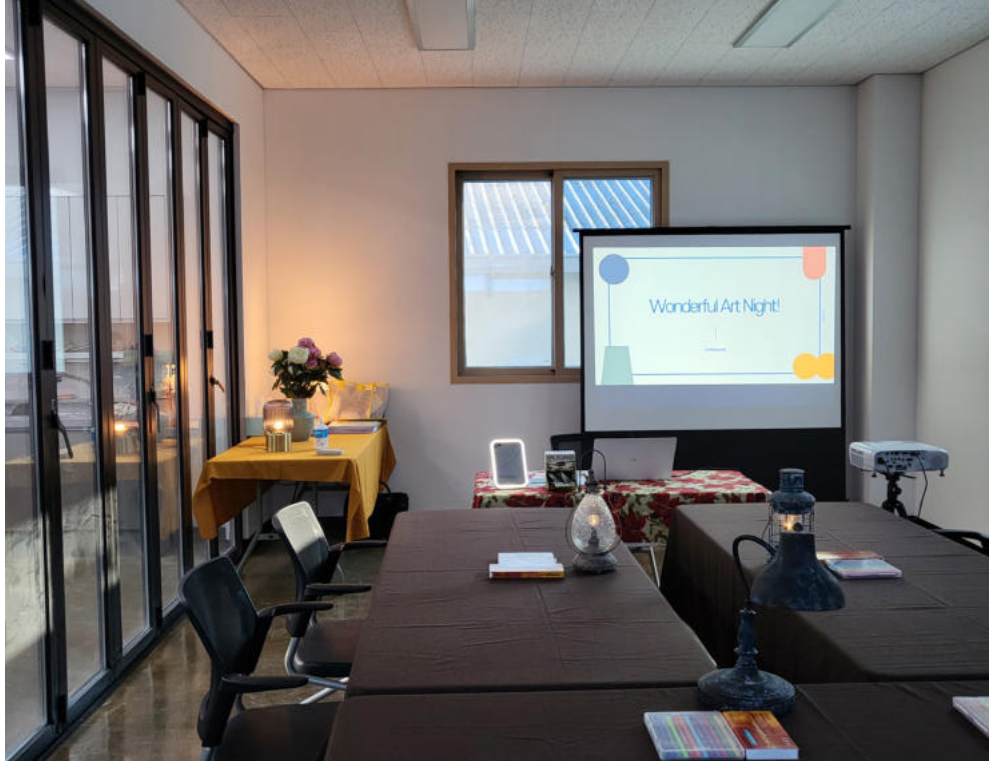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예술가'보다는 '창작자' 표현을 더 좋아해요. 각자 자신에게 맞는 삶의 방식들을 선택하고, 또 이걸 자기 스타일대로 실현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모두가 창작자라고 생각해요. 제가 가진 이 '창작'이라는 개념과 전공했던 예술, 인문학 분야를 결합하면서 자연스럽게 예술 치유, 아트 테라피 강의와 프로그램으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Q. 자유를 중요시 여기시는 것 같은데 창작자로서 활동이 그럴 것 같아요.

네. 요즘 '행복론'을 유심히 보며 공부하고 있는데 최근에 읽었던 한 교수님의 논문에서 '행복에는 '자유', '유능감' 그리고 '관계' 이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는 문장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생각해 보면 저는 우선 삶에서 '자유'를 중요하게 생각해 그걸 가장 상위 기준으로 저의 업을 찾았었고, 그렇게 찾은 창작자로서의 삶을 살면서 유능감이 충만하게 채워지는 순간들을 정말 많이 누리고 있어요. 관계라는 요소는 최근 로컬로 이주해 오면서 저만의 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일 중 한 분야인 '아트 테라피'도 '관계'와 연결이 깊어요. 인간관계라고 하면 보통 타인과의 관계를 많이 생각하는데 저는 모든 인간관계의 시작은 '나와의 관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끌어 나가는 청년마을인 병영창작상단은 물론이고 청년마을 운영주체인 '아트 랩소디'에서도 이 부분을 제일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에 내려와서도 생애 주기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나와의 관계를 중심에 둔 다양한 예술 경험의 장들을 가장 먼저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지역 안에서 늘 화두가 되는 세대 간, 세대 내 갈등들에 접근하는 예술 프로그램들로 확장 시키기 시작했고요. 일반적으로 예쁜 결과물을 만들어가는 원데이 클래스보다는 관계에 대해 인문학적으로 사유하고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않았던 다양한 시각 예술 재료들을 활용해 그 사유의 과정을 표현하고 작업물로 완성해 보는 활동들을 하고 있어요.



Q. “예술을 통해 창조적 회복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말이 좀 더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나와의 관계 회복에 이어 보통 사람들이 '회복', '힐링', '테라피', '치유'라 하면 정적이면서 수동적인 이미지를 떠올리는데요. 저는 '그게 과연 진짜 힐링일까?' '왜 사람들이 이런 방식으로만 회복하려고 할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내린 결론은 결국 회복, 치유라는 건 '나답게' 일상을 잘 살아가기 위함이고 그게 진짜 본질이라는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더욱더 그 과정은 주도적이어야 하고 창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확신이 들어 이런 표현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창조적 회복을 직접 경험해 본 개개인이 모이면 그 공동체는 정말 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걸 증명해낼 탄탄한 증거들, 진짜 현실의 레퍼런스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창작상단의 1년 차 미션이었습니다.

Q. '병영창작상단' 청년마을은 어떠한 방향성을 갖고 나아가고 있나요?

병영에는 병영 상인들은 물론이고 제주도에 표류되었다가 이곳으로 끌려왔던 네덜란드의 하멜 일행들도 6-7년 정도 살았어요. 저는 결국 이 마을에 흐르고 있는 서사의 맥락에 중심에는 상인, 상단의 역사가 있다고 생각해서 콘셉트를 '상인'으로 잡았어요. 상인이라면 기본적으로 어떠한 물건의 잠재력을 볼 수 있으며 매력적인 것들을 발굴할 수 있는 디테일한 눈을 가졌다고 생각해요.

재미있게도 이런 상인들의 특징은 21세기 우리 또래 창작자들이 가진 장점이기도 해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창작을 예술에 한정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서 '병영에서 창작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만들고 확산시켜보자!'는 생각으로 다양한 것들을 시도하며 한 해를 보냈어요.

Q. 하멜의 서사와 지금 청년들과의 이야기 혹은 대표님이 만들어 나가고 싶은 청년 마을의 모습이 어떠한 공통점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제가 병영에서 주민분들을 많이 만나면서 한 3~40년 전 이야기들을 듣게 되었어요. 그 시절 동네에 하멜의 후손인 '남 씨'들이 있었는데 막노동을 하며 어렵게 생활했고 무엇보다 본인들이 하멜의 후손이라는 얘기를 듣는 것을 싫어했다고 해요. 하멜 일행들이 처음 왔을 때는 아마 더 힘들었을 거예요. 실제 기록을 보면 온갖 고역으로 힘들어서 하루 일이 끝나고 나면 술과 춤으로 삶을 달랬다고 해요. 그걸 마을 사람들이 보고 따라 추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는 그런 풍경들이 벌어지곤 했죠.

그렇게 하멜 후손들이 병영마을 사람들과 교류하며 담벼락 축조하는 방식을 알려줬는데 만드는 과정에서 언어가 잘 안 통하기도 하고, 한국에 있는 재료들로 대체하면서 담벼락을 쌓게 되니 병영만의 독특한 돌담길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아이러니하게도 오늘날에는 그렇게 탄생한 돌담길이 독특한 마을 분위기를 만들면서 또 새로운 사람들을 마을로 불러들이고 있어요. 하멜과 그의 일행들이 마을에 남긴 담벼락이 아직까지도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처럼, 21세기에는 청년들이 이곳에 와서 본인들의 재능을 발휘해서 '담벼락'과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Q. 지역 주민들의 포용하는 분위기와 또 비즈니스 연계를 잘해 주신 부분에서 많은 청년들이 정착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휴학, 인턴, 석사 등의 이유로 졸업이 늦어지는 친구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은데요. '내 또래 친구들에게 청년이라는 시기에 주어지는 선택지는 과연 몇 개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 역시 강진에 내려올 때 이런 현실적인 부분 때문에 과감하게 정착은 생각도 못 했어요. 하지만 딱 그 시기에 지역 내 학교, 청년정책과, 도시재생 등 주체들과 일을 해볼 수 있는 작은 기회들을 경험하면서 '이런 주체들과 일을 할 때는 내 일을 변형할 수도 있구나'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 과정은 제가 로컬에서의 새로운 삶을 결심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이에 대한 중요성을 지자체에 많이 어필했고 실제로 올 한 해 병영 창작상단을 찾은 친구들은 현실적인 대안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기회들을 아주 잘 활용하고 또 확장할 줄 아는 친구들이었어요.





Q. 이를 위해 특별히 신경 썼던 프로그램이나 대표적인 활동은 무엇이었나요?

첫 번째가 '프리뷰 창작상인'이었어요. 보통 '로컬 투어링'이라고 지칭하는데, 저희가 일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닌 각 권역별로 다양한 스토리를 가진 지역 청년들을 진행 호스트로 세웠어요.

호스트 각자가 지역에서 어떤 라이프스타일을 영위하고 있는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비즈니스를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는지 등의 이야기들이 지역 내 작은 권역들의 이야기와 함께 전달되기를 바랐거든요. 강진에서 나고 자란 청년, 잠시 나갔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청년, 연고는 없지만 귀농·귀촌 한 청년들이 각자의 현시점에서 조금 더 현실적인 삶의 이야기들을 생생하게 들려주길 바랐어요. 지역살이 프로그램 참여 청년들이 이후에 창작 상인으로서 강진에 살게 되었을 때의 예고편을 보는 느낌이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었고요.

실제로 이 창구를 통해 많이 연결되더라고요. 저 또는 '창작상단'과 기본 연결고리가 만들어지고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최소 6~7명의 청년 호스트들과 다양한 정서적인 관계가 겹치고 겹쳐지면서 관계와 기회는 확장되고 소속감과 마을에 대한 애착은 더욱 깊어지는 게 느껴졌어요.



Q. 강진에서 새롭게 이루고 싶은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핫한 디자이너들이 오는 프랑스 디자인 워크숍 '보부쉐(Boisbuchet)'를 모티프로 해서 한국에서 예술 워크숍을 열어 새로운 것들을 해보고 싶어요. 보부쉐 워크숍은 매년 프랑스 작은 마을에 있는 한 고성에서 '디자인'이라는 공통 키워드 아래 매년 다양한 사람들을 모으고 다양한 시도를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그 다양한 주체들의 가지각색의 시도들은 아주 기상천외하고 각양각색의 작업물로 탄생하는데 이게 아주 매력적으로 다가왔어요.

또한 여기서 중요하게 봤던 부분은 사람들이 주어진 주제나 미션을 중심으로 자신만의 정의를 내리는 과정에서 자신의 삶의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도 드러난다는 점이었는데요. 저희는 이 맥락을 갖고 와서 디자인이 아닌 예술 치유로 풀어보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첫해 워크숍의 주제는 '회복탄력성'에 관한 이야기에서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조금 전형적일 수 있지만 쉬운 말로, '행복'이라는 주제로 확장되었고요. 이 주제를 새롭게 조명하여 자신의 삶으로 적극적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청년 '창작자'들이 워크숍의 리더 혹은 참여자가 되어 본인의 서사를 풀며 새로운 작업의 전환점을 경험한다면 이들의 삶에서 병영은 어떤 형태로든 계속 함께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Q. 강진만의 유무형 자원들은 무엇일까요?

'예술 치유'라는 도구를 가지고 지역의 이야기를 제 관점에서 조명하여 '창작상단'이라는 청년마을이 탄생한 것처럼 앞으로 이곳에서 청년들의 관점과 지역이 만들어내는 새로움의 레퍼런스들은 훨씬 더 많아질 거예요. 강진에서는 '다산의 정신' 이런 현수막을 심심찮게 볼 수 있는데 지역 주민들에게는 이토록 낯익은 것들이 외부에서 온 청년들에게는 특별하거나 독보적인 시작점으로 다가오거든요. 실제로 저에겐 정약용이 이곳에서 남긴 많은 저서들을 물론이고 마을의 6070대 어르신들의 30~40년 전 이야기들도 모두 굉장히 매력적인 자원이고요. 이 모든 것들은 너무나도 귀한 창작의 재료예요.

앞으로 좀 더 많은 청년 창작자들이 이런 자원들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어느 마을에나 있을 것 같지만 어느 마을에도 없는 이야기들로 애니메이션, 프로그램, 행사 그리고 에세이 등으로 재해석하는 다양한 모습들을 보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 지역에 축적되어온 것들은 이미 생명력을 잃은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창작 스피릿'을 가진 청년들이 감동하여 새로운 품을 들이기 시작하면 다시 깨어나서 놀라운 일들을 해내기 시작해요. 그리고 저는 그런 일들을 우리 창작상단이 해낼 거라고 생각하고요.



Q. 폐 공간을 드디어 오픈하셨어요.

이 공간은 시장 한가운데에 계속 비어 있는 상태였는데, 청년마을을 하게 되며 저희가 공간을 기획할 수 있었고 '남상객잔'이라는 거점공간으로 재탄생하게 되었어요. 처음부터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다 갖춰진 상태로 완벽하게 해낼 수 없으니 작은 실험들을 다 해볼 수 있는 공간을 기대하며 만들었어요. 도시재생에 'DIT'라는 재밌는 개념이 있어요. '두 잇 투게더Do It Together'의 줄임말인데 마치 이 단어처럼 우리가 지역에서 해결하고 싶은 문제를 실현 가능한 사이즈부터 함께 하나씩 실천해 볼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더불어 이 공간이 병영으로 들어가기 전, 중간지대 역할을 할 수 있는 정체성을 가졌으면 했고요. 그래서 마치 해리 포터가 호그와트 가기 전에 비밀의 문을 통과해서 가는 것처럼 여기까지는 현실 세계지만 통과하면 '어나더랜드(Another Land)'로 갈 수 있다는 콘셉트로 만들었어요.

'어나더랜드'는 내년부터 우리가 만들어나갈 청년마을의 이름이에요. 그 청년마을을 만드는 주체가 '창작상단'이고요. 우리가 급이 다르다고 할 때 '어나더 레벨(another level)'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이런 표현에 더해서 독특한 병영의 풍경과 분위기를 떠올렸을 때 마치 뭐든 해볼 수 있는 꿈과, 상상이 살아있는 곳이라는 느낌을 주고 싶어 '랜드(Land)'라는 단어를 선택했어요.



Space Impact #8

작은 술 비즈니스들로 연결해 이루는 '술(익는)마을', '로컬 생태계'

군산 청년마을, '술익는마을'의 조권능 대표 이야기

군산을 사랑하여 역사로 남아있는 군산의 '양조산업'을 다시 활용하고자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사업에 나선 청년이 있습니다. '술'을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와 로컬 비즈니스 카테고리를 만들어 마을을 하나로 연결하고자 '술익는마을'을 시작한 조권능 대표입니다.

로컬과 청년, 로컬과 사업, 로컬과 로컬 등을 연결 지어 신개념 '로컬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술익는마을의 이야기입니다.

Q. 술익는마을을 시작하신 계기가 궁금해요.

고향이 군산이라 이 지역을 살리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군산을 애정 하는 마음으로 마을을 바꾸고자 하였는데 콘텐츠를 찾는 것이 어려웠어요. 미술을 전공했다 보니 동네를 예술적으로 바꾸고 싶다는 생각을 해 '군산의 홍대'를 만들고자 했죠.

그것을 시작으로 군산에서 미술 전시회, 영화 제작 등 다양한 기획자들과 함께 기획 프로그램을 진행했어요. 젊은 친구들이 많이 모였고 주민분들과 함께 커뮤니티 프로그램도 진행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계속 진행을 하다 보면서 홍대에서 봤던 것과는 다른 모양새로 진행이 되더라고요. 또한 수입이 일정치 않아 함께 하는 사람들에 대한 걱정도 되었어요.

그러던 중 홍대의 문화가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카페 안에서 술도 팔고, 전시나 공연을 진행하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흔히 볼 수 있는 환경이지만 그 당시에는 획기적이었어요. 그렇게 점점 복합문화공간이 생기기 시작해서 저희도 군산에서 같은 방향으로 변화를 주어야겠다 생각했어요.

저희가 군산에서 활용하던 작업실을 카페로 바꾸어 젊은 친구들이 모여 아티스트들과 협업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기 시작했어요. 카페가 잘 되자 작은 F&B 매장이나 리테일 사업으로 가야 동네가 전체적으로 바뀌겠다 생각이 들어 칵테일바를 열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술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오랜 시간 카페와 바를 운영하다 보니 자연스레 이 분야에 전문가가 되어 있었어요. 도시재생 방식의 비즈니스가 지역에 중요한 거점 역할을 한다는 사실 또한 점점 확산되면서 이 분야를 전문분야로 인정해 주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술을 집중적으로 다루게 될 때까지 10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어요.

카페와 칵테일바를 운영하고 있었지만 처음부터 '군산'과 '술'을 콘텐츠로 이을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군산을 저의 시야로만 바라보고 아는 것만 다루려고 해 새로운 콘텐츠를 생각해 내기가 어려웠는데 우연히 글을 읽으며 외부인의 시선으로 바라보았을 때 군산이 양조장으로 유명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마을 단위로 '영화동'이라는 공간에서 시장 로테이션 프로그램을 진행했어요. 다양한 레스토랑이나 칵테일바, 카페 등을 같이 할 수 있는 팀을 모아 함께 마을을 개발했어요. 단순히 F&B 매장이 아니라 로컬의 콘텐츠를 찾아내 술과 결합하여 하나의 사업을 만들고 또 다양한 사업이 모여 상업권을 만들어 이곳이 발전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역사를 활용하여 군산을 살리는 콘텐츠를 찾아 나서서 과거에 머물러 있는 군산 양조산업과 제가 진행해왔던 술을 가지고 연결 지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예전에는 바에서 '서비스'하는 것에 집중하였다면 이제는 술을 만드는 양조장에 집중하게 되었어요.

Q. 기존에 군산에 있던 양조 소프트웨어와 휴먼웨어를 활용해 어떤 새로운 방법을 발견하셨나요?

1950, 60년대에는 한국 산업에서 양조산업이 가지는 비중이 컸어요. 그리고 주류산업을 이끈 업체 중에 한 곳이 군산에 있는 엄청나게 큰 양조장이었어요. 술익는마을에서 주로 다루는 '청주'는 아직까지도 군산에서만 생산을 해요. 기술력이 100년 동안 군산에 보존되어 있었다고 보면 돼요.

전통주 양조장들을 많이 돌아다니고있어요. 청주를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들과 소통하고 그분들의 기술과 양조장을 접목시키는 방법을 구색하고 있어요. 청주는 쌀 100프로로만 만들어져야 한다고 법으로 정해져 있어 만들기 까다로운 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전통주 중 청주를 진행하는 곳이 거의 없어서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보통 전통주는 누룩을 사용해 발효를 시키고 누룩향을 넣거나 쌀에서 당도를 빼내어 설탕을 첨가해 단 맛을 내는데 청주는 3번의 여과 후 쌀이 가진 단 맛을 끌어내야 하기에 더욱 어려워요. 쌀 도정율에 따라 단 맛이 달라지기 때문에 고급 기술력이 필요해요. 오랜 기간 사용된 고급 기술을 활용하되 군산만의 로컬성을 가진 술의 형태를 만들어 독자적으로 군산만이 가질 수 있는 분위기, 'K-술'을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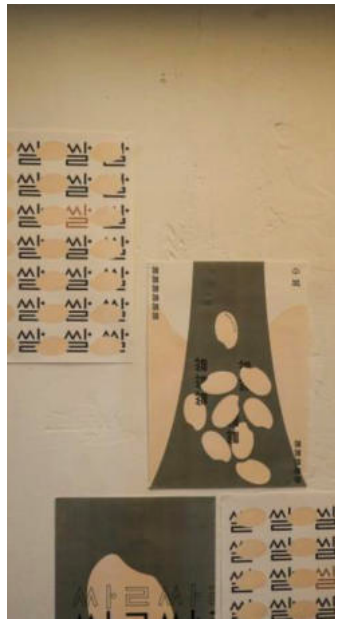
Q. K-술이라고 표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는 무엇이 있을까요?

발효 과정에서 어떤 전통적 방식을 추가할지가 관건일 것 같아요. 단 맛을 내기 위해 설탕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한국만의, 그리고 군산만의 특별한 방식을 만들어 K-술이라고 브랜딩을 할 계획이에요.









Q. 술익는마을을 소개해 주실 때 '수제'라고 표현하셨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해요.

지방 소도시를 혁신 시키는 모델은 결국 청년들, 크레이터들, 작은 브랜드들 등이 작게 하는 사업들이라고 생각해요. 청년들을 모아 다양한 방식의 시도를 통해 군산 술이라는 카테고리를 만들어갈 양조인들을 세우고, 그들이 만들어 나갈 다양한 맛의 술들이 '수제'가 가지는 매력 포인트를 잘 드러내는 것 같아요.

또한 '술익는마을'이라는 타이틀을 내 건만큼 술만 만드는 것이 아닌 술과 관련된 어떠한 콘텐츠로 군산 동네를 채워 나가야 해요. 이 모든 것은 DIY(Do It Yourself)라는 '수제 방식'이 중요해서 쌀을 활용해 술을 만들고 남은 찌꺼기를 활용해 화장품, 캔들, 베이커리 등 다양한 형태의 사업들로 확장시키는 가능성 부분에서 '수제'라는 영역을 강조했어요.

실제로 1기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가게 오픈'을 목표로 했어요. '문 닫힌 청주바를 열어라'라는 주제로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그 안에 브랜딩팀, 큐레이션 팀, 바텐딩팀 등 다양한 기술과 술을 연결하는 방식을 활용했어요. 2기에는 술의 확장성이 어디까지 넓혀질 수 있는지를 연구하기 위해 '글로 술쓰다'라는 콘텐츠로 '술'을 주제로 에세이, 시, 인스타툰 등 장르에 상관없이 이야기를 쓰는 창작활동들을 아카이빙 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Q. 술과 인문학을 결합하는 등 술로 다양한 유의미한 콘텐츠를 만들어 술에 대한 고정관념을 깰 수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어떤 콘텐츠를 더 만들어 나갈 계획이신 가요?

'글로 술쓰다'를 하며 자료를 수집하고 편집 중이에요. 책에서 발췌된 내용을 보고 저희와 함께 깊이 있는 콘텐츠를 만들고 싶어 하는 분들이 찾아오길 기대하고 있어요. 그렇게 군산에 함께 술에 관한 콘텐츠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외부 청년의 시각으로 보면 새로운 콘텐츠들이 쏟아져 나오거든요.

이번에 홍대 근처 술집으로 청년들과 견학을 다녀왔어요. 그곳에서 술 시음회를 진행했는데 마포의 역사와 술 역사를 조선 왕조부터 연결을 지어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스토리로 잘 풀어내니 술 하나로 콘텐츠화가 된다는 것에 다시 한번 깨달음을 얻었어요.

저희도 저희의 이야기를 정리해서 카테고리로 만들어 아카이빙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 청년들과 함께 발굴하고 있어요. 각자 가지고 있는 콘텐츠로 전개를 해 나가면 또 다른 콘텐츠가 생겨날 수 있기에 우리 마을에만 사용할 수 있는 스토리와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것이 저의 목적이에요.

콘텐츠를 발전시키기 위해 청년들, 특히 외지 청년들이 본인이 원하는 것을 하도록 지지해 주고 있어요. 당사자가 원하는 형태로 해야 무궁무진한 발전이 나올 수 있거든요. 외지 청년들이 무심결에 던진 한마디에서 포인트를 잡은 경우가 많아서 최대한 그들의 자유를 확보하고 도와주는 것이 이 사업의 핵심이에요. 외부인들이 직관적으로 풀어내는 무언가가 이러한 군산의 개방성과 만났을 때 시너지가 있어요. 외부인의 시선으로 풀어내서 사람들이 쉽게 오고 갈 수 있는 동네를 만들고 싶어요.

Q. 양조장을 통해 구체적으로 계획하신 꿈이 있을까요?

아직 큰 그림은 그려보지 않았지만 마을을 만들어 마을 전체를 술과 관련된 형태로 만들고 싶어요. 첫 번째로 육성할 청년들은 이 지역에서 선술집이나 이자카야 등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을 학생으로 모셔 양조 교육을 진행하고 싶어요. 양조인들이 모여 제품을 만들면 술을 기반으로 생겨나는 다양한 콘텐츠들이 동네를 가득 채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제가 원하는 '술익는마을'이 자연스럽게 탄생할 수 있어요.

술익는마을에서 나오는 탭 하우스 형태가 외부로 나가는 모델이 될 거예요. 그렇게 점차 뿌리를 내려가며 마을을 형성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청주를 파는 여러 가게가 있다고 할 때, 10개의 집이 한곳에 모이면 한 가게에서 그 다양한 형태의 10개의 주류 제품을 맛볼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처럼 로컬 산업에서 발생한 제품과 동네의 이야기를 연결 짓는 역할을 술익는마을이 하고자 해요.

동네의 세계관이 제품에 잘 담기게 되면 글로벌 기업으로도 성장할 수도 있게 되겠죠. 생주는 군산에서만 마실 수 있고, 제품은 전국 곳곳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어요. 또한 청주 탕을 만들어 프라이빗하게 즐길 수 있도록 만들고 청주를 활용해 화장품도 만들며 동네의 모든 것을 연결하고 싶어요. 로컬 생태계를 만들고 싶은 거죠.



Q. 술익는마을을 통해 마을에 보이는 변화가 있을까요?

청년마을을 시작하고 기존에 있던 청년들과 새로운 청년들의 커뮤니티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청년들 사이에 세대교체가 이루어져서 주축 세대가 20대 중반~30대 초반으로 변화하였어요. 이들로 인해 동네의 분위기가 변화하여 이곳의 발전을 도와주고 싶어요.

Q. 술 익는 마을이 어떠한 마을로 성장하기를 바라시나요?

'술'이라는 하나의 콘텐츠를 잡아서 '술익는 마을'이라는 콘셉트로 공간을 채워나가고 있어요. 더욱 창의로운 마을을 만든다면 저는 술로 콘텐츠를 잡았지만 저의 행보와 술익는 마을 사업의 비즈니스 확장을 보는 다른 청년이 군산의 새로운 콘텐츠를 찾았으면 좋겠어요. 색다른 다양한 마을이 생성되어서 마을들이 서로 연결되어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로 로컬을 가득 채우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다양한 세계관으로 만들어지면 좋을 것 같아요.

Space Impact #9

할머니의 요리와 인생 레시피, 공간으로 탄생되다



함양 청년마을, '고마워,할매'의 박세원 대표 이야기

많은 청년들이 함양에 정착할 수 있도록 레시피를 제공하는 청년.

"다양한 재료를 잘 다루어 어우러지게 하나의 요리가 되는 것처럼 마을이 여러 사람의 이야기가 잘 어우러져서 하나의 탄탄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요."

할머니와 청년, 두 세대가 하나 되어 소통할 수 있는 마을을 꿈꾸며 요리 레시피와 인생 레시피를 한 번에 전수받고 있는 고마워,할매의 박세원 대표입니다.

Q. 할머니께 레시피를 전수받는 과정은 어땠나요?

할머니께 레시피를 배우는 목적이 요리를 잘하기 위해서 메뉴를 개발하기 위해서가 아닌 할머니들과 친해지기 위해서였어요. 할머니와 청년이 친해지기 위해 그리고 이 지역과 외부 청년들이 친해지기 위한 단계로 요리를 배우게 되었어요.

보통 사람들이 밥을 먹으며 친해지는 것처럼 요리를 배우면서 친해지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시작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제가 살던 동네의 할머니들과 친하게 지내면서 레시피를 배웠어요. 레시피를 배우며 요리가 정성이 담긴다는 것을 몸소 느끼면서 할머니들의 요리를 더욱 소중히 바라보게 되었어요. 또 할머니들의 레시피가 정해진 게 없어 보일 수 있지만 그 안에 규칙이나 철학이 있는 것을 배우면서 할머니에 대해서도 배우고 알게 된 것들이 있어요.

할머니께서 평생 요리를 하셨지만 남에게 본인의 레시피를 공유하고 가르쳐 주는 것이 색다르게 다가와 보람을 느끼시며 자존감도 향상된다고 하시더라고요. 할머니께서 "내가 청년들에게 레시피를 알려주려고 지금까지 살았구나."라고 말씀하셨는데 인상이 깊었어요. 할머니들은 계속 사시던 동네에 계속 살고 계셨는데 청년들이 찾아와 함께 프로젝트를 하는 거라서 할머니들의 삶에 저희가 더 깊숙이 들어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런 부분에서 레시피가 할머니들과 이야기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되었다고 봐요.

함께 소통하면서 할머니와 청년이 공감대가 있을지 고민이 되었고 또 정적인 분위기만 있을 줄 알았는데 연령대가 다르더라도 통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같은 여자라는 공감대도 역할을 했죠. 물론 세대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교감이 된다는 것에 신기했어요.





Q. 애착이 가거나 할머니의 스토리가 들어있던 레시피가 있을까요?

대부분 할머니의 스토리보다는 지역적 특성이 드러나는 요리를 했어요. 함양에서 많이 먹는 고추 다대기나 양파김치 등 지역의 특색이 돋보이는 요리, 할머니만의 레시피를 활용한 청국장이나 보리밥을 배웠어요.

1기 때 양파김치 레시피를 배웠는데 요즘 유행하는 SNS 챌린지처럼 번갈아 가면서 양파김치를 만든 후기를 SNS에 업로드했어요. 외부 이모가 와서 양파김치를 먹어보고 맛있다고 레시피를 알려 달라고 하셔서 레시피를 가르쳐 드리기도 했어요. 실제로 저희가 레시피를 배워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하는 과정을 경험했어요.

함양에서만 먹던 양파김치를 서울 사람 혹은 도시 사람들이 맛있어하고 궁금해하면서 점점 레시피가 확산되는 것을 보고 신기했던 기억이 나요. 실제로 레시피를 전수해 주셨던 할머니들도 함양 토박이분들이 아니고 함양으로 시집온 분들이셨는데 청년 시절 함양에 정착하고 저희에게 함양의 문화를 전파하는 것처럼 저희도 청년으로 함양에 와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음식뿐만 아니라 할머니만의 인생 레시피도 배울 수 있었어요. 할머니들과 함께 교류를 하며 포근함과 코믹함을 경험했어요. 음식으로만 레시피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할머니들에게 전수받을 수 있는 레시피가 정서적인 것이나 인생의 교훈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예로 할머니들의 시집살이 경험을 토대로 "떠돌이 만나면 안 돼", 혹은 우스갯소리로 "남자를 만날 때 조심해야 된다" 등 이야기해 주실 때 재미있어요. 사람을 대할 때의 예의나 노하우도 할머니들의 인생 레시피를 통해서 배울 수 있어요. 3기에 만났던 할머니께서 "사람마다 그릇이 다 있다. 그 그릇에 맞는 역할과 행동이 있다"이런 조언들을 해 주셨는데 음식을 배우는 동시에 삶에 대한 농축된 이야기들, 통찰력과 철학들을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어르신들의 지혜가 일상생활에서 필요한데 이곳에서는 일상에서 배울 수 있어 좋아요.

또한 할머니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게임이나 문화도 배웠어요. '민화투'라는 게임이 있는데 할머니들께서 치매 예방으로 치기 시작하신 것을 놀이 문화로 만들어 두 세대가 함께 공유하며 친하게 지내는 것이 인상 깊었어요. 3기 때도 치매 예방으로 윷놀이를 진행했는데 윷놀이와 청년의 아이디어를 합쳐 할머니들의 두뇌 발전, 치매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변형시켜 재미있는 놀이로 만들고 싶다는 아이디어도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Q. 레시피로 어떤 콘텐츠를 기획하고 계시나요?

올해는 다이어리랑 캘린더를 만들고 싶어요. 주로 할머니들의 레시피에 제철 나물이나 제철 식재료가 나오니까 월별로 제철 음식에 관해 소개해 드리는 다이어리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청년들도 다이어리를 쓰면서 할머니들의 레시피를 참고할 수 있고 해당 월에 레시피를 활용할 수도 있어 좋을 것 같아요. 다이어리 내에도 각 스토리를 첨부해서 더욱 알차고 재미있는 다이어리를 만들고 싶어요. 아직 '고마워,할매'를 모르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다이어리를 통해 저희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할머니들의 정체성이나 유머를 담은 말씀을 할머니의 손글씨로 적어서 한 쪽에는 레시피를, 한 쪽에는 '할머니의 한 문구'를 적어 다이어리에 차별점을 더하고 싶어요. 감동과 재미를 담은 다이어리를 만드는 것이죠.

달력은 4기 친구들과 함께 조만간 진행해 보려고 생각 중이에요. 남계마을에 할머니들이 자주 가시는 장소가 있는데 그 공간을 할머니와 함께 그려서 그 그림으로 달력을 제작하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큰 콘텐츠로는 할머니와 함께 계절별로 하는 식당을 운영하고 싶어요. 요일별로 할머니들이 돌아가면서 식당을 운영하시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또 하나의 스토리가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식당 앞에는 '오늘의 할머니'라고 써두고 할머니 성함과 레시피, 스토리, 메뉴 등을 설명하는 팻말을 두고 싶어요. 할머니들과 함께 식당을 운영해 나간다는 것을 최대한 표현할 수 있게 식당을 꾸미고 싶어요. 내년에 진행하는 것이 목표예요.

식당 운영을 통해 할머니들도 새로운 일자리를 갖고 가치적인 일을 하실 수 있어 서로에게 좋은 프로젝트라고 생각해요. 또 청년들에겐 정착을 하는 데 있어 수입이라는 현실적인 부분을 어느 정도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봐요.

식당을 계속 진행하기 보다 요즘 유행하는 팝업스토어처럼 DIT로 공간을 꾸며 프로젝트성 식당을 운영하고 싶어요. 프로젝트가 끝나면 할머니들과 번갈아 가며 메뉴를 바꿔 요리를 하거나 함께 레시피를 개발해 한 달 동안 팝업식으로 영업을 하는 평범하지 않은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기획하고 있어요.

더 자리를 잡은 후에는 함양의 지역적인 한계를 뛰어넘는, 치유나 회복을 중점으로 요리보다 '식당'이라는 '공간'에 차별점을 두어 콘텐츠를 제작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처음 기획할 때 '함양에 들소리'라는 노동요를 알게 되었어요. 여성이 들판에서 밭을 매면서 부르는 노래를 계절별로 묶어놓은 것이더라고요. 저희 청년마을과도 잘 어울려서 식당을 오픈하게 된다면 이러한 노래에 맞추어 계절별로 다른 밥상을 제공해 노래와 요리를 통해 공연식으로 진행하고자 해요.

공간도 콘텐츠를 잘 담을 수 있는 공간을 찾고 있어요. 할머니들이 나물을 캐셨던 곳, 요리를 하셨던 곳처럼 연관된 곳으로 정하면 한적한 공간이더라도 사람들이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해요.

Q. 할머니들의 일상에서는 고마워,할매를 통해 어떠한 변화가 있었을까요?

지금은 코로나 시기이기 때문에 마을회관도 이용을 못하셔서 정자에서 시간을 대부분 보내세요. 마을이 조용하고 함께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없어 주민 간 교류가 없었어요.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지만 에어컨이 없어서 여름에 너무 더워 이용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할머니들을 찾아뵙고 이야기를 하면서 할머니들의 일상에도 활기를 불어넣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저희도 할머니들과 함께 해서 좋고 언제든지 정자에 가면 할머니들이 계셔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을 때마다 정자로 향하곤 했어요. 갈 곳 없어 향했던 정자가 이제는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모이는 곳으로 변화하였어요.

처음에는 할머니들이 이용시설에 들어갈 수가 없어 정자에 계셨는데 요즘에는 청년들이 할머니를 찾아올까 봐 정자에서 쉬고 계시더라고요. 또 저희는 시장에 있으니까 시장에 오시면 마을에 놀러 오라고도 이야기를 건네주시며 친근감을 표현해 주세요. 저희는 직접적으로 느낄 수 없어도 할머니들의 일상 속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지역적으로도 많이 분위기가 바뀐 것 같아요. 아직은 지역 내에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데 외지에서도 취재를 많이 왔어요. 장소가 애매하다 보니 행사를 크게 한 적이 없는데 이제는 크게 해서 할머니들과 함께한 과정과 그 결과물 등을 알리고 싶어요.

아직까지는 청년마을 사업이 생소하지만 할머니들이 삶의 새로운 변화와 청년들과의 교류가 필요하다는 것은 확실해요. 그래서 청년을 포커스 하기보다 할머니들을 위해 청년과 함께 교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달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싶어요.

또 원래 함양에는 청년 단체가 없는데 저희랑 소통하던 기자님께서 청년 단체를 만들어 함께 이야기를 전해도 좋겠다는 생각을 전해주셨어요. '이소'라는 청년 단체를 통해 저희가 활동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저희를 통해 지역이 변화하기를 바라고 있어요.





Q. '이소'라는 청년단체와 고마워,할매가 함께 했을 때의 시너지는 어떤 모습인가요?

3기 때는 이소랑 콜라보를 진행해 함께 지리산 산책길 등산을 했어요. 저희 참가자와 이소 멤버가 일대일로 대화하며 걸어가는 시간을 보냈어요. 평소에는 할머니 혹은 지역민과 이야기하다 또래 청년들을 만나게 되어 보다 깊은 이야기를 하고 정착에 대한 고민을 나누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실제로 겨울까지 머물겠다고 말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할머니들과의 활동도 좋지만 청년들이 이 지역에 정착하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고민 하고 제시해 줄 수 있는 친구들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로 함께 하이킹에 참여했던 분 중 남자 간호사분이 계셨어요. 함양에 있는 병원에서 근무하시는 간호사였는데 고마워,할매 참가자에도 간호 근무를 하다가 퇴사를 하셨던 분이 있었거든요. 신기하게도 두 분이 병원에서 맡은 업무가 동일해서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함양에 거주하면 일자리를 알아보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참가자인 청년도 막연히 자연이 좋아서 함양에 오게 되었는데 이곳에서 미래를 계획해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일을 할 공간이 있으면 거주하는 데에 꼭 필요한 요소가 해결이 된 것이니까요. 이런 전문적인 직업분야는 저희가 해결해 줄 수 없는데 지역 청년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었어요.



Q 요리 외에도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이 있을까요?

2기 때는 농가의 상세페이지와 홍보 영상을 제작해 드리는 작업도 같이 했어요. 컴퓨터나 편집 기술이 필요한 일을 함양에서도 해야 하는데 그러한 분야를 잘 하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할머니와 요리로 만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으로 도울 수 있다면 그것 또한 할머니들과 소통할 수 있는 매개체라고 생각해요. 식당을 운영해 나갈 때에도 요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빙, 홍보, 콘텐츠 기획 등 할 일이 다양한데 그 작업들을 같이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청년들과 함께 하고 싶어요.

영상을 제작하거나 일러스트를 그리는 일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함양에서 작업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일을 하며 함양에도 도움이 되고 본인의 커리어도 쌓을 수 있으니까요. 군 단위에서는 이러한 지원 사업이 많아서 농장에서 홍보물 제작을 의뢰하고 청년들은 그 일을 통해서 돈을 버는 등 상부상조하며 함께 지낼 수 있어요.

Q. 고마워 할매가 함양에서 어떤 레시피를 만드는 청년 마을이 되었으면 하시나요?

요리의 경우 재료를 잘 다뤄서 하나의 음식을 만들게 되는데 마을은 '사람을 잘 다뤄서 하나의 인간을 완성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할머니와 청년, 두 세대가 잘 어우러져서 한 마을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요리도 여러 가지 재료가 어우러져서 한 요리가 되듯이 마을이 여러 사람의 이야기가 잘 어우러져서 하나의 완성품이 된다는 목표를 가지고 기획해 나가고 있어요. 그 결과 '성장된 나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022 Y-LOCAL CONFERENCE
청년이 미래
정
국무총리상
축
김영진 위원장님 축하드립니다♥


LOCAL IS FUTURE
LOCAL IS FUTURE
마을을 경영하는 매니지먼트 농촌 라이프스타일
BRANDING
story telling
공간 컨셉/철학
건축 컨셉
메뉴 컨셉
SESSION 3.
이지현



2022 청년마을 만들기 임팩트 스토리

발 행 일 2022년 12월

발 행 인 최 훈

발 행 처 행정안전부

주 소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717호(어진동) 행정안전부 제1별관

전 화 044-205-3450

홈 페 이 지 www.mois.go.kr

기 획 ㈜모라비안앤코

디 자 인 와이앤씨

Copyright ©2021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All rights reserved.
이 책에 관한 모든 권리는 행정안전부에서 소유합니다.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이 책에 실린 글과 사진, 그림 등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